

# 신앙과 학문

*Faith & Scholarship*

제29권 제1호 (통권 98호) / 2024. 3

# 신앙과 학문

제29권 제1호 (통권 98호), 2024년 3월호

발행일 2024년 3월 31일

발행처 기독교학문연구회

발행인 김태황 (명지대학교)

편집인 박해일 (경희대학교)

디자인 이지은

인쇄 (주) 에스제이피앤비

등록 141-81-36939

주소 06367 서울시 강남구 광평로56길 8-13, 910호

기독교학문연구회

전화 02-3272-4967

팩스 0303-0272-4967

전자우편 gihakyeon@gmail.com

홈페이지 <http://www.worldview.or.kr>

<http://fs.jams.or.kr>

ISSN 1226-9425

정가 15,000원

■ 일반 논문

- 005 기독교대학 ‘인성교육’을 위한 도서관 역할에 관한 사서 인식 연구 | 이성숙 / 구정화  
 Librarians’ Perceptions of the Roles of Libraries in Supporting ‘Character Education’ at Christian Universities | Sung Sook Lee / Joung Hwa Koo
- 045 기독교 세계관으로 본 신앙과 학문의 통합에 관한 고찰: 헤르만 도여베르트의 사상을 중심으로 | 최용준  
 A Research on the Integration of Faith & Scholarship from the Christian Worldview: focusing on the thought of Herman Dooyeweerd | Yong Joon (John) Choi
- 067 다윗의 딸 다말이 경험한 트라우마 분석 및 치료적 함의 | 이해루/ 김규보  
 Analysis of Tamar’s Trauma and its Therapeutic Implications in Theodrama | Haeru Lee / Kyu Bo Kim
- 089 ‘대안학교 등록제’ 도입에 따른 변화와 기독교대안학교의 나아갈 방향 | 이종철 / 김지혜  
 Changes following the introduction of the ‘alternative school registration system’ and the future direction of Christian Alternative School | Jong Chul Lee / Ji Hye Kim
- 115 조손가족 조모의 적응 과정 분석 - 기독교 상담 관점의 질적 사례연구 | 박안나 / 김 준  
 Analysis on the Adaptation Process of Grandmothers in Grandparent-Headed Families : A Qualitative Case Study from the Perspective of Christian Counseling | Anna Park / Jun Kim
- 159 기독교인의 종교적 서사정체성과 영적 웰빙 간 종교성향의 매개효과 | 장상원 / 김혜민 / 허유진 / 이윤희 / 박선웅  
 The mediating effect of religious orientation on the relation between religious narrative identity and spiritual well-being among Christians | Sang Won Jang / Hyemin Kim / Yujin Huh / Yunhee Lee / Sun W. Park
- 185 다원적 자유 민주주의 사회에 적합한 종교교육 유형 탐구 | 정문선  
 Exploring types of religious education suitable for a plural liberal democratic society | Moon-Sun, Jung
- 209 실시간 화상회의 기반 유아 제자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머니의 경험 탐색: 사회정서인성 성경이야기 활용 | 마은희  
 Exploring the Experiences of Mothers Attending a Zoom-based Discipleship Program for Young Children: Using the Bible story about Social-emotional Character | Eunhee Ma
- 235 지역교회에서의 다문화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 외국어예배부 봉사자들의 경험을 중심으로 - | 강신아 / 최은정  
 A Phenomenological Study of Multicultural Experiences in Local Church: Focusing on the Volunteers’Experiences of Foreign Language Worship Services | Shin A Kang / Eun Joung Choi



# 기독교대학 ‘인성교육’을 위한 도서관 역할에 관한 사서 인식 연구\*

## Librarians’ Perceptions of the Roles of Libraries in Supporting ‘Character Education’ at Christian Universities

이 성 숙 (Sung Sook Lee)\*\*

구 정 화 (Joung Hwa Koo)(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ABSTRACT

The purpose of the research is to explore university librarians’ perceptions and perspectives regarding the optimal roles of libraries, representative and collaborative organizations supporting Christian character education within Christian universities. The research is significant for providing foundational data to redesign library roles and develop re-training courses for librarians in better supporting character education at Christian universities.

To achieve the goal, the research employs a mixed method approach, combining online survey and semi-structured interview with librarians in Christian universities. The survey consists of 43 questions covering five topics: demographic data, main contents of character education in Christian universities, the relationship between faith and occupation, core roles of libraries in supporting character education, obstacles in supporting character education, and re-training courses to overcome these obstacles. Additionally, interviews with five representative and professional librarians are conducted to explore the backgrounds and reasons behind their selections and perceptions.

Based on the findings, the research suggests practical approaches, detailing the preemptive roles and services that Christian university libraries should undertake. It also recommends basic directions for librarians’ re-training courses to support Christian character education

---

\* 2024년 2월 6일 접수, 2월 26일 게재확정  
이 논문은 2022학년도 한남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충남대학교(Chungnam National University) 문헌정보학과 교수,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99, infolee@cnu.ac.kr

\*\*\* 한남대학교(Hannam University) 문헌정보학과 교수,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남로 70, jhkoo@hnu.kr

should be provided. The research acknowledges its limitations and proposes further research topics for exploration.

**Key words:** Christian character education, librarians' perception, roles of library, Christian university, Christian university library, librarians' re-training

## I. 서론

###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기독교대학의 사명은 기독교적 가치관에 기반하여 이웃과 사회, 세계에 봉사하는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이며, 이를 위한 인성교육은 기독교대학의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이은성, 2017). 인성은 “사람의 성품 혹은 각 개인이 가지는 사고와 태도 및 행동 특성”이며(국립국어원, 2024), “한 인간의 사고와 행동, 관계성 등을 결정짓는 역동적인 특성으로서, 생래적이면서도 후천적으로 획득되 기도 하는 신체적, 정서적, 및 심리적 특성들의 총체”이다(이금만, 2011: 130). 인성교육에 대해 인성교육진흥법(법률 제17472호)에서는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인성교육의 8대 핵심덕목으로 ‘예(禮),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온전한 인간이란 인지적, 신체적, 정의적, 사회적, 영성적 요소들 사이에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조용훈, 2016). 인성교육진흥법의 인성교육 8대 핵심덕목에는 인성의 영적인 부분이 간과되어 있는데, 이는 인성의 불완전성을 초래한다. 따라서 일반적인 인성과 함께 인간의 영적인 부분도 함께 교육해야 하며, 이것이 바로 기독교 인성교육이다(김정희, 2016).

기독교대학뿐만 아니라, 일반 대학에서도 정규교과 및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한 인성교육에 관심을 쏟고 있다. 인성교육은 주로 교양교육과정의 영역 중 소양교육의 내용으로 다루어지고 있는데, 대학은 인성교육 관심 제고를 위한 대학 우수 인성교육 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대학의 인성교육은 대학 내 여러 소속 기관들이 협력해야 할 것이며, 대학도서관도 예외는 아니다. 대학도서관의 역할은 대학도서관진흥법(법률 제18547호)을 기반으로 하며, 제7조(대학도서관의 업무 등)에는 대학도서관이 대학의 교육 및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수행해야 할 업무를 언급하고 있다. 대학도서관은 대학의 교육 및 연구를 지원하므로, 교양교육의 일환으로서 진행되는 인성교육을 위한 관련 자료를 수집 및 정리하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같은 맥락에서 교육부도 대학도서관진흥법에 따라 제1차(2016-2018), 제2차((2019-2023) 대학도서관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였다. 제2차 대학도서관진흥종합계획의 추진 과제가 인성교육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며, 추진 과제 중 수업 및 학습 활동 지원 강화의 학생들의 기초소양함양프로그램 운영과 연구윤리학습은 인성교육과 관련이 깊다. 각 대학도서관들 또한 대학도서관진흥종합계획에 의한 발전계획을 수립하였다. 2019년 교육부가 수립한 제2차 대학도서관진흥종합계획을 바탕으로 국내 대학도서관들이 제출한 2020년 시행계획 및 2019년 추진실적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기초소양함양프로그램 운영면

에서 많은 도서관이 독서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이용재·이지옥, 2021).

그러나, 이들 대학도서관에서 운영해 온 서비스들은 대학의 인성교육과 어떤 연계성을 제시하지 못하고 진행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기독교대학의 설립 목표를 지원하는 대표적인 부속기관인 대학도서관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대학의 인성교육 목표와 어떤 연계성이 있는지는 고민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 그동안의 기독교대학의 인성교육에 관한 많은 선행연구들은 기독교대학 인성교육의 방향성과 실천, 대학도서관에서의 독서프로그램 개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기독교대학의 인성교육을 위한 대학 내 부속기관들과의 협력에 관한 논의들은 없었으며, 특히 대학도서관의 역할에 관한 논의도 전무했다. 기독교대학의 인성교육을 위해서는 부속기관과의 협력은 대단히 중요하며, 대표 부속기관 중 하나인 도서관이 대학에서 실시하는 인성교육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도서관을 운영하는 전문가 집단인 사서들은 기독교 인성교육과 이를 지원하는 도서관역할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현단계 기초조사에서부터 연구가 시작되어야 한다.

이런 배경하에, 본 연구는 기독교 진리에 기초한 인재들을 길러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 기독교대학에서 기독교 인성교육을 운영함에 있어 이를 지원하는 대표기관 중의 하나인 도서관은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사서들의 인식과 요구를 조사하였다. 이것은 일종의 기초조사로, 이 연구로 밝혀진 결과들은 기독교대학의 인성 교육을 지원함에 있어서 도서관의 역할을 재고하고 사서를 지원하기 위한 재교육 기초자료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크다 하겠다.

## 2. 선행연구

‘기독교대학의 인성교육’과 관련된 이전 연구들은 크게 네가지 주제 범주에서 진행되어 왔음을 알 수 있었다. ‘이론적 개념’을 토대로 한 인성교육 방향에 관한 제언, 사례중심의 기독교대학에서 인성교육 방법과 방향에 대한 제언, 기독교대학 인성교육의 효과를 검증하거나 그 측정 도구 개발과 관련된 연구 그리고 대학도서관과 관련하여 ‘독서교육’과 관련된 연구들이 주를 이루어 왔다.

구체적으로, 먼저 기독교대학에서의 인성교육에 관한 연구는 각종 이론적 개념을 토대로 인성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인성교육에서 성경적 제로 베이스의 사고를 논하거나(이기훈, 2004), 코메니우스의 교육사상에 기반하여 지성, 덕성, 영성의 통합적인 교육을 제안하거나(박민수, 2009), 정서 조절의 다섯 가지 방략의 기독교 인성교육에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성경의 가르침 및 사례와 연관지어 고찰하거나(주연수, 2015), 복음적 인성교육의 핵심 개념인 하나님 나라의 성육신적 영성 함양(최영근, 2016)을 강조한 연구들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두 번째 범주로는 특정 대학에서 실시한 인성교육 사례들을 중심으로 교육방안들을 제안한 연구들이다. 명지대학교 인성교육의 사례를 토대로 기독교대학의 인성교육의 모델을 제안하거나(구제홍, 2007), 각 기독교대학들에서 실시한 인성교육의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한 연구(조용훈, 2016), 기독교 정신의 구현으로서의 인성의 개념을 살피고, 경성대학교가 인성교육 특성화 대학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 연구(김충만, 2016), 명지대학교를 사례로 기독교대학 인성교육의 전략을 제시한 연구(정대경, 2019)들이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이 사례 연구들 중에는 인성교육 교과 및 비교과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진행한 연구들이 다수 있었는데, 교양과 필수 과목인 '인성 및 직업윤리'를 위해 교재를 개발하고 효과성을 검증하거나(이종민, 2016), 계명대학교의 인성교육과목을 사례로 새로운 복음적 인성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허도하, 2016). 또한, 기독교대학 인성교육 교양과목의 전략적 운영방식을 논의하고(이은성, 2017), 기독교 인성교육을 위한 융합형 기독교 인성교육프로그램의 모델을 제시하거나(박미라, 2020), 디자인 씽킹, 공감과 공동체의 헌신, 사회공헌적인 요소를 기독교 교양과목에서 융복합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으며(윤성민, 2020), 소설 교육을 통한 기독교 인성 역량 함양의 가능성을 고찰하거나(조경덕, 2020), 기독교 인성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 모델을 제시하고(김대인, 2021), 인성 함양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의 성찰저널을 분석하여 교육적 통찰과 프로그램의 고도화 방안을 제안하였다(이성아, 2021). 인성에 대한 사변적이고 성찰적 이해에 초점을 둔 교과와 실제 사회적 상황 속에 성찰적으로 참여하는 이해에 초점을 둔 교과개발을 제안하거나(박향숙, 2022), 한남대학교 기독교 대학합창단 '실레스트'의 사례로 기독교 대학합창단을 통한 대학생들의 인성함양 방안을 고찰하고(오세홍, 2022), 노작과 서클 대화를 통한 기독교적 인성 수업을 개발한 연구(유승민·유재봉·안은경, 2023)도 여기에 속한다 할 수 있다.

이뿐 아니라, 인성교육의 장으로서 채플에 관한 사례연구들도 다수 존재했다. 지·정·의 그리고 영적 영역에서 채플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 연구(김소연, 2012), 기독교대학의 채플과 기독교인성과의 연관성, 기독교인성 함양에 미치는 요인, 채플의 만족도와 참여도가 기독교인성에 미치는 영향, 기독교인성과 복음화율과의 연관성을 고찰한 연구(한만오, 2016), 백석대학교 교목실의 채플을 사례로 기독교인성을 함양을 위한 방법을 제안한 연구(김대인, 2020)가 있다. 이렇듯 인성교육과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가 각 대학에서 운영되었던 사례들을 분석함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사례연구가 주를 이루며 발전해 왔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인성교육의 효과에 대한 검증과 측정도구에 관한 연구도 일부 진행되었다. 기독교 신앙인 격형성 훈련의 관점에서 인성 및 섬김의 훈련에 대한 기독교교육적인 효과를 검증한 연구(함영주,

2017), 기독교 교양 과목이 학생들의 인성 함양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연구(김춘이, 2017), 대학생용 기독교 인성 측정도구를 개발하고 타당성을 검토한 연구(김성원, 2019)가 대표적이다.

끝으로, 대학도서관의 인성교육과 관련된 연구로는 독서활동과 관련된 사례연구가 인성교육 사례연구만큼이나 주를 이루었다. 개별도서관에서 진행된 독서 프로그램 사례를 소개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한 연구(고종호·정혜승, 2012; 2015; 박영철, 2014; 한가숙, 2014; 최영식, 2014; 양주성, 2014; 윤주영, 2015; 임보람, 2019; 권현지, 2021)들이 다수 진행되었다. 한편 대학생들에게 자기 성장적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발달적 독서치료 주제목록’을 제시한 연구(이현실, 2010), 대학도서관에서 대학생 독서지도 방안에 관한 연구(이경민, 2012), 대학도서관의 다양한 통계치와 대출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대학생 독자를 위한 대학도서관의 독서 지원 서비스인 ‘독서 프로파일링’ 서비스를 제안한 연구(정연경, 2017), 대학생의 독서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대학도서관의 여가독서 실행을 위한 지원방안을 제안한 연구(정대근, 2023)도 다수 진행되었지만 모두 독서 그 자체만을 강조할 뿐 이를 인성 혹은 교양교육 지원과는 구체적으로 연결짓지는 못했다.

이상으로 기독교 인성교육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이론적 개념을 기반으로 한 인성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했으며, 각 대학의 인성교육 사례를 토대로 인성교육 방법들을 제안하였다. 또한 인성교육을 위한 교과 및 비교과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로 기독교 대학에서 인성교육의 실제적인 적용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기독교대학 인성교육의 방향성과 실천 그리고 대학도서관에서의 독서프로그램 개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하겠다. 그러나, 기독교대학의 인성교육을 위해서는 대학 내 여러 부속기관들과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부속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대학도서관 독서지도 관련 연구에서도 이것이 기독교대학의 인성교육과 어떻게 연관되는지 이때 대학도서관만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전연구의 한계를 보충하고 대학 부속기관 중 하나인 도서관이 인성교육을 위해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시작으로, 사서들의 인성교육에 대한 인식 및 요구 조사를 수행하여 이 결과에 기초하여 인성교육 지원을 위한 도서관의 역할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 II. 연구방법

### 1. 조사방법 및 내용

본 연구목적 달성하기 위해 기독교대학 도서관 사서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법'과 '면담법'을 이용하여 기독교 인성교육 지원 서비스에 대해 어떤 인식과 요구가 있는지 조사·분석하였다. 첫째, 설문조사의 질문 문항을 구성함에 있어 선행연구 분석과정 중 나온 결과들을 설문 문항과 예시 질문에 적극 반영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파일럿 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서들이 평소 기독교 인성교육이라는 주제를 깊이 생각해 보지 못한 까닭에 설문조사시 관련 내용에 관한 많은 예시와 질문이 필요하다는 피드백이 있었다. 이를 적극 반영하여 설문 응답이 용이하도록 했다. 기독교대학에서 인성교육을 진행할 때 우선적으로 가르쳐야 할 덕목들에 관해서는 '기독교대학의 역할에 대한 교수들의 인식 조사'(임신일·김은영, 2019) 연구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한 인성교육 항목만을 선별하되, 이 연구주제에 맞게 첨삭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일반 인성교육내용들과 문헌정보학(사서)과 관련된 영역들은 인성교육진흥법(2015)과 교육부(2021) '제2차 인성교육 종합계획(2021-2025)'과 교육부(2023) '2023년 인성교육 활성화 시행 계획'에 명시된 내용들 그리고 이병기(2014) 연구 내용을 참고하였고, 사서직무 및 역할에 대한 인식 부분은 홍현진 외 (2022), 이지연(2009) 연구들을 참고하여 설문문항을 구성하였다.

설문 문항을 1차로 완성한 이후, 기독교대학 사서 3명과 문헌정보학 교수 3명을 대상으로 파일럿 조사를 수행하였다. 질의 내용이나 문장이 모호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 응답 완성까지 걸리는 시간과 난이도에 대한 피드백을 받은 후, 주요 용어에 대해 '조작적 정의(operational definition)'를 제시하고, 문항수와 문장을 수정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 설문문항을 완성하였다. 설문 문항은 크게 5가지 주제 분야에 43문항을 구성하였다. 질문은 '기독교대학에서의 인성교육의 덕목에 대한 인식', '신앙과 직업과의 관계', '인성교육 지원을 위한 도서관의 핵심 역할', '인성교육 지원 수행에 있어 걸림돌과 극복을 위한 재교육 내용', '인구학적 특성'이라는 주제 아래 구체적인 문항을 구성하였다(<Table 1> 참고).

<Table 1> Survey Questionnaire Composition

주제 구분	요소	문항수
1. 인구학적 특징	성별, 연령, 사서직급, 종교, 신앙 년수	5
2. 기독교대학 인성교육의 덕목에 대한 인식(5점 척도)	인간 창조가치 교육	4
	미래 인재역량 교육	4
	공동체의식 교육	4
	대인관계 및 변화적응력 교육	4
	기독교 가치 실천 교육	4
	지역사회 자원제공 실천 교육	4
3. 신앙과 직업에 관한 인식	- 신앙과 직업과의 관계(직업관) - 헌신 여부	2
4. 인성교육 지원을 위한 도서관의 핵심 역할에 대한 인식(복수 선택)	- 인성교육 관련 프로그램(4가지 영역) 유무 - 독서관련 프로그램 유무와 필요성 - 특정 주제컬렉션 개발 유무와 필요성 - 정보의 윤리적 사용 교육서비스의 유무와 필요성 - 인성교육 전담부서의 유무와 협력의 필요성 - 인성교육 전담부서와의 협력할 수 있는 영역과 방법	12
5. 인성교육 지원의 어려움과 대안 (복수 선택)	- 인성교육 지원에 있어 걸림돌(제한점) - 사서 재교육: 교육영역, 기관(단체), 인력풀(강사)	4

둘째, 설문조사를 통해 나타난 결과에 대한 정황과 배경 그리고 선택 이유들을 파악하기 위해 기독교대학 도서관에 20년 이상 근속하였으며 기독교 신앙을 보유한 사서들을 대상으로 ‘반구조화된 인터뷰(semi-structured interview)’를 실시하였다. 반구조화된 인터뷰 방법은 기본적인 질문 목록을 바탕으로 면담자와 심도있는 질문으로 발전해 가는 방식으로, 연구자가 탐구하고자 하는 특정 주제에 대한 인터뷰 대상자의 의견을 심층적으로 알아보고자 할 때에 주로 쓰이는 방법이다(Harrell & Bradley, 2009). 특히, 파일럿 조사에서 기독교 인성교육 지원을 위한 도서관과 사서의 역할과 직무에 대한 연구주제가 생소하여 예시가 없으면 답하기 어렵고, 관련 용어에 대한 이해를 위해 많은 설명이 추가되어야 한다는 피드백을 받았다. 이를 반영하여 설문조사과정에서는 난해한 내용의 질문은 줄이는 대신, 관련 내용들은 후속 인터뷰과정을 통해 상세한 배경과 그런 인식을 가지게 된 이유와 정황들을 심도 깊게 조사하였다. 인터뷰 과정을 위해 미리 구성한 질문 주제들은 <Table 2>와 같다.<sup>1)</sup>

1) <Table 2>에 나열한 질문 내용들은 인터뷰 시작 1주일 전에 이메일로 면담자에게 배포하여, 인터뷰의 기본 방향과 내용에 대한 상호이해를 높이기 위해 사용되었다. 그러나, 인터뷰가 진행됨과 동시에 각 인터뷰 대상자에 맞는 보다 다양하고 심층적인 질의들이 사용되었다(Harrell & Bradley, 2009).

&lt;Table 2&gt; Semi-Structured Interview Outlines

1. 기독교대학 인성교육과정에서 가르쳐야 할 덕목(주제)에 대한 인식
2. 도서관 사서의 인성교육 지원에 대한 인식: 필요성 및 방향
3. 인성교육 지원을 위한 도서관의 구체적인 역할에 대한 인식 및 요구
4. 현재 도서관의 인성교육 지원과정에서 제한점(걸림돌)
5. 인성교육 지원을 위한 사서 재교육과정: 필요성, 교육영역(주제), 교육주체(강사 인력풀)
6. 피면담자 소개: 인구학적 특성, 도서관 직무, 세계관, 직업관, 신앙생활 배경 등

## 2. 연구대상 선정 및 데이터 수집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기독교대학 도서관에 근무하는 사서'들이다. 전국 기독교대학의 명단을 입수하기 위해 '기독교대학'을 구체적으로 정의할 필요가 있다. 기독교대학의 구성요소와 정체성에 대한 많은 논의들과 정의가 있겠으나, 본 연구에서는 기독교대학을 "설립자가 기독교인 개인이나 교회 혹은 교단이고, 대학 정관에 '기독교 정신'이란 교육이념을 분명하게 표방하고, 그러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교목실을 두어 채플이나 기독교 과목을 가르치는 대학"(조용훈, 2003: 206)이라는 기본 이해를 따랐다. 여기서 기독교는 개신교로 제한하였고, 이를 근거로 전국신학대학협의회 회원교 및 비회원교 학교 명단(61개교)을 1차로 수집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종교재단 대학 목록에 나온 대학교 중에서 교목실을 두고 있는 대학 명단을 확보한 후, 각 대학교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기독교대학' 혹은 '기독교 정신'을 명시한 대학만을 선별한 결과, 최종 48개교를 연구대상 대학으로 선정할 수 있었다.<sup>2</sup> 둘째, 선정된 48개교 대학에 속해 있는 대학도서관 홈페이지와 해당 대학도서관이 속한 각종 협의회(예: 사립대학교협의회, 전국신학대학교협의회)를 통해 사서 이메일주소 총 269건을 확보하였다. 일부 대학도서관에서는 이메일 주소를 공개하지 않고 전화번호만 등재한 49명의 사서들에 대해서는 전화연결을 통해 설문참여에 대한 설명과 동의를 구했다. 이메일을 공개한 사서 7명을 추가하여 총 279명에게 이메일을 통한 온라인 설문링크와 QR코드를 배포하였다.

2) 선정된 대학교 48곳은 다음과 같다(자모순): 감리교신학대학교, 강남대학교, 계명대학교(계명대학교 문화대학 포함), 고신대학교, 광신대학교, 김천대학교, 나사렛대학교, 남서울대학교, 대전신학대학교, 동서대학교, 루터대학교, 명지전문대학 포함, 목원대학교, 백석대학교(백석문화대학 포함), 부산외국어대학교, 부산장신대학교, 서울신학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서울장시대학교, 성결대학교, 성공회대학교, 숭실대학교, 신한대학교,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안양대학교, 연세대학교(원주캠퍼스 포함), 영남신학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장로회신학대학교, 차의과학대학교, 창신대학교, 총신대학교, 침례신학대학교, 칼빈대학교, 케이씨대학교, 평택대학교, 한국성서대학교, 한남대학교, 한동대학교(국제법류대학원 포함), 한신대학교(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포함), 한영대학교, 한일장신대학교, 협성대학교, 혜전대학교, 호남신학대학교, 호서대학교, 햇빛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

설문조사는 2023년 8월 25일에서 9월 13일까지 약 3주간(20일)에 걸쳐 진행되었다. 이에 앞서 언급한 6명의 전문가들에게 파일럿 조사(2023년 8월 1일~8월 8일)를 실시한 이후, 설문내용과 문항들을 수정한 뒤 최종 완성된 설문내용이 배포되었다. 이중 최종 51명의 사서가 응답하였다(회수율 18.3%). 낮은 회수율로 인해 여러 차례 1:1 전화연결을 통해 참여를 독려했으나, 참여가 저조한 관계로 부족한 조사내용은 심층인터뷰를 통해 얻은 데이터로 조사내용을 보충하였다.

한편, 반구조화된 심층인터뷰 진행을 위해 인터뷰 참여자는 기독교대학교 도서관 근무한 경력이 20년 이상이며,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서들 대상으로 하되, 신학대학교도서관협의회에 속한 회원들이 적격자로 추천하는 사서들을 접촉하여 인터뷰 참여를 요청하였다. 요청에 동의하는 이들에 한해서 인터뷰가 진행되었으며 인터뷰 이후 이들이 추천하는 사서들을 계속해서 컨택하는 방법인 눈덩이 표본추출(snowball sampling) 방식을 통해 최종 다섯명의 피면담자를 선정하였다. 심층인터뷰에 참여한 사서들의 인구학적 주요 특성은 <Table 3>과 같다.

<Table 3> Profiles of Interviewees: Professional Librarians in Christian Universities

면담자	성별	나이	사서 경력	신앙생활 년수	인터뷰 날짜/방법
사서 A	여	40대	20년 이상	20년 이상	2023. 09. 25.(1차/대면) 2023. 10.10.(2차/대면) 2023. 10. 25.(3차/화상-줌)
사서 B	여	50대	30년 이상	50년 이상	2023. 11. 07.(전화)
사서 C	여	60대	30년 이상	60년 이상	2023. 11. 08.(전화)
사서 D	남	50대	20년 이상	40년 이상	2023. 11. 09.(전화)
사서 E	남	40대	20년 이상	20년 이상	2023. 11. 10.(화상-줌)

인터뷰는 2023년 9월 25일부터 11월 10일까지 면담자와 일대일로 이루어졌고, 면대면, 전화 또는 화상(줌)을 통해 수행되었다. 인터뷰 시간은 평균 40분가량 지속되었으며 모든 내용은 사전 동의하에 녹화 또는 녹취되었다. 미리 구성한 인터뷰 질의 주제와 내용들은 사전에 이메일로 전달되었으며, 질의문을 바탕으로 질문하되 답변에 대한 이유와 정황들을 파악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인터뷰 횟수는 1회를 기본으로 하였으나, 본 인터뷰가 진행되기 이전 전화 혹은 직접 만나 일상적인 대화를 시도하며 피면담자와 라포(rapport)를 형성하여 면담내용의 신뢰도를 높이며 노력하였다. 면담 이후, 보충 질의와 정보가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2차 혹은 3차 전화 인터뷰를 진행하여 조사내용을 보충하였다. 녹취된 내용은 데이터 분석을 위해 모두 전사(transcript)되었는데, 자료의 신뢰성을 위해 면담자의 표현양식 그대로 필사되었다(Silverman, 2005).

### 3. 데이터 분석방법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한 모든 데이터는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KSDC)'에서 제공하는 E-Stat 3.0을 사용하여 정리·분석되었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비롯한 단수 또는 복수 선택형 문항에 대해서는 명목척도로 구성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빈도와 백분율로 표시하였다. 우선적으로 가르쳐야 하는 '인성교육 덕목'에 관한 질문은 리커트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조사되었는데, 관련 항목은 기술통계를 실시하여 평균적인 수치를 측정하여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또한, 이용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수행하여 통계검정을 수행하였고 유의미한 결과가 있는 내용만 제시하였다.

인터뷰 조사에서 녹취·녹화된 자료는 모두 전사되었고, 전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1차 개방코딩(open coding)과 2차 축코딩(axial coding) 방법으로 데이터가 분석되었다. 1차 개방코딩에서는 각 문장 혹은 단락을 주제별로 단어나 짧은 구절로 요약하였고, 개념적으로 유사하거나 의미상 관련있는 문구와 단락을 범주화하였다. 2차 축코딩에서는 1차 코딩에서 나온 주제나 의미 단위들을 다시 상위범주와 하위범주로 재구성하고 각 범주 사이의 연결관계를 생성하여 인터뷰 내용을 정리하였다. 자료분석의 신뢰도와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복수 연구자가 자료 수집단계와 분석(코딩)에 모두 참여하여 교차 확인하였다(Lincoln & Guba, 1985).

## II. 연구 결과

본 연구는 설문조사법과 면담법을 통해 수집된 내용을 분석·정리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결과들을 제시하되 설문조사에서 나온 결과들을 우선적으로 제시하였다. 더불어, 설문조사에서 나온 결과의 기저 배경과 정황에 대한 부분들은 심층인터뷰에서 밝혀진 내용들을 보충하며 함께 결과내용을 제시하고 확증하였다.

### 1. 인구통계학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사서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Table 4>와 같다. 대부분 여성(68.6%) 사서가 조사에 응답하였고, 연령별로는 20대(19.6%), 30대(29.4%), 40대(23.5%), 50대 이상(27.5%)까지 거의 모든 연령대가 균일하게 참여하였다. 직급별로도 어떤 직급도 빠지지 않고 모두 참여했으며, 기타 직군(비정규직 도서관 교육 및 행정조교)들도 상당수(21.6%) 응답하였다. 이 연구의 표본에 있

어 특이점은 대부분의 기독교대학들이 직원 채용시, 세례교인 혹은 출석교인으로 지원자격을 제한하는 것을 상기해 볼 때, 무교(13.7%)와 타종교(5.9%)를 가진 사서들이 약 20%나 이 연구에 참여했다는 점이다. 또한, 신앙생활 연수에 관한 질문은 무교나 타종교를 선택한 응답자는 제외되고, 기독교인 사서(45명)만이 참여했다. 이들의 신앙생활 연수에 있어서도 특이점이 발견되는데, 응답자의 약 80%이상이 20년 이상의 연수를 가졌거나 그렇지 않으면 최근 1년미만이라는 양극단적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이다. 이런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수행하여 통계검정을 수행하였으나, 성별, 나이, 종교 및 신앙생활 연수 등 어떠한 인구학적 특성들도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p>0.01$ ).

<Table 4>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Survey Participants

구분		응답자(명)	비율(%)	구분		응답자(명)	비율(%)	
성별 (N=51)	남성	16	31.4	종교 (N=51)	기독교-세례교인	36	70.6	
	여성	35	68.6		기독교-출석교인	5	9.8	
연령 (N=51)	20대	10	19.6		무교	7	13.7	
	30대	15	29.4		타종교	3	5.9	
	40대	12	23.5					
	50대 이상	14	27.5					
직급 (N=51)	8-9급(직원)	16	31.4		신앙생활 연수 (n=45)	1년미만	11	21.6
	6-7급(계장 주임)	9	17.6			1년-5년	0	0
	5급이상(과장 이상)	15	29.4			5년-10년	0	0
	기타 (계약직/교육행정조교 등)	11	21.6			10년-20년	6	11.7
				20년 이상		34	66.7	

## 2. 인성교육의 의미와 교육영역

기독교대학에서는 어떤 기독교 인재상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덕목(혹은 주제)가 우선적으로 교육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이는 사서가 인성교육 지원에 앞서, 인성교육에 대해 어떤 선이해를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이다. 기독교교육학 부문의 선행 연구(임신일·김은영, 2019)를 토대로 6가지 인성교육 항목들, ‘인간창조 가치 교육’, ‘미래인재역량 교육’, ‘공동체의식 교육’, ‘대인관계 및 변화 적응력 교육’, ‘기독교 가치 실천교육’, ‘지역사회 자원 제공 실천교육’이라는 항목아래 각각 4가지 구체적인 문항들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하였다. 결과적



으로, 6가지 주제 영역 모두 4점대 이상의 높은 동의를 보이며, 관련 항목들 모두 기독교대학 인성 교육 영역으로 적합하며 우선적으로 교육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를 표했다(<Table 5> 참고).

<Table 5> Themes of Character Education to be Taught at Christian Universities

항목 (평점)	문항	매우 아니다					매우 그렇다					평균
		1	2	3	4	5	1	2	3	4	5	
A. 인간 창조 가치 교육 (4.47)	인간존재의 소중함을 알도록 교육한다	빈도	0	0	4	15	32	4.5				
		비율	0	0	7.8	29.4	62.8					
	중요한 가치를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교육한다	빈도	0	0	10	16	25	4.3				
		비율	0	0	19.6	31.4	49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과 가치를 교육한다	빈도	0	0	9	9	33	4.5				
		비율	0	0	17.7	17.7	64.6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도록 교육한다	빈도	0	0	1	19	31	4.6				
		비율	0	0	2	37.2	60.8					
B. 미래 인재 역량 교육 (4.43)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자기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교육한다	빈도	0	0	2	21	28	4.5				
		비율	0	0	3.9	41.1	55					
	융·복합적인 사고와 행동을 하도록 교육한다	빈도	0	0	5	23	23	4.4				
		비율	0	0	9.8	45.1	45.1					
	비판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빈도	0	0	7	23	21	4.3				
		비율	0	0	13.7	45.1	41.2					
	창의력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교육한다	빈도	0	0	4	18	29	4.5				
		비율	0	0	7.8	35.3	56.9					
C. 공동체 의식 교육 (4.47)	자신의 것을 나눌 수 있는 연대의식을 교육한다	빈도	0	0	5	16	30	4.5				
		비율	0	0	9.8	31.4	58.2					
	협업을 잘 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빈도	0	0	3	16	31	4.5				
		비율	0	0	5.9	31.3	60.8					
	타인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빈도	0	0	3	14	34	4.6				
		비율	0	0	5.9	27.4	66.7					
	다양한 역할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빈도	0	0	9	19	23	4.3				
		비율	0	0	17.6	37.3	45.1					

D. 대인관계 및 변화적 응력 교육 (4.2)	전공 및 직업교육 이외에 다양한 인문교양 교육을 제공한다	빈도	0	0	6	22	23	4.3
		비율	0	0	11.8	43.1	45.1	
	대인관계로부터 즐거움을 경험하도록 교육한다	빈도	0	0	9	22	20	4.0
		비율	0	0	17.7	43.1	39.2	
	다양한 직업과 전문영역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빈도	0	0	7	26	18	4.2
		비율	0	0	13.7	51	35.3	
	사회변화를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빈도	0	0	5	24	22	4.3
		비율	0	0	9.8	47.1	43.1	
E. 기독교 가치 실천 교육 (4.25)	기독교의 진리를 인지하도록 교육한다	빈도	0	2	6	13	30	4.4
		비율	0	3.9	11.8	25.5	58.8	
	인간의 긍정적인 정서를 경험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빈도	0	1	6	20	24	4.3
		비율	0	1.9	11.8	39.2	47.1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실천하도록 교육한다	빈도	0	2	10	18	21	4.3
		비율	0	3.9	19.6	35.3	41.2	
	기독교인의 가치와 수업 주제들을 융합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빈도	0	2	9	18	22	4
		비율	0	3.9	17.7	35.3	43.1	
F. 지역사회 자원 제공 실천 (4.22)	사회의 요구를 인식하고 적절히 대응하는 역할을 교육한다	빈도	0	0	2	26	23	4.4
		비율	0	0	3.9	51	45.1	
	다양한 구성원들에게 정보, 지식, 장소, 인적, 물적 자원 등을 제공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빈도	0	0	7	27	17	4.2
		비율	0	0	13.8	52.9	33.3	
	사회의 다양한 철학과 종교에 관한 토론을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도록 교육한다	빈도	0	3	10	23	15	4
		비율	0	5.9	19.6	45.1	29.4	
	통합된 지식(integrated knowledge)을 습득할 수 있는 사회로 기능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빈도	0	0	5	27	19	4.3
		비율	0	0	9.8	52.9	37.3	

특히, 교육영역 중 ‘인간창조 가치 교육’(4.47)과 ‘공동체 의식에 대한 교육’(4.47) 그리고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미래 역량을 갖출 수 있는 교육’(4.43) 순으로 교육내용의 중요도를 꼽았다. 상대적으로 기독교 가치 실천교육(4.25), 지역사회 공헌(4.22)이나 대인관계 역량 교육(4.20)은 후순위로 꼽혔다. 나아가, 다른 교육영역에서는 부정적 의견(‘아니다’, ‘매우 아니다’라는 의견)이 없는 반면, 기독교 가치 실천교육의 항목에서 비록 소수(1~4%)이긴 하나 이 영역들을 대학에서 가르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도 있었다. 종합하면, 사서들은 인성교육의 의미를 ‘기독교 기본 진리에 기초

하여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또 타인의 입장은 어떠한지를 이해할 수 있고, 더불어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 속에 자신의 존재의식을 가지고 창의력을 길러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어야 하며, 전공 지식뿐만 아니라 인문교양과 함께 사회의 필요를 인지할 수 있는 인재를 기르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인터뷰에 참여한 사서들 또한 설문 결과와 유사한 의견을 피력하였다. 이들은 인성교육의 우선순위로 인간가치 혹은 인간존엄에 대한 이해, 특히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자기중심을 확고히 하는 것을 다른 가치에 비해 우선순위를 두었다. 이 인간의 존엄과 자신을 소중히 대할 수 있는 근거는 기독교 진리에 대한 이해라는 기초 위에서 있어야 함으로 이를 2순위로 꼽았다. 그러나, 이 기독교 진리에 대한 이해와 가치실천은 급속히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타인과 환경을 이해한 가운데 수행되어야 하며 이 교육방법 또한 기존 교회나 채플에서의 교리 내용의 전달이 아닌 문화적 환경조성이 우선되어야 하며 어떻게 그 가치를 실천할 수 있는가? 하는 방법적인 고민도 간과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에 의견이 모아졌다.

“저는 인간 창조 가치 교육을 첫번째로 꼽았는데요. 우리 학생들이 기독교대학에 왔다고 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자신의 존재에 대한 부분이 뚜렷하지 않고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존재가치가 어떠한 지를 분명히 알 수 있으면 좋겠다...(중략)...그런데 (그 교육방법이) 처음에는 학생들과 친해지는 과정에서 조금씩 조금씩 기독교적인 관점에서...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같이 꾸려나가는 시간들이 좀 쌓여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누군가를 교육하고 '이게 옳아!' 라고 제안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기독교교리가 진리이고 그렇긴 하지만, 처음부터 일방적으로 가르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사서 A)

“기독교 기본교리들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영역들인데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일들이...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이 좀더 강조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사서 D)

“변화하는 세상에서 자기중심을 잡고 그 속에서 내가 어떤 포지셔닝을 가지고 있는지, 나를 알기 위해서는 타자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와 타자와의 관계부분, 나를 알기 위해서 타자를 알고 타자를 알아야 나를 아는...이런 관점에서 이 교육내용을 첫번째로 꼽았고요. 두번째 기독교 가치 교육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교리적으로 가르치는 것보다, 이런 (기독교) 공동체는 이런 문화들 속에 (있고) 나는 이 공동체 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경험시켜 주는 것이 교육이라고 봐요.” (사서 E)

사서들이 이런 교육 덕목을 우선순위로 꼽은 이유로 현 한국사회에서 특히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지 않은 사건사고와 빈번한 사회부조리를 꼽았고, 기독교인의 가치 실천력의 부재로 인해 사회적 지탄과 부정적인 여론을 그 이유로 꼽았다. 이뿐 아니라 기독교대학에서의 전통적으로 행해져 오는 대규모 채플과 그 가운데 이루어지는 설교형태의 교리 전달이 크게 효과가 없음을 지적하며 교육방법의 변화와 인성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는 문화적 환경과 토대조성이 우선 되어야 함을 함께 지적하였다(사서 C, D, E).

### 3. 직업관: 신앙과 직업(사서직)과의 관계

기독교인으로서의 사서들은 신앙과 직업과의 관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조사하였다. ‘신앙은 개인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업무와 연결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19.6%)라며 신앙과 사서 직무를 연결시키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맡겨진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만으로 기독교인으로써의 책무를 다한 것이다’(43.1%)라는 의견이 우세했다. ‘직장 또한 개인의 신앙이 드러나는 곳임으로 개인의 신앙을 어떻게 녹여낼 수 있을지 고민하고 실천해야 한다’(37.2%)는 의견도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이 연장선 속에서 자신의 업무 및 직업으로 자신이 속한 대학이 ‘기독교’ 대학으로 성장하는데 ‘본인은 헌신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여부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그렇다, 52.9%)과 부정적인 의견(아니다, 47.1%) 또한 비슷하게 공존했다.

사서 개인면담 내용에서도 설문에서 나타난 의견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직업 혹은 업무는 가치중립적인 것이기에 기독교 신앙과 연결시켜 생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과 이와 반대로 ‘기독교인이기에 개인적인 의지와 소명을 가지고 이를 업무에 녹여내려 애쓰려고 노력’해야 할 것 같아 개인적인 차원에서 고민하고 있는 사서들이 공존했다. 그러나 양쪽 모두 동일하게 기독교 직업관 혹은 세계관에 대해서 평소에 깊이 생각해 보지 못했고 교회에서도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교육을 받지 못했기에, 기독교 인성교육 지원에 앞서 사서들은 기독교 세계관 및 직업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을 토로했다.

“(이 주제가) 너무 어려워요, 고민이 좀 되는 것이...개개인의 열정과 의지가 중요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기독교인으로써...여기에 해당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근무를 하면 언제나 반드시 근로학생이 있었거든요. 그 친구에 대한 관심과 신앙적인 관심, 이를테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고민이 뭐가 있는지 아니면 신앙생활은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접근했던 것 같아요.” (사서 A)

“사서는 그냥 사서 역할만을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기독교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이런 일(사서 업무)은 불교 동국대학에 가서 해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서로서의 역량을 다하는 것이지 이게 어떤 거창한 목적(기독교 세계관 혹은 직업관)을 갖게 되면 현실에서 괴리감이라든지,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사서 업무가) 과연 하나님 나라에 쓰임을 받을까? 직업소명설 부분으로 접근해야 하나? 이런 것...(중략)...내가 맡은 부분이 전체 파트 중에 이것(사서 업무)이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이지 내가 큰 계획(기독교대학 사명 혹은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관여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사서 E)

#### 4. 기독교 인성교육 지원을 위한 도서관의 핵심 업무에 대한 인식

기독교대학에서 인성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도서관의 직무 및 역할에 대한 생각들을 조사하기 이전에, 응답자가 속한 대학도서관에서는 인성교육 지원과 유사한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기독교 인성교육 지원과 관련된 4가지 서비스영역, ‘독서관련 프로그램’, ‘주제 컬렉션(큐레이션)’, ‘서지인용 및 연구윤리 교육서비스’, ‘인성전담 부서와의 협력프로그램’ 중 어떤 서비스가 우선되는 것이 좋은지를 순차적으로 조사하였다.

##### (1) 도서관의 인성교육 지원과 관련된 서비스(업무) 유무

인성교육과 관련이 있는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39.2%)과 운영하고 있지 않고 있는 곳(45.1%)이 비슷한 비율로 응답했으나, 아직 운영하지 않는 대학도서관이 많았다. 그러나, 특이한 점은 응답자가 속한 도서관에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가 ‘모호하다’는 의견(15.7%)이다. 이는 현재 도서관에서 운영되는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인성교육 지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에 대한 확신 부족, 즉 인성교육의 의미와 지원서비스를 어디까지 정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모호함과 몰이해로 인해 ‘모르겠다(15.7%)’고 대답하는 이들이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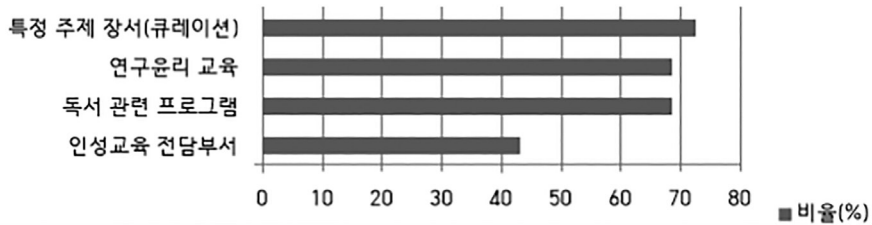
이 사실은 사서와의 면담과정에서 더욱 명백히 드러났는데, 도서관에서 전통적으로 수행해 오던 서비스들 즉, 교양함양을 위한 독서 프로그램, 서지인용 및 표절방지 교육프로그램을 인성교육 지원의 한 부분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었다. 이는 차후 사서들의 재교육 부분에서 근본적으로 기독교 인성교육이 무엇이며 관련 지원서비스의 종류와 의미에 대해 교육받기 원한다는 요구로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2) 대학도서관 서비스 현단계: 인성교육 지원서비스와 유사한 서비스 수행 비율

인성교육 지원서비스에 대한 정의 및 인식이 불확실한 것을 감안하여 기존 대학도서관에서 직접적인 기독교 인성교육 지원서비스가 아니더라도 유사한 서비스군을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였다. 4가지 서비스 영역(독서프로그램, 주제 컬렉션(큐레이션), 연구윤리 교육서비스, 인성관련 부서와의 협력프로그램)을 제시하였고, 현재 대학도서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서비스(업무) 비율과 이를 발전시켜 도서관에서 수행할 필요가 있는 인성교육 지원 서비스(업무) 종류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하였다.

결과적으로, 현재 대학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성교육 지원서비스 혹은 그와 유사한 서비스 운영 비율은 특정주제 컬렉션(큐레이션) 구축(72.6%), 독서관련(예. 독서토론, 독서골든벨, 등) 서비스(68.6%), 연구윤리(예. 표절방지) 교육서비스 제공(68.6%)순으로 나타났다(<Figure 1> 참고). 즉, 현재 기독교 인성교육 지원서비스로 운영되고 있고 또 차후 활용될 수 있는 대학도서관 서비스 영역은 장서 선별과 관련된 영역, 즉 관련 특수주제(기독교 인성교육)의 장서 수집과 이 자료들을 활용한 서비스, 즉 독서프로그램과 정보의 윤리적 사용에 집중되어 있었다.

<Figure 1> Libraries Providing Services related to Character Education Suppo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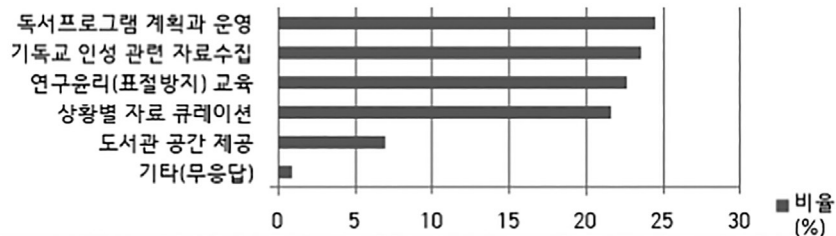


그러나, 대학내 인성교육 전담부서를 가지고 있는 대학은 43.1%에 지나지 않았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다수의 대학이 인성교육을 전담하는 부서가 없다고 응답한 것(31.4%)과 더불어 그 존재 유무 자체를 ‘모르겠다(25.5%)’는 항목이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는 것이다. 이는 사서 개인 인터뷰를 통해 “학내에 명시적으로 ‘인성센터(부서)’라고 표기한 부서가 없는 한, 어느 부서에서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전담하고 있는지 대답하기 힘들고, 막연히 교목실이나 학생 상담센터가 보조적으로 할 것이다”(사서 B)라고 짐작하고 있었으며 “교육을 전담하는 교무처에서 교과 및 비교과교육을 기획하고 운영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교양교육(수업)만을 강조할 뿐 ‘인성교육’이라는 주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거나 강조하지 않음”(사서 E)으로 인해 학내의 인성교육 자체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을 그 이유로 꼽았다.

### (3) 기독교대학 인성교육 지원을 위해 필요한 도서관서비스(업무)

인성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도서관이 가장 우선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거나 혹은 가장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서비스(업무) 종류에 대해 조사하였다. 자료수집 및 선별과 관련된 부분, 즉 인성교육 관련 장서개발(23.5%)과 특정 주제 장서의 큐레이션(21.6%) 서비스가 응답의 한축을 이루었고, 수집된 장서를 활용하는 서비스, 즉 독서프로그램(24.5%)과 정보의 윤리적 이용에 대한 교육(22.6%) 부분이 또 다른 축을 이루었다. 그러나, 인성교육 지원을 위한 도서관의 공간활용 및 제공(6.9%)에 관한 영역은 소수에 그쳤다(<Figure 2> 참고). 이 결과에서 서비스 개발 적합성의 우위나 순위를 나열하는 것이 무색할 정도로, '공간활용과 제공'과 관련된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서비스(업무) 항목들이 20%대로 균일한 결과를 보였다.

<Figure 2> Primary Library Roles in Character Education Support



따라서, 조사내용을 더욱 심화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각 서비스(업무) 영역에 대한 필요성(적합성)에 대한 선호도를 분석하였다. 이때 도서관의 주도하에 기획·운영되는 서비스 이외에 인성교육 담당부서를 지원하고 협조하는 서비스에 대한 의견을 추가하여 조사하였다. 그 결과, '인성교육 전담부서와 협력(지원) 서비스'(4.2점)가 다른 서비스보다 가장 우선시되어야 하며 적합하다는 것이다. 이는 사서와의 인터뷰에서 그 이유와 배경이 밝혀졌는데, 도서관의 고유하고 우선되는 기능이 인성교육 지원에 있지 않다는 점(사서 E)과 현 도서관이 처한 내·외부 환경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인성교육 전담부서와 협조하고 지원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것이었다(사서 A, B, C). 그 다음 순위로 '연구윤리(예. 표절 방지) 교육서비스를 제공'(4.0점)하는 것과 '인성교육과 특화된 장서(컬렉션)개발과 제공서비스'(3.8점) 그리고 '인성교육 특화 독서프로그램 제공서비스'(3.8점) 순으로 꼽았다(<Table 6> 참고). 이것 또한 순위에 큰 의미가 있다기보다, 제시된 도서관 지원서비스에 대해 모두 3.5점 이상으로 적합 또한 필요한 서비스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Table 6> Library Services for Character Education Support

항목		매우 아니다			매우 그렇다		평균
		1	2	3	4	5	
인성교육과 관련하여 특화된 독서프로그램 (예: 독서치료 등) 제공	빈도	1	5	10	23	12	3.8
	비율	2	9.8	19.6	45.1	23.5	
인성 및 영성(신앙) 관련 주제장서(컬렉션) 수집 및 제공	빈도	1	6	10	19	15	3.8
	비율	2	11.8	19.6	37.2	29.4	
연구 윤리(예: 표절 방지)관련 교육서비스 제공 필요	빈도	0	3	10	24	14	4
	비율	0	5.9	19.6	47	27.5	
학내 인성교육 전담부서와 협력 필요(전담부서가 있는 대학 응답자 22명에 한함)	빈도	0	1	1	12	8	4.2
	비율	0	4.6	4.6	54.5	36.3	

사서와의 인터뷰에서도 설문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인성교육이라는 관련 주제에 대해, 현재 속한 도서관이 기독교 인성교육 지원과 관련한 서비스에 관심을 두고 있지 않은 관계로 깊이 생각해 보지 못했다고 한다. 즉, ‘인성교육을 도서관이 지원하는 것’에 대한 의미와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한 까닭에 관련 서비스를 단순 직관에 의지하여 제안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따라서 사서들은 기존에 자관에서 수행한 유사 서비스나 역할에 기초하여 응답했으며, 도서관 서비스의 당위성 혹은 이상에 기초하여 의견을 피력하기보다 현실적으로 도서관 환경에서 수행가능한가의 여부에 기초한 다소 소극적이고 제한적인 역할과 업무만을 고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인성교육이라는 주제로 설문이나 생각을 해 본 적도 처음이고 그리고 실제 현업에서 실무를 이런 주제를 가지고 고민을 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심도깊은 업무 혹은 역할에 대한 고민보다는 현재 현장에서 실제로 할 수 있는 업무중심으로 생각했고, 이 주제로 맞춰볼 수 있는 현장 업무들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 보니, 인성교육을 할 때 도서관에서는 공간제공도 적합하겠다 생각이 들었고요. 상황별 관련 자료에 대한 큐레이션을 한다면 큐레이션의 장점이 늘 언제든지 그 사이트에 가면 (이용자들이)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더라구요...(중략)...도서관이라고 하는 곳이 기관인증평가나 대학인증평가와 맞물려 있는 곳이에요. 2년동안 작업(서비스)하면서 계속 실적을 내고 증빙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야 하는... 실적을 무시한 채 인성교육 지원 서비스를 이상적으로 크게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사서 A)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은 도서와 정보잖아요? 물론 공간도 있고...그래서 (직접적인 서비스보다) 자료와 정보제공을 통한 인성교육을 위한 토대와 환경을 마련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서 B)



“(인성교육과 관련된) 장서 수집은 가장 기본적인 업무고...서비스는 어차피 기본적인 인프라가 갖춰져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수서는 가장 기본적인 거고, 그다음은 홍보 마케팅이죠. 요새 학생들에게는 보여지는 것이 중요하다 보니, 인성관련 큐레이션, 특별 컬렉션 구축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서 C)

다른 한편으로 ‘도서관이 인성교육 지원 서비스를 수행하고 인성교육 전담부서와 협력하는 것이 과연 필요한가?’에 대해 근원적인 의구심을 표했다. 그것은 기독교대학이라 하더라도 가치중립적인 서비스가 아닌 ‘기독교’ 인성교육과 관련된 서비스를 기획하는 것이 부적합하다는 의견이었다. 따라서 도서관의 역할과 서비스 영역에 대해 고민하기 이전에 인성교육에 대한 필요성과 가치에 동의할 수 있도록 사서재교육이 먼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기독교 인성교육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설득된다 하더라도, 사서들은 대부분 전통적으로 해오던 도서관 서비스, 즉 독서 및 정보활용 교육과 그것을 위한 장서개발 및 제공이라는 수준에서 서비스(업무)를 제안하였다.

“(독서교육 프로그램은) 기독교 여부와 상관없이 범용적인 부분으로 필요한 부분이에요. 독서토론을 통해서 타인에 대해 이해할 수 있고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도서관에서 수행하는 것이지 기독교 인성교육을 위한 서포트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만약 기독교 인성교육 위한 독서교육을 꼭 해야 한다면, 예를 들어 기독교 가치관에 해당되는 컨텐츠와 그렇지 않은 컨텐츠를 공동으로 같이 읽으면서... 나를 이해하고 타인을 이해하기 위해 인성교육 독서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할 수는 있겠죠.” (사서 E)

#### (4) 인성교육 전담부서의 지원과 협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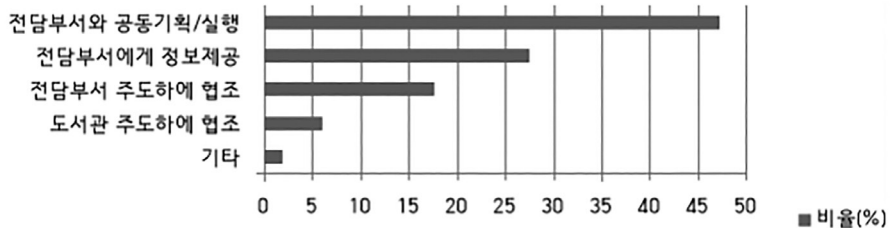
학내 인성교육 전담기관 및 부서(예: 인성센터, 학생처 등)가 있을 경우, 도서관이 인성교육 지원을 위해 이들 부서와 협력이 필요한 지에 대한 여부 조사와 협력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현재 대학의 43.1%만이 인성교육 전담부서를 두고 있었고, 그중 도서관이 이와 협력업무(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곳은 단지 27.2%에 지나지 않았지만, 응답자의 90.9%가 차후 인성교육 전담부서와 협력하여 도서관 서비스를 수행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고도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협력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도서관과 전담부서가 함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것(47.1%), 인성교육과 관련 정보(예: 인성교육 우수사례, 관련자료)를 제공함으로(27.5%), 전담부서에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사서가 조언 또는 가이드하는 방식(17.6%)으로, 도서관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전담부서 관계자가 조언 또는 가이드하는 방식(5.9%)으로 협조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기타 의견으로(1.9%) 학내 인성교육 부서뿐 아니라 외부 기관 대학교회, 선교단체, 기독교 출판사쪽과 연계하는 방법을 제안하기도 하였다(<Figure 3> 참고).

인터뷰에서도 인성교육 전담부서와 협력을 한다면, 이선에서 조언하고 보조하는 방법이 아닌, 일선에서 공동으로 교육서비스를 기획·실행하는 방법을 선호했다. 서비스 개발이나 전담부서 협력 자체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나, 만약 협력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도서관이 주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이는 인성교육 지원을 주도함으로써 도서관 홍보나 대학기관인증의 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점에 주목하였다. 반면에 도서관의 기능이 축소되고 있는 시점에 행사를 주도하는 것은 어렵고 전담부서에게 정보자원을 제공함으로 최소한 선에서의 협력만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도서관이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수행해야 한다는 측은 이 서비스를 통해 도서관의 주도권과 학교에 높은 평가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에 주목하였고, 최소한의 협조만을 강조하는 측은 현재 속한 도서관의 인력부족 및 업무과중을 그 이유로 꼽았다.

<Figure 3> Methods to Collaborate with Character Education Department



“저희학교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 주관 인증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때 도서관 파트를 채점한 채점관 교수님께서 ‘학생들의 교육과 정착률을 강화하기 위해서 도서관의 역할이 더 강화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상담센터 같은 곳에서 인성프로그램을 기획한다면,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어서 학생을 부르는 게 아니야?’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도서관이 이것을 한다면 부담이 없이 접근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도서관이 차라리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까지 하는 것으로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사서 A)

“저희가 주체가 되어서 시행하고 인성교육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도서관의 위상이나 가치도 높이고 좋지 않을까요? 협력관계에서 도서관은 학내에서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지 않을까...저는 우리 학생들을 주로 상대하다 보니 홍보 마케팅이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각자(전담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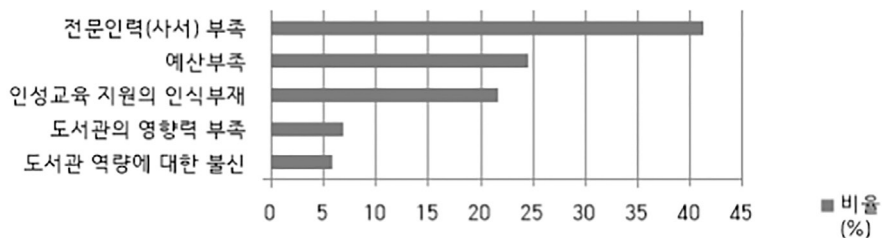
만하는 것 보다는 (도서관과) 같이 협력해서 홍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대학도서관 같은 경우는 도서관 리모델링을 통해 각 스터디룸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학습 교육장소로 굉장히 좋아요. 학생들이 선호하기도 하고...그런 교육공간을 저희 도서관에서 제공해 주겠다고 먼저 홍보를 해서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떨까 생각을 해 봤어요...(중략)...사실 저희 도서관이 관련(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있거든요. 딱 기독교 인성교육만은 아니지만... 내년에 '인성-지성-영성'이라고, 비교과프로그램을 도서관에서 운영할 계획이에요. 영성과 관계되는 것들을 영화와 접목시키고, 아까 나열해 주신 인성교육과 관련된 콘텐츠 개발이나 큐레이션쪽도 하고. 저희는 비교과프로그램 대학도서관 기관인증평가를 그쪽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죠.”(사서 C)

“인성교육의 영역은 별도의 부서에서 이끌어가야 할 사항이지 도서관은 고유의 목적과 기능이 있기 때문에...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대학도서관이 계속적으로 축소되고 있고 대학의 어려움 때문에 예산인력 공간 모든 부분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본연의 기능 이외에 그런 부분의 지원까지 우리가 수행할 수 있을까?라는 약간의 소극적인 자세가 될 수 밖에 없는 것 같아요.”(사서 B)

## 5. 인성교육 지원 서비스에서의 걸림돌(제한)

대학도서관이 인성교육을 지원을 계획할 때 소극적이 될 수 밖에 없고 이것을 기획하는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로 도서관의 열악한 현실과 상황들에 주목하였다. 현 대학도서관이 인성교육 지원서비스를 수행하고자 할 때 가장 큰 문제점으로 서비스를 기획하고 운영할 실질적인 '전문인력인 사서의 수가 부족하다'는 것(41.8%)과 '대학도서관의 예산 부족(24.5%)'을 높은 순위로 꼽았다. 인성교육 지원과 직접적인 연관되는 부분으로 '인성교육을 지원해야 한다는 필요성과 인식의 부재'(21.6%)를 그다음 한계로 꼽았다. 나아가 현재 대학도서관에 대한 대학의 불신과 무관심, 즉 '대학내 도서관 역할과 영향력에 대한 불신과 미지원'(6.9%)과 '도서관의 인성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는 기본 역량에 대한 불신과 인식미비'(5.8%) 또한 인성교육 지원 서비스를 운영하는데 큰 장애요소로 인식하였다(<Figure 4> 참고).

<Figure 4> Library Obstacles(Barrier) in Supporting Character Education



인터뷰에서 앞서 인성교육 지원 및 전담부서와의 협조에 대해 부정적인 측면을 부각한 사서들의 의견 그 기저에는 이 걸림돌부분과 긴밀히 맞닿아 있다. 외적인 문제점인 도서관 예산 및 사서 인력의 부족 이외에도 실제로 인성교육을 지원하고 협조하는 것이 도서관의 기본 역할로 타당한가에 대한 인성교육 자체에 대한 부족한 이해와 인성교육 지원 필요성에 대한 의구심이 큰 걸림돌이었으며 이것은 사서 재교육과정 교육내용에 적극 반영되길 요구했다.

“과연 이것을 도서관에서 해야 하는 (서비스) 방향성과 맞나?라는 고민이 먼저 앞섰구요. 그와 더 붙어서 내가 이 서비스를 진행하다고 했을 때 학내에서 이것들을 지지해 줄까? 서비스 참여를 학내에 요청을 했을 때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줄 것인가?라고 했을 때 그 부분에 있어서 부정적인 생각이 들었어요… 그 부분이 가장 큰 걸림돌이 아닌가.” (사서A)

“인성교육지원을 위한 전문 인력인 사서가 부족하고 대학도서관이 인성교육을 지원해야 한다는 필요성과 인식의 부재도 큰 것 같고요. 내가 생각하기엔 인식 부재지요.” (사서 B)

“사립대학은 지금 어려운 상태예요. 기독교대학은 모두 사립대학이고. 거의 재정적으로 고착상태에 빠져 있어요. 아실 거예요. 그것도 지방대학에… 지금 대학은 기관인증평가때문에 이쪽으로(도서관)는 신경도 안쓰고 있고… 저희 도서관도 인력이 70% 감축되었거든요. 은퇴한 (사서) 자리는 아예 충원하지 않죠. 70% 감축되고 하다보니깐… 기독교대학 도서관 환경이 정말 열악합니다.” (사서 C)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저희 대학이 신학대학임에도 불구하고 고민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도서관뿐만 아니라 대학이 기독교 인성교육을 지원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아예 없어요… 대학에서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사서 D)

## 6. 사서 역량강화를 위한 재교육

### (1) 재교육 영역(주제)

인성교육 지원을 위한 도서관서비스를 개발하고 시행하기 위해서 사서들은 어떤 영역에서 가장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지 조사하였다. 사서들이 지원받고 싶은 교육영역은 크게 두가지 주제로 나누어졌다. 첫째, 실제적이고도 구체적인 관련 프로그램 소개와 실행방법 및 성공 사례들을 전수받길 원했고 둘째, 인성교육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해 교육받길 요청했다. 그 이외에 기독교인으로써 사서직을 수행하는 의미와 자세에 대한 부분으로 기독교 세계관 및 직업관을 배우길 원했고, 사서 개인의 영성생활(예: 성경읽기, QT) 지원을 요청하는 부분도 있었다(<Table 7> 참고).

&lt;Table 7&gt; Topics of Librarians' Re-training Courses

문항	응답(명)	비율(%)
기독교 인성교육 지원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및 프로그램 운영 방법	23	22.5
기독교 인성교육 지원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개발과 프로그램 소개	20	19.6
기독교 인성교육의 의미와 필요성	18	17.7
기독교 인성교육의 교육방법	13	12.8
성공적인 인성교육 지원 사례 도서관 소개와 체험	11	10.8
기독교 세계관 및 직업관	9	8.8
기독교 인성교육을 위한 장서개발(큐레이션)	7	6.9
기타: 개인 영성생활(예: 성경읽기, QT) 지원	1	0.9

“저희 사서한테 지금 제일 필요한 교육은) 인성교육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말 우리가 그 교육을 위해 지원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사서들에게 갖춰져 있지 않다면 외부에서 아무리 이 서비스를 하라고 강요하거나 이 서비스를 위한 외부 지원이 있다 하더라도 그 서비스 실행은 피상적인 수준에 머무를 수 밖에 없고...도서관 내부든 외부든 서비스 실행에 대한 걸림돌 혹은 문제가 발생을 해도 사서가 끝까지 그 서비스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결론이 나와야 하는데,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사서 스스로 중간에 포기할 가능성이 많다고 보여져요.” (사서 A)

“실제 사례들을 인성교육 지원서비스 사례들을 실제로 접해 보는 것? 타인들의 간접경험들, 사례들을 많이 접함으로 도움을 받고 힘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성공사례들을 통한 간접경험과 교육들이 좋을 것 같아요.” (사서 B)

사서의 재교육 과정을 관련 서비스 사례를 소개하고 직접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방법을 직접적으로 배우는 것 이외에 간접적으로 사서들이 서비스를 개발하여 실천할 수 있도록 기초참고 자료 및 인프라를 문헌정보학 전문가들이 생산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기독교 인성교육에 걸맞는 단계별 콘텐츠들을 (문헌정보학) 교수님들이 발굴해 주셔서 저희쪽에 제공해 주신다면...그 콘텐츠들을 묶어서 단계별 교육 1단계에서는 인성과 관련된 독서교육을 이렇게 하고 2단계에서는 어떻게 하고 해서...이 학생들이 사회에 나갔을 때 '기독교 가치관'으로 선택해서 살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것을 스스로 느낄 수 있는 교육과정과 콘텐츠를 발굴해

주신다면 저희들은 충분히 도서관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교수님들이 더 연구하셔서 대학도서관의 큐레이션 영역이라든지 아니면 독서토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에 참고가 될 만한 정보들을 추가해 주시면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사서 E)

## (2) 사서 재교육 주관 기관 및 단체

기독교 인성교육 지원을 위한 사서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재교육을 수행할 때 어떤 기관 혹은 단체(학회 및 협회)가 주도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지 조사하였다. 대체로 한국신학대학도서관협의회(38.2%)나 지역거점 기독교대학도서관(27.5%)이 주도하여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재교육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었다. 그러나,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일반 사서들의 재교육을 주도해 오고 있는 국립중앙도서관의 사서교육분과(11.8%) 혹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9.8%)이나 한국도서관협회(6.9%)에서 특수주제 분야의 지원차원에서 사서교육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고, 개별도서관(3.9%)이 필요에 따라 교육을 진행할 것과 기타 의견으로 기독교 출판사(1.9%)에서 주관해 줄 것도 제안하였다.

선택한 단체나 기관이 사서 재교육을 주관하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배경에는 사서들이 요구한 재교육 주제(영역)와도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데, 언급한 기관들이야말로 ‘기독교 신앙과 사서직 업무를 융합한 세계관의 예시를 가장 잘 제시’해 줄 수 있고(50%), ‘기독교 인성교육과 관련된 도서관 프로그램과 실무와 사례를 전수’해 줄 수 있다고 인식하기 때문이었다(45.2%).

인터뷰 내용에서도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지역거점기독교대학도서관이나 한국신학대학도서관협의회(이하 신도협)에서 주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하는 이유는 ‘기독교’ 인성교육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해 제대로 제시해 줄 수 있고, 추상적인 관념으로써의 기독교 세계관이 아니라 이 가치가 어떻게 실무 현장에 적용되어 나타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들과 방법들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었다.

“저는 신학대학교도서관협의회와 같은 도서관협의회에서 진행을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지금 예시를 들어주신 기관들은 사실은 기독교적인 성격을 드러내기는 엄연히 제한이 있는 기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설사 그것을 이런 기관(신도협 이외의 다른 기관)에서 이런 교육을 의뢰한다고 하면 이들이 어떻게든 교육과정은 개발할 수는 있겠지만, 기독교인성 교육의 필요성을 사서들에게 설득해 가면서 재교육하려고 할까?라는 의구심도 들구요. 그러다보니, 가치적인 측면에서 여기가 가장 적합하다 생각되고요...인성교육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 이전에 기독교

교세계관과 기독교 인성교육이 무엇인지에 대한 가치적인 부분을 공유하고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기관이라면 이런 기관(창조과학회)들과 협업하면 좋겠다...”(사서 A)

한편, 신도협이나 기독교대학 도서관 이외에, 대표적인 사서 재교육기관인 국립중앙도서관(사서교육분과)이나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에서 주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기독교대학 도서관들이 일반 대학도서관들에 비해 현실적으로 너무 열악하고 따라서 신도협 규모가 너무 작으니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었다. 반면 이런 큰 기관에서 재교육과정을 추진해야, 하나의 큰 추진체로 혹은 거점기관으로 역할을 해내며 재교육과정이 원활이 진행될 수 있다는 이유였다. 국립중앙도서관이나 한국교육학술정보원들은 일반 도서관 서비스를 기획하고 교육을 전수할 뿐, 기독교와 같은 특정 주제 분야의 문제와 구체적인 서비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다는 반대 의견도 있었지만, 이런 큰 조직에서 관련 교육과 프로그램을 지원해야 사서들도 참여할 수 있고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의견이었다. 다만 기독교 인성교육 서비스에 대한 현실성 있는 사례들은 신도협같은 특정주제(기독교)를 가진 단체에서 하위주제범위로 함께 협력하여 재교육 방향과 실례를 고민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는 의견이었다.

“...한국신학대학교협의회도 가능하다고는 생각해요... 근데 왜 저는 재교육기관으로 이 협의회를 뺏나면...일단 기독교대학들이 모두 가입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특히 기독교대학이면서 많이 성장한 큰 대학들은 많이 빠져 있어요. 신학대학 위주의 대학들끼리만의 협소한 교육밖에 안되니까요. 그리고 사실 신학대학교 도서관들이 일반대학교 도서관들보다 환경적으로나 인력면에서 더 열악한 면을 가지고 있고 이런 열악한 상황에 있는 대학도서관이 모인 신도협에서 재교육을 주도한다는 것에서 회의적이죠.” (사서 C)

“국립중앙도서관은 일단 거점이 되는 것 같구요.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현실적으로 고민할 것 같고. 꼭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이런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곳이 신학대학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일반 대학도서관에서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고...그래도 한국신학도서관협의회와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같이 논의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체 포괄적으로 보면 국립중앙도서관인데, 실제 업무에 들어가서는 신학대학교도서관협의회에서 이 프로그램을 굉장히 관심있게 볼 것 같아요. 어쨌든 큰 추진들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하고 하위범주로 신학대학도서관협의회에서 구체적으로 실행하면 좋겠다...” (사서 D)

### (3) 재교육에 적합한 강사(인력풀)

기독교대학 인성교육 지원을 위한 사서재교육을 실시할 경우, 적합한 강사 인력풀은 기독교신앙을 가진 문헌정보학과 교수(64.7%)와 기독교대학에 속한 현장 사서(17.7%) 그리고 신학과 교수(15.7%)로 조사결과가 좁혀졌다. 이들은 각각 독자적으로 사서 재교육 강사로 활동하기보다 이 세 전문가집단이 협업하여 사서에게 도움을 주길 원했다. 특히 현장에 적용 가능하고 실례를 보여줄 수 있는 전문가이어야 하고 동시에 기독교 신앙 및 기독교 인성이나 관련 교육 부분에 있어서도 전문가를 원했다. 이것은 앞서 사서가 제공받고 싶은 재교육 영역과도 주제적으로 맥락을 같이 한다.

“우선 문헌정보학 부분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하고 기독교적인 부분이 이 속에서 어떻게 스며들 수 있는 부분들을 매우 심도있게 다양한 사례들을 연구하신 분들이 여러 성공사례들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당신네 대학에서 적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보여주고, 관련 사례들을 적용했을 때 피드백 까지 받을 수 있는 사람...(문헌정보학)핵심 교수님들이 그것들을 전파할 수 있는 사명을 가진 분이 담당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서 E)

“저는 신학과 교수님들 중에 기독교교육을 전공하신 분이 적합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기독교교육을 주관하시는 분들이 전국에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기독교교육학회나 협회에서도 이런 도서관 프로그램에 대해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사서 D)

“기독교신앙을 가진 문헌정보학교수라고 생각했습니다. 신학과 교수님이 오신다고 해서...저희가 신학적인 관점만 배우거나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중략)...현장사서도 좋은 예라 할 수 있으나, 재교육이라 한다면 주로 기독교신앙을 가진 교수님이 주도를 하면서 중간 중간에 현장사서와 연합을 하면 좋겠다...” (사서 A)

## IV. 결론 및 제언

### 1. 요약정리

본 연구는 기독교 진리에 기초한 인재들을 길러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 기독교대학에서 기독교 인성교육을 운영함에 있어 이를 지원하는 대표 부속기관 중의 하나인 도서관은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사서들의 인식과 요구를 조사하였다. 조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에 참여한 사서들은 오랜 신앙생활(신앙연수가 20년이상인 경우가 과반수 이상을 차지)을 해 왔으며 근무지가 기독교대학에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인재양성 혹은 기독교 인성교육 나아가 기독교 직업관 및 세계관이라는 주제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지 못했으며, 교육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 이것은 기독교대학의 중요가치와 설립취지에 따른 사서직의 역할과 직무를 연결한 구체적인 신념이나 직업관을 가지지 못한 것으로 연결되었다. 사서라는 직업인은 주어진 직무와 업무를 기능적이고도 기술적으로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으로 기독교인으로써의 소임을 다한 것이며 오히려 직무 공간에서 개인적인 신앙을 연결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와 동시에 같은 비율로 자신의 직업의 의미를 신앙과 결속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지만, 구체적인 방법과 방향을 몰라서 고민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과 예시를 구하고 있었다.

둘째, 대학도서관에서 인성교육을 지원하기 앞서 사서들은 기독교가치를 가진 인재를 양성하는 기독교 인성교육을 기독교대학에서 실시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 또는 당위성이 잘 동의되지 않는 바, 이에 대해 설득받기 원했고 나아가 도서관이 이를 적극 지원해야 하는 필요성과 동기 또한 부여받길 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기독교대학에서 인성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면, 연구자들이 제시한 6가지 인성교육 덕목에 맞춰 교육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동의를 표했다. 그러나, 기독교 기본진리에 대한 인지교육이나 지역사회 및 공동체에 공헌 혹은 대인관계 역량에 대한 부분보다는 개인적인 차원의 가치에 집중된 덕목들, 기독교 가치에 기초하여 인간존재를 소중히 여기고 그 선상에서 자신을 소중히 여길 줄 알며 급속히 변화하는 세계속에서 자기중심성을 확고히 하고 창의력을 가진 인재로 길러지는 교육내용에 더 집중되어 있었다. 나아가, 교육내용 만큼이나 교육방법과 문화적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는데, 단순 기독교 교리의 주입이나 습득이 아닌, 구체적인 기독교 가치 실천과 기독교 공동체 문화라는 토양과 환경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셋째, 현재 기독교대학에 인성교육을 전담하고 있는 곳은 전체 기독교대학의 40%에 지나지 않았고 그중 대학도서관에서 인성교육을 지원하고 있는 곳은 30%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대학도서관에서 인성교육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 도서관이 독립적으로 서비스를 진행하기 보다, 대학내 인성교육 전담부서와 협력하는 방법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인식하고 있었고, 협력 방법으로 단순 조력이나 자료제공 차원이 아니라 전담부서와 동등한 입장에서 관련 프로그램을 함께 기획·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넷째, 인성교육 전담부서와 협조하는 것 이외에 도서관이 인성교육 지원을 위해 할 수 있는 역할과 방법에 대해서는 인성교육의 본질과 의미를 이상적으로 생각하여 역할과 업무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제한점과 환경들을 고려하여 기존의 유사한 서비스에 기반한 도서관의 서비스들

을 언급했다. 따라서, 대부분 정보자료 수집과 관련된 것으로 인성교육과 관련된 특별주제 장서를 선별·수집하고 추천하는 큐레이션 서비스를 가장 우선으로 꼽았고, 그것을 활용하는 교육서비스인 독서관련 프로그램과 정보의 윤리적 사용과 활용에 대한 교육서비스라는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인식했다. 인성교육을 위한 공동학습공간의 지원이라는 측면의 도서관 공간 제공 및 활용에 관한 서비스는 소수만이 응답했다.

다섯째, 도서관이 인성교육을 지원하는 역할과 소임을 수행하기 위해 가장 걸림돌이 되는 사항으로 서비스를 수행할 전문 인력인 사서의 절대적인 부족을 꼽았고, 이는 현재 기독교대학의 열악한 재정 상황, 대학내 도서관 예산 및 지원의 감소와 무관심, 학내의 도서관 및 사서역할에 대한 불신이 서비스를 진행하고 운영하는데 걸림돌로 여겼다. 또한 근본적으로 기독교대학내 인성교육의 필요성과 사서의 인성교육의 의미와 지원 필요성에 대한 동기부여의 미비 또한 인성교육 지원에 있어 큰 제한점으로 인식하였다.

여섯째, 사서들이 대학내 인성교육 지원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재교육을 수행할 경우, 교육 내용에 있어서는 인성교육의 의미와 지원 필요성에 대한 동기부여에 대한 부분이 우선적으로 교육되어야 하며 도서관의 인성교육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그램 및 방법들, 다른 도서관 및 기관들의 성공적인 사례들을 전수받길 원했으며, 근본적으로 기독교인 사서로써 가져야 할 세계관 및 직업관에 대한 내용도 교육받길 요구했다.

끝으로, 사서재교육을 운영하기에 가장 적합한 기관 및 단체로 한국신학대학도서관협의회나 지역거점 기독교대학도서관을 꼽았고 이들이 거점기관이 되어 교육내용과 프로그램을 운영해 줄 것을 요구했는데, 이는 기존의 일반 도서관과 달리 기독교적 가치관을 사서 업무에 녹여낼 수 있는 내용과 방법을 전수하기에 가장 적합한 기관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와 더불어 기독교적 배경은 없지만, 대학도서관 사서재교육을 담당해 왔던 대표기관인 국립중앙도서관 사서교육분과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동일하게 특수주제(기독교 인성교육) 분야라는 주제하에 사서재교육을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는데, 사서들에게 큰 영향력과 파급력을 줄 수 있는 거점 거대 기관이기에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강사 인력풀로 기독교 신앙과 사서직 전문성을 모두 갖춘 융합 전문인이 교육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으로 여겨 기독교신앙을 가진 문헌정보학과 교수와 현장사서를 제일선의 강사로 꼽았지만, 이들이 독립적으로 교육하기보다 신학과교수(특히 실천신학이나 기독교교육)와 기독교신앙을 가진 문헌정보학과 교수 그리고 현장사서가 함께 협력하여 재교육과정 강사로 일해 줄 것을 요구했다.

## 2. 제언 및 후속연구

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제언하고자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서들을 대상으로 기독교 직업관 및 세계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인성교육과 관련된 설문조사에서 기독교 인재 양성 혹은 기독교 인성교육 나아가 기독교 직업관 및 세계관이라는 주제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지 못했고, 어떤 가치관과 방법으로 접근하고 실천해야 할지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을 구하였다. 또한 재교육시 인성교육의 의미와 지원 필요성에 대한 동기부여가 우선적으로 희망하는 내용이었다. 기독교대학 내 인성교육의 위기는 기독교 세계관에 관한 확실한 교육의 부재로부터 기인하며(정대경, 2019), 인성교육을 위해서는 학생뿐만 아니라 직원을 위한 기독교 세계관에 관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스미스(Smith, 2002)는 사서에게 도덕적 모범, 겸손, 친절, 기도 등 사서의 직업윤리 정립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기독교대학 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사서를 대상으로 기독교 직업관 및 세계관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 사서가 일과 신앙을 어떤 관점으로 보는 것이 과연 성경적인가를 심도있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사서 각자가 세계관을 확립하고, 사서가 직업관을 서로 공유하고, 격려할 수 있는 공동체 문화의 형성이 필요하다. 인성이란 가르치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인격'과 '모범적 행동'을 통해서만 교육될 수 있다는 특성을 가진다(조용훈, 2016). 따라서 사서가 먼저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와 근로 학생들에게 멘토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모범적 인성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되고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사서는 기독교적 직업관에 기반하여 도서관 입장에서 대학 교양교육의 인성교육 지원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면담결과, 일부 사서는 도서관이 인성교육을 지원해야 하는가의 필요성에 대한 동의가 먼저 필요하다고 하였고, 한편으로 인성교육 지원이 도서관의 긍정적인 평가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예상하기도 했다. 먼저 도서관은 인성교육과 관련하여 어느 부분까지,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설문조사 결과 인성교육의 본질과 의미에 기반하기보다는 기존의 유사한 서비스를 기반으로 응답한 것이라 볼 수 있지만, 사서들은 인성교육과 관련된 장서를 선별하여 수집하고 추천하는 큐레이션 서비스를 가장 우선으로 꼽았고, 그것을 활용하는 교육서비스인 독서관련 교육프로그램과 정보의 윤리적 사용과 활용에 대한 교육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사서의 직업관과 인성교육의 필요성에 관한 인식하에, 도서관은 기독교대학에서 진행중인 인성교육 관련 교양 교과목 및 비교과를 지원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우선적으로 수집할 필요가 있다. 사서는 학생들이 신앙과 학습을 통합할 수 있도록 참고자료, 기독교교전, 교회역사, 일반 장서, 특별 장서 등 장서에 대한 접근을 제공해야 한다(Smith, 2000 ; Terhune, 2006). 한국 신학도서관협의회 30년사에서 김창의(2004)가 언급했듯이, 사서는 이용자를 위해 해당 주제의 도

서 해제를 작성할 수 있어야 하고, 전문성이 요구된다. 사서는 수집된 장서를 기반으로 해제목록을 작성하고, 큐레이션 서비스와 독서관련 프로그램, 정보의 윤리적 사용에 대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사서는 선행연구(김소연, 2012)에서 언급된 주제인 자신에 대해 긍정과 반성, 안정된 정서함양과 심미성, 도덕적 판단과 실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관계 맺기 등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 큐레이션, 독서 프로그램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도서관은 비교과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각종 평가와의 연계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면담 결과, 대학도서관 기관인증평가를 위해 도서관이 인성-지성-영성이라는 비교과프로그램 운영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예컨대 각종 평가를 위해 대학의 목표와 기존 도서관 서비스를 연계하거나 새로운 서비스를 기획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도서관은 대학도서관발전계획을 세우고, 수립된 계획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기초소양함양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예컨대 기초소양함양프로그램으로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독서 프로그램 기획시 대학의 소양교육 목표와 결부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이를 위해 사서들은 교양교육 주제와 그 방법론에 관해 배우고 토론할 수 있는 자체적인 학습동아리를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기독교대학 도서관은 인성교육 전담 부서와 협력을 강화하고, 전담부서와 함께 관련 프로그램의 기획 및 수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설문 결과 사서들은 학내 인성교육 전담부서와 협조하고 협력하는 방법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알렌(Allen, 2014)은 각 대학에서 학생들이 중도 탈락하지 않도록, 도서관이 다양한 지원 부서와의 협력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특히 기독교대학에서의 인성 교양교육과 관련하여, 교목실과의 협력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기독교 인성교육장으로서의 채플과 기독교 교양과목은 확고한 기독교 신학적 정체성 위에 기독교 학생과 비기독교 학생 모두의 공감을 얻어낼 수 있는 형식과 내용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정대경, 2019). 도서관이 가진 정보자원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인성교육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일반적인 교리 교육을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자료를 접하게 함으로, 다양한 지식 가운데 기독교 인성 관련 지식을 습득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자료에 기반하여 기독교 신앙이 스며드는 환경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RC(Residential College) 프로그램에 도서관 자료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인성교육을 위한 이러한 협력은 대학에서 실시하는 소양교육의 프로그램 홍보에도 효과적일 것이다.

다섯째, 인성교육 서비스 개발을 위해 기독교대학 도서관간 협력을 고려할 수 있다. 조사 결과, 사서들은 도서관의 인성교육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그램 및 방법들, 다른 도서관 및 기관들의 성공적인 사례들을 전수받길 희망하였다. 또한 사서들은 사서재교육을 운영하기에 가장 적합한 기관

으로 한국신학대학도서관협의회나 지역거점 기독교대학도서관을 꼽았다. 한국신학대학도서관협의회나 지역거점 기독교대학도서관이 거점기관이 되어, 인성교육을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 및 방법들, 성공사례 등을 공유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공유 프로그램이 정착 되면, 장기적으로 대학에서의 교양교육 지원을 위한 도서관의 역할에 관해 국립중앙도서관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재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계에서는 신앙을 가진 문헌정보학과 교수와 기독교교육학 교수들이 연구를 통해 기독교대학 도서관의 소양교육 지원에 대한 이론을 정립하고, 이의 확산을 위해 문헌정보학 교수와 기독교교육학 교수, 현장 사서와 협업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기독교대학은 교육목표를 인성교육 중심으로 재정리하며, 기독교대학 본부는 근시안적인 시각으로 도서관 직원의 다른 부서로의 배치 및 신규 직원 채용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지 말고, 도서관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설문 결과 인성교육 지원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사항으로 사서의 절대적인 부족을 꼽았고, 도서관 예산 및 지원의 감소를 제한점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대학은 도서관의 사서를 충원하고 예산을 확대하며, 도서관은 자료를 활용한 인성 교양교육을 지원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도서관은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고, 학생과 교수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기독교대학에서 기독교 인성교육을 운영함에 있어 도서관의 역할에 대한 사서들의 인식과 요구를 조사한 최초의 연구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연구대상의 표본 크기가 한정적이며 성별, 연령, 지역 등의 다양한 인구학적 특성을 포괄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적은 표본 크기에 의한 연구결과를 보충하기 위해 질적연구 방법(인터뷰)에 의한 기저 원인과 상황들에 대한 이해가 보충되어 연구결과의 '일반화(generalization)' 대신 '현실 가능성(feasibility)'을 확보하려 노력하였다(Silverman, 2005). 그러나, 계속되는 후속연구에서는 표본의 크기를 보다 확대하고, 다양한 연구대상을 상대로 각 인구학적 특성(예. 경력, 지역, 학교 특성, 도서관 규모 등)에 따른 상관관계를 파악하여 보다 세분화되고 구체적인 사서들의 요구와 인식을 파악하는 연구가 계속될 필요가 있다.

둘째, 사서들의 인성교육 지원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재교육과정과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사서들이 희망하는 교육담당기관인 한국학술정보원, 국립중앙도서관(사서교육분과) 및 신학도서관사서협회가 상호협력하여 문헌정보학, 신학, 인성교육 전문가들의 복합교육형태로 교육내용과 내용이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이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에 대한 논의와 함께 보다 구체적이고 단계별 내용, 교육주차, 교육시간 나아가 교안작성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인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지속되어야 한다.

끝으로, 기독교대학의 현장 사서들이 인성교육 지원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서지자료로 대표되는

각종 참고자료들을 개발하는 연구가 국가 기초 ‘토대연구’사업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다. 인성교육과 관련된 주제영역인 신학 및 기독교교육학뿐 아니라 문헌정보학 전문가들이 서로 협력하여 ‘기독교 인성교육’과 관련된 서지 및 해제목록으로 대표되는 참고자료 개발, 인성교육에 필요한 단계별 독서교육에 적합한 자료 및 해제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 참 고 문 헌

- 고종호·정혜승 (2012). 대학도서관 독서교육에 관한 사례 연구: 조선대학교 도서관 독서진흥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사대도협회지**, 13, 23-41.
- 고종호·정혜승 (2015). 정부재정지원을 활용한 대학도서관 독서사업: 조선대학교 도서관 사례를 중심으로. **사대도협회지**, 16, 81-98.
- 구제홍 (2007). 정보사회의 기독교대학의 인성교육. **기독교교육정보**, 18, 35-68.
- 교육부 (2021). **제2차 인성교육 종합계획(2021-2025)**. 세종: 교육부.
- 교육부 (2023). **2023년도 인성교육 활성화 시행계획**. 세종: 교육부.
- 국립국어원 (2024).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 (검색일 2023.10.20.)
- 김대인 (2020). 기독교대학의 채플을 통한 기독교인성 교양교육 방안. **신학과 복음**, 9, 69-87.
- 김대인 (2021). 기독교인성을 함양하는 기독교 교양수업 연구. **신학과 복음**, 11, 67-91.
- 김성원 (2019). 대학생용 기독교 인성 측정도구의 개발과 타당화. **기독교교육논총**, 58, 311-338.
- 김소연 (2012). 한국 대학생들의 인성교육을 위한 채플 활성화 방안. **기독교교육정보**, 34, 181-209.
- 김춘이 (2017). 기독교 대학의 기독교 교양 과목이 대학생들의 인성 개발에 끼친 영향 분석. **대학과 선교**, 33, 65-90.
- 김충만 (2016). 기독교와 인성(人性): 경성대학교 건학이념("기독교 정신")의 구현으로서의 인성을 중심으로. **인문학논총**, 40, 83-104.
- 권현지 (2021). 대학도서관의 독서교육 사례 연구: 연세대학교 원주학술정보원 비교과 프로그램 BOOKCLUB:Y를 중심으로. **독서연구**, 60, 229-262.
- 김정희 (2016). 기독교학교에서의 기독교 인성 및 기독교 인성교육에 대한 이해. **기독교교육논총**, 46, 265-286.
- 김창의 (2004). 신학과 도서관. 한국신학도서관협의회 (편저). **한국신학도서관협의회 30년사**. (pp. 59-76). 서울: 한국신학도서관협의회.
- 대학도서관진흥법 2015. 3. 27. 제정. 2015. 9. 28. 시행. 법률 제13222호. <https://law.go.kr> (검색일 2023.08.14.)
- 박미라 (2020). 기독교 인성교육을 위한 융합형 교육프로그램의 연구. **신학과 실천**, 71, 503-528.
- 박민수 (2009). 인성함양을 위한 기독교 교양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코메니우스 이론을 중심으로. **대학과 선교**, 17, 113-142.
- 박영철 (2012). 도서관인의 명암(明暗): 독서명문대학을 꿈꾸는 숭실대학교 독서인재프로그램. **도서관문**

- 화, 53(7), 31-34.
- 박향숙 (2022). 기독교대학 인성교육을 위한 교과목 개발. **기독교교육논총**, 72, 317-339.
- 양주성(2014). 커뮤니티: 독서를 통한 코칭 서비스: H 대학도서관을 중심으로. **디지털 도서관**, 73, 130-135.
- 오세홍 (2022). 기독교 대학합창단을 통한 대학생들의 인성함양 방안: 한남대학교 실레스트 합창단 사례를 중심으로. **대학과 선교**, 51, 175-199.
- 유승민·유재봉·안은경 (2023). 노작과 서클 대화를 통한 기독교적 인성수업 개발. **기독교교육정보**, 76, 57-98.
- 윤성민 (2020). 인성교육과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기독교 융복합 교양과목의 방향성 제시. **신학과 실천**, 71, 457-478.
- 윤주영 (2015). 대학도서관의 독서프로그램 활성화 사례 연구: 동국대학교 휴먼북 라이브러리를 중심으로. **사대도협회지**, 16, 155-174.
- 이금만 (2011). 인격 재형성을 위한 신학교육의 방향. **기독교교육논총**, 27, 125-154.
- 이경민 (2012). 대학도서관에서 대학생 독서지도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3(4), 161-181.
- 이기훈 (2004). 제로 베이스 사고에 기초한 다원화 시대의 기독교 대학 인성교육. **대학과 복음**, 10, 77-101.
- 이병기 (2014). 독서를 통한 인성교육의 프레임워크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5(4), 95-117.
- 이성아 (2021). 기독교 대학의 인성 함양 프로그램 성찰저널 분석 연구: K대학교의 밀알훈련 사례를 중심으로. **기독교교육논총**, 66, 383-412.
- 이용재·이지옥 (2021). **대학도서관 발전계획 분석 및 뉴노멀시대 도서관 발전전략**. 대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이은성 (2017). 교양과목을 통한 기독교대학 인성교육의 전략적 운영 방안 탐색. **기독교교육논총**, 51, 101-124.
- 이종민 (2016).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따른 기독교사립대학 인성교육교재 개발 및 효과성에 대한 연구. **기독교교육논총**, 47, 313-347.
- 이지연 (2009). 학교도서관이 학교교육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3(4), 353-380.
- 이현실 (2010). 대학도서관 독서치료 주제목록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1(4), 179-192.
- 인성진흥교육법 2015. 1. 20. 제정. 2015. 7. 21. 시행. 법률 제13004호. <https://www.law.go.kr/LSW/>



lsInfoP.do?lsiSeq=167462#0000 (검색일 2023.07.10.)

- 임보람 (2019). 대학도서관의 협업 필터링 기반 도서 추천 시스템 개발에 관한 연구: E여대 독서 프로파 일링 서비스 사례를 중심으로. **사대도협회지**, 20, 1-23.
- 임신일·김은영 (2019). 4차산업혁명시대 기독교대학 역할에 대한 교수인식. **신앙과 학문**, 24(1), 95-112.
- 정대경 (2019). 기독교 대학의 인성교육: 명지대학교 기독교 인성교육 사례를 중심으로. **대학과 선교**, 40, 7-35.
- 정대근 (2023). 대학도서관 독서지원서비스를 위한 여가독서 적용에 관한 연구. **인문사회** 21, 14(2), 1781-1794.
- 정연경 (2017). 대학도서관 데이터 분석을 통한 대학생 독서 지원 서비스 방안 연구. **독서연구**, 43, 9-34.
- 조경덕 (2020). 소셜 교육을 통한 기독교 인성 역량 함양의 가능성 고찰: 기독교 대학 교양 과목을 중심으로. **신앙과 학문**, 25(4), 79-97.
- 조용훈 (2003). 한국 기독교대학의 정체성의 구성요소에 대한 연구. **통합연구**, 16(2), 193-224.
- 조용훈 (2016). 기독교대학의 인성교육에 대한 한 연구. **대학과 선교**, 31, 227-258.
- 주연수 (2015). 기독교적 가치관에 기초한 정서조절과 기독교인성교육. **기독교교육논총**, 44, 77-115.
- 최영근 (2016). 기독교대학의 복음적 인성교육에 관한 연구: 하나님 나라의 성육신적 영성교육의 신학과 실행방안. **대학과 선교**, 30, 223-261.
- 최영식 (2014). 대학 도서관에서의 독서치료 서비스: H 대학도서관 중심으로. **디지털 도서관**, 74, 69-82.
- 한가숙 (2014). 대학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사례 고찰: 한남대학교 도서관 운영사례를 중심으로. **사대도협회지**, 15, 1-22.
- 한만오 (2016). 기독교대학의 채플이 기독교인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복음과 실천신학**, 38, 179-208.
- 함영주 (2017). 기독교대학 신입생들의 기독교 인성 및 섬김 교육 효과분석과 기독교교육적 제언. **總神大論叢**, 37, 165-293.
- 허도화 (2016). 신앙과 학문의 통합을 위한 복음적 인성교육: 기독교대학의 인성교육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신학사상**, 173, 235-266.
- 홍현진 외 (2022). 공공도서관 사서 직무에 대한 인식조사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33(3), 5-30.
- Allen, S. (2014). Towards a conceptual map of academic libraries' role in student retention. *The Christian Librarian*, 57(1), 7-19.
- Harrell, C. & Bradley, A. (2009). *Data collection methods: Semi-structured interviews and focus groups*. Santa Monica, CA: RAND Co.
- Lincoln, Y. & Guba, E. (1985). *Naturalistic inquiry*. Beverly Hills, CA: Sage.
- Silverman, D. (2005). *Doing qualitative research: A practical handbook (2nd ed.)*. Los Angeles,

CA: Sage.

Smith, G. A. (2000). A philosophy of christian librarianship. *The Christian Librarian*, 43(2), 46-51.

Smith, G. A. (2002). The core virtue of christian librarianship. *Faculty Publications and Presentations*, 1. Retrieved from <https://core.ac.uk/download/pdf/58820418.pdf> (2023.10.2.)

Terhune, S. (2006). The impact of the christian faith on library service. *The Christian Librarian*, 49(2), 91-100.

# 기독교대학 '인성교육'을 위한 도서관 역할에 관한 사서 인식 연구

## Librarians' Perceptions of the Roles of Libraries in Supporting 'Character Education' at Christian Universities

이성숙 (충남대학교)

구정화 (한남대학교)

### 논문초록

본 연구는 기독교 진리에 기초한 인재들을 길러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기독교대학에서 기독교 인성교육을 수행함에 있어 이를 지원하는 대표 부속기관 중의 하나인 도서관은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전문 사서들의 인식과 요구를 조사하였다. 이는 기독교 대학 사서들의 인성교육 및 지원에 대한 인식과 요구사항을 토대로 기독교대학의 인성교육 지원을 위한 사서 재교육 내용과 방법을 구상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독교대학 도서관에 근무하는 사서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법'과 '면담법'을 이용하여 연구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기독교대학에서 수행해야 할 인성교육의 영역에 대한 사서 인식', '신앙과 직업과의 관계(세계관 및 직업관)', '인성교육 지원을 위해 기독교대학 도서관이 수행해야 할 핵심 역할에 대한 인식', '도서관이 인성교육을 지원함에 있어 걸림돌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요구(재교육 내용)'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설문조사하고, 응답에 대한 이유와 기저 배경에 대한 내용은 심층면담법을 통해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인성교육 지원에 있어 도서관은 인성교육 전담 부서와 협력하되 동등한 위치에서 관련 프로그램을 함께 기획하고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인성교육과 관련된 특수 주제장서 수집과 큐레이션을 꼽았고, 그 장서를 활용한 교육서비스인 독서교육 프로그램과 정보의 윤리적 사용에 대한 교육서비스와 교육장소를 지원하는 것이 도서관의 주요서비스이자 역할이라 인식했다. 도서관의 인성교육지원에 있어 가장 큰 제한점으로 외적으로는 전문사서의 부족과 제한된 예산을, 내적으로는 사서 자신들의 인성교육 의미와 이를 지원해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한 몰이해를 한계로 꼽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사서 재교육 과정에서 인성교육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성공적이고 구체적인 역할과 서비스 사례들을 소개받고 실행방법들을 전수받길 희망했다.

연구결과 분석을 바탕으로 시사점을 도출하고, 기독교대학 인성교육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들과 도서관 역할에 대한 재고, 사서 재교육 과정의 내용과 지원 방향들이 제안되었다. 나아가 본 연구의 한계와 이를 보충할 후속연구 주제들과 연구과제들이 제안되었다.

주제어: 기독교 인성교육, 사서 인식, 도서관 역할, 기독교대학, 기독교대학 도서관, 사서 재교육



# 기독교 세계관으로 본 신앙과 학문의 통합에 관한 고찰: 헤르만 도어베르트의 사상을 중심으로\*

**A Research on the Integration of Faith & Scholarship from  
the Christian Worldview: focusing on the thought of Herman Dooyeweerd**

최용준 (Yong Joon (John) Choi)\*\*

## ABSTRACT

This article investigates how Herman Dooyeweerd(1894-1977), a Dutch Christian philosopher, tried to integrate faith and scholarship from the biblical worldview. Succeeding Abraham Kuyper(1837-1920), Dooyeweerd developed his so-called ‘transcendental critique of theoretical thought’ in order to explain why scientific thinking can never be neutral but is integrated with religious faith. Because the almighty God created all things with His wisdom, scholarship is the human activity to honor God and serve our neighbors by rediscovering the order of creation. However, due to the fall of man, these academic activities were separated from faith and humans developed science and technology for themselves, which eventually caused various problems due to self-contradiction. Dooyeweerd points out this as reductionism and the idolization of thoughts through the absolutization of one aspect. However, through the redemption of Christ, the ultimate solution is made possible and science can be newly integrated with faith through the regenerated reason. After explaining the sphere-sovereignty and universality of modal aspects, he analyzed how theoretical thinking is possible through theoretical antithesis and synthesis. Eventually, when the human heart, the center of man, is born again in Christ and directs again toward the Creator, integration is possible, and science and technology are also beneficial to mankind. Finally, when the Kingdom of God will be consummated, the process of integration would also be completed just like jewels in the wall of New

\* 2024년 2월 6일 접수, 2월 26일 게재확정  
이 연구는 한동대학교 교내연구 지원 사업 제202300570001호에 의한 것임

\*\* 한동대학교(Handong Global University) ICT 창업학부 교수, 경북 포항시 북구 한동로 558, crosspower@handong.edu

Jerusalem. In conclusion, it is discussed how Dooyeweerd's insight has been developed by his successors and what are the implications of his legacy in the Korean context.

**Key words:** Herman Dooyeweerd, faith, scholarship, integration, Christian worldview

## I. Introduction

Any Christian scholar who acknowledges and confesses God's absolute sovereignty will not try to separate his/her faith from the field of major study, but rather try to integrate both. However, opinions may differ as to how to do this specifically. In this article, the integration of faith and scholarship is examined from the Christian worldview, that is, creation, fall, redemption, and consummation, but more specifically, focusing on the 'transcendental critique of theoretical thought' developed by Dutch Christian philosopher Herman Dooyeweerd(1894-1977).

Quite a lot of researches have been made on the integration of science and faith, but few have tried to integrate both by applying the Christian worldview. One Christian scholar who has researched the integration of faith and learning is Robert A. Harris from the United States (Harris, 2004, 2014; Choi, 2013). I have recently published an article examining how Abraham Kuyper(1837-1920), Dooyeweerd's mentor, argued that science and faith should be integrated in his various works (Choi, 2021). I have also published an article on the life and thought of Dooyeweerd (Choi, 2005).

This article discusses how Dooyeweerd, who inherited the neo-Calvinism of Kuyper who had extended Calvin's theological thought to all areas of life, attempted to explain how academic thinking can never be neutral but is intrinsically integrated with faith through his unique idea, by focusing on the four elements of the Christian worldview. After that, I will conclude by mentioning what kind of influence he has left and what lessons he can give to the Korean context.

## II. A Research on the Integration of Faith and Scholarship from the Christian Worldview: Focusing on the Thought of Herman Dooyeweerd

### 1. The Four Elements of a Christian Worldview

First, about the Christian worldview, Kuyper translated the German word

‘Weltanschauung’ used by German idealist philosophers into the biblical term ‘levens-en wereldbeschouwing(life and worldview)’ and began to use it to mean a Christian worldview (Kuyper, 1902: 36) and explained it by classifying it into four elements: creation, fall, redemption, and consummation. On the other hand, Dooyeweerd tended to include consummation in redemption, mainly referring to only the three elements of creation, fall, and redemption as the fundamental Christian ground motive (Dooyeweerd, 1953: 60, 1957: 169). However, in this paper, I take four elements, as there is discontinuity as well as continuity between redemption and consummation (Choi, 2019: 185-206).

## 2. Creation: The Integration of Faith and Scholarship

The biblical view of creation sees that all things were created in an orderly way by God (Gen. 1). In addition, human beings are created in the image of God are blessed with the task to be fruitful, multiply and rule, develop, and preserve all the creatures of this world (Gen. 1:27-28; 2:15). Here, we can see already that faith and scholarship are integrated. In other words, it can be said that scholarship is an activity of developing this creation by rediscovering the laws of creation that the Creator has planted in this world and using them correctly. So it can be said that this already presupposes faith in creation. Therefore, if we look closely at the process how Adam named animals, we can see that it is a human scientific activity as a steward with a sense of responsibility, integrating his faith and learning (Gen. 2:19-20).

Therefore, Kuyper argued that the reason for the integration of faith and scholarship is because of this creative sovereignty of God. On October 20th, 1880, he founded the Vrije Universiteit(Free University) in Amsterdam whose name means being free from the interference of the state and the church and took the office as president. At the opening address, he maintained that the various spheres of this world are created by God and therefore each has individual sovereignty, but at the same time Jesus Christ, the Lord of all (Col. 1:16), claims that every inch of our life is “mine” (Kuyper, 1880, Park, 2020). In other words, since the ultimate sovereignty in scholarship belongs to the Lord, science and faith must be integrated in Christ (Eph. 1:10), who is the head of



the universe.

Systematic theologian Herman Bavinck(1854-1921), who succeeded Kuyper, also viewed science as a creation of the almighty God (Bavinck, 1897) and Dooyeweerd further developed this point and held that science can not be neutral (Dooyeweerd, 1935: 11, 1953: 3-4, Choi, 2000). How, then, did he explain the integration of faith and scholarship?

The starting point of Dooyeweerd's thought is based on the biblical view of creation. The philosophical idea that he emphasizes first, 'meaning(*zin*)' is an appropriate expression of this view of creation. God is the origin of all things(*Αρχή*) and still reigns over all creation and furthermore, all things will be finally consummated in the Kingdom of God. In this respect, Dooyeweerd defines all reality as 'meaning' (Dooyeweerd, 1935: 3-4). It may sound a bit strange to say that creation itself is meaning rather than saying that there is meaning in creation, but what he is trying to emphasize is that all creatures are not self-sufficient, but rather totally dependent on God who is the meaning-Giver. In this context, he quoted Romans 11:36a, "For from him and through him and to him are all things." (*Alle zin is uit, door en tot een oorsprong*) and said that the past origin, the present basis and the ultimate purpose of all things are well summarized by this verse (Dooyeweerd, 1935: 11).

Johan van der Hoeven(1930-2015), a former professor of modern philosophy at the Free University after Dooyeweerd, explained that "the reason why Dooyeweerd introduced the more basic and comprehensive term 'meaning' was because the word 'being' in Greek philosophy is no longer appropriate as the most comprehensive term. Furthermore, he continued, as the emptiness and meaningless experiences of modern life increase, philosophical issues related to 'meaning' have attracted attention and so he felt the need to face 'alienated' existential situations" (Van der Hoeven, 1987: 137-138). Also, Leendert Kalsbeek(1903-1995), who wrote an introduction to Dooyeweerd's Christian philosophy, said that Dooyeweerd used the word 'meaning' against the traditional immanent philosophy which used the metaphysical term 'substance'. To him it was too independent, so he suggested 'meaning' as a Christian alternative (Kalsbeek, 1975: 311, Hwang, 1981, Van Woudenberg, 1992: 208-210).

Furthermore, Dooyeweerd argues that creation in this sense is an ordered and structured whole. This is because God created everything in this world in order with perfect wisdom. He initially called this structural order '*wetsidee*' which means 'cosmomic idea' or 'the idea of law', implying that God's creation has 'law', as he was originally a philosopher of law. However, he later modified the term, calling it '*transcendentaal grondidee*(transcendental ground idea)' (Dooyeweerd, 1953: 68ff). Here, the term 'transcendental' means that this idea becomes the premise of philosophical and academic thinking.

The first transcendental ground idea is the 'origin' of all things. Of course, the ultimate origin here is the Creator who made all things according to His sovereign will, so all creation is totally dependent on Him. The second transcendental ground idea is the 'root-unity' of the various aspects and the meaning-totality. In other words, it refers to a unity point where all phenomena are brought together. In the meantime, philosophers have been interested in the idea that can understand the various phenomena we experience in a unified way, and they have made various arguments. Dooyeweerd explains that this unity is found in Christ, the second Adam, the religious root of all temporal reality. And it is said that everyone participates in the totality of this meaning through the 'heart', the religious center or focal point of human being. The third and final transcendental ground idea is 'meaning diversity in the coherence of cosmic time'. Diversity of meaning refers to various aspects of meaning and individual structures, and these two are interconnected by time. He argues in this way that all sciences are dependent on pre-theoretical presuppositions that shape these ideas.

Furthermore, Dooyeweerd distinguishes between two kinds of basic structures in creation: the 'individuality structure' and the 'modal structure'. The former refers to the legal order of concrete things given by creation, and the latter refers to a specific aspect with a moment of each meaning, that is, anticipation, retrocipation, and a nucleus of meaning. Together with D.H.Th. Vollenhoven(1892-1978), Dooyeweerd developed a theory of modalities of this reality (Stellingwerff, 1992: 79), which initially consisted of fourteen 'law modalities', each governed by distinct laws. (*wetskringen*:

law-spheres, or in other words, modal aspects or modalities), but later expanded to fifteen. Namely, numerical, spatial, kinematic, physical, biological, sensory/psychic, analytical/logical, historical, linguistic, social, economic, aesthetic, legal, ethical, and faith aspects.

That these modalities anticipate and retrocipate as moments of meaning means that the previous modality is the basis of the later one, and the later aspect presupposes the previous one. Also, these aspects are irreducible and reality functions within the diversity of these modalities. That is, each aspect has its own place and can not be moved to another, because that is the creation order. When this order is reversed or changed, an internal contradiction (antinomy) occurs and problems arise. For example, if we explain that people live by the word of God rather than by bread alone (Matt. 4:4), it can be said that the faith aspect is above the biological aspect, so that the former guides the former and deepens its meaning. Even when comparing economic and ethical aspects, if it is ethically wrong, you must also bear economic losses. In this way, Dooyeweerd explains that each aspect points to each other and achieves one coherence to aim for the totality of meaning, which in turn leads to the Origin of all things. More details on this are shown by Richard Russell as follows (Russell,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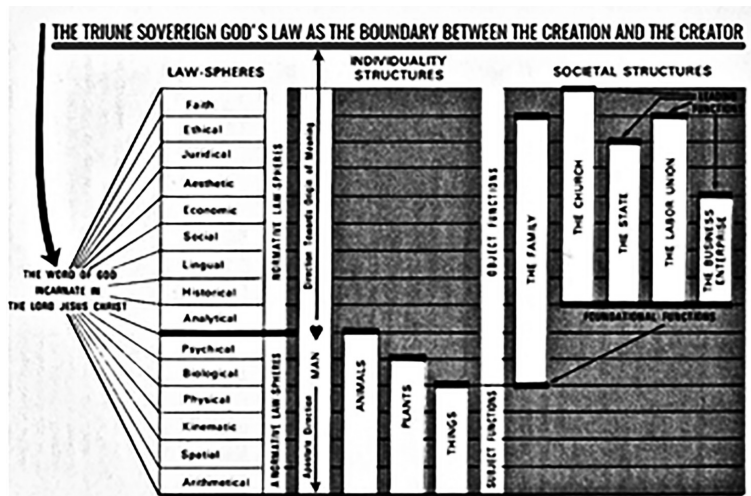


Figure 1. Dooyeweerd's Theory of Modal Aspects

(1.bp.blogspot.com/-hrLqdaqxyAg/WiRmgPzxXeI/AAAAAAAAFo4/HTNcyZe\_fKYprS3BCt94jaDykMSlKljswCLcBGAs/s1600/modal\_aspects\_4.jpg)

The important point here is that Dooyeweerd separated simple, concrete experience from scientific and theoretical thinking. The former refers to everyday life experiences without structural and theoretical analysis, while the latter sees temporal reality from various theoretical perspectives. Suppose, for example, that there is a ballpoint pen here. It can be said that this ballpoint pen exists as a single structure. However, if we analyze this with a modal structure, a completely different point of view emerges. For instance, from a numerical aspect, it is said that this pen is one, but from a historical point of view, you will be interested in the history of this pen. From a social aspect, the social function of this pen is the main concern, but from an economic point of view, the price of this pen will be the most important. From an aesthetic point of view, we will be interested in the design of this object, but from an ethical standpoint we will emphasize that this pen belongs to me and so must not be stolen. In this way, the modal structure reveals the various aspects of an individual structure. This thought of Dooyeweerd later becomes a clue to explain that the integration of faith and scholarship is inseparable.

### **3. The Fall: The Disintegration of Faith and Scholarship**

However, when human beings fell into sin, faith and scholarship were separated and distorted. For example, in the ‘three transcendental ground ideas’, the first idea of the ‘origin’ of all things is seen by evolutionists as ‘chance’ rather than the Creator. In fact, until high school, many Korean Christian students learned evolution theory at school but creation story at church. So most of them have a dualistic worldview in which faith and science are separated and become independent each other.

Although many Greek philosophers also explored the origin of all things, they often absolutized one of the creatures, and even though they knew that there was an ‘order’ in everything in this world, they almost absolutized this ‘law’ itself. So, in many other worldviews, there is a lot of words like ‘Tao(道, way)’ or ‘li(理, principle)’. For example, Cheondogyo(天道教), Cheonrikyo(天理教) and Taoism(道教), etc. All of these show the tendency to regard the ‘Tao’ of all things as absolute. In response, Dooyeweerd shows that a law must have a law-Giver.

Regarding the second idea, the unity of all things, if the human heart is not born again, the right point of reference can not be found in Christ and so the correct integration can not be achieved because the goal is not toward God the Creator but a vain idol. The Tower of Babel in Genesis 11 could be one example. In other words, the human-centered worldview shows that everything seems to be going well at first, but eventually it leads to erroneous results and failures due to its internal contradictions.

Furthermore, Dooyeweerd’s modal structure theory clearly shows the danger of reductionism, which absolutizes a discipline or one modality as a result of the fall of man. In other words, all -isms such as materialism or legalism put their aspects in the position of origin, and if only one aspect of reality is absolutized in this way, other aspects will be overlooked, and it eventually leads into the error of not being able to understand the whole. Dooyeweerd sharply points out that this is the idolization of science. Such insight can be a very effective tool to criticize serious errors such as K. Marx’s materialism or A. Hitler’s Nazism. Andrew Basden of England gives some examples in the diagram below, citing Dooyeweerd’s theory of modal structures as follows.

Table 1. Andrew Basden’s Example of ‘Ism’ and Example of Harm

<b>Aspect:</b>	<b>Example ‘Ism’</b>	<b>Example of Harm</b>
Quantitative		Over-emphasis on figures, league-tables
Spatial		(Stasis)
Kinematic		(Slavery to “must keep moving”)
Physical	Materialism	Ignoring mental and social realities.
Biotic / organic	Evolutionism	Life becomes competitive.
Sensitive / psychic	Psychologism	Slavery to feelings.
Analytical aspect	Rationalism	Oversimplified arguments expel wisdom.
Formative aspect	Functionalism, Utilitarianism	Drivenness, over-work.
Lingual aspect		Swamped by documentation, email.
Social aspect	Socialism	Political correctness dominates.
Economic aspect	Capitalism	Everything reduced to money; unconcern for the poor.
Aesthetic aspect	Aestheticism	Snobbery; The enjoyments of the rich precede the needs of the poor.

([www.researchgate.net/profile/Andrew-Basden/publication/266279899/figure/tbl3/AS:669554795618304@1536645711017/Absolutization-of-Aspects-and-Harm-that-Results.png](http://www.researchgate.net/profile/Andrew-Basden/publication/266279899/figure/tbl3/AS:669554795618304@1536645711017/Absolutization-of-Aspects-and-Harm-that-Results.png))

#### 4. Redemption: The Reintegration of Faith and Scholarship

The disintegration of faith and scholarship, distorted by the Fall, can be restored by the redemption of Jesus Christ. The apostle Paul says that when we are born again we have a new mind, so that “we all reach unity in the faith and in the knowledge of the Son of God and become mature, attaining to the whole measure of the fullness of Christ” (Eph. 4:13). Dooyeweerd explains how this is possible: first, another important key word to understand his philosophy is the law(*wet*) as the boundary between the Creator and creation, and all creatures are subject to that law. He explains:

The origin of the Law and of individual subjectivity, according to their religious unity and temporal diversity in the coherence of meaning, is God’s holy sovereign creative will. Our cosmos is equally the creation of God with respect to its law- and subject-side; the law is the absolute boundary between God and His creation, that is to say all creatures are by nature subject to the law, God alone is ‘legibus solutus’ (sed non exlex, as in nominalism). ... Christ as the root and fullness of meaning of the cosmos; Christ fulfilled the law and in Him all subjective individuality is concentrated in its fullness of meaning; nothing in our temporal cosmos is withdrawn from Him, ... The law in its modal diversity of meaning is the universally valid determination and limitation of the individual subjectivity which is subject to it. The subject is *sujet*,<sup>1</sup> that is subjected to the law in the modal diversity of the law-spheres. There is no law without a subject and vice versa. (Dooyeweerd, 1953: 507-8)<sup>2</sup>

Furthermore, Dooyeweerd states that in each aspect, there are both a law side and a subject side. For example, from an economic point of view, the production of ballpoint pens can not but follow the economic law of supply and demand. It is here that the law of supply and demand are the law side of economic aspect and the ballpoint pen is subject to this modality. But it can be said that the most profound essence and

1) *sujet* means subject in French, and is a term used by Dooyeweerd to emphasize the meaning and dependence of all things.

2) Here, the term ‘boundary’ is not used in a spatial sense, but in a figurative sense. This is because space itself also belongs to the creation world (Van Woudenberg, 1992: 43).

ultimate content of the law is God's love for his creatures and his request that all creatures serve God. This is the fulfillment of the law. Being subject means ultimately our "serving God with love" (Kalsbeek, 1970: 71).

Thus, the law-subject relationship means that all creation is very precious and full of intrinsic meaning before the law of God's love. At the same time, it implies that God is intimately immanent in creation. In other words, because the Creator made laws, he transcends them and can change them, but while faithfully keeping them, he loves the creatures which are subject to them. When we humans, too, study and apply this given law properly through academic activities to glorify the Creator and serve our neighbors, we imitate the wisdom of the Creator.

Dooyeweerd explains that the modal aspects differ from one another by the way in which they manifest themselves in time. Thus, the modal aspects can also be called time aspects. To put this in his words: cosmic time "expresses itself" in various time-modalities (Dooyeweerd, 1935: 66; 1953: 101-102). Dooyeweerd describes this as an image in which sunlight passes through a prism and splits into the seven colors of the spectrum. For example, the arithmetic aspect is qualified by the irreversible time order of earlier and later; the spatial modality is limited by simultaneity; in the kinematic aspect time is characterized by the succession of movements; in the analytic aspect time is expressed in the logical simultaneity of *prius* and *posterius*; the economic aspect of time can be seen in expressions such as "time is money" (Kalsbeek, 1975: 154-156).

Each modal aspect is ordered and determined by its own peculiar laws. That is why Dooyeweerd also called modal aspects "law-spheres". From the analytic to the pistical aspects, referred by Dooyeweerd as cultural sides, laws are called norms because they need to be "acknowledged" and "positivized" by people and because they can be either obeyed or violated. This is also related to human cultural responsibility. When man correctly understands and applies God's laws given in each aspect, all human cultural activities manifest His glory and serve their neighbors, but otherwise the culture becomes destructive and ends in vain. "Natural laws" of the subanalytical spheres, referred as the natural sides, on the other hand, are obeyed involuntarily.

Another important thing is Dooyeweerd's idea of the 'heart'. In 1932, he first started using the word 'heart' in connection with Proverbs 4:23 in the Bible. He taught that the supra temporal root of creation lies neither in temporal reality nor in human reasoning function, but in humans religious root, the heart. Therefore, for Dooyeweerd, 'heart' can be said to be a focal point or focus that transcends all aspects. This heart means the central 'relationship' in human life, that is, the relation with the origin of man, and this is the meaning of religion. It is in the human heart toward this absolute source that the "direction" of the entire human life is determined. It can be said that the unity of faith and scholarship takes place here.

From this point of view, each discipline is a logical and systematic study of an aspect of reality. For example, a scientist who studies physics concentrates only on the physical aspect of an object or phenomenon, collects data corresponding to it, and organizes it systematically and logically to accumulate physical knowledge and study laws. Theology logically and systematically establishes each field related to faith (systematic theology, biblical theology, historical theology, practical theology, etc.) based on the Bible as God's revelation. As such, each aspect is the subject of the study, ordered and determined according to its own unique laws. Therefore, he called the principle of '*souvereiniteit in eigen kring*(sphere sovereignty)'. This is his extension of Kuyper's idea of sphere sovereignty to a cosmological principle. In addition, each aspect has a 'meaning-kernel' that defin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aspect. For example, the nucleus of the meaning of a biological aspect is vitality or life. The following table illustrates what has been explained so far.

At the same time, however, Dooyeweerd explains that in each law-sphere, meaning moments which refer to the other law-spheres are to be distinguished, namely, the so-called analogies. If a meaning moment within a modality refers to an earlier one, it is called a retrocipation, whereas if one refers to a later modality, it is called an anticipation. This principle of the intimate connection and unbreakable coherence of all the modalities is called '*sphere universality(universaliteit in eigen kring)*'. In other words, each academic field has an independent sovereignty and at the same time is



Table 2. Sciences per aspect

Aspect	Meaningfulness	Example science(s)	Some research methods
Quantitative	Quantity, amount	Arithmetic, statistics, algebra	Mathematical proof, computation
Spatial	Continuous extension	Geometry, trigonometry	Geometric or trigonometric proof
Kinematic	Movement	Kinematics, phoronomy	Calculus
Physical	Energy + mass	Physics, chemistry, materials science, geology	Laboratory experiment, with physical reasoning
Biotic	Life functions	Life sciences, physiology, biology, ecology	Greenhouse experiments, field studies, taxonomic analysis
Sensitive	Sense, feeling, emotion	Psychology (behaviourist), sensory sciences.	Stimulus-response trials, control groups, etc.
Analytical	Distinguishing	Logic, cognitive psychology	Logical proofs, brainstorming
Formative	Shaping, creativity; history, technology	"Sciences of the artificial," design science	Game playing, construct + test
Lingual	Symbolic signification	Linguistics, semiotics, hermeneutics	Hermeneutic analysis
Social	Social interaction and institution	Social sciences	Surveys, interviews analysed hermeneutically
Economic	Frugal use of resources	Economics, management science	Surveys analysed statistically
Aesthetic	Harmony, fun	Aesthetics	Studies of sensibilities
Juridical	Due; retribution, rights, responsibilities	Legal science, jurisprudence	Case review
Ethical	Self-giving love	Ethics	Attitude studies
Pistic	Vision, aspiration, commitment, creed, religion	Theology, some anthropology	Interpretation of sacred writings, apologetics

(brill.com/view/journals/phir/84/2/23528230\_084\_02\_s001\_i0001.jpg)

not isolated but has a unique structure with universality that is interconnected in time. For example, just as a judge considers the various circumstances of the accused in a court, the legal aspect must also consider the ethical aspect.

Furthermore, Dooyeweerd believes that the faith and scholarship can be integrated

in the sense that the subject of both is ultimately humans. He explains this as the antithesis and synthesis of theoretical thinking. In other words, he says that academic thinking and knowledge are obtained by theoretical synthesis of the antithesis between the non-logical aspects and logical aspect. For instance, biology is established when biological and logical aspects are put in an antithetical position and then synthesized. However, it is the heart, which is also the center of the human being, where this theoretical synthesis takes place. In other words, the subject of science is human beings, and the synthesis of academic knowledge takes place in the heart. However, since this heart is not self-sufficient either, it has no choice but to direct to its ultimate origin. If this origin is the biblical Creator, each science is integrated with faith in Christ, but otherwise, for instance, scientific materialism will be produced, which will eventually become an ideological idol. In other words, no matter how outstanding academic achievements are, the human heart who uses them is important. For example, no matter how peacefully Nobel researched to invent dynamite, fallen humans turn it into a murderous weapon. Thus, Dooyeweerd emphasizes the central meaning of the 'heart' as the religious root and focal point of human existence. This heart always depends on the origin, and it has no choice but to respond positively or negatively to the origin, and the direction of the research is determined by this response. Thus, Dooyeweerd says that academic thinking is, in the end, a continual search for an origin that gives meaning. Therefore, he argued that the true integration of faith and scholarship is achieved when the human heart is regenerated under the sovereignty of Christ, who is the head of all things and when this scholar studies the creation order and spiritual laws for God's glory and to serve his neighbors.

In this respect, Dooyeweerd asserts that our academic activities are never neutral but always depend on religious presuppositions. In other words, the ultimate starting point of science is not inherent in it but transcends it. This he calls the 'transcendental critique of theoretical thought'.

Furthermore, Dooyeweerd succeeded Kuyper's idea of antithesis between the Christian and non-Christian principles and held that there is a clear spiritual opposition between the biblical ground motive and non-biblical motives. At the same

time, however, Dooyeweerd wanted to restore and maintain an academic community in which Christians and non-Christians could communicate one another based on the so-called common grace. For this reason, he revised and supplemented his first magnum opus, *De Wijsbegeerte der Wetsidee* (*The Philosophy of the Law-Idea*, 1935-36), to develop a transcendental critique of theoretical thinking as an inquiry into the conditions or premises necessary for academic thought. In that sense, the methodology he tried in the first book was called ‘the first way’, and in the second book, *A New Critique of Theoretical Thought* (1953-57), he revised the methodology called ‘the second way’ (Dooyeweerd, 1953). In the former, Dooyeweerd revealed the religious roots of theoretical thinking, starting with the definition of philosophy, that is, an inquiry into the totality of meaning. However, non-Christian philosophers disagreed with this definition of philosophy. Therefore, he started with the analysis of theoretical thought itself and proceeded to the religious roots and origins through the transcendental ground ideas. His first magnum opus was published in Dutch, but the reason for publishing his second major works in English was also an attempt to have more dialogue with a wider range of scholars.

In 1965, when Dooyeweerd retired from his professorship at the Free University, a commemorative book entitled *Philosophy and Christianity* was dedicated to him. Professor Richard Kroner, a Swiss philosopher who contributed to this book, wrote in his article: “Now we know that all philosophical work takes place under the context of a culture, which in its essence is determined by religion. (Wir wissen heute zu gut, dass alles Philosophieren sich auf dem Hintergrunde einer Kultur abspielt, die wesentlich durch ihre Religion bestimmt ist..)” (Kroner, 1965: 11). This can be said to be the most central and core expression of Dooyeweerd’s thought, which tried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faith and scholarship. In this way, Dooyeweerd developed Kuyper’s thought and established his unique Christian philosophical thought and further clearly demonstrated through his transcendental critique that academic thinking can never be religiously neutral. Roy Clouser also argued the same point in his book, *The Myth of Religious Neutrality: An Essay on the Hidden Role of Religious Belief in Theories* (Clouser, 2005; Hong, 2019).

## 5. Consummation: The Completion of the Integration of Faith and Scholarship

Finally, when the Kingdom of God is consummated, the integration of faith and scholarship will also be perfected. A biblical example that illustrates this well is the story of the Magi. According to the Gospel of Matthew, first of all, they were astronomers studying the stars in the East. But at the same time, they were people who had faith that the Messiah would come. In this way, they were clearly different from most other astrologers who studied stars for fortune-telling. When the Magi saw a special star of Bethlehem announcing the birth of the Messiah, they took the action, taking the risk to come to Bethlehem, where the baby Jesus was born. Finally, when they saw the baby, they worshiped Him and at the same time offered the most precious gifts (Matt. 2:1-11). These people represent the Gentile believers and more specifically, Christian scholars.

The apostle John says that when the Kingdom of God is consummated, the kings of the earth will bring their splendor into the city called the New Jerusalem, and the glory and honor of the nations will be brought into it. (Rev. 21:24, 26) This would mean that all the academic endeavors that Christian scholars have done according to God's will in this world with the integrated faith, will be honored before the Lord in the end. A medieval painter Jan van Eyck(1390-1441) has beautifully expressed this point in his altar painting in Ghent, Belgium like this:



Figure 2. The Adoration of the Mystic Lamb painted by Jan van Eyck

([media.cntraveler.com/photos/57f66c4fed4dcfe84d3222a3/master/pass/GettyImages-14827464.jpg](https://media.cntraveler.com/photos/57f66c4fed4dcfe84d3222a3/master/pass/GettyImages-14827464.jpg))

### III. Conclusion

So far, Dooyeweerd's explanation how faith is integrated with scholarship has been discussed through the four elements of the Christian worldview. Because the almighty Creator created all things with wisdom, scholarship is a human activity to rediscover the order of creation to glorify God and to serve our neighbors. Dooyeweerd explains this through three basic transcendental ideas and modal theories. However, due to the fall of man, these academic activities were separated from faith. Humans developed science and technology for themselves without directing towards the Creator, so self-contradiction and antinomy caused various problems. Dooyeweerd points out this as reductionism and idolization of ideas through the absolutization of one aspect. However, through the redemption of Christ, the ultimate solution is made possible and scholarship can be newly integrated with faith through the regenerated heart. After explaining the sovereignty and universality of each aspect, Dooyeweerd analyzed how theoretical thinking is possible. Eventually, when the human heart, the center of man, is born again in Christ and aims again toward the Creator, correct integration is possible, and science and technology are beneficial to mankind. Finally, when the Kingdom of God is consummated, the process of integration will also be complete, and we saw that the walls of New Jerusalem will be adorned with jewels.

Dooyeweerd's thoughts, influenced by Kuyper, continued to produce many successors, and the representative website for them is [alloffliferedeemed.co.uk](http://alloffliferedeemed.co.uk). As for the representative scholars, James Skillen in politics, Hans Rookmaker and Calvin Seerveld in the arts, Bob Goudzwaard in economics, Hendrik van Riessen and Egbert Schuurman in technology can be mentioned. In addition, there is Forum C where young Christian scholars in the Netherlands try to integrate faith and scholarship, and the Institut für Glaube und Wissenschaft in Marburg, Germany, is working with the same vision. In the UK, there is [thinkfaith.net](http://thinkfaith.net) in Leeds, where young Christian thinkers are exploring how Christian thinking changes and enriches all areas of life. The Calvin Center for Christian Scholarship of Calvin University in Grand Rapids, USA supports professors' integrated research and there is also the Institute for Faith and Learning at

Baylor University in Texas. There are also Kuyper College and Dordt University in the United States, the Center for Public Justice in Washington, D.C. Covenant College, the Institute for Christian Studies in Toronto, Redeemer University in Canada, etc.

In Korea, several Christian scholars are working in some Christian universities and at Korea Association for Christian Scholarship. They are trying to integrate their faith with their respective fields of study and are also publishing the journal called Faith and Scholarship. However, I hope that the Christian worldview movement will become more active in the future and spread to young Christian scholars and at the same time continue to develop Dooyeweerd's valuable legacy, resulting in many academic achievements integrating faith and scholarship.

**“Hereby I confirm that this paper has not been published or requested for publication in other journals or publications.”**

## Bibliography

- 박태현 역 (2020). **아브라함 카이퍼의 영역주권: 인간의 모든 삶에 미치는 하나님의 주권**. Kuyper, A. (1880). *Souvereiniteit in Eigen Kring*. 서울: 다함.
- 박태현 역 (2021). **아브라함 카이퍼의 칼빈주의 강연: 문화변혁의 기독교 세계관 선언서**. Kuyper, A. (1899). *Het Calvinisme: Zes Stone-lezingen*. 서울: 다함.
- 임원주 역 (2017). **일반 은혜: 타락한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선물**. 1권, Kuyper, A. (1902-04). *De Gemeene Gratie*. Vol. I-III. Kloosterman, N. D. Trans. (2015). *Common Grace: God's Gifts for a Fallen World*. Kloosterman, N. D. Trans. (2011). *Wisdom & Wonder: Common Grace in Science & Art*. 서울: 부흥과 개혁사.
- 최용준 (2019). 완성에 대한 기독교 세계관적 고찰: 요한계시록 21장 1-4절을 중심으로. **신앙과 학문**, 24(4), 185-206.
- 최용준 (2005). 헤르만 도어베르트: 변혁적 철학으로서의 기독교 철학의 성격을 확립한 철학자. **하나님을 사랑한 철학자 9인**. 서울: IVP, 37-66.
- 최용준 역 (2013). **신앙과 학문의 통합: 세계관적 접근**. Harris, R. A. (2004). *The Integration of Faith and Learning: A Worldview Approach*. 서울: 예영.
- 홍병룡 역 (2019). **종교적 중립성의 신화**. Clouser, R. A. (2005). *The Myth of Religious Neutrality: An Essay on the Hidden Role of Religious Belief in Theories*. 서울: 아바서원.
- 황영철 역 (1981). **기독교인의 세계관: 기독교 철학 개론**. Kalsbeek, L. (1975). *Contours of a Christian Philosophy: An Introduction to Herman Dooyeweerd's thought*. 서울: 평화사.
- Bavinck, H. (1897). Rapport van prof. dr. H. Bavinck over het rapport van deputatn voor de opleiding, voor zoovell handelend over het verband der kerken tot de Vrije Universiteit, in *Acta der generale synode van de Gereformeerde Kerken in Dederland, gehouden te Middelburg, van 11 aug. to sept.* 1896 Leiden: D. Donner.
- Choi, Y. J. (2000). *Dialogue and Antithesis: A Philosophical Study on the Significance of Herman Dooyeweerd's Transcendental Critique*. Amsterdam: Buijten & Schipperheijn.
- Dooyeweerd, H. (1935-1936). *De Wijsbegeerte der Wetsidee*. I-III. Amsterdam: H.J. Paris.

Dooyeweerd, H. (1953-1958). *A New Critique of Theoretical Thought*. I-IV, Philadelphia: The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Company.

Dooyeweerd, H. (1949). *Reformatie en Scholastiek in de Wijsbegeerte*. Franeker: T. Wever.

Harris, R. A. (2014). *Faithful mind, thoughtful faith: integrating faith and learning*. Tustin, CA: VirtualSalt.

Kalsbeek, L. (1970). *De Wijsbegeerte der Wetsidee: Proeve van een christelijke filosofie*. Amsterdam: Buijten & Schipperheijn.

Kroner, R. (1965). *Philosophy and Christianity; Philosophical essays dedicated to Professor. Dr. Herman Dooyeweerd*. Kampen: J.H. Kok and Amsterdam: North-Holland Publishing Company.

Russell, R. (2020). *Christian Philosophy Diagrams*. Bristol: All of Life Redeemed.

Stellingwerff, J. (1992). *D.H.Th. Vollenhoven (1892-1978): reformator der wijsbegeerte*. Baarn: Ten Have.

Van der Hoeven, J. (1987). Matters of mission and transmission: On the Progress of Ecumenical Reformational Thought. *Philosophia Reformata*, 52, 137-138.

Van Woudenberg, R. (1992). *Gelovend denken: Inleiding tot een christelijke filosofie*. Amsterdam: Buijten & Schipperheijn.

alloffiferedeemed.co.uk

brill.com/view/journals/phir/84/2/23528230\_084\_02\_s001\_i0001.jpg

thinkfaith.net

www.researchgate.net/profile/Andrew-Basden/publication/266279899/figure/tbl3/AS:669554795618304@1536645711017/Absolutization-of-Aspects-and-Harm-that-Results.png

media.cntraveler.com/photos/57f66c4fed4dcfe84d3222a3/master/pass/GettyImages-148274647.jpg 1.bp.blogspot.com/-hrLqdaqxyAg/WiRmgPzxXeI/AAAAAAAAAFo4/HTNcyZe\_fKYprS3BCt94jaDykMSlkLjswCLcBGAs/s1600/modal\_aspects\_4.jpg



# 기독교 세계관으로 본 신앙과 학문의 통합에 관한 고찰: 헤르만 도어베르트의 사상을 중심으로

## A Research on the Integration of Faith & Scholarship from the Christian Worldview: focusing on the thought of Herman Dooyeweerd

최용준 (한동대학교)

### 논문초록

본 논문은 네덜란드의 기독교 철학자였던 헤르만 도어베르트(Herman Dooyeweerd, 1894-1977)가 성경적 세계관으로 신앙과 학문을 통합하기 위해 어떻게 시도했는지 고찰한다. 그는 아브라함 카이퍼(Abraham Kuyper, 1837-1920)를 계승하여 학문은 중립적이 아니며 신앙과 통합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소위 '이론적 사고에 대한 선형적 비판'으로 설명했다. 창조주께서 만물을 지혜로 지으셨기에 학문은 그 창조 질서를 재발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웃을 섬기는 인간의 활동인데 도어베르트는 이것을 세 가지 선형적 기본 이념과 양상 이론을 통해 밝힌다. 하지만 인간의 타락으로 학문 활동은 신앙과 분리되었고 인간은 자신을 위해 과학기술을 발전시켰으나 이는 결국 자기모순에 의해 여러 문제를 낳게 된다. 그는 이것을 한 양상의 절대화를 통한 환원주의 및 우상화라고 지적한다. 그러나 이것은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 해결할 수 있으며 학문은 거듭난 지성을 통해 새롭게 신앙과 통합할 수 있다. 도어베르트는 각 양상의 영역 주권 및 보편성을 설명한 후 이론적 사고가 대립과 종합을 통해 가능성을 분석하여 결국 인간의 중심인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 다시금 창조주를 지향할 때 올바른 통합이 가능하며 과학기술문명도 인류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음을 제시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면 이 통합의 과정도 온전해져 새 예루살렘의 성벽이 보석으로 장식된 것처럼 아름답게 열매 맺을 것이다. 결론에서는 도어베르트의 이러한 사상이 그의 후계자들에 의해 어떻게 발전되었고, 그의 유산이 한국적 맥락에서 어떤 함의를 가지는지 논의한다.

**주제어:** 헤르만 도어베르트, 신앙, 학문, 통합, 기독교 세계관



# 다윗의 딸 다말이 경험한 트라우마 분석 및 치료적 함의\*

## Analysis of Tamar's Trauma and its Therapeutic Implications in Theodrama

이해루 (Haeru Lee)\*\*

김규보 (Kyu Bo Kim)(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ABSTRACT

In a world where God's created order has collapsed, humanity is still experiencing various traumas. Understanding and healing trauma biblically is very important not only for individual recovery but also for the community to achieve Christiformity together. In this study, we conduct research on the trauma experienced by David's daughter Tamar in order to analyze the trauma experienced by biblical characters and suggest therapeutic implications.

Because most research on Tamar's story is conducted within feminist discourse, it is very important to analyze it. Tamar, the only one with her own voice, is reinterpreted as a wise woman in contrast to her foolish Davidic men, and a hero who resisted violence. These attempts play a part in revealing the lives of women and the violence inflicted on them that have been concealed.

However, within feminist discourse, Tamar is paradoxically consumed as a tool to expose men's violence and foolishness, is trapped in the narrative of a failed hero, and has the limitation of being marginalized in the Theodrama. In order to overcome this limitation, this study analyzes common claims in feminist discourse and reveals that within the Theodrama, Tamar is also united with the grace of the cross. Therefore, we present counseling implications for trauma recovery.

**Key words: Tamar, Trauma, Feminism, Theodrama, Biblical Counseling**

\* 2024년 2월 6일 접수, 3월 1일 최종수정일, 3월 4일 게재확정.

\*\* 충신대학교 일반대학원 성경적상담학 박사과정(Chongshin University).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 143, lhr@chongshin.ac.kr

\*\*\* 충신대학교 상담대학원 조교수(Chongshin University).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 143, kyubkim@csu.ac.kr

## I. 들어가는 말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가 무너진 세상에서 인류는 지금도 크고 작은 트라우마를 경험하고 있다. 트라우마(trauma)란 실제적이거나 위협적인 죽음, 심각한 부상 또는 성폭행에 노출되어 광범위한 우울 증상과 불안 등 정서의 부정적 변화, 과각성(hyperarousal), 해리 증상(dissociation)이나 이인증(dispersonalization), 비현실감, 외상성 사건을 생각나게 하는 자극에 대한 회피 반응 등을 경험하는 것이다(APA, 2013: 289-29).<sup>1</sup> 최근 트라우마 연구에서는 이 개념을 더욱 확대하여 생명에 직접적인 위협은 아니지만 가정에서 받는 정서적 학대나 이혼, 실직, 학교나 직장에서의 부적응 등 개인을 압도하는 고통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한다(Briere & Scott, 2020: 3-4). 즉 트라우마란 외상성 사건에 대한 경험으로 나타나는 개인의 고통 및 영적, 심리적, 신체적 반응의 총체로서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 주변에서 다양한 손상을 야기할 수 있는 전인적 수준의 상처이다(김규보, 2017: 89). 성경에는 트라우마로 고통받는 인물들의 이야기가 생생히 기록되어 있다.

본 연구는 성폭행 트라우마를 경험한 다말의 이야기를 구원드라마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치료적 함의를 고찰한다. 다말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현대 여성주의 담론을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다말에 대한 많은 여성주의 연구는 그동안 소외되었던 여성의 경험과 인권, 치유의 측면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많은 여성주의 학자들은 남성 중심의 권력과 폭력성에 의해 성폭행을 당한 여성들의 이야기를 여성의 시각에서 재해석하여 성폭행 경험의 본질과 상처의 회복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다고 본다. 예를 들면, 이은애(2019: 220)는 다말의 외상성 경험을 ‘권력에 의한 성폭행 사건’으로 규정하며 왜곡된 권력 구조에 대해 돌아보게 한다. 같은 맥락에서 박유미(2018:149-150)도 여성 차별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가부장적 사회구조 안에서 여성에게 가해진 성폭행은 남성의 소유물을 훼손한 사건으로 여겨질 뿐이며, 이로 인해 성범죄-전쟁으로 연결되는 패턴이 반복된다고 분석한다. 이러한 여성 경험 중심의 성경 해석은 다말을 반복되는 폭력의 패턴에도 자신의 목소리를 낸 영웅, 다윗 왕조 남성들의 어리석음을 드러내어 그들을 혼돈과 불의에서 구원할 ‘동반자인 지혜자’로서 자리매김하게 한다(이은애, 2019: 220 ; 박유미, 2018: 149-150).

그러나 문제는 여성주의 담론에서 주장하는 논의가 때로는 성경의 가르침과 다른 방향으로 진행된다는 것이다. 여성의 경험과 인권을 강화하고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목적을 강조한 나머지 성경을 편향되게 해석하거나 성경이 제시하지 않는 부분까지 상상에 의존해 왜곡하는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정희

1) DSM-5에서는 외상성 사건에 대한 노출이 다음 네 가지 방식 중 한 가지(혹은 그 이상)에서 나타나야 한다고 정의한다. 방식은 (1) 사건을 직접 경험, (2) 타인에게 발생한 사건을 직접 목격, (3) 사건이 가족, 가까운 친지 혹은 친한 친구에게 폭력적이거나 갑작스럽게 발생했음을 알게 됨, (4) 사건의 혐오감을 일으키는 세부사항에 반복적으로 지나치게 노출됨, 중 하나이다. 이 방식에 부합하지 않은 미디어나 영화, 사진 등의 방식으로 노출되는 것은 적용되지 않는다.

성(2008: 203-204)은 여성 관점의 성경을 이야기하기 위해 아담의 첫 번째 부인 릴리스의 이야기를 제시하는데, 이는 여성 성폭행 피해자의 재활과 생존을 위한 도구로 성경을 창의적으로 재해석할 것을 주장하는 것이다. 손운산(2004: 666-667) 역시 피해자의 상처 입은 자아를 회복하기 위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성폭행 사건 이후 다말의 이야기를 임의로 재구성하여 회복의 도구로 삼을 것을 제안한다. 이런 시도는 비록 피해 여성의 회복을 위한다는 선한 의도에서 시작되었지만, 성경을 임의로 재해석하거나 성경에 없는 내용을 상상에 의존하여 활용한다는 점에서 성경적 관점을 벗어난다. 온전한 성경적 치유와 회복을 위해 성경을 분석하는 연구자는 성경의 묘사가 충분하지 않은 지점에서 개인의 임의적 해석을 배제하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데까지로 연구범위를 제한할 수 있어야 한다(문병호, 2020). 성경의 가르침보다 개인의 철학이나 목적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연구는 자칫 성경을 왜곡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여성주의 담론 안에서 재해석된 다말은 폭력에 저항했으나 막지 못했고 가해자의 죄를 고발하였으나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박유미, 2018: 138-139 ; 김이곤, 1986: 110 ; 김순영, 1999: 10-11). 이는 다말이 저항의 목소리를 내는 것까지는 이루었으나 자력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구원드라마에서도 소외됨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여성주의 담론은 다말의 고통에 다양한 해방적 의미를 부여하지만, 궁극적으로 다말의 고통이 십자가에 종속되는 것을 부인함(Trible, 2022: 38)으로써 구원드라마 가운데 다말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다. 구원드라마에서 소외된 다말은 십자가의 구원,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 하나님 안에서의 치유와 회복을 발견할 수 없게 된다. 이런 문제 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말 이야기에 대한 여성주의 담론의 이해와 한계를 분석하고 구원드라마 안에서 다말의 이야기를 다시 읽음으로써 다말의 트라우마 사건을 통해 성경이 제공하는 치료적 함의를 논하고자 한다.

## II. 펴는 글

### 1. 다말의 트라우마 사건 개요

다말은 다윗과 그의 네 번째 아내인 그술 왕 달매의 딸 마아가 사이에서 태어났다. 성경에서는 다말을 다윗의 딸이 아닌 압살롬의 누이로 설명한다(삼하 12:1).<sup>2</sup> 다말은 이스라엘 왕녀이자 다윗의 딸들(삼

2) 이에 대해 Anderson (2001: 299)은 본문을 압살롬과 압논의 왕위계승을 둘러싼 대결 구도로 설명하고자 하는 저자의 의도로 해석한다. 한편, 이은애(2019: 224)는 이러한 설명을 다윗에게는 딸보다 아들이 더 중요한 존재였음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다고 본다.

하 5:11-16, 역상 3:1-9 ; 14:3-7) 중 유일하게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며 결혼하지 않은 정숙한 처녀<sup>3</sup>였으므로 채색옷을 입었다.

다윗의 장남 암논은 이복누이인 다말을 사랑<sup>4</sup>했으나 처녀인 그를 어찌할 수 없다는 울화로 병이 났다(삼하 13:1-2). 이를 안 요나답의 간교한 꾀를 따라 암논은 병든 체한 뒤 그를 찾아온 다윗에게 ‘다말을 불러와 그녀가 만든 과자를 내가 먹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한다(삼하 13:5-6). 다윗의 명으로 암논의 집에 온 다말은 그를 위해 과자를 만든다(삼하 13:7-8). 암논은 모든 사람을 내보낸 뒤 다말을 붙잡아 자신과 동침할 것을 요구했으나 다말은 정당한 말로 거절한다(삼하 13: 9, 11-13). 그럼에도 암논은 힘으로 다말을 성폭행한다(삼하 13:14).

다말을 성폭행한 뒤 암논은 이전에 그녀를 탐했던 정욕보다 더 크게 그녀를 미워하여 자신을 쫓아내는 것이 성폭행보다 더 큰 악이라는 다말의 호소를 무시하고 종을 시켜 다말을 쫓아낸다(삼하 13:15-17). 다말을 쫓아내면서 언급한 “계집”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 (조트)로 여성 지시형용사 ‘이것’을 의미한다. 이는 암논이 다말을 물건 취급하며 멸시했다는 의미<sup>5</sup>다말은 재를 자기 머리에 덮어쓰고 자신의 채색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는다(삼하 13:19). 사건을 들은 그녀의 동복 오빠 압살롬은 그녀에게 잠잠히 있으라 하고 자신의 집에 있게 한다. 그 후 그녀는 압살롬의 집에서 처량하게 지낸다(삼하 13:20). 이후로 다말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 나오지 않는다.

자기 머리에 재, 티끌을 뒤집어쓰는 것은 극도의 슬픔과 비참함, 애통 등을 표현하는 행위이며(수 7:6, 삼상 4:12, 욥 2:12, 애 2:10, 겔 27:30, 예 4:1, 계 18:19) 옷을 찢는 것도 금식, 재 위에 누움, 베를 동임 등처럼 극도의 고통이나 슬픔, 애곡을 드러내는 행위이다(창 37:29, 삼하 1:11; 13:31, 왕하 6:30; 34:19, 느 9:1, 사 37:1). 이러한 행동을 통해 성폭행을 당한 다말은 극도의 비참함과 애통한 상태에서 과부가 된 것처럼 통곡하고 괴로워함을 알 수 있다(Anderson, 2001: 299).

또한, 성경은 압살롬의 집에서 지내게 된 다말의 상태를 ‘처량하게’라고 묘사(삼하 13:20)하는데, 이는 히브리어  $\text{קַמְרָמָה}$ (위쇼메마)이다. 위쇼메마의 동사원형  $\text{קָרַמַּ$ (샤멤)은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 광야, 예루살렘의 멸망 등을 묘사할 때 쓰이는 동사로 ‘쓸쓸하게 있는’, ‘황폐하게 있는’이라는 의미이다(강병도, 2009: 25-28). Brouer(2014: 10)는 이야기의 저자가 다말의 상태를 보여주기 위해 임신하지 못하는 여성, 광야, 예루살렘의 멸망을 묘사할 때 쓰인 단어를 사용하여 그녀의 삶이 얼마나 생명 없는 삶이었는지 보여준다고 설명한다.

3) Matthew Henry (2009: 629)는 20절을 근거로 다말이 부정함을 미워하는 정숙한 여자였다고 본다.

4) Matthew Henry (2009: 622)는 이것을 일반적인고 정상적인 사랑이 아닌 마귀가 불어넣은 음욕, 육체의 정욕으로 해석한다.

5) Tribble (2022: 120)은 SAV, RSV, NJV 등의 번역본과 달리, 히브리어에는 이 지시형용사만 있으며 ‘이것’은 암논에게 다말은 일개 사물, 버리고 싶은 것, 쓰레기에 불과했다고 설명한다.

다말의 아버지이자 이스라엘 왕인 다윗은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였으나 다른 행적은 기록되지 않으며(삼하 13:21), 압살롬은 암논을 미워하였으나 잘잘못을 말하지 않다가 만 2년 뒤 암논을 살해한다(삼하 13:22). 요나답의 입을 통해 암논의 죽음은 그의 죄에 대한 압살롬의 사적 보복임이 분명히 드러난다(삼하 13:32).

## 2. 다말을 중심으로 한 여성주의 담론에 대한 성찰

다말을 비롯한 성경 속 성폭행 피해 여성 이야기는 여성주의 학자들의 주요한 주제이다. 이들은 피해 여성들을 도구적으로 소모하는 해석을 비판하고 남성 중심 사회의 폭력성을 고발한다. 이영미(2021: 141-142)는 성경 저자가 솔로몬의 왕위계승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다말에게 일어난 성폭행 사건을 ‘남성들의 힘의 교환 수단’으로 사용할 뿐이라고 고발한다. 박유미(2018: 148)도 압살롬의 암논 살해는 정적 제거이며 다말의 고통은 명분으로 소모될 뿐이라고 비판한다.

이런 피해 여성에 대한 도구적 해석을 극복하기 위해 여성주의 학자들은 다말을 남성 중심적 사회의 폭력 속에서도 고통을 잘 극복하고 자기 주도적 삶을 회복한 여성 영웅의 전형으로 여기거나(정희성, 2019: 215) 남성의 폭력을 저지하는 지혜자로 재해석하기도 한다(Trible, 2022: 136-139). 또한, 아버지이자 권력의 상징인 남성 다윗의 추악함을 고발하는 고발자로 해석하기도 한다(박유미, 2019: 53-58). 이러한 해석은 성경의 하나님을 ‘아버지’로 표현하는 ‘남성주의적’ 관점에 반발하는 데까지 나아간다. 일부 학자는 다말이 성폭행당할 때 부재하신 하나님, 억압적이고 폭력적인 아버지 하나님께 분노하고 항거해야 한다고까지 주장한다(손운산, 2004: 652-655).

또한 여성주의 담론은 그동안 쉽게 드러날 수 없던 다말 같은 성폭행 피해 여성들의 목소리를 드러내며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다. 김호경(2004: 122-123)은 다말의 목소리를 들음으로써 성폭행이 개인의 문제가 아닌 왜곡된 사회구조의 문제임을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박유미(2019: 63)는 암논의 성범죄를 다루는 방식이 현재 교회에서 일어나는 성범죄를 다루는 방식과 매우 유사하다고 지적하며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의 회개를 촉구한다. 같은 맥락에서 강호숙(2020: 112, 137)은 지금까지 교회가 유교 전통과 혼합된 왜곡된 기독교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하여 여성에 대한 차별과 억압을 묵인해왔다고 비판하고 성폭행 피해 여성에 대한 2, 3차 가해를 우려하며 여성의 인권 향상을 위한 연구를 진행했다. Trible (2022: 37)은 성경 속 희생당하는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쓰게 된 계기를 다음과 같이 말하며 여성들의 고통이 간과되는 현실을 고발하였다. “뉴욕 거리에서 ‘내 이름은 다말’이라는 팻말을 들고 있던 확대당한 여성을 보며, 쓰레기통에서 어느 여성이 몸이 토막난 채 발견되었다는 신문 기사를 읽으며... 이 특별한 이야기들을 이야기할 마음을 품게 되었다.” 여성주의 담론은 여성들이 끄찍한 사건

으로 해를 입었음에도 오랫동안 외면당했던 현실과 고통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그러나 이런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여성주의 담론 안에서 다말은 '성폭행 피해 여성'이라는 좁은 프레임에 갇혀 구원드라마에서 소외된다. Trible (2022: 38)은 하나님 없는 치열함 속에서 학대당하는 여성들과 마음을 같이 하고, 지금도 반복되는 과거를 기억하며 다시는 다말에게 벌어진 일들이 반복되지 않기를 기도함으로써 이 시대를 구속하려 한다. 그러나 그녀가 단언한 것처럼 다말의 고통을 십자가 고통에 종속시키는 게 허위이고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다말의 구원을 찾는 것이 엇나간 판단이라면, 다말 이야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건 결국 실패한 저항과 비극밖에 없다. 그곳에는 하나님이 없고 인간의 몸 부림과 상처만 남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성주의 담론을 넘어 성경의 구조 안에서 다말의 이야기를 다시 읽을 필요가 있다. '남성 가해자에게 희생당하는 여성 피해자'라는 프레임을 넘어 다말을 '고통당하는 한 영혼'으로, '권력 다툼과 폭력의 남성 카르텔'의 제한을 넘어 '인류의 불순종으로 전적 타락한 인류의 비참함'을 바라볼 때 우리는 다말을 통해서 트라우마로 고통받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드라마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 여기에 성경적 치유와 회복의 원리가 담겨있다. 그렇다면 다말 이야기에 대한 여성주의 담론의 한계는 무엇이며 구원드라마의 맥락 속에서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가?

### 1) 여성 피해자 - 남성 가해자 이분화

여성주의 담론의 성경 해석은 전통주의 해석에 전제된 가부장적, 남성 중심적 관점을 거부하고 여성 주체가 여성의 입장과 경험에 기초하여 해석하는 것을 전제한다(강호숙, 2020: 120-121). 여성주의 담론은 주로 다말이 남성에게 의해 주변화된 여성으로 취급되었음을 지적한다. 정희성(2019: 212)은 '다말 이야기의 진정한 핵심 인물이 압살롬이라는 전통주의적 해석(Bueggemann, 2000: 427)'이나 '다말의 성폭행 사건을 주변에서 일어난 사적인 범죄로 이해해서는 안 되며 왕위계승권자들의 권력 다툼이라는 폭넓은 맥락에서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Anderson, 2001: 297)'이 여성을 주변화하고 다말의 역할이나 고통을 무의미하게 만든다고 말한다. 이러한 접근은 그동안 조명되지 못했던 성경 속 여성의 역할이나 그들의 경험, 고통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시선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동시에 이런 관점은 여성주의 담론의 한계도 드러낸다. 그중 하나는 여성 인물과 그의 경험을 중심에 놓기 위해 이야기의 구조를 피해자 여성과 가해자 남성으로 이분화한다는 것이다. 박유미(2016: 13)는 다말의 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그녀(다말)는 다윗 왕조를 불법과 혼돈으로부터 구할 수 있는 여성 지혜자로 등장한다. 그녀



는 지혜로운 말로 불법성과 폭력성을 막으려 하였다. 하지만 그녀의 말이 묵살되며 성폭행이라는 폭력과 불법이 일어났고...다말의 정의로운 외침을 또한 다시 묵살한 어리석은 다윗의 태도로 인해...다윗 왕조 최대의 위기를 맞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여성 피해자 다말은 다윗과 그의 가정의 남성들에게 어리석음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역할을 하였다.

이런 이분화 속에서 여성은 피해자이자 지혜자이며 선이고, 남성은 가해자이자 어리석은 자이며 악이라는 이분법적 구도가 생긴다. 물론 성경 속에 묘사된 성폭행 사례 가운데 여성이 피해자이고 남성이 가해자인 경우가 더 많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성경에는 남성 피해자와 여성 가해자의 이야기도 있다.

성경에 구체적인 이야기가 기록된 성폭행 피해자는 디나, 롯, 레위인의 첩, 다말이다. 미수까지 포함한다면 롯과 레위인(삿 19:22), 원치 않는 동침을 수차례 요구당한 요셉(창 39:7-20)이 있다. 요셉은 여성 가해자(보디발의 아내)의 부당한 요구를 하나님의 뜻대로 거부하였으나 옥에 갇히게 된다(창 39:9). 성폭행 피해자 중 유일한 남성인 롯은 친족이자 여성인 자신의 딸들이 가해자이다. 더욱이 이 일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게 하여 불상의 상태에 이르게 한 점과 성폭행을 반복한 점에서 중범죄이다. 그럼에도 롯의 반응은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가 전부이며 어떠한 정서 행동 반응이 기록되지 않고 이후 행동도 기록되지 않는다(창 19:33, 35). 롯의 이야기는 훗날 이스라엘 자손과 반목하게 되는 모압과 암몬 자손의 유래이다. 롯은 자신의 두 딸에게 ‘후손을 이을 목적’으로 도구화된 것이다(창 19:32). 이들은 타락한 이 세상의 죄와 고통은 어느 성별에 국한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여성도 가해자가 될 수 있고 남성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여성이 여성에게 남성이 남성에게 고통을 줄 수도 있다. 성의 구분 없이 모두가 죄인이고 누구라도 트라우마를 경험할 수 있다. 타락한 세상 속에서 인류와 모든 피조물이 함께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다(롬 8:22).

## 2) 주체성을 가지지 못하는 다말

다말은 성경에서 유일하게 폭력에 저항하며 자기 목소리를 낸 사람으로 기록되지만 결국 실패한다. 그녀는 암논의 성폭행을 막지 못했고 그를 정당하게 심판하는 주체가 되지 못한다. 박유미(2018: 140-144)는 다말의 이러한 실패가 가부장적 사회에서 어머니의 역할이 무력화되어 여성 연대가 불가능하고, 권력을 가진 남성 다윗은 아버지의 역할을 유기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리고 여성을 자기 소유물로 삼는 가부장적 사회에서 ‘남성’ 압살롬은 암논의 성폭행을 ‘자기 소유에 대한 침해’로 여겼기 때문에 보복했을 뿐 다말을 위한 게 아니라고 주장한다. 같은 맥락에서 김순영(1999: 8-9)은 다말의 이야기가 왕위계승권을 둘러싼 갈등의 밑그림으로 소모되었다고 비판하며 다윗의 비인격적인 모습을 고발한다. 정

혜진(2020: 35-39)도 다말 이야기가 여성은 남성들과의 관계로만 묘사되며, 다말의 이야기는 권력을 가진 남성 카르텔 속에서 존엄과 미래 가능성을 박탈당하고 ‘처량하게’ 삶을 마무리하는 여성의 비정한 현실을 보여줄 뿐이라고 본다. 이은애(2019: 217) 역시 다말과 디나(창 34:1-31), 레위인의 첩(삿 19:16-30) 등 성폭행 사건의 해결이 피해 여성의 경험과 주체적 참여가 아닌 남성들의 감정과 이해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런 답론이 공통으로 주장하는 것은 성폭행 피해자인 여성 다말이 주체성을 가지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여성주의 답론은 다음의 세 가지 중요한 질문을 남긴다. 첫째, 여성만 주체성을 가지지 못하는가? 둘째, 누가 주체인가? 셋째, 무엇이 진정한 문제해결인가?

### ① 여성만 주체성을 가지지 못하는가?

여성주의 답론에서 ‘피해 여성의 주체성을 가진다’는 것이 무엇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성폭행 사건-전쟁의 패턴이 피해자를 외면하고 가해자를 중심으로 비합리적, 비윤리적인 결정을 내린 결과 발생한다는 비판에 비추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성폭행 사건에서 피해자가 주체성을 가진다는 것은 첫째, 피해자 중심으로 피해자의 말을 경청하고 둘째, 피해자를 위해 정당한 보상을 하고 가해자를 심판하며 셋째, 피해자를 적절하게 돌보는 것이다(박유미, 2018: 149-151).

하지만 여성만 이런 주체성을 가지지 못한 것은 아니다. 성경은 주체성을 가지지 못한 남성 피해자의 이야기도 보여준다. 앞에서 살펴본 롯의 경우, 그는 자신의 친딸들에게 두 번이나 성폭행을 당한다(창 19:30-35). 딸들은 아버지를 자손 번식을 위한 도구로 소모한다.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여 불상의 상태를 만드는 계획범죄를 실행하면서도 이들이 자신들의 행위에 두려움이나 죄의식을 느낀다는 설명은 나오지 않는다. 사건 이후 다말과 달리 롯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가해자들의 계획은 성공하여 모압과 벤암미라는 아들을 낳는다(창 19:36-38).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대적하는 민족의 조상이라는 것에서 이 사건이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했다는 것이 드러난다. 하지만 피해 남성 롯은 딸들의 죄를 고발하는 고발자도,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도 되지 못한다. 술에 취해 딸이 누웠다 일어나는 것을 알지 못했기에 저항할 수 없었고 아들이자 손자들의 태어남과 변성에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도 알 수 없다.

이처럼 성경은 여성-남성이라는 프레임 안에서 죄를 이야기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여성과 남성 모두 타락한 이후 얼마나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멀어지고 왜곡되었는지 보여준다. 타락한 인류가 만든 사회와 문화, 제도는 온전하지 못하고 왜곡될 수밖에 없다. 성별과 무관하게 여성이나 남성 모두 상황에 따라 주체성을 갖지 못할 수 있고, 목소리를 내지 못할 수 있으며, 때로는 그 소리가 무시당한 채 미완의 이야기로 남겨질 수 있다.

## ② 누가 주체인가?

피해자의 주체성은 외상성 사건과 피해자의 심리적, 신체적, 사회적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주체’에 의해 완성된다. 주체는 피해자의 주체성을 인정하며 문제를 해결할 책임과 능력을 가진 자이다. 여러 여성주의 학자들은 공통적으로 친오빠인 압살롬과 아버지이자 왕인 다윗에게 해결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Trible, 2022: 133 ; 박유미, 2018: 53). 다말은 비록 신체적 약함 때문에 암논의 폭력을 막지 못했으나 당시의 제한된 사회문화 속에서 여성 피해자로서 주체성을 갖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다말의 사건에 대한 ‘주체성’을 인정하고 문제를 해결할 책임은 율법상 가해자 암논과 보호자 압살롬, 피해자의 아버지이자 왕인 다윗에게 전가된다. 다시 말하면, 여성주의 담론은 다말의 주체성을 강조하지만, 당시 상황과 문화의 한계 속에서 오히려 주체성에 대한 책임을 남성들에게 부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암논, 압살롬, 다윗 중 그 누구도 참된 주체가 되지 못한다. 암논이 이 사건에 주체로서 행동하지 않음은 명백하다. 율법상 암논에게는 죄를 회개하고 다말에게 사과와 보상을 할 책임이 있었다. 그러나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

압살롬의 반응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의견이 엇갈린다. 대부분 여성주의 학자들은 압살롬의 “지금은 잠잠히 있으라”는 말을(삼상 13:20) 침묵 강요로 해석하고 암논 살해 역시 정적제거 목적이 더 크다고 본다. 그러나 Trible (2022: 53)은 압살롬이 다말의 조언자가 되었다고 본다. 완곡어법을 사용한 것 역시 사건을 축소하려는 의도가 아니며 다말에게 일어난 일이 그토록 경악스러운 일임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해석한다. 그리고 다말을 위한 복수를 구상하는 등 동생의 지지자 역할을 충실히 한다고 본다. 정희성 (2019: 215-216) 역시 압살롬이 다말과 함께 아픔을 나누고 그녀를 위해 암논을 살해했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압살롬의 해결 방법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으며 파괴적인 결과를 낳는다.

다윗에 대해서는 여성주의 담론은 물론 전통적인 해석에서도 비판적이다. 성경에는 다윗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였다는 기록은 있지만 그 후 다윗의 행적은 밝히지 않는다(삼하 13:20).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말의 울부짖음을 듣고 가해자 암논에 대해 다윗이 적절하게 대처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부분의 학자들이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

실제로 당시 율법을 고려하면 피해자 다말의 아버지이자 왕인 다윗이 져야 할 책임이 있었다. 아버지로서 가해자에게 배상을 청구하고 딸을 그와 혼인시킬 의무<sup>6</sup>와 왕으로서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할 의무<sup>7</sup>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율법에 기초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주체는 다윗이다. 그

6)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꺾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출 22:16-17)

러나 다윗은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한 뒤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훗날 압살롬이 반역을 계획하며 민심을 얻으려 할 때 한 말에서도 유추해볼 수 있다. “네가 바르지만 네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삼하 15:3)는 말이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은 다윗에게 압살롬이 실망했음을 은연중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압살롬 역시 다윗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가해자를 치리해 줄 것을 기다렸지만 그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해석이다.

Anderson (2001: 304)은 70인역에 “암논이 장자이기 때문에 다윗이 그를 사랑하여 암논의 못된 짓을 저지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있다고 하면서도 설령 다윗이 나섰어도 율법의 한계 때문에 암논을 처벌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다윗이 암논의 범죄나 압살롬의 보복에 협력하지도 않았으므로 이 이야기의 저자가 다윗에게 면죄부를 주려 한다고 설명한다. Henry (2009: 630)는 그와 달리 자신을 범죄에 끌어들이는 암논에게 다윗이 엘리의 잘못을 답습하고 있다고 말한다(삼상 2:22-25). 그리고 다윗이 다른 이의 죄에 공의를 시행하는 데 따르는 죄의식과 부끄러움을 감당하지 못하기에 침묵한다고 본다. Brueggemann (2000: 431) 역시 암논의 범죄가 다윗의 과거 범죄와 너무나 비슷하여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해석한다.

박유미(2019: 62)는 다윗이 아들만을 편애하여 ‘가해자의 보호자’로서만 행동하였으며 자신은 빗세바를 범한 죄를 회개할 기회를 얻어 화를 면했음에도 암논의 회개 기회를 박탈하여 더 큰 비극을 맞았다고 지적한다. 이은애(2019: 235)도 다윗이 아들들의 죽음에 보인 통곡과 딸의 트라우마에 보인 침묵을 비교하며 그의 아들 편애를 지적한다. 이 편애는 왕의 의무인 정의와 공의에 반하는 것이고 결국 왕권의 한계를 드러낸다는 것이다. Adelman (2021: 94-95) 역시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 하리라(삼하 12:10)”라는 저주의 첫 형벌을 받은 다윗 집안 여성을 다말로 본다. 이 형벌이 다윗 자신의 죄 때문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다말을 보호하지도 암논을 벌하지도 않은 것은 다윗의 집안과 왕국의 부패를 강조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왕으로서 율법의 규례를 지켜 행하고(신 17:18-19)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삼하 15:2, 왕상 3:6-14 ; 16-28) 암논의 범죄와 다말의 울부짖음에 침묵한 듯한 다윗의 모습은 오래 슬퍼하는 한 여인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명령을 내려주던 모습과도 대조된다(삼하 14:2-20).

여러 논쟁과 비판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다윗이 왜 침묵하는지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는다. 70인역의 내용대로 암논을 사랑하여 엄하게 대하지 못했을지라도 다말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알 수 없다. 여성주의 학자들의 주장대로 아들만 편애하고 딸은 아끼지 않았다고 볼 근거도 부족하다. 다윗이 심히 노한 뒤에 무엇을 하거나 하지 않았는지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7)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신 17:18-19)

다윗이 이 사건에 ‘침묵’했다는 판단의 근거는 암논이 살해되기 전까지의 기록 부재와 압살롬의 암논 살해이다. 이는 다윗이 암논을 징계했거나 다말에게 충분히 보상했다면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전제에서 나온 판단이다. 그러나 성경은 요나답을 통해 사건이 벌어진 날부터 압살롬이 이미 암논 살해를 결심했다고 밝히고 있다(삼하 13:32). 즉, 다윗의 조치와 상관없이 압살롬은 암논을 살해하려 했으므로 암논 살해가 다윗의 행적을 설명할 수는 없다.

율법상 다말에게 보상할 방법이 없다는 한계도 있다. 다말이 약혼하지 않은 처녀였으므로 가해자 암논은 피해자의 아버지 다윗에게 납폐금을 내고 다말을 아내로 삼아야 한다(출 22:16-17, 신 22:28-29). 그러나 둘은 남매이므로 율법상 혼인이 불가능하다.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성폭행한 자에 대한 처벌이 혼인이나 납폐금 외엔 없고 피해 여성의 아버지가 아닌 가해 남성이 혼인을 거부할 경우는 율법에 나오지 않는다는 한계도 있다. 율법의 한계 속에서 다윗은 율법을 뛰어넘을 수 없었을 것이다.

정리하면, 암논의 성범죄에서 피해자 다말은 주체성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으나 당시 여성의 지위와 시대적 한계를 넘어서 자신이 직접 해결하는 주체가 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책임이 있다고 여겨지는 암논, 압살롬, 다윗도 완전하게 책임을 다하지 않았거나 책임질 능력이 없었다. 율법조차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역시 다말에게 발생한 문제를 해결할 참된 주체가 부재한 상황이다.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졌고 가해자는 트라우마의 고통 가운데 괴로워한다. 그러나 피해자 본인도 가해자도 보호자도, 법 제도와 실행자도, 사회문화적 환경도 각자의 한계로 온전한 문제해결에 이르지 못한다. 이런 상황은 다말 이야기를 넘어 오늘날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트라우마 사건과 닮아있다. 그렇다면 누가 이 문제를 온전히 해결할 주체인가? 이런 현실 속에서 진정한 문제해결의 주체는 후술할 구원 드라마 안에서 찾을 수 있다.

### ③ 무엇이 문제해결인가?

성경 속 외상 사건으로 발생한 문제의 해결은 피해자가 트라우마에서 완전히 회복되고 상실했던 건강과 가족, 재산 등을 되찾는 것처럼 보인다. 요셉 이야기는 요셉이 자신의 꿈 해석 능력으로 모든 고난을 극복한 뒤 부와 명예, 새로운 가족을 얻고 잃었던 가족까지 되찾아 완벽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이야기 같다. 욥은 원인 모를 고난을 받았지만 믿음을 지킨 보상으로 질병과 가난의 문제를 해결한 것 같다. 이처럼 트라우마의 해결은 손상된 신체적, 심리적 혹은 사회경제적 기능이 회복되고 트라우마 전으로 돌아가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살아가는 것 같다. 그러나 이 이야기들을 자세히 보면 이들의 문제해결은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행복한 결말과는 매우 다름을 알 수 있다.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무엇이 문제해결이며, 누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지 고찰해보자.

요셉이 보디발의 가정 총무가 된 건 그의 고용주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며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기’ 때문이다(창 39:2-6).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뒤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할 수 있었던 것도 요셉의 재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다(창 40:8). 감옥에서 해방되기 위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부탁했던 요셉의 시도는 관원장의 망각으로 좌절된다(창 40:9-15, 23). 후에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할 수 없게 하셨기 때문이다.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따랐으나 그 결과 즉시 문제가 해결되거나 곧바로 부와 명예를 얻은 것은 아니다. 형들을 보고 오라는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한 결과 형제의 손에 노예로 팔려간다(창 37:12-36). 하나님의 뜻대로 보디발의 아내의 동침 요구를 거절하였으나 감옥에 갇히고(창 39:7-20), 하나님의 지혜로 꿈을 해석한 결과도 당장 찾아오지 않는다(창 40:23). 애굽으로 팔려온 지 13년이 지나서야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된다(창 41:37-45).

드디어 요셉에게 부와 명예가 찾아온 것 같지만 성경은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이 그가 겪은 고생의 보상으로 주어진 부귀영화가 아님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이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다(창 45:5-7). 요셉 이야기의 진정한 문제해결은 대기근에서 이스라엘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고 그 후손을 세상에 두는 것이다(창 45:5-8). 요셉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 이 문제를 해결하신다.

욥의 내러티브도 같은 맥락에서 읽어볼 수 있다. 욥은 전 재산과 가족, 건강까지 잃고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다(욥 1:20-22; 2:10). 하지만 얼마 후 고난의 이유를 알 수 없던 욥과 친구들은 격한 논쟁을 벌인다. 하나님의 공의에만 치우친 친구들은 욥의 고난이 그의 죄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자신의 의를 확신하는 욥은 마침내 자신에게 닥친 고난을 하나님의 불의로 여긴다(욥 32:1-3). 욥 스스로에게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든 시도는 결국 실패한다.

욥과 친구들이 생각하는 문제해결은 의인 욥에게 왜 고난이 닥쳤는지 합리적인 이유를 찾는 것이었다. 하나님이 고난의 이유를 설명해주셔야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실 때(욥 38:1), 하나님은 왜 욥에게 고난이 닥쳤는지 설명하지 않으시고 욥이 차라리 죽기를 원할 정도로 절망하고 고통스러워할 때 어디에 계셨는지 말해 주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여전히 천지의 창조자시며 만물을 운행하시고 섭리하심을 드러내실 뿐이다. 욥은 그 섭리 앞에 자신을 하나님보다 의롭게 여긴 죄를 회개한다(욥 38:1-41:34, 42:2-6). 욥이 궁극적으로 경험했던 진정한 문제해결은 합리적이고 이해할 만한 설명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겸손하게 인정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욥은 시공간을 넘어 트라우마를 겪는 이들에게 ‘고통받는 이’의 상징이 되어 이정표를 제시한다. 하나님은 당신의 임재하심을 드러내심으로 욥이 직면한 극심한 고통의 문제를 해

결하신다.

지금까지 살펴본 결과 트라우마 상황에서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진정한 문제해결은 피해자의 완전한 신체적, 심리적, 사회경제적 회복 혹은 트라우마 이전으로 완전히 돌아가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성경은 여러 인물의 트라우마 경험을 통해 진정한 문제해결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 해결 주체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낸다(김규보, 2022: 142-143).

이런 맥락에서 다말의 이야기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구원드라마를 배제한 채 다말의 트라우마 현실에만 집중하게 되면 다말의 이야기는 비극일 뿐이다. 공의가 실현되리라는 그녀의 기대는 좌절되고 보상이나 처벌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 결과적으로 여성주의 담론 안에서 다말 이야기는 이렇게 한계를 맞는다. Trible이 내린 결론처럼 “슬픈 이야기에는 행복한 결말이 없다(Trible, 2022: 38).” 그러나 여성주의 담론 넘어 성경이 제시하는 구원드라마 안에서 진정한 문제해결의 의미로 들어갈 때 다말의 이야기는 다른 결론을 향한다.

### 3. 구원드라마 안에서의 다말 이야기

성경에는 수많은 외상성 사건과 트라우마가 있고, 수많은 이들의 고통과 탄식이 묘사된다. 이들의 이야기를 주인공이 역경을 극복하고 승리와 행복을 쟁취한 영웅 서사나 어떤 담론으로 이해한다면 이들의 고난은 도구적 소품으로만 여겨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다말의 이야기는 성경 속 성폭행의 피해 여성 중 유일하게 폭력에 저항하고 부당함을 고발하며 잠잠하지 않고 사건을 드러내기에 여성주의 관점이 강조하고 싶은 주제를 잘 드러내는 사례로 사용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드라마를 배제한 채 여성주의 담론 안에서 다말을 이야기의 주체로 삼게 될 때 역설적으로 그녀는 실패한 피해자가 된다. 다말은 저항했으나 폭력을 피할 수 없었고 고발하였으나 공정한 재판과 보상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가해자 암논은 암살됨에 의해 보복살해를 당하기 전까지 아무런 율법적, 사회적 처벌을 받지 않는다. 이 이야기에서 다말은 실패한 것처럼 보인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여성주의 담론에서는 다말이 목소리를 낸 자체에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하기도 하고 다말의 사례를 피해자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도구로써 활용하기도 한다. 정희성(2019: 212-217)은 다말의 경험을 ‘한 여성-놀이’로 재구성하여 성폭행 피해자들이 자기의 경험을 투사하고 새로운 이야기로 재구성하는 방편으로 사용한다. 피해자의 분노와 소망을 투영하여 재구성한 이야기에서 다말은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기도 하고 암논 살해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심판의 주체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법은 성경을 인간의 목적을 위한 사례 분석 혹은 이야기 치료의 텍스트 정도로 활용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 계시를 담아내지 못한다. 이런 점에서 여성주의 담론의 시

도는 성경적이라 할 수 없다. 한상화(1997: 314)의 지적처럼 세속적 여성주의와 기독교 신앙을 접목하려는 시도는 신앙의 변질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또한, 여성의 경험을 중심에 두고 말씀을 재구성하는 방식은 성경 해석의 주체를 성령의 조명을 따른 말씀 자체에 두어야 한다는 원리에도 어긋난다(심창섭, 1991: 96).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자체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의 참고문헌으로 사용하여 자신의 견해와 필요에 따라 재구성하고 왜곡하는 것은 그 목적이 비록 트라우마로 고통받는 이들을 돕는 것일지라도 자기 숭배가 된다. 자기 마음의 우상을 따른 죄인의 관점에서 죄로 깨진 창조 질서를 재구성하는 시도로는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창조 질서의 회복, 참된 치유를 가져올 수 없다.

성경의 인물, 그들의 이야기는 어떤 의도를 지닌 인간의 정치사회적 담론을 넘어 하나님의 구원드라마 안에서 해석될 때 비로소 온전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모든 인간 존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이다(김규보, 2022: 84). 그렇다면, 구원드라마 안에서 다말의 이야기는 어떤 의미를 갖는가?

첫째, 구원드라마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다말 이야기는 타락한 현실의 한계가 만들어내는 고통을 분명하게 드러내며 진정한 공평과 질서에 대한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한다. 암논의 우월한 신체적 사회적 위계를 악용해 약한 자를 강탈한다. 법정적 해결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 다윗은 자신의 죄와 한계, 율법의 맹점 앞에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 딸의 이름을 다말로 지을 정도로 다말을 아꼈던 압살롬은 암논을 살해해 정의를 세우고자 했지만 이는 적법한 절차도 아니고 생명윤리에도 어긋났다. 결국 그는 외조부의 집으로 도망쳐야 했고 살해현장을 목격한 다른 형제들에게도 상처를 남겼으며, 궁극적으로는 반역과 죽음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걷게 된다. 다시 말하면, 다말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민족의 근간인 율법조차 완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라 불렀던 다윗도 온전히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의 질서를 회복하지 못하는 타락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구원드라마 안에서 이 타락의 현실은 역설적으로 세상의 정의와 회복이 오직 그리스도께 있다는 진리를 분명하게 드러낸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듯(롬 5:20),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이 만든 제도에 품었던 희망이 무너질 때 비로소 유일하게 완전한 정의와 공평과 회복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 시선을 돌릴 수 있다.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다윗에게서 난 “한 의로운 가지”가 “이 땅에 공평과 정의를 실행”하신다(렘 33:15). 법도, 권세자도, 폭력도, 인간의 어떤 방식도 아닌 오직 그리스도가 깨진 “오직 정의를 물 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 같이 흐르게” 한다(암 5:24). 결국, 다말의 이야기는 타락한 현실 속에 절망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더욱 갈망하게 한다. 따라서 Kuyper (2020)가 옳게 주장한 것처럼 세상의 모든 영역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다시 세워져야 한다. 위정자들의 정치, 법의 제정과 판단과 실행,



경제 원리와 윤리, 일상의 사회문화적 제도도, 인간과 인간 사이의 예의와 태도 등 모든 영역 가운데 그리스도의 질서가 세워질 때, 참된 공평과 정의가 이루어진다.

둘째, 구원드라마 안에서 다말을 향한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닌 충만한 임재와 사랑이다. 다말은 트라우마를 겪는 상황에서 침묵하지 않는다. 소리 내어 저항하고 옷을 찢으며 울부짖는다. 그러나 그녀는 이내 잠잠해졌고 성경은 더는 그녀의 목소리를 들려주지 않는다. 그녀의 울부짖음에 다윗은 심히 분노하지만 침묵한다. 이러한 침묵을 마주할 때 고통을 겪는 이들이나 이들을 돕고자 하는 이들 모두 당혹감을 느낀다.

특히 그리스도의 예표이며 ‘아버지’인 다윗의 침묵에 대한 해석함은 외상성 사건을 겪으며 부르짖을 때 침묵하시는 듯한 하나님 ‘아버지’의 표상이 될 수 있다. 다말의 울부짖음에 다윗이 침묵하였듯 하나님도 고통당하는 자들의 부르짖음에 침묵하시고 다윗이 무능하였듯 하나님도 무능하신 게 아닌지의 구심이 생기기도 한다(신성화·전혜연·장동진, 2023: 55-56). C.S. Lewis (2004: 22)는 고통 가운데 경험하는 하나님의 침묵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다른 모든 도움이 헛되고 절박하여 하나님께 다가가면 무엇을 얻는가? 면전에서 광 하고 달히는 문, 안에서 빗장을 지르고 또 지르는 소리. 그리고 나서는, 침묵. 돌아서는 게 더 낫다. 오래 기다릴수록 침묵만 뼈저리게 느낄 뿐.”

실제로 수많은 이들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다고 호소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의 부재나 무관심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김규보, 2022: 106). 구원드라마 가운데 하나님은 한 순간도 당신이 택하신 자를 떠나지 않는다(사 41:10; 마 28:20). 그는 여전히 섭리하시며 그를 믿는 자들은 그분을 힘입어 기뻐하며 존재한다(행 17:28). 그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자녀를 지키시며 구원드라마를 완성하고 계신다(시 121:4).

오히려 트라우마 상황에서의 침묵은 고통받으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결되어 중요한 치료적 함의를 제시한다. 그것은 십자가의 고통을 침묵 가운데 온전히 받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성도의 모든 고통을 온전히 이해하신다는 것과 그리스도께서 고통 가운데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자녀들과 함께하신다는 것이다(김규보, 2022: 101-103). 죄 없는 그리스도께서 말없이 고통과 수치를 지신 십자가가 성도의 고통이 연결될 때 성도는 십자가로 이루신 구원드라마 가운데 초청된다. 그리고 고난의 침묵 가운데 존재의 부재로 경험되었던 하나님이 존재의 충만함으로 새롭게 경험된다(김규보, 2022: 103). 고통으로 모든 언어가 상실된 가운데 그리스도가 고통 가운데 함께 침묵하신다. 그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성도를 위해 간구하고 계심을 알 때 성도는 죄와 고통을 넘어 그리스도께로 가는 길이 진정한 치유와 회복임을 깨닫게 된다(롬 8:26). 그리스도의 침묵 속에서 고통당하는 이들은 위로를 얻는다.

이렇게 구원드라마 안에서 바라볼 때, 다말에 대한 다윗의 침묵도 다르게 이해된다. 어쩌면 다윗의 침묵은 자기 죄와 무관하지 않은 범죄의 현실에 탄식하며 한숨조차 내쉬지 못하는 고통의 표현일 수 있

다(삼하 12:11). 침묵이 위로가 되지 못한 채 방임과 직무유기가 되었을지라도 자기 죄에 짓눌려 차마 고개를 들 수 없고 딸에게조차 위로의 말 한마디 전할 수 없는 죄인의 소리 없는 절규일 수도 있다. 여기서 우리는 결코 구원자가 될 수 없는 인간 다윗의 한계를 바라보며 다시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된다. 가장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죄인 다윗에게 투영되었던 왜곡된 하나님 형상을 벗겨낼 때, 우리는 눈의 비늘이 벗겨지듯 온전한 시선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행 9:18).

죄인과 죄인이 만든 사회제도와 달리 하나님은 무능하지도 무정하지도 않으시다. 하나님은 침묵 가운데에서도 충만한 임재로 모든 고통과 절망과 울부짖음을 아시고 이미 십자가에서 확증하신 사랑으로 끝까지 변함없이 죄인을 사랑하신다(롬 5:8).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은 죄인을 이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셨다(롬 8:2). 따라서 문제해결의 참된 주체는 오직 하나님이시며, 그분 안에서 우리는 참된 문제해결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셋째, 구원드라마 안에서 다말의 이야기는 우리의 참된 소망이 하나님 나라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에 있음을 가르쳐준다. 믿는 자들의 소망은 트라우마의 파괴적인 흔적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데 있다(히 12:2). 성도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랑 안에서 매일 그리스도 닮음(Christiformity)을 실천하며 평안과 정의를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롬 8:35-39 ; 김규보, 2022: 89-90).

하지만 다말처럼 트라우마를 경험하는 이들 중 어떤 이들은 견디기 힘든 고통을 일으키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경제적 손상이 완전히 회복되거나 트라우마 이전으로 돌아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아가는 데 소망을 둔다. 피해자가 완전하게 심판받고 철저히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 소망일 수도 있다. 여성주의 담론이 다말의 이야기를 희망 없는 슬픈 이야기로 바라보거나 암논에게 정당한 심판을 하지 않는 다윗을 비판하는 것은 이들의 소망이 여기에 있음을 시사한다. 최근 드라마나 웹툰에서 현재 기억을 가진 채 과거로 돌아가 사건을 예방하거나 가해자의 머리 위에서 완벽하게 복수하는 ‘회귀’ 소재가 인기를 끄는 것, 사적 보복을 ‘정의구현’, ‘참교육’, ‘사이다’ 등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지지하는 모습은 이런 소망의 투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소망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소망을 이루기 위해 서로 돕고 노력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그러나 이런 소망에도 불구하고 드라마나 웹툰과 달리 현실에서는 시간을 돌이킬 수 없다. 사실 이런 방식의 소망은 외상성 사건이나 고통이 없는 평안한 상태가 계속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왜곡된 기대를 내포하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안전과 행복’이라는 프레임에 가두어 여기서 벗어나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원망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과 다른 왜곡된 소망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의 기대에 맞추어 드러나지 않는다. 인간의 욕망과 바람을 넘어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이미 증명하셨다. 십자가보다 안전과 행복, 완벽한 치유 혹은 가해자에 대한 만족스러운 처벌

등이 더 중요해진다면, 그것은 마음의 우상이다.

사적 복수 역시 세상 법이나 하나님 앞에서 정의로 여겨지지 않는다. 특히 사적 제재로 정의를 구현하려는 것은 압살롬의 암논 살해 계획과 닮아 있다. 압살롬은 다말의 이야기를 들은 날부터 암논에게 ‘정의구현’할 것을 결심한다(삼하 13:32). 그러나 압살롬의 사적 보복은 하나님 앞에 정의를 세우는 일이 되지 못한다. 그는 아버지를 대적하는 반역자가 되고 나무에 달려 죽음을 맞이한다(삼하 15:7-12 ; 13:9-15).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지 않는 소망은 이렇게 불완전하고 더 큰 고통을 야기하기도 한다.

구원드라마 밖에서 다말의 이야기가 피해자의 회복과 가해자 처벌에만 소망을 둔다면 비극적인 미완의 이야기가 된다. 성폭행 피해 여성인 다말에게 유일한 구제 정책이었던 가해자와의 결혼은 다른 율법의 한계로 불가능하다. 혼인이 이루어진다 해도 자신에게 폭력을 가한 뒤 미워하는 가해자와의 결혼생활에서 치유와 회복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오빠의 집에서 홀로 처량하게 지내게 된 다말이 당시의 사회 문화 속에서 다른 회복의 소망을 가질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문제해결의 주체로 여겨진 압살롬과 다윗은 진정한 문제의 해결자가 되지 못한다.

그러나 구원드라마 안에서 다말의 이야기가 해석될 때 구약시대 여성 다말은 십자가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게 된다. 그 섭리 안에서 죽음처럼 황폐해진 다말은 생명을 얻고 완전한 하나님의 공의를 누리게 된다(롬 8:2).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기 때문이다(롬 14:17). 우리의 산 소망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다말은 참 자유와 평안을 누린다(딤후 1:1 ; 갈 5:1 ; 요 14:27). 세상에서 그녀는 욕을 당하고 처량해졌지만,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게 됨으로 다말의 욕된 것은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삼하 13:32 ; 고전 15:43).

### III. 닫는 글

지금까지 다말 이야기에 대한 여성주의 담론의 한계를 살펴보고, 이를 극복하는 대안으로 구원드라마 안에서 다말의 이야기를 접근해 보았다. 여성주의는 다말의 이야기를 통해 여성 피해자-남성 가해자의 이분화와 여성의 주체성에 대한 담론을 제시한다. 그러나 성경은 외상성 사건이 성별과 무관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문제해결의 궁극적인 주체 역시 남성 혹은 여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드러낸다. 성경은 다말의 비극적인 사건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운행하시는 구원드라마에서 분리되지 않음을 알려준다.

결론적으로 구원드라마 안에서 다말 이야기가 갖는 치료적 함의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온전한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폭력이 가득한 다말의 세상은 하나님 없는 죄의 비참한 상태를 드

러내 오히려 참된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한다. 둘째, 다말 이야기에 나타나는 침묵들은 당혹감을 주지만, 침묵 가운데 십자가 고난을 감당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깨닫고 위로를 얻는다. 셋째, 구원드라마 안에서 다말의 이야기는 트라우마 가운데 참된 소망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섭리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데 있다는 사실을 알려 준다.

오늘날 세속주의의 물결이 과학과 현대 문명을 지배하면서 구원드라마는 인간의 문제해결에서 점차 소외되어 가는 듯하다.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하게 트라우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많은 방법론과 담론이 형성되었고, 새로운 이론과 기법, 약물 등의 개발은 트라우마에 대한 온전한 치유가 하나님 없이도 가능할 것이라는 잘못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십자가나 구원드라마는 과학적이지 않거나 신뢰할만하지 못한 것처럼 여겨지기도 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방법론과 담론은 진정한 치유와 회복을 제시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세상과 인간을 창조자이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성경이 계시하는 대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면, 가장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참된 치유와 회복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 성경이 계시하는 참된 치유는 단순한 심리적 안정감이나 기능의 회복이 아니라 내담자의 전인 가운데 무너진 창조 질서를 회복하고 구원드라마 안에서 더욱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돕는 데 있다(김규보, 2022: 87-90, 260-261). 이 원리는 트라우마와 같은 비극적 상황 속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향후 트라우마로 고통받는 이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성경적 원리와 방법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발전되기를 기대하며, 이 연구가 고통 중에서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걸음을 멈추지 않는 이들과 공동체에 유익한 자료가 되기를 소망한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 참 고 문 헌

- 강병도 (2009). **카리스종합주석**. 서울: 기독지혜사.
- 강유나 역 (2004). **헤아려 본 슬픔**. Lewis, C. S. (1947). *A Grief Observed*. 서울: 흥성사.
- 강호숙 (2020). 보수기독교 내 젠더인식과 젠더문제에 관한 연구: 성경적 페미니즘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신학과 사회**, 34(2), 109-148.
- 권준수 역 (2015).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 편람 제 5판**. APA. (2013).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5<sup>th</sup> Edition*. 서울: (주)학지사.
- 김규보 (2017). 트라우마에 대한 현대 심리학적 접근의 평가와 기독교 병리학적 제안. **성경과 신학**, 81, 171-205.
- 김규보 (2021). 기독교 상담의 텔로스: 기독교 아비투스로서의 상담을 위한 성경적 세계관. **성경과 신학**, 98, 33-70.
- 김규보 (2022). **트라우마는 어떻게 치유되는가**. 서울: 생명의말씀사.
- 김대영 역 (2001). **사무엘(하)**. Anderson, A. A. (1989). *Word biblical commentary*. 서울: 솔로몬.
- 김이곤 (1986). 다윗의 딸 다말 애도송. **기독교사상**, 29(11), 95-114.
- 차종순 역 (2000). **사무엘상·하**. Brueggemann, W. (1990). *First and Second Samuel: Interpretation: A Bible Commentary for Teaching and Preaching*.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 김순영 (1999). 다윗 왕과 다윗 왕가의 여성들. **한국여성신학**, 39, 6-11.
- 김지호 역 (2022). **공포의 텍스트: 성서에 나타난 여성의 희생(40주년 기념판)**. Tribble, P.(2022). *Text of Terror: Literary-Feminist Readings of Biblical Narratives 40<sup>th</sup> Anniversary Edition*. 경 기도: 도서출판 100.
- 김호경 (2004). 낮은 목소리-다말. **기독교사상**, 48(7), 116-123.
- 문병호 역 (2020). **기독교강요1**. Calvin, J. (1559). *Institutio Christianae Religionis I*. 서울: 생명의말씀사.
- 박유미 (2016). 다윗 왕조의 동반자로서의 지혜로운 여성들: 사무엘서의 지혜로운 여성 연구. **성경과 신학**, 77, 1-28.
- 박유미 (2018). 성폭력, 개인의 문제인가 사회적 문제인가?: 구약의 '여성 성폭력-전쟁'의 패 턴에 대한 연구. **구약논단**, 24(4), 125-155.
- 박유미 (2019). 왜 다윗은 다말의 부르짖음에 침묵했을까?. 권지성 (편저). **성폭력, 성경, 한국교회** (pp. 46-65). 서울:기독교문서선교회.
- 박태현 역 (2020). **아브라함 카이퍼의 영역주권**. Kuyper, A. (1880). *Sovereiniteit ineigen kring*. 군포:

다함.

- 손운산 (2004). 다말 이야기에 대한 목회상담학적 고찰. **한국기독교신학논총**, 31(1), 643-670.
- 신성희·전혜연·장동진 (2023). 내적작동모델과 하나님 애착의 관련성 및 기독교 상담적 함의: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시점에서. **복음과 상담**, 31(2), 41-68.
- 심창섭 (1991). 성숙한 시대의 감각으로 재조명되어야 할 칼빈의 여성관. **기독교교육연구**, 2(1), 77-103.
- 이동훈·김종희·이정은·김진주·강현숙 역 (2020). **트라우마 상담 및 심리치료의 원칙 제2판**. Brier, J. N. & Scott, C. (2013). *Principles of Trauma Therapy*, 2e. 서울:(주)시그 마프레스
- 이영미 (2021). 그날 이후, 분노하는 다윗 궁정의 남자들과 침묵의 카르텔. **대한기독교서회**, 755, 140-151.
- 이은애 (2019). 권력과 성폭력: 사무엘하 13:1-22을 중심으로. **구약논단**, 24(3), 217-245.
- 정혜진 (2020). 더 이상 침묵하지 않는다!: 친족성폭력 피해자 다말의 이야기(삼하 13:1-22). **새가정**, 67, 35-39.
- 정희성 (2008). 성폭력 피해자의 생존과 재활을 위한성서 읽기: 여성주의 목회신학적 연구. **한국기독교 신학논총**, 55(1), 203-228.
- 한상화 (1997). 개혁주의 관점에서 본 여성신학과 여성해방. **한국개혁신학**, 3(1), 311-349.
- Adelman, R. (2021). The Rape of Tamar as a Prefiguration for the Fate of Fair Zion. *Journal of Feminist Studies in Religion*, 37(1), 87-102.
- Brouer, D. (2014). Tamar's Voice of Wisdom and Outrage in 2 Samuel 13. *PriscillaPapers*, 28(4), 10-13.

# 다윗의 딸 다말이 경험한 트라우마 분석 및 치료적 함의

## Analysis of Tamar's Trauma and its Therapeutic Implications in Theodrama

이해 루 (총신대학교)

김규보 (총신대학교/교신저자)

### 논문초록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진 세상에서 인류는 지금도 크고 작은 트라우마를 경험하고 있다. 도처에 잠재한 트라우마를 성경적으로 이해하고 치유하는 것은 개인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된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윗의 딸 다말이 경험한 트라우마를 분석하고 치료적 함의를 탐색한다.

다말의 이야기에 대한 국내외 연구 대부분은 여성주의 담론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여성주의는 다말 이야기에 대한 기존 해석이 남성 중심적이며 그녀를 다윗 왕가의 권력투쟁 맥락에서 도구적으로 소모한다고 비판한다. 기존의 '남성 중심적 해석'을 극복하기 위해 성폭행 피해자 중 유일하게 목소리를 낸 다말은 어리석은 남성들과 대조되는 지혜자, 폭력에 저항한 영웅적 인물로 재해석된다. 이런 여성주의 담론의 시도는 그간 은폐되어 온 여성의 존재, 여성의 삶 및 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을 드러내고 대안을 모색하는 데 일부 역할을 한다.

그러나 여성주의 담론에서 다말은 역설적으로 남성의 폭력성과 어리석음을 고발하는 도구적 역할로 소모되고 실패한 영웅 서사에 갇히게 된다. 그리고 다말을 구원드라마에서 소외시켜 그녀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치유를 바라볼 수 없게 한다. 본 연구는 이런 여성주의 담론의 한계를 극복하고 구원드라마 안에서 다말의 이야기를 해석하여 상담적 함의를 제시한다. 이를 위해 여성주의 담론에 나타나는 여성 피해자-남성 가해자 이분화와 여성 피해자의 주체성에 대한 주제를 분석하고 비판한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구원드라마 안에서 다말의 이야기를 해석하여 상담적 함의를 세 가지로 제안한다. 첫째, 하나님 없는 세상의 죄와 비참한 상태는 오히려 하나님께만 진정한 구원과 공의가 있음을 드러낸다. 둘째, 트라우마 가운데 하나님의 침묵은 부재가 아닌 충만한 임재이다. 셋째, 참된 소망은 하나님 나라의 섭리가 온전히 이루어짐에 있다.

**주제어:** 다말, 트라우마, 여성주의, 구원드라마, 성경적상담





## ‘대안학교 등록제’ 도입에 따른 변화와 기독교대안학교의 나아갈 방향\*

### Changes following the introduction of the ‘alternative school registration system’ and the future direction of Christian Alternative School

이종철 (Jong Chul Lee)\*\*  
김지혜 (Ji hye Kim)\*\*\*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changes resulting from the introduction of the ‘alternative school registration system’ and the future direction of Christian alternative schools. Over the past two years, 234 schools have registered, of which 114 are Christian alternative schools. Although many schools have completed registration, there are still unregistered schools and schools with limited registration, so it is necessary to pay attention to what legal and administrative measures will be taken against them in the future. In order to establish the registration system meaningfully, the alternative education institution registration screening process needs to be supplemented, and the issues of academic qualification recognition and financial support must also be resolved. In particular, in order to protect the school's identity and autonomy, financial support should be considered by parents through vouchers rather than directly by the school. In order to integrate the types of alternative schools that have become complex due to three rounds of legislation, it is necessary to reorganize the law and integrate management departments, and more fundamentally, there is a need to broadly guarantee parents' educational options through revision of Article 13 of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Christian alternative schools that have come out into the public arena must pay attention not only to

\* 2024년 2월 6일 접수, 3월 1일 최종수정일, 3월 4일 게재 확정.

2023 한국기독교교육학회 추계학술대회(2023.11.25)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임.

\*\* 한국교육원대(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겸임교수,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태성탑연로 250, jc207@hanmail.net

\*\*\*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Christian School Education Research Center) 연구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78길 44, wisdom082696@gmail.com

‘Christianity’ but also to ‘Alternativeness’. There is a need to play a leading role in public education and enhance the public nature of education.

**Key words:** Alternative school registration system, registered alternative education institution, Christian Alternative School, public nature of education

## I. 들어가는 말 : ‘등록제’라는 새로운 생태계

‘대안학교 등록제’가 도입되었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약칭 ‘대안교육기관법’)이 통과되어 시행되고 있다. ‘대안교육기관법’은 대안교육기관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보장하고, 나아가 개인적 특성과 필요에 맞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자 만들어졌다(대안교육기관법 제 1, 2조). 이 법에 의해 등록된 대안교육기관들은 아직 학력 인정과 재정 지원을 모두 받지 못하지만, 그동안 처해 있었던 ‘불법적 지위’에서 벗어나 ‘합법적인 기관’이 되었다. 이 기관들은 ‘등록 대안교육기관 OO학교’라는 형태로 학교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쓸 수 있게 되었고(대안교육기관법 제 22조), 초·중등교육법 상의 취학의 의무를 유예할 수 있게 되었다(대안교육기관법 제 10조).

대안학교와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총 세 차례의 법제화가 이루어졌는데, 1차 ‘대안교육 특성화학교’(1998년)로의 인가와 2차 ‘각종학교(대안학교)’(2005년)로서의 인가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 법제화다(‘대안교육기관’(2021년)으로의 등록). 이번 법제화의 특징은 앞의 두 차례 법제화와는 달리, 초·중등교육법의 일부를 신설하는 형태가 아닌 별도의 법률을 만들었다는 점에 있다. 대안교육기관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는 ‘이 법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다. 또한 앞의 두 차례의 법제화는 ‘인가’라는 틀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폭발하는 비·미인가 대안학교들의 증가를 포용하기가 어려웠던 것과 달리, 3차 법제화는 그보다 한 단계 낮은 ‘등록’이라는 틀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서, 많은 학교들이 법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다. 인가를 위해서는 학교가 빚이 없어야 하고, 시설을 어느 정도 갖춰야 했으며, 국가 교육과정을 상당 수준으로 따르면서, 교사 자격증을 가진 교사를 많이 보유하고 있어야 했기에, 그동안 대부분의 학교들은 여전히 비·미인가 대안학교에 머무르고 있었다.

기존의 1, 2차 법제화에 의해 인가된 대안학교의 수가 대안교육 특성화학교 44개, 인가 대안학교(각종학교) 51개로 총 95개였고, 3차 법제화에 의한 등록 대안교육기관의 수는 지난 2년여간 전국에 234개(교육부 홈페이지, 2023년 8월 10일 게시 자료)나 된다는 점이 이를 입증한다. ‘등록제’ 도입이 상당한 수의 대안학교들을 법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것이다. 그러므로 등록제 도입은 한국의 대안학교 운동에 큰 전환점을 열었다고 할 수 있으며, 가히 ‘새로운 생태계의 등장’이라고 말할 만하다.

우리나라 대안학교의 유형별 현황과 기독교학교의 비율은 다음과 같다. 1차 법제화에 따른 ‘대안교육 특성화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76조와 91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전국에 44개가 있다. 그 중 기독교학교는 10개다. 공립 특성화학교를 제외한 사립 특성화학교 중 기독교학교의 비율은

29.4%에 이른다.

2차 법제화에 따른 ‘인가 대안학교(각종학교)’는 초·중등교육법 60조의 3에 근거하고 있으며, 전국에 51개가 있다. 그 중 기독교학교는 14개다. 공립 인가 대안학교를 제외한 사립 인가 대안학교 중 기독교학교의 비율은 48.3%에 이른다.

3차 법제화에 따른 ‘등록 대안교육기관’은 초·중등교육법이 아닌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으며, 전국에 243개가 있다. 그 중 기독교학교는 114개다. 전체 등록 대안교육기관 중 기독교학교의 비율은 48.7%에 이른다. 1, 2, 3차 법제화에 따른 학교 유형별 대안학교 현황과 기독교학교의 비율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우리나라 대안학교의 유형별 현황과 기독교학교 비율<sup>1</sup> (2023. 8. 10 기준)

인가 여부		학교 유형		공립	사립	합계		기독교 학교 수	비율 (기독교학교/ 사립학교)
인가	1차 법제화	대안교육 특성화학교	중학교	5	14	19	44	10	(29.4%)
			고등학교	5	20	25			
	2차 법제화	각종학교로서의 인가 대안학교		22	29	51		14	(48.3%)
등록	3차 법제화	등록 대안교육기관		0	234	234		114	(48.7%)

등록제의 도입으로 많은 학교들이 법 테두리 안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여전히 남은 질문들과 새롭게 풀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다. 등록제에 따른 기독교대안학교의 등록 상황은 어느 정도 되는지? 미등록한 대안학교들은 왜 미등록하였으며, 앞으로 혹시 관련하여 제재 조치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지? 등록 심사과정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특정 교육청에서 기독교대안학교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없을지? 등록 학교들에 대한 학력 인정이나, 재정적 지원은 불가능한지? 그런 지원이 기독교대안학교로서의 정체성을 훼손하게 만들지는 않을지? 여러 차례의 법제화로 인해 많아진 관련 법들로 인해, 혼란이나 역차별은 생기지 않을지? 대안교육 관련 법을 하나로 통합할 수는 없는지? 공공의 영역으로 들어 온 기독교대안학교들이 앞으로 취해야 할 자세는 무엇인지? 등의 수많은 논의 주제가 우리 앞에 주어져 있다. 이러한 질문들은 향후 등록제 상황에서 기독교대안학교들의 미래와 나아갈 방향을 좌우하는 질문들이기 때문에, 관련한 논의와 연구가 필

1) 이 통계는 교육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대안교육기관 명단’ 자료(2023.8.10.)에 따른 대안학교 수 중 기독교학교의 비율을 계산한 자료로, 2023년 5월 25일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가 주최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 1년, 기독교대안학교의 나아갈 방향을 논하다” 세미나에서 발표했던 자료를 업데이트한 것이다.

수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본 논문의 목적은 ‘대안학교 등록제’ 도입에 따른 변화와 기독교대안학교의 나아갈 방향을 폭넓게 모색하는데 있으며, 그에 따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등록제에 따른 기독교대안학교의 등록 상황은 어떠하며, 미등록학교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연구문제 2. 현재 대안학교 등록 심사과정이 가진 문제점은 무엇이며,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까?

연구문제 3. 등록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학력 인정 및 재정 지원은 어떻게 되어야 할까?

## II. 등록제와 기독교대안학교

한국의 기독교대안학교는 빠른 속도로 성장해 왔다. 5년마다 기독교대안학교의 실태를 추적 조사해 온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의 통계에 따르면 제1차 조사(2006년)에서는 43개였던 기독교대안학교가, 5년 뒤 2차 조사(2011년) 때는 121개로 증가했고, 3차 조사(2016년) 때는 265개로 확대되었으며, 가장 최근 조사인 4차 조사(2021년)에서는 313개의 기독교대안학교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박상진·이종철, 2022: 19).

### 1. 기독교대안학교의 등록 상황

기독교대안학교의 전체 수가 313개라고 할 때, 그 중 1, 2차 법제화에 의해 이미 인가된 학교 25개(특성화 10개, 인가 대안학교 14개, 그 외 각종학교 1개)를 제외한, 288개(313개의 92.0%)가 미인가 상태로 운영되고 있었다. 그 중 3차 법제화에 의해 등록된 학교는 114개 정도(39.6%)다. 지난 2년간 각 시·도 교육청은 연 1회 또는 2회의 등록 기간을 두고, 신청을 받아 심사하여 선정 결과를 발표했고, 그 결과 미인가 기독교대안학교의 40% 정도가 등록을 하여 ‘합법적 지위’를 얻은 것이다. 이를 시·도 교육청별로 정리하면,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시도 교육청별 등록 대안학교 수와 기독교학교 비율<sup>2</sup> (2023. 8. 10 기준)

	일반대안학교	기독교대안학교	합계	전체 학교 대비 기독교학교 비율
서울시교육청	51	26	77	33.8%
부산시교육청	6	3	9	33.3%
대구시교육청	1	5	6	83.3%
인천시교육청	3	4	7	57.1%
광주시교육청	5	5	10	50.0%
대전시교육청	1	6	7	85.7%
울산시교육청	1	1	2	50.0%
세종시교육청	0	1	1	100.0%
경기도교육청	26	32	58	55.2%
강원도교육청	3	5	8	62.5%
충북교육청	2	2	4	50.0%
충남교육청	1	6	7	85.7%
전북교육청	1	5	6	83.3%
전남교육청	6	3	9	33.3%
경북교육청	6	4	10	40.0%
경남교육청	4	3	7	42.9%
제주도교육청	3	3	6	50.0%
합계	120	114	234	48.7%

39.6%는 생각보다 작은 비율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대안교육기관법’ 상 소위 ‘국제형 대안학교’(‘주된 언어’를 외국어로 하고, ‘주된 목적’이 외국 대학 목적에 있는 학교, ‘학원으로 등록’ 되어 있는 학교)가 사실상 등록할 수 없는 것을 감안하면(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5조 2항), 국제형 학교가 아닌 기독교대안학교 171개(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 조사를 바탕으로 약 117개가 국제형 학교로 추정) 중 114개(66.7%), 즉 기독교대안학교의 2/3가 등록을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제4차 기독교대안학교 실태조사에서 ‘대안교육기관 등록제가 시행되면, 등록할 것인지를 물었던 질문’에서 ‘그렇다’(31.3%)와 ‘긍정적 검토 중’(37.3%)에 응답한 합계 68.6%와 거의 유사한 수치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지난 2년 안에 등록할 마음이 있었던 학교들은 거의 등록을 했다고도 볼 수 있다.

2) 이 통계는 교육부가 2023년 8월 10일 게시한 ‘대안교육기관 명단’ 자료를 기초로 시도교육청별 기독교학교의 비율을 계산한 자료로, 2023년 5월 25일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가 주최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 1년 기독교대안학교의 나아갈 방향을 논하다” 세미나에서 발표한 자료를 업데이트한 것이다.

## 2. 미등록 대안학교의 문제

그러나 여전히 미등록한 대안학교들의 문제가 남아 있다. 등록제 도입 이후 미등록학교에 대한 제재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많았지만<sup>3</sup>, 아직 그러한 징후는 없으며, 교육부나 교육청 관계자들은 미등록학교에 대한 ‘제재’보다, 등록 학교에 대한 ‘혜택’을 제공하여, 등록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기독교대안학교 중 미등록한 학교들을 살펴보면 크게 3가지 정도의 유형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법령으로 제한되어 있는 소위 ‘국제형 대안학교’, 두 번째는 학교의 정체성 유지를 위해서는 법 안으로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는 리더의 인식 때문에 ‘법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조심스러워하는 대안학교’, 세 번째는 ‘매우 작고 영세한 대안학교’이거나 ‘학교의 특수한 조건 때문에’ 등록하지 못하는 학교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유형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들이 연합하여 ‘대안교육기관법’이 아닌 ‘(가칭)국제형 대안학교법’을 만드는 노력을 하거나, 그냥 ‘학원’으로 남아야 한다(학원은 의무교육 대상 학생에 대해 전일제 학교를 운영할 수 없음). 정체성을 수정해서라도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하기 원하면, 학교의 성격을 전환하여(주된 목적, 주된 언어를 해외 진학이나 외국어 교육에 두지 않음) ‘대안교육기관’으로 들어 오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일부 학교들은 이미 교명에 ‘국제’를 빼고, 성격을 전환하여 등록을 했다).

두 번째 유형의 경우는 대안교육이 ‘법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야성을 잃어버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일반 학교화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다. 특히 기독교대안학교들은 자율성이 제한되고, 과도한 통제 속으로 들어갈 것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학교들은 그다지 영세하지도 않고, 잘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록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최대한 미루면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학교들은 앞에서 언급한 강한 제재나, 많은 혜택이 생길 때, 등록제 안으로 들어오게 될 가능성이 높은 학교들이다.

세 번째 유형의 경우는, 아직 대안학교로 충분히 자리를 잡지 못한 학교들의 경우로, 등록을 하기에는 학생 수가 너무 작고, 학교로서의 체계를 못 갖춘 학교들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학교는 역사적으로나, 규모로나 안정적이지만, 독특한 학교의 특징(예를 들어 공동생활을 하는 공동체적 특성) 때문에, 등록의 조건을 맞출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이덕난(2022)은 “대안교육기관법을 계기로 미인가 교육시설이 법적 근거를 갖춘 등록 대안교육

3)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의 제4차 기독교대안학교 실태조사에 따르면, 시행령에 대한 우려(설문 당시에는 아직 시행령이 나오기 전임) 중 1위는 ‘교육과정 자율성 제한에 대한 우려’(4.10/5.00), 2위는 ‘교육감의 과도한 시정명령 또는 등록 취소에 대한 우려’(3.71/5.00), 3위는 ‘미등록 학교에 대한 제재 조치에 대한 우려’(3.66/5.00)였다.

기관으로 승인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법률이 시행된 후에도 등록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예산이 미비하고, 대안교육기관 등록 배제 대상과 등록하지 않고 남아 있는 교육시설에 대한 법적·행정적 후속 조치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대안교육기관법’에 조항을 신설하여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한 신고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현행 법령 하에서도 등록 배제 대상의 ‘학원 등록 유도’ 및 현행법에 따른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 3. 등록 대안교육기관의 성격에 대한 문제

대안학교의 등록과 관련하여 생각해 볼 문제는 ‘대안학교’의 성격에 관한 문제다. 어떤 학교는 등록해 주고, 어떤 학교는 걸러낼 것인가가 등록제의 고민이다. 일반적으로 ‘대안교육’은 그 정의가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김희용(2006)은 “대안교육(학교)에 대한 공감된 개념 정의가 부재하며, 그러므로 대안교육(학교)에 대한 철학적 범주의 형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박상진(2010)은 기독교대안학교들의 정체성이 매우 다양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기독교대안학교를 하나의 성격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이처럼 무엇을 ‘대안교육’이라 말할 수 있는지를 개념적으로 명확하게 정의하기가 어려우며, 현실적으로도 다양한 성격의 학교들이 대안학교 진영에 혼재되어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교육법에서는 대안교육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 먼저 인가 대안학교(2차 법제화)에 관한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대안학교)을 살펴보면, “대안학교란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 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하는 학교”라고 정의한다. ‘학업 중단’, ‘개인적 특성’, ‘체험 위주 교육’, ‘인성 위주 교육’, ‘적성 개발 위주 교육’, ‘다양한 교육’ 등의 단어가 눈에 띈다. 이번 등록 대안교육기관(3차 법제화)에 관한 법,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를 살펴보면 “대안교육이란 개인적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을 통하여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 교육을 말한다”라고 정의되어 있다. ‘학습자 중심의 교육’이라는 표현은 기존의 법에서 기술한 대안교육에 대한 정의에 비해 더 폭넓은 방식의 정의라고 할 수 있다. 교육법의 정의들을 살펴보면, 대안교육에 대한 이해가 과거 ‘학업 중단 학생, 학교 부적응 학생을 위한 교육’이라는 개념에서, 오늘날 ‘더 대안적인 교육을 추구하는 다양한 교육’으로 점점 더 확장되어가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대안’(alternative)라는 단어가 가진 속성이, 어떤 특정 철학을 지향한다기보다, ‘무엇 무엇에 대한 대안’이라는 대항적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대안’이라는 범주 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국제형 대안학교’도 ‘해외 조기 유학의 대안’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대안교육’에 관한 세계적인 흐름을 살펴볼 때, ‘대안교육’은 근대 공교육의 한계(획일적이고, 경쟁적이어서, 학생 개개인의 행복과 성장을 지원하지 못하는 교육)를 인식하고, 그것을 극복하고자 시도되고 있는 교육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러므로 ‘대안교육’은 입시 위주 경쟁교육이나, 외국어 학습을 위한 학원 형태와는 공존하기 어려운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대안교육을 ‘다양한 신념에 따라 근대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의 총체’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동안 1, 2, 3차 법제화를 통해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온 대안학교들이 앞서 언급한 ‘대안적 성격’을 잘 지니고 있는지를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정작 인가나 등록 과정에서 학교의 성격과 정체성 보다 해당 시설이나 외형적 조건들이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일부 학교들은 이러한 성격에 맞지 않는 상태로 인가되거나 등록되기도 해서, 이런 학교들을 ‘대안학교’라고 부르는 것이 맞는지 향후 지속적인 고민거리가 될 수 있다.

이 때, 특히 기독교대안학교들은 그 성격상 ‘대안’보다 ‘기독교’에 더욱 방점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아, ‘대안’의 개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경향들이 나타날 수 있다. 박상진(2010)의 표현에 따르면, 이러한 학교들은 ‘대안학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기보다, ‘미인가 기독교학교’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박상진, 2010: 13-14). 그 중 일부 학교는 ‘입시 성공 = 좋은 교육’이라는 등식을 극복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다. 일반 대안학교 진영에서 ‘기독교대안학교는 반대안적이다’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이유라 할 수 있다. 기독교대안학교는 ‘기독교성’과 ‘대안성’과 ‘학교성’이 고르게 갖추어진 학교여야 한다. 향후 등록제를 통해 더 많은 신규 기독교대안학교들이 생길 것을 생각할 때, 기독교와 기독교대안학교 진영 안에 ‘대안교육’에 대한 적절한 인식과, 입시 지향적 교육에 대한 자정적 노력이 더욱 요청된다.

### III. 대안교육기관 등록 심사의 적절성과 개선방향

2년 정도의 시간 동안 많은 학교들이 대안교육기관 등록 심사를 거쳤다. 이 과정에서 일부 기독교대안학교는 심사에 탈락하여 등록이 보류되기도 했다. 이번 장에서는 대안학교 등록제의 유의미한 정착을 위해, 대안교육기관 등록 심사과정의 몇 가지 문제점과 그 개선 방향에 대해 논하려 한다.

이를 위해 이번 장은 특별히 실제로 연구자가 경험한 한 교육청의 사례(A교육청)에 근거하여 논의를 진행하는 사례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다. 모든 교육청의 사례가 A교육청과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다른 교육청도 유사한 면이 많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사례연구 방법은 맥락 의존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해당 사례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도울 수 있으나, 그 내용을 다른 사례에 일반화하는 것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례연구는 독자들로 하여금 구체적이고, 생생하고, 직접적인 이해와 경험을 확장해 주는 장점이 있다.

## 1. 임의 판단의 문제

등록 심사의 가장 큰 문제는 ‘임의 판단’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에 있다. A교육청의 사례에 따르면, 먼저 대안교육기관법에서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부분 7가지<sup>4</sup>를 교육청 실사 팀이 사전 방문하여 확인하며, 이 중 1가지라도 문제가 있으면 등록이 되지 않는다. 필수 보장 사항 외에도 등록 운영위원들의 평가할 7가지 심사 지표<sup>5</sup>도 있었는데, 이 중 4개 이상의 지표가 ‘부적정’으로 판단되는 경우(위원 과반수가 그렇게 평가한 경우)에도 등록이 불가했다.

이 때 문제점은 다음 세 가지로 나타난다. 첫째, 법 5조 2항에 따른 등록할 수 없는 학교 판단 부분과, 등록운영위원 심사 지표의 ‘적정성’의 경우, 시·도 교육청 관계자 또는 등록운영위원들의 성향에 따라 ‘임의 판단’될 여지가 있어서, 시·도 교육청별로 다르게 심사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등록된 학교가 다른 지역이었으면 등록 안 되었거나, 그 반대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현행 관련 법률은 ‘외국 대학 입학에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 주된 언어가 외국어이거나 외국어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은 등록할 수 없게 되어 있고(대안교육기관법 제5조), A교육청은 이를 교육청 실사팀이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 모호한 것은 ‘주된’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이다. 예를 들어 50% 이상 외국어로 수업하거나, 외국 대학 진학 학생이 50%를 넘으면 ‘주된’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러나 법 어디에도 이에 대한 정확한 지침이 없다. 외국 대학 입학을 위한 기관인지, 외국어 학습을 위한 기관인지를 무엇을 근거로 판단하는가 했을 때, 학교가 제출한 교육과정 서류를 보고 교육청이 ‘임의로’ 판단하게 되는 면이 있는 것이다.

둘째, ‘수업료의 적정성’도 마찬가지로 ‘임의 판단’의 여지가 있다. A교육청에서 이 부분은 등록운영위원들이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데, 등록운영위원들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지역마다 다르게 판단될 소지가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위원은 연 1천만원 이상의 수업료를 내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

4) A교육청 실사팀 검증 7가지 : ① 설립, 운영자(법인인 경우: 이사 전원)의 결격 사유 유무(법 제6조), ② 대안교육기관 운영의 적합성(법 제5조), ③ 대안교육기관 학칙 제정 여부(법 제5조 제1항, 시행령 제10조), ④ 교원의 자격기준 준수(법 제17조, 시행령 제12조), ⑤ 교사 기준 면적 확보(시행령 제2조 제1항), ⑥ 교육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확보(시행령 제3조 제1항), ⑦ 교육시설의 안전, 위생 기준 준수(시행령 제2조 제1항)

5) A교육청 등록운영위원 7개 평가 : ① 재정운영 계획의 적정성, ② 수업료 등의 적정성, ③ 교원 인원의 적정성, ④ 교육목표의 적절성 및 공공성, ⑤ 교육과정의 독창성 및 체계성, ⑥ 교육과정 지속 가능성(적정 학생 수 확보 및 학생 모집 방안 마련), ⑦ 다양한 학습공간 확보

할 수 있다. 그러나 연 1천만원이라는 기준은 누가 어떤 근거로 정한 것인가? 연 999만원의 수업료를 내면 적절하고, 연 1천만원의 수업료를 내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은 적절한 것일까? 그러므로 이 역시 등록운영위원들이 임의판단 할 수밖에 없는 여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셋째, ‘교육목표의 적절성 및 공공성’도 마찬가지다. 이 학교가 ‘대안교육’을 하고 있는 학교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등록운영위원마다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기독교대안학교’의 경우, 많은 학교들이 공교육에서는 할 수 없는 ‘적극적인 신앙교육’을 목표로 세운 경우가 많은데<sup>6</sup>,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어떤 위원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교육’(education)이 아니라 ‘강요’에 가까운 ‘주입’(indoctrination)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부분도 등록위원회에 따라 다르게 임의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실제로 B교육청의 사례에서 그런 논쟁이 있었고, 실제 한 기독교대안학교가 심사에서 탈락한 적이 있었다.

사실 법안을 만들 때 참여했던 연구자들은 대안교육기관법에 대해 몇 가지의 우려를 가지고 있었다. 첫 번째는 영어 학원과 같은 곳들이 대안학교로 들어오게 되는 것의 우려였고, 두 번째는 고액의 비용을 받는 대안학교가 생기는 문제, 세 번째는 반사회적 종교 단체들이 대안학교를 만드는 것에 대한 문제였다. 그래서 첫 번째와 세 번째 이슈는 법 5조 2항에 구체적인 불가 규정을 만드는 것으로 해결했고, 두 번째 이슈는 학교 내에 (공교육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같은) 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를 두게 하고(대안교육기관법 제14조), 거기서 예·결산안이나 수업료, 입학금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해결하고자 했다. A교육청의 사례를 보면, 거기에 시·도교육청의 등록운영위원들이 수업료의 적정성을 평가하도록 만드는 것으로 보완장치를 만들기도 했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 것처럼, 법 5조 2항의 규정은 모호하다. ‘주된 목적’, ‘주된 언어’라는 표현은 해석의 여지를 남겨 놓고 있다. 그리고 반사회적 단체들을 걸러내기 위한 ‘그 밖에 사회 통념에 위배되어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하기 부적절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등’이라는 문구도 마찬가지다. 법령에 정하는 것이 어렵다면, 시행령에서라도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데, 시행령이 법의 내용을 반복 기술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어, 임의 판단의 여지를 남겨 두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육청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 것에 대해 임의 판단을 하지 않도록 하고,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령(시행령 또는 규칙)의 보완을 통해, 정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6) 이러한 현상은 사실 한국의 공교육 내 종교계 사립학교의 종교교육이 상당히 제한받고 있는 현실에 기인한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사학의 비율이 높은 나라이면서, 실질적인 사학이 거의 없는 독특한 학교 체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공교육 내의 종교계 사립학교들이 사실상 ‘준공립화’된 상태로 운영되면서, ‘학생선발권’과 ‘교육과정 편성권’을 잃게 되었고, 그 때문에 종교교육의 방향도 ‘해당 종교에 대한 종교교육(religious education)’이 아닌, 교양으로서의 ‘종교학적 교육(education about religion)’으로 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그리하여 종교계는 해당 종교인들의 자녀들이 좀 더 자신들의 종교적 세계관에 기초한 교육을 받기를 원했고, 종교계의 이러한 필요가 ‘대안학교’라는 창구를 통해서 해소되고 있는 셈이다.

‘수업료의 적정성’이라는 등록운영위원들의 평가 지표도 문제가 있다. 법에 규정되지 않은 7개의 평가 기준을 가지고 등록운영위원들이 평가하게 하는 A교육청의 사례에 대해, 한 대안학교 관계자는 법에 없는 것으로 교육청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한 바가 있다. 이런 식의 추가 평가 기준을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이다.

게다가 시·도 교육청별 등록운영위원 명단이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이들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지 알 수 없으며,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과반수 이상을 대안교육 전문가로 구성했는지(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9조 3항)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대안교육 관련 전문가’라는 표현이 가지고 있는 모호함도 여전히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향후 국회의원이나 언론 등의 기관에서 정보를 요청하여, 이것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 2. 서류 판단의 문제

두 번째 문제점으로는, 앞서 언급한 학교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 등을 담보할 수 있는 ‘대안교육기관 내 운영위원회의 구성’ 등이 실질적으로 잘 운영되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A교육청의 사례에 따르면, 현재는 ‘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고, 운영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학교의 학칙상 구성하고 운영한다고 규정만 해 놓으면, 등록이 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서류로만 잘 준비되어 있으면, 통과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A교육청 관계자는 운영위원회가 잘 이루어지는지는 차후 확인되는 방식이지, 등록의 선결 조건이 아니라고 말했다. 잘 운영되고 있는지까지 검증하게 되면, 신설 학교는 바로 등록을 할 수 없게 되고, 본래 등록은 인가와 달리 조건만 갖추면 등록이 된다는 것이 A교육청의 입장이었다.

그러나 대안교육기관법이 안정된 대안교육기관의 운영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대안교육기관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의 학습권 등을 보장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면, ‘대안교육기관 등록’은 학교가 어느 정도는 안정적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 뒤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법에 최소 설립한 지 1년 이상(혹은 2~3년 이상)이 되어야 한다든지, 학생 수가 10명 이상(혹은 30명 이상)이어야 한다든지 등의 조건을 붙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1년 동안 ‘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도 잘 운영되고 있음이 ‘회의록’ 등을 통해 확인된 뒤, 등록해 줄 필요가 있다.

## 3. 등록 이후 데이터 관리에 관한 문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문제는, A교육청의 사례에 따르면, 등록 시점에 제출한 서류가 갱신될 때, 재차 확인하는 절차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았다. 예를 들어 학교 장소에 대한 임대를 입증하는 과정

에서, 현재는 임대차 계약서를 학교를 등록하는 시점에만 확인하고, 이후에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더라도 추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서라면, 학교 장소의 안정적 보장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임대차 계약서를 등록 시점에만 확인하지 말고, 계약이 갱신될 때마다 제출하도록 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마찬가지로 학생 명부와 교원 명부도 등록 시에만 제출되고, 이후로는 변동이 되어도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되어 있는데, 적어도 1년 단위 정도로는 업데이트가 될 필요가 있다. 대안교육기관 등록을 하는 이유 중 하나가, 학교 밖 학생들이 얼마나 많이 대안교육기관에 와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학생들에 대한 적절한 관리 및 지원을 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 명단은 1년 단위로 확인될 필요가 있다. 교육청 차원에서 해당 학생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는 교사도 마찬가지인데, 대안교육기관의 교사들에 대한 지원 및 관리를 위해 정기적으로 데이터를 갱신해 줄 필요가 있다.

또한 A교육청 사례에 의하면, 학교 관련 서류에 기록된 교사의 수에서는 교사와 강사가 구분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많은 학교들이 강사를 활용하고 있는데, 강사들도 동일하게 교사로 인정되는 경우들이 있었다. 교사 수와 강사 수를 구분하도록 하는 것을 제안하고 싶다. 또한 대안교육기관의 교원에 대해서는 성폭력 범죄 조회 등이 가능해야 하는데(학원도 가능), 그 범죄 조회를 할 수 있는 관련 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성범죄경력 조회)에 ‘등록 대안교육기관 교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 문제도, 향후 관련 법 개정에서는 보완될 필요가 있다.

대안교육기관법에 대한 개정 논의와, 대안교육기관법으로 인한 관련 법들의 개정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에서, 현재 등록 심의과정에서 발견되는 문제점들을 잘 정리하여 반영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다<sup>7)</sup>.

#### IV. 학력 인정과 재정 지원의 문제

‘학력 인정’과 ‘재정 지원’은 등록제 도입과 관련하여 현장의 실익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이다. 대안학교 현장에서는 이 두 가지에 대한 지속적인 기대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이번

7) 박남정(2022)은 대안교육기관법 제정의 의미는 공교육과는 다른 교육기관이 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하면서, 교육청이 대안교육 전담 인력을 두고 종합적인 정책을 펼쳐나갈 것을 제안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안교육기관의 정보를 데이터화 하는 것과, 대안교육기관이 17개 교육청에서 동일한 지침으로 관리,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을 후속과제로 제안하였다.

장에서는 이 두 가지에 대한 논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1차 법제화로 인가를 받은 학교들은 ‘학력 인정’(검정고시를 안 봐도 졸업으로 학력이 인정 됨)과 ‘재정 지원(교사 급여)’이 2가지 모두 되고 있고, 2차 법제화로 인가를 받은 학교들은 ‘학력 인정’만 되고, ‘재정 지원’은 부분적으로만(안전이나 시설 지원 등) 이루어지고 있으며(공립형 대안학교들은 재정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다), 3차 법제화는 이 두 가지가 다 안 되고, 합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것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 대안학교의 법적 유형에 따른 특징을 정리하면,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대안학교의 법적 유형에 따른 특징 : 학력 인정 및 재정 지원

	합법 기관	학력 인정	재정 지원	특징
1. 대안교육 특성화학교	○	○	○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76조와 91조에 따른 특성화학교. - 합법기관이며, 학력이 인정되고, 재정도 지원됨. - 일부 학교는 의도적으로 재정 지원을 받지 않고, 교육과정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학교들도 있음.
2. 각종학교로서의 인가 대안학교	○	○	×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 3과 그 시행령에 의해 각종학교로 인가된 대안학교. - 합법기관이고, 학력도 인정되지만, 공립대안학교 외에 사립대안학교는 아직 재정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3. 등록 대안 교육기관	○	×	×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에 따른 등록 대안교육기관 - 학력인정도 안 되고, 재정 지원도 되지 않지만, 등록 시 합법 기관으로 인정해 줌. - ‘등록 대안교육기관 OO학교’ 라는 형태로, 학교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쓸 수 있고, 초중등교육법상의 취학 의무가 유예됨.
4. 미등록 대안교육 시설	×	×	×	- 합법기관도 아니고, 학력인정도 안 되고, 재정 지원도 되지 않음. - 파악이 제대로 안 됨. 향후 법적, 세무적 제재 조치 등이 있을 수 있어, 학교 체제의 안정성이 부족함.

최초 등록제 법안에는 2가지가 다 가능할 수 있도록 내용이 들어가 있었으나, 국가 수준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지 않고, 교육청의 관리, 감독을 받지 않는 기관이 학교와 동급으로 학력을 부여받고, 재정을 지원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기존의 학교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되어, 법령에서 제외되었다(박남정, 2022: 84).

대안학교 현장 관계자들은 ‘학력 인정’과 ‘재정 지원’이 되지 않는 ‘등록제’가 무슨 의미가 있냐며 ‘실익’이 없다고 말하기도 한다.<sup>8</sup> 또 다른 이들은 공적 영역으로 들어가서, 여러 가지 지원을 받다

보면, 본래 추구했던 ‘기독성’이나 ‘대안성’이 훼손될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하기도 한다. 그러나 대안 교육의 역사가 20-30년이나 되었는데, 계속 불법적 지위에 머물러 있기보다는, ‘공적 영역’에서도 인정받는 형태의 교육으로 자리를 잡는 것이 필요하다. 등록제의 도입은 그런 의미에서 두 가지 지원이 없어도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각각 다른 법체계와 다른 조건으로 다양한 유형으로 나뉘어 버린 대안학교들에게 ‘학력 인정’과 ‘재정 지원’에서의 차별성이 있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그러나 등록 대안교육기관들은 지속적으로 이 두 가지가 가능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대안교육이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서도, 학력 인정과 재정 지원의 문제를 풀어야 하기 때문이다.<sup>9</sup> 이에 대해 조인진(2022: 122)은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1항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는 모든 학생들에게 공평하게 이행되어야 한다며, 공교육 제도 안에 들어간 학생들은 권리를 보장받고, 다른 유형의 교육을 선택한 학생들은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대안학교들은 그 정체성과 교육과정 자율성을 유지한 채, 교육 본연에 충실하게 교육하고, 교육 재정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국민의 교육을 책임지도록 법,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1. 학력 인정 : 교육과정과 교사와 연결된 문제

그렇다면, 한 가지씩 그 가능성을 살펴보자. 먼저 ‘학력 인정’과 관련해서 현재 등록 대안교육기관이나 미등록 대안교육시설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은 ‘검정고시’를 통해 학력을 인정받고 있다. 검정고시는 이러한 학생들이 최소한의 학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인정해 줄 수 있는 중요한 통로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성기(2004: 128)는 우리 교육법(초·중등교육법 제43조와 제47조)에서 말하고 있는 ‘학력’은 ‘學歷’(school career)이 아니라 ‘學力’(academic ability)이라며, 형식적인 출석 일수가 실질적 학력(學力)과 비례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현재 우리 초·중등학교 체제는 얼마나 실질적인 학습을 했느냐에 의해서 학력을 인정하기보다, 학교를 졸업할 수 있는 출석 일수를 잘 채웠느냐로 학력을 인정해 주고 있다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주장이다. 다시 말해, 인가된 학교에 다니지 않아도(등록 대안교육기관에 다녀도) 실질적인 학력을 갖춘 학생이 있을 수 있고, 인가된 학교에 다닌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학력을 갖추지 못했는데, 학력을 인정받을 수도 있다는 뜻이

8) 이러한 현장의 반응에 대해 법을 발의했던 박찬대 의원은 2021년 1월 교육대안연구소의 세미나(“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통과 그 이후를 말한다”)에서 “법 제정을 위해 재정지원의 근거 조항을 불가피하게 삭제했다”면서, “이 부분은 반드시 보완 및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한국기독교공보, 2021년 1월 18일 기사 참조). 박상진(2021)도 그의 논문에서 본래는 재정 지원에 관한 조문이 있었는데, 입법 과정에서 이것이 삭제되었음을 언급하고 있다.

9) 이학춘, 심대현(2017)도 대안학교는 많은 교육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있는 학생들은 대안학교를 선택하기가 어렵다고 보았다. 학력 인정 문제도 학생·학부모에게 커다란 장애 요소가 되고 있다고 보았다.

다. 그러므로 김성기(2004: 134)는 대안학교들의 학력을 불인정하여 교육적 실험을 제약하기보다, 대안학교들도 학력을 보편적으로 인정해 주고, 만일 학생 학사 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학력 인정을 취소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여지기가 쉽지 않다. 학력 인정이 가능해지려면, 사실상 학력 인정기관으로서의 인가학교가 되거나, ‘교육과정’과 ‘교사’의 조건이 이 학교들과 유사해져야 한다. 현재 학력 인정이 되는, 각종학교로서의 인가 대안학교의 교육과정 조건을 살펴보면, 국어와 사회의 50%만 국가 교육과정을 따르면 다른 모든 과목에 대해 자율이 허용되어 있다(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이러한 규정은 사실 매우 파격적이다. 국어와 사회만 어느 정도 가르치면, 다른 교육과정은 꼭 국가 교육과정을 따르지 않더라도, 학력을 인정해 줄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등록 대안교육기관이 학력을 인정받으려면 적어도 이 정도의 국가 교육과정을 따라야 한다.<sup>10</sup> 그리고 사실 그 정도는 거의 모든 학교들이 따르고 있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조항을 대안교육에 관한 법률에 포함시키면, 등록 대안교육기관도 학력 인정을 해주는 것이 어려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교사 문제로 가면 조금은 상황이 달라진다. 인가 대안학교의 경우, 교사에 대하여는 일부 산학겸임교사의 비율을 제외하고는(필요한 교원 정원의 3분의 1의 범위에서 교원을 대체하여 산학겸임교사 등을 둘 수 있다) 해당 교사 자격증을 가진 교사여야 한다(대안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의2). 그에 비해 현재 등록 대안교육기관의 교사 자격에 대해서는 전문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해당 전문 분야의 경력을 갖추면 되도록 되어 있다(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이에 대해 김회용(2006)은 대안학교의 교사를 기존의 교사 양성체제를 준수하도록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았다. 따라서 교사의 자율적인 선발은 허용하되, 대안교육을 위한 교사의 재교육을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국가가 대안교육을 위한 교사 재교육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를 갖추는 것이 시급하며, 더 나아가 교·사대의 자격증이 대안교육에 꼭 적합하지는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대안교육 교사자격증’을 별도로 발급하는 방식(국가가 직접하거나, 민간의 단체를 통해 자격증을 인정해 주는 방식)에 대해서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2022)의 제4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기독교대안학교의 교원 자격증 소지자 비율은 41.6%로 확인되었다. 자격증 보유 교사가 2/3를 넘어야 하는 인가 대안학교의 상황과는 좀 다른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서로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인가 대안학교들에게 허락된 학

10) 현재는 등록 대안교육기관이 국가교육과정을 얼마나 따라야 하는지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력 인정이, 등록 대안교육기관에서도 가능해지게 되면,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다.

## 2. 재정 지원 : ‘바우처’ 등을 통한 지원

대안교육을 희망하나, 학비에 대한 부담 때문에 선택하지 못하는 학부모들을 위해서라도, 공교육 처럼 무상교육까지는 아니라도, 최소한의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그 재정적 부담을 학부모가 모두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sup>11</sup>, 대안교육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일종의 허들이 있는 셈이다.

현재 등록 대안교육기관에 제공되는 재정적 지원을 살펴보면, 주로 운영비, 급식비, 프로그램 개발비, 교재 구입비, 교복비 등의 지원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관련 조례들을 살펴보면, 먼저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가 시·도 차원의 조례(예: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와, 해당 교육청 차원의 조례(예: 광주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로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시·도 차원의 조례들은 주로 3차 법제화 이전에 만들어진 조례들로, 이 조례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대안교육기관은 대안교육기관법에 의해 등록된 기관으로만 정의되어 있지 않고, 폭넓게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으며, 교육청 차원의 조례들은 3차 법제화에 따른 등록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조례인 경우가 많다.<sup>12</sup> 그 외에는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예;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조례)나 ‘학생 교복 지원 조례’ 같은 별도 지원 조례가 있는 경우도 있다(예: 하남시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

구체적인 재정 지원, 특히 ‘인건비’ 지원을 법률로 명문화한 경우는 많지 않다. 등록제 도입 이전에도 전국에서 유일하게 인건비 일부가 지원되던 서울시와 광주시는 등록제 도입 이후 거꾸로 어려움을 겪었다. 등록제의 도입으로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관할이 지자체에서 해당 교육청으로 넘어가면서, 지자체에서 이루어지던 지원이 중단되고, 그 단체 간 서로 역할을 떠넘기는 갈등이 벌어졌기 때문이다.<sup>13</sup> 2022년까지 대안교육기관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던 서울시는 2022년 1월부터 교육청에 대안교육기관을 등록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그 해 12월 지원 조례를 폐지하면서, 2023년부터는 교육청이 재정 지원을 맡게 되었다. 그래서 2023년 1월 12일에 새롭게 제정된 서울특별시교육청

11) 박상진, 이종철(2022)의 기독교대안학교 제4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기독교대안학교의 전체 재정에서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율이 72.6%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12) 비기독교 진영의 대안학교 연대체인 ‘대안교육연대’에서 실시한 2023 대안교육 조례 활동가 대회 자료집에 따르면, 130여 개 조례에 ‘대안교육기관’ 정의규정이 있는데(2023.3.기준), 대부분 조례에서 ‘대안교육기관’은 비인가대안학교를 의미하지 만,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 ‘대안학교’(인가 대안학교)만을 대안교육기관이라고 한 곳도 있고, 인가·비인가 둘 다 혹은 등록 대안교육기관만을 ‘대안교육기관’으로 규정한 조례도 있다.

13) 이에 대해 이덕난(2022)은 사립 대안학교에 비해 일정한 비율 수준으로 대안교육기관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예산 지원 주체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과 일반 지자체 간에 적절한 분담 비율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다.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6조에는, ‘인건비’, ‘교육활동 운영비’, ‘학생 급식비’, ‘입학준비금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안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시장에게 교육 경비 보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중에서 ‘인건비’라는 단어가 사용된 유일한 조례라고 판단된다. 2023년 11월 1일에 제정된 광주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6조 2항22에서도 타 시·도 교육청과는 다르게 교육감이 시장에게 재정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

대안교육의 확산을 위해서, 적절한 재정적인 지원 방식을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김성기(2017)는 대안교육기관들을 지원하는 방법 중 하나로, 국·공유재산의 무상대부(임대)와 대안학교 교사양성 및 재교육 과정 지원을 제안하고 있는데, 이도 매우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는 ‘학교를 지원하는 방식’이 아닌 ‘학부모에게 바우처를 주는 방식’으로 재정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재정’은 보통 통제력을 동반하기 때문에, 학교가 직접 받는 재정 지원이 익숙해져 버리면, 어느 순간 재정 지원이 중단되었을 때(인건비 같이 큰 금액일수록), 학교가 재정적인 자생력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대안학교의 정체성과 자율성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기독교대안학교로서의 정체성과 자율성’은 더욱 그렇다. 그래서 학교가 정부/교육청으로부터 직접 지원을 받는 것(특히 교사 인건비 지원)을 늘 경계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재정에 의존하는 순간, 그 추구하고자 했던 자율성은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약해질 가능성이 크다. 이것은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역사적으로 체득한 것이다. 현재 기독교계 사립학교들이 거의 모든 재정을 정부로부터 받고 있는 현실 때문에, ‘준공립학교’가 되어, ‘학생 선발권’, ‘교육과정 자율권’, ‘교사 선발권’까지 다 빼앗기고 있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을 돌이키기 어려운 것은, 학교의 운영이 절대적으로 정부의 재정 지원에 의존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장기적으로는 ‘학교 등록제’를 통한 ‘학교 재정 지원’이 아니라, ‘학부모 신고제’를 통한 ‘가정 재정 지원’ 형태가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의무교육 연령대의 학생을 두고 있는 보호자가 공교육 밖에서 다른 교육을 하고자 할 때는, 신고를 통해 학생들이 받고 있는 교육을 알리고, 정부는 그 신고를 통해 학생들이 있는 곳(대안학교 혹은 홈스쿨링)을 확인해서, 그 부모들에게 공교육 표준교육비의 일부분(학생 단위 교육 경비 부분(전체 교육비의 일부))을 바우처 형태로 제공해야 한다. 당장에 적용하기가 어렵다면, 경제적 취약 계층부터 먼저 지원하는 방법도 가능하겠다. 이 방식은 학교는 정부로부터 덜 통제 받고, 학생들은 대안학교를 더 많이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이 될 것이다.

대안교육이 잘 정착되어, 공교육과 상생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덴마크의 경우, 학교설립의 목적과 핵심 교육가치가 국가 수준과 상충되지만 않으면, 자율권도 최대한 보장받고, 재정 지원(공립학교 1인당 표준교육경비의 70~75% 정도)도 이루어진다. 이러한 사례는 국가가 민간에서 시도되는 교육적 다양성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그들의 교육권을 보장을 위해, 공적 자금을 충분히 지원한다는 점에서 인상적이다. 덴마크의 사례를 보면서, 우리나라 교육 재정이 과연 헌법 제31조 제1항에 제시된 ‘교육을 받을 권리’를 학교 안팎의 모든 학생들에게 보장해 주기 위해,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여, 공정하게 배분하고 있는지를 고민하게 된다.

학생/학부모의 교육권, 특히 학교선택권은 존중되어야 하며, 국가 학교교육 체제는 ‘부모의 자리에서(in loco parentis)’ 학부모의 교육권을 위임받아 교육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그러므로 자녀가 공교육 안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상관없이 그 교육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세금을 내는 국민이라면 학교 밖에서의 교육 선택에 대해서도 그에 적절한 교육비를 환급받아야 한다. 학교가 받는 방식이 아닌 학생/학부모가 직접 받는 방식은 현행 대학에서의 국가 장학금 제도나, 영유아의 보육비를 가정 보육하는 이들에게까지 지원하는 방식 등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낯설거나 불가능하지 않다.

### 3. 자율성과 공공성

대안학교의 핵심은 ‘자율성’에 있다. 재정지원의 문제는 바로 이 부분과 연결되기 때문에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대안학교들이 정부에게 원하는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이다. 자율성은 보장하고, 재정도 지원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

이병환(2007: 556)은 법제적 측면을 중심으로 대안학교를 바라보는 것에 대해, 관련 연구자들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법제적 기준을 충족하는 형태의 학교는 그 설립에 막대한 자본이 요구되기 때문에, 학교를 통한 교육적 이상의 추구라는 대안학교의 이념이 구체화되기 어렵다고 보았다. 이종각(2001)은 또한 이러한 조건이 정부나 자산가들이 학교를 독점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된다고도 보았다. 그러므로 결국 대안교육의 성패는 ‘자율성’과 ‘공공성’을 어떻게 조화롭게 이끌어낼 것인가 하는 것에 있는데, 대안교육의 이상을 위해 자율성을 지나치게 부여하다가 공공성을 잃어버리거나, 공공성을 강조하다가 자율성을 잃어도 대안교육의 생명력이 약해질 수 있다고 보았다.

황준성·이혜영(2010)은 대안학교 관련 법제 정비의 필요함을 강조하며, 최소한 이러한 대안학교들이 불법적 지위를 벗어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대안학교의 속성이 일정

한 규제적 틀과 형식화된 교육운영과 쉽게 결합하기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에, 대안학교와 법제화는 잘 안 어울리는 조합일 수 있으나, 설치·운영자와 부모들의 재정적 부담 의존을 극복하고, 양질의 교육활동을 위해, 국가와 사회의 지원이 가능하게 하는 법제화가 꼭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논의는 궁극적으로 대안학교의 자율성과 공공성의 논리로 귀결되는데, 공공성은 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개입(관리와 통제)으로만 확보되는 것이 아니다.<sup>14</sup> 공공성이란 공공의 이익에 따름에 의해 확보되는 것이므로, 대안학교의 교육활동이 국민의 교육기본권을 실현하며, 궁극적인 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때, 공공성은 확보되는 것이 아니다. 보통 자율성과 공공성의 관계를 Trade-off적 관계로 이해하는 이들이 많은데, 이들의 주장은 자율성을 통해 공공성을 이루어갈 수도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V. 나가는 말 : ‘공공의 장’으로 나온 기독교대안학교

지금까지 우리는 ‘등록제 도입’으로 인한 변화와 그에 따른 기독교대안학교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등록제 도입으로 인해 114개의 기독교대안학교가 등록을 하였고, 그로 인해 상당히 많은 수의 학교들이 ‘공공의 장’으로 나오게 되었다. 그로 인해 고민해야 할 중요한 질문들이 생겼고, 이 글에서는 그 중 몇 가지 질문들에 대해 답해 보고자 하였다.

등록제 도입으로, (기독교)대안학교 진영은 이제 법적으로 4가지 유형으로 나뉘게 되었다. ① 대안교육 특성화 학교, ② 인가 대안학교(각종학교), ③ 등록 대안교육기관, ④ 미등록 대안교육시설이 그것이다. 각 시기마다 필요가 있어서 만든 법들이지만,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법의 통합 등 정비가 필요해 보인다. 대안학교 운동적 차원에서 볼 때, 학교들이 다양한 법적 테두리에 속하게 되고, 교육청의 서로 다른 부서<sup>15</sup>에서 관리하는 구조가 되었다는 것은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니며, 향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교육청에서 대안학교 그룹들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판단할 수 없는 구조를 갖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머지않은 미래에 최소한 2차 법제화와 3차 법제화를 통합하여, 하나의 법체계를 만들어 통합 관리하면서, 그 안에서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학력 인정’(교사와 교육과정에 대한 최소한의 조건 보장 시)과, ‘재정 지원’(학부모 신고제에 따른

14) 박상진 외(2023)의 사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과 규제의 국제 비교 연구에 따르면, 그것은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일반적으로는 높은 재정 지원은 높은 규제를 가져오고, 낮은 재정 지원은 낮은 규제를 가져오는 것이 보편적이지만, 호주나, 네덜란드, 덴마크와 같이 재정 지원 수준은 높지만, 규제 수준은 높지 않은 국가들도 존재한다.

15) 예: 서울시의 경우, ‘인가 대안학교’는 교육행정국의 ‘학교지원과’, ‘등록 대안교육기관’은 평생진로교육국의 ‘민주시민생활교육과’ / 경기도의 경우, ‘인가 대안학교’는 교육행정국의 ‘학교설립기획과’, ‘등록 대안교육기관’은 융합교육국의 ‘교육복지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과만 아니라, 국 자체가 다르다.

학생단위 교육경비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이 부분적으로라도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당장 법의 통합은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 2가지 대안학교 유형을 지금부터라도 교육청 내 동일 부서에서 통합 관리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좀 더 폭넓은 변화를 위해서는 대안교육을 하는 학부모들이 나서서(홈스쿨러들 포함), ‘초중등교육법 제13조 개정 운동’을 펼쳐 나갈 필요가 있다. 의무교육 관련 우리의 법 체계는 헌법 제31조 1, 2항과 교육기본법 제8조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초중등교육법에서 제12조(의무교육)과 제13조(취학의무)로 구현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12조의 의무교육을 13조의 취학의무와 동일시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다. 김선요(2013)는 의무교육 관련 규정을 ‘취학의무’가 아닌 ‘실질적인 교육의무’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초중등교육법 제13조를 ‘모든 국민은 의무교육 연령대에 있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을 교육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해 「공교육 학교」에 보내거나, 「대안학교」나 「홈스쿨링」 등 대안적 교육을 선택할 수 있다’ (영국, 네덜란드, 덴마크 등 다른 나라들의 교육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or otherwise” 방식<sup>16</sup>) 등의 방식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유재봉 외, 2023 : 106). 본래 의무교육은 어린 연령대의 학생들에게 ‘교육’이 아닌 ‘노동’을 시키는 것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학습권 보장’의 의미를 가진 것이기 때문에, 공교육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형태의 대안적 교육을 받고 있는 아이들은 의무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공교육 학교 외에 학생·학부모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대안교육(대안교육 특성화 학교, 인가 대안학교, 등록 대안교육기관, 위탁형 대안학교, 청소년 깎이어, 홈스쿨링 등)을 선택을 하는 학생·학부모들을 지원하는 법안으로, 이를 선택한 학생·학부모들이 자신이 받고 있는 교육을 교육청에 신고하면, 그에 따른 재정적 지원을 부모에게 ‘바우처’로 해 주는 방식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되면 교육청은 학부모들의 신고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연령대의 학생들이 어디에서 학습을 이어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대안학교나 대안교육기관들의 위치와 명단 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학력 인정에 대해서도, 해당 교과목의 교사 자격증 소지자 비율과 국민공통 교육과정의 이행 비율 여부 등에 따라, 인정되는 학교에는 ‘학력 인정’을 해 주고, 그렇지 않은 곳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검정고시’를 통해 학력을 획득하도록 차등을 둘 수 있다.

등록제 시행 이후, 기독교대안학교들은 이제 ‘공공의 장’으로 나오게 되었다. 이제는 이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과의 소통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기독교 바깥쪽에서 볼 때, 기독교대안학교들은

16) 영국의 교육법은 “의무 취학 연령의 아동을 둔 학부모는, 그를 학교에 정기적으로 출석시키든지 아니면 다른 방식(or otherwise)으로 그의 나이, 적성 및 능력에 알맞은 효율적인 전일제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이러한 범조문을 통해 다양한 교육적 시도들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매우 고급의 사립학교에서부터 진보적인 대안학교들까지 다양성을 보장하는 틀이다. 덴마크의 교육법도 부모가 ‘공립학교’, ‘자유학교’, ‘홈스쿨’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으며, 몇 가지 조건만 갖추어진다면 누구나 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너무 종교적 색채가 강하다고 느낀다. 그러므로 우리 교육의 의미를 공공의 장에서 의미 있게 설명할 수 있도록 적절한 의사소통 방식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기독교적 언어를 다 버리자는 뜻은 아니다. 기독교적 언어를 지키면서도, 공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힘을 기르자는 의미다. 월터 브루그만은 열왕기하 18장의 주석을 통해, ‘성벽 위의 대화’(세상과의 공적 소통 언어)와 ‘성벽 뒤의 대화’(자신들만의 신념, 언어 체계를)를 다 사용할 수 있는 ‘이중언어 구사 능력’이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박상진b, 2010: 71-76).

공적인 소통을 위해, 기독교대안학교들은 ‘기독교성’ 뿐 아니라, ‘대안성’을 더욱 강조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대안적 교과들’을 더 개발할 필요가 있다. 교육과정 상에서 우리의 교육이 그냥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을 똑같이 하는 학교들이 아니라, 더 교육의 본질을 추구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는 학교로 드러나도록, 삶을 위한 교육과정을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학교와 지역사회의 관계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교육의 장을 학교에 묶어두지 않고, 마을이 학교고, 배움의 터가 되도록 지역사회와의 연결 구조를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 기독교대안학교들은 다른 대안학교들에 비해, ‘대안 교과들’이 부족하고, ‘지역사회와의 연결성’이 부족한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기독교성’과 ‘대안성’은 둘 중 하나를 얻으면, 둘 중 하나를 잃어야 하는 대립적인 개념이 아니다. ‘가장 기독교적인 것이 가장 대안적인 것이 될 수 있다’. 우리의 교육이 ‘교육의 북극성’ 역할(참된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는), ‘교육의 옹달샘’ 역할(참된 교육에 목마른 이들을 해결시키는)을 감당하여, ‘공교육의 선도제’ 역할을 하게 될 때, 기독교대안교육의 공공성은 높아지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독교대안교육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역할도 중요하다. 기독교대안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의 의미를 일반 교육학 영역에서도 주목할 수 있도록, 공적 학문의 장에서 더 적극적인 활동을 할 필요가 있다. 일반 대안교육 진영이 국가나 시도, 시도교육청의 연구를 독점하고, 흐름을 주도하면서, 기독교 대안교육이 배제되지 않도록 학자들의 노력도 더욱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등록제’라는 새로운 생태계가 ‘대안교육’을 건강하게 성장시키는 좋은 토대가 되도록, 학계와 현장의 더 많은 대화와 수고가 있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이 글이 하나의 중요한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 참 고 문 헌

- 경기도의회·경기도교육청 (2023). **다양한 교육의 길, 대안교육기관의 현황과 지원방안**. 경기교육 정책토론회 자료집.
- 교육인적자원부 (2007). **대안교육백서(1997-2007)**. 교육인적자원부
- 김선요 (2013). 대안교육 지원을 위한 법제화 방안 - 미인가 기독교 대안교육 공동체를 중심으로. **사회과학논총**, 20, 127-151.
- 김성기 (2004). 대안학교 학력인정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 31(1), 117-136.
- 김성기 (2017).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관련 법제 개선방안. **교육법학연구**, 29(3), 1-21.
- 김재웅 (2009). 의무 취학제도 하에서 홈스쿨링 합법화의 의미와 전망. **열린교육연구**, 17(1), 1-24.
- 김회용·박창언 (2006). 대안 초등학교에 관한 논의. **교육사상연구**, 18, 1-19.
- 김회용 (2006). 대안학교의 제도화 과정과 법제화 방향에 관한 논의. **교육사상연구**, 19, 1-22.
- 대안교육연대 (2023). **대안교육 조례의 현재, 우리의 미래 - 지역별 조례 현황과 개선 방향**. 2023 대안교육 조례활동가 대회 자료집.
- 박남정 (2022). 공교육 측면에서 바라본 「대안교육기관법」 제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 **교육문화연구**, 28(4), 83-102.
- 박상진 (2010a). 기독교대안학교 유형화 연구. **장신논단**, 37, 153-187.
- 박상진 (2010b). **기독교교육과 사회**. 서울: 한국기독교교육학회.
- 박상진·김창환·김재웅·강영택 (2015). **기독교학교의 미래전망**. 서울: 예영.
- 박상진 (2021).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 **장신논단**, 53(1), 329-354.
- 박상진·이종철 (2022). **기독교대안학교의 미래를 고민하다**. 서울: 씬이있는교육.
- 박상진·김재웅·함승수 (2023). **신앙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교계 사립학교 체제**. 기독교학교 신앙교육 활성화 연구자료집.
- 박창언 (2006). 대안학교 교육과정 법제화 방향. **교육과정평가연구**, 9(1), 1-22.
- 성열관 (2004). 종교 교육과정과 바우처 제도에 관한 일 고찰 : 종교-시장-인권의 삼각법(trigonometry). **교육발전연구**, 20(2), 23-42.
- 송순재 (2011). **위대한 평민을 기르는 덴마크 자유교육**. 서울: 민들레.
- 오해섭·김세훈·이지혜 (2022). **2022년 대안교육기관 등록현황 및 실태조사**. 교육부, 꿈지락.
- 윤철경·송기석·조용호·황지원·김유이·곽윤철·김미경·김희진 (2022).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실태조사 및 대안교육기관 지원 방안 연구**.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 이덕난 (2022).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의 의미와 과제**.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네트워크.

- 이병환 (2007). 대안학교 관련 쟁점 분석: 관련 법령에 대한 대안학교 교원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교육행정학연구**, 25(4), 535-563.
- 이병환 (2008). 미국 대안교육의 다양화 경향 분석과 정책적 시사. **교육행정학연구**, 26(1), 163-188.
- 이종각 (2001). **초·중등단계에서의 대안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 이종태 (2001). **대안교육과 대안학교**. 서울: 민들레.
- 이종태 (2005). **대안교육의 영향분석 및 제도화 방안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 이학춘·심대현 (2017). 비인가 대안교육 시설에 관한 제도적 개선방안 연구. **법학연구**, 25(4), 205-229.
- 이혜영·황준성·강대중·하태욱 (2009). **대안학교 운영 실태 분석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유재봉·이종철·박상진·허종렬 (2023). **학부모의 당연한 권리, 학교선택권**. 서울: 씬이있는교육.
- 장지현 (2012). 교육바우처제도의 운용과정 연구: 사회적기업화 가능성을 중심으로 역할 확대, **사회적기업과 정책연구**, 2(1), 109-156.
- 조인진 (2022). 기독교대안학교 설립과 운영방안. **교회교육·복지실천 연구**, 4(2), 109-129.
- 정광호 (2010). 미국 교육바우처의 효과 분석: 무작위실험 사례를 중심으로, **행정논총**, 48(2), 25-64.
- 천세영 (2001). 대안학교형 특성화고등학교의 재정 지원 방안 탐색, **교육재정경제연구**, 10(1), 63-90.
- 최호성·박창언·김희용 (2007). 대안학교 설립·운영 규정(안)에 대한 비판적 논의, **중등교육연구**, 55(1), 181-201.
- 함께여는교육연구소 (2013). **학교 밖 학습자 지원을 위한 정책 개발 연구**. 경기도 교육청.
- 황준성·이혜영 (2010). 대안학교 관련 법제 정비방안 연구. **교육법학연구**, 22(1), 169-197.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main.html>. (검색일 2023.11.2.)



## ‘대안학교 등록제’ 도입에 따른 변화와 기독교대안학교의 나아갈 방향

### Changes following the introduction of the ‘alternative school registration system’ and the future direction of Christian Alternative School

이종철 (한국교원대)

김지혜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

#### 논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대안학교 등록제’ 도입에 따른 변화와 기독교대안학교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다. 지난 2년간 234개의 학교가 등록을 했고, 이 중 114개가 기독교대안학교다. 많은 학교들이 등록을 마쳤으나, 여전히 미등록한 학교들과 등록이 제한된 학교들이 있어, 향후 이들에 대한 법적, 행정적 조치가 어떻게 될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등록제의 유의미한 정착을 위해서는 대안교육기관 등록 심사과정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며, 학력인정과 재정지원의 문제도 해결되어야 한다. 특히 재정 지원은 학교의 정체성과 자율성을 지키기 위해, 학교가 직접 받는 방식보다 바우처를 통해 학부모가 받는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 3번의 법제화로 복잡해진 대안학교 유형들을 통합하기 위한, 법의 정비와 관리 부서의 통합이 필요하며, 더 근본적으로는 초중등교육법 제13조의 개정을 통해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을 폭넓게 보장할 필요가 있다. 공공의 장으로 나온 기독교대안학교들은 ‘기독교성’ 뿐 아니라 ‘대안성’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공교육의 선도재 역할을 감당하며, 교육의 공공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주제어: 대안학교 등록제, 등록 대안교육기관, 기독교대안학교, 교육의 공공성



## 조손가족 조모의 적응 과정 분석 - 기독교 상담 관점의 질적 사례연구\*

### **Analysis on the Adaptation Process of Grandmothers in Grandparent-Headed Families : A Qualitative Case Study from the Perspective of Christian Counseling**

박안나(Anna Park)\*\*

김준 (Jun Kim)(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process of adaptation of grandmothers in grandparent-headed families. The stress-coping-adaptation theory was applied to the process, a theoretical propositions was developed and qualitative data from 10 cases were analyzed through Yin's methodology. Each case was analyzed by pattern matching chronologically and respectively. As a result, the stress environment was determined by relational factors and religious support was the most prominent coping. The four types derived from the cross-case synthesis : the religious support type, the adult-child sacrifice type, the public support failure, coping resource weakness type. All types are related with religious support. In addition, the process of adaptation of grandmothers was analyzed as shock and confusion stage → intermediate stage → social support stage → adaptation. The intermediate stage has grandmothers' critical choice and it'd change the result of adaptation. According to this, the relationship with adult-children was emphasized in counseling for the grandmothers, and the conceptualization of counseling cases and related intervention procedures were discussed. This study structurally analyzes the adaptation process of grandparents in grandparent-headed families and provides data of each type

\* 2024년 2월 6일 접수, 3월 1일 최종수정, 3월 4일 게재확정

본 논문은 충신대학교 박안나의 박사학위논문(2021년 2월, 지도교수:김준)을 요약 및 재구성한 논문임

\*\* 헤세드 상담센터(Hessed Counseling Center) 실장,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47길 34-2, annapark236@gmail.com

\*\*\* 충신대학교 신학대학원(ChongShin Theological Seminary) 교수,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학촌로 110, junkim24@gmail.

and stage for case conceptualization and a series of intervention procedures. It provided implications for religious institutions and policies for the welfare of them.

**Key words:** grandparent-headed families, adaptation, social support, Christian counseling, Yin's case methodology

## I. 서론

조손가족은 조부모세대와 손자녀 세대로 이루어진 가족으로 우리사회에는 1990년대 IMF 이후 그 수가 급증하였고 이 후 이혼율의 증가에 따라 지속적으로 늘어 2030년에는 약 27만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경향신문, 2019). 조손가족은 양적 증가 면에서 2000년대 이후 가장 특징적인 가족형태의 변화로 손꼽히며 이미 우리사회에 하나의 가족형태로 자리 잡았으며 이제는 사회가 감당해야 할 비용을 감소시켜주는 ‘대안이 되는 가정’이라는 인식도 생겨 조손가족 연구의 주제는 ‘조손가족이 하나의 가정으로서 온전한 기능을 하도록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로 모아지고 있다(김미영, 윤혜미, 2015 ; 신명주, 2019 ; 박선희·조계표, 2019).

지금까지 수행된 연구들은 조손가족마다 각기 다른 배경과 환경, 문제 등을 포함하는 사례관리를 일관되게 강조해왔고, 실제적인 사례관리의 일환으로 심리상담적 개입의 요구가 증가하면서 가족상담 또는 가족치료의 중요성이 점점 커져 본 연구도 ‘조손가족이 하나의 가족으로 온전히 기능하고 유지되기 위한 상담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서 시작되었다(이지영·이혜원, 2011 ; 윤혜미·장혜진, 2012). 한 개인 뿐 아니라 가족도 변화의 시기를 겪거나 새로운 형태가 되면 ‘적응’의 과정을 거치게 되며 가족상담은 그 과정에 대한 이해가 기반 되지 않고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조손가족을 위한 가족상담은 조손가족의 형성과 그 후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을 깊이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조손가족의 적응 연구는 손자녀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활발한 데 반해 조부모 대상 연구는 ‘손자녀 양육’이라는 주제에 한정된 양적 연구 경향이 뚜렷해 조부모의 적응 과정에 대한 종합적이고 본질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질적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조손가족은 경제적 자활 능력이 없는 세대만으로 구성되는데 가장인 조부모가 노화, 생계유지, 손자녀 양육이라는 삼중고 속에 처해 있어 자력으로는 유지되기 어려워 반드시 사회적 지지가 필요한 대상이라는 점에서 조손가족 조부모의 적응 과정에서 사회적 지지가 어떻게 경험되는지에 대한 이해는 상담 개입에 중요한 정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기독교상담은 그 정체성 확립과 구체적 기법의 개발을 위해 발전해가고 있지만 학자마다 그 정의가 달라 정체성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장동진·김용태, 2013 ; 안경승, 2023). 본 연구에서 기독교 상담이란 상담자가 기독교적 관점에서 인간과 문제를 이해해 내담자를 돕는 상담이라는 폭넓은 정의를 사용하며 기독교적 관점이란 인간을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영적인 존재로서 이해하는 것이므로 결국 기독교 상담은 기독교적 신관, 세계관과 인간관을 가진 상담자가 기독 자원-성경, 신앙, 기도, 공동체, 용서, 기독교인, 고백, 죄, 은혜-을 활용해 내담자를 돕는 상담 활동으로 볼

수 있다(이관직, 2007 ; 김준, 2015 ; 김준, 2021, 안경승, 2023). 기독교 상담은 하나님이 가정을 통하여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성경적 세계관에 근거하여 위기의 가정의 회복을 돕는 사명과 그 전문적 역할에 대한 과제가 있기에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신앙적 영역 모두 위기인 취약한 조손가족에게 돌봄과 전문상담을 제공하려는 노력을 계속 하고 있다(강경미, 2013). 따라서 본 연구는 조손가족 조부모가 겪는 적응의 과정을 분석하여 조손가족을 위한 효과적인 기독교 상담 개입에 대해 제안하고 결과에 대한 함의를 교회와 기독교 기관에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조손가족 형성 후 조부모의 적응 과정을 사회적 지지와 관련하여 깊이 있게 살펴 이들을 위한 효과적인 기독교 가족상담 개입을 제안하는 것이며 연구 문제는 ‘조손가족 형성 후 조부모는 어떠한 적응 과정을 경험하는가?’ 이다. 이를 위해 조손가족과 적응, 사회적 지지에 관한 이론적 배경을 살펴본 후 10명의 조손가족 조모 사례를 대상으로 한 심층 면담 자료를 분석하되 기독교 세계관 관점에서 본 연구문제에 가장 적합한 Yin의 사례연구 방법으로 분석하여 그 결과와 논의를 제공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조손가족의 이해

조손가족의 정의는 2007년 한부모가족지원법 내 조손가족에 대한 특례조항이 포함되면서 이 법에서 명시한 ‘65세 이상의 조부모가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으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조손가족 형성의 주요인은 손자녀의 친부모 이혼이며 이혼률의 증가는 앞으로도 조손가족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주요 근거이기도 하다(박안나, 2021 ; 정순돌 외, 2024).

조손가족의 특징은 크게 다음 세 가지로 정리 된다.

첫째, 조손가족은 빈곤하고 경제적 자활 능력이 없어 빈곤에서의 탈출이 어렵다. 조손가족 형성의 원인인 ‘부모세대의 부재 이면에는 ‘빈곤’이라는 결정적 배경이 있으며 조손가족 형성 후 가장 큰 고통이기도 하다(민기채, 2010 ; 김승희, 2016). 조손가족 조부모의 평균소득액은 독거노인가구보다도 낮아 우리 사회 최빈곤층이며, 조손 모두 경제적 자활 능력이 없고 정책적 지원은 한계가 있어 빈곤에서의 탈출이 어려운 구조 속에서 빈곤의 대물림이라는 위험을 안고 있다(민기채 2011). 조부모는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82.3%으로 낮은 학력과 빈곤의 악순환은 우리나라 조손가족의 전형적인 특징임을 알 수 있다.

둘째, 조손가족은 가족 구성원인 조부모와 손자녀 모두 생애주기에 어긋나는 ‘위기’에 있어 심리적 자활 능력이 떨어진다(박윤미·전수경, 2014). 조손가족의 조부모는 노년기에 예상치 못한 손자녀 양육을 전담하게 되며, 손자녀는 부모의 보호와 양육이 필요한 시기에 가족해체를 경험한 후 부모의 부재로 인해 성인역할을 하거나 조기성숙의 압력을 받은 애어른의 역할을 하게 된다(김송이·김동일, 2020). 이와 같은 생애주기의 이탈은 불안감을 느끼게 하며 많은 연구들은 이들의 우울과 자존감 손상이 큰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이윤정, 2014 ; 장영은, 2016).

셋째, 조손가족은 한번 형성되면 지속되는 특징이 있다. 조손가족 조부모는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93.0%가 손자녀 양육에 대한 의지를 보인 반면 친부를 대상으로 자녀와 함께 살 가능성에 관한 조사에서는 60% 이상이 의향이 없었다. 조부모, 부모, 손자녀 모두 사실상 다른 선택이 없는 상황으로 2014년, 2015년에 보고된 연구에서도 손자녀의 평균 양육기간이 10년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황미진, 정혜정, 2014 ; 김명희·김신희, 2015). 또한 우리 사회의 혈연 중심의 문화도 영향을 미치는데 뿌리 깊은 혈연 중심의 가치관은 조부모와 손자녀가 역경을 버티게 해주는 힘이기도 하다(윤주영·고보선, 2017 ; 이영애·방은령, 2018).

## 2. 조손가족 조부모의 적응

### (1) 적응과 스트레스 이론

적응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환경과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인간의 심리를 고려해야 하는데, Lazarus와 Folkman(1991)은 변화하는 환경을 스트레스(stress)로 그에 대한 인간의 반응을 대처(coping) 개념으로 하는 분석적 틀을 제공했다. 또한 스트레스나 대처, 적응을 판단하는 것은 모두 각 ‘개인의 주관’이라고 밝혀 스트레스를 스트레스로 느끼는 것, 적응이 되었다고 느끼는 것은 개인의 주관적 평가에 달렸다는 개념이 일반화되는데 기여했다. 이 이론은 이 후 스트레스의 연구 분야에서 가장 대표적인 준거틀로 자리 잡았고 최근에도 적응이나 스트레스와 관련된 많은 연구들이 이 이론에서 제시한 척도를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인간을 스트레스에 압도되는 존재로 보는 관점에서 스트레스와 적응에 대한 인간의 주관적 평가와 노력, 선택 등 능동적인 면을 강조하면서 스트레스와 적응의 이해에 대하여 사실적이고도 치료적인 깊은 이해를 제공하였다는 평가를 받는다(이현주, 2012).

배경과 환경이 모두 다른 조손가족 조부모의 적응 과정을 분석함에 있어 Lazarus와 Folkman(1991)의 이론은 유용하며, 이 이론에서 정립한 개념에 따라 적응 또는 적응 과정을 ‘개인과 환경 간의 균형 있고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해나가는 상호작용 과정’으로 정의한다. 이 때 균형

있고 조화로운 관계란 개인이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사회관계적, 심리적, 신체적, 경제적 요소 등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조손가족 조부모의 적응 과정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 요소를 살펴 보아야 한다.

## (2) 조손가족 조부모의 환경

### ① 사회·관계적 환경: 손자녀 및 성인자녀와의 관계

조손가족 조부모 스트레스의 사회·관계적 환경의 주제는 가족 구성원인 손자녀가 단연 대표적으로 그동안 수행된 조손가족 조부모에 대한 연구는 손자녀 양육 관련 내용이 주를 이룬다. 조손가족 조부모는 손자녀를 잘 키우겠다는 의지와는 무관하게 양육방법이 무엇인지 몰라 혼란스러워하는 한편 빈곤으로 손자녀 학습지원이 거의 불가능한 현실을 안타까워한다(이영애·방은령, 2018 ; 김은정·하문정, 2023). 그러나 조부모는 이런 마음을 손자녀에게 적절히 표현하지 못하고 잔소리나 격앙된 감정을 쏟아 놓는 훈육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한 갈등이 조부모의 양육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게 된다. 조부모의 양육 스트레스는 손자녀와 의견이 다를수록, 손자녀가 조부모를 무시할수록, 손자녀를 다루는 게 어려울수록 조부모의 양육 스트레스는 커지며 손자녀의 사춘기 시기에는 더욱 심해지는 경향이 있다(김승희, 2016).

다음으로 조손가족 형성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성인자녀, 즉 손자녀의 부모와의 관계이다. 손자녀가 같은 주거 환경 안에서 함께 생활하며 실재하는 관계적 환경이라면 성인자녀는 조손가족마다 다른 상황 속에서 실제적 동거여부에 상관없이 조부모의 내면 속에 항상 자리 잡고 있는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조부모가 손자녀의 부모역할을 하게 된 배경에는 성인자녀의 이혼이나 가출, 실종, 질병 또는 사망 등과 같은 불행이 있으며 자녀의 불행은 조부모들에게 심각한 심리적 스트레스를 주고 자녀의 가족해체로 인해 손자녀를 맡게 된 조부모는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과 함께 자신이 자식을 잘 못 키웠다는 자책과 회환을 경험하게 된다. 이들은 조손가족을 형성 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조부모의 심리적 상황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치는데 애증과 원망, 분노의 대상이자 막연히 기다리는 대상으로 조손가족 조부모의 우울의 원천이 된다(박안나, 2020).

Sands와 Goldberg-Glen은 조손가족 조부모들의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에서 이 두 관계, 즉 조부모와 성인자녀, 조부모와 손자녀와의 관계가 조부모들의 가장 두드러지는 스트레스라는 점을 밝혀 이 주제에 대한 상담적 개입과 사회적 지지를 주장했다(2000).

### ② 경제적환경 : 생계유지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빈곤은 조손가족 형성의 주요한 원인인 동시에 조손가족이 안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이다. 조손가족의 주요 소득원천은 공공부조이며 그만큼 그들의 경제적 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성가족부(2010)가 조사한 전국 조손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손가족의 약 3분의 2가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으로 생활하고 있었으며, 조손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들의 직업은 단순노무직과 기타가 약 60%였으며 친부가 손자녀의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보내주는 경우는 13.3%에 불과하였고, 친모의 경우는 더욱 적었다.

손자녀가 성장할수록 양육비나 교육비 등은 늘어나게 되나 조부모는 더욱 고령이 되어가기 때문에 결국 공공부조 급여 같은 공적 지지망에 의존하게 된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이 충분하지 않아 아동양육비 지급액은 월 5만원, 기초노령연금제는 1인당 20,000~90,000원 수준으로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었으며,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 지원을 받으려면 조부모 중 적어도 한 사람은 65세 이상이고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이라는 조건이 있어야 가능해 성인자녀가 생존해 있으나 자녀양육을 조부모에게 미루고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는 조손가구는 법률상 사회적 지원을 받기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윤혜미·장혜진, 2012).

### ③ 신체적환경 : 노화와 건강

일차적으로 양육을 책임지는 조손가족 조부모의 경우 그렇지 않은 조부모에 비해 신체적 부담이 커 건강의 위험이 높는데, 김명희와 김신희(2015)가 조손가족 조모 12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연구대상자 모두 만성질환을 앓고 있었으며, 평균 만성질환의 수는 2.46개로 나타나 건강상태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손가족 조부모는 식사 준비, 청소, 빨래 등 일상 생활을 반복하며 만성적인 피로가 누적되며 고혈압과 당뇨 같은 만성질환의 악화도 경험하게 된다(송유미·이선자, 2011). 김예성, 인훈, 박채희(2014)는 조손가족 조부모와 일반 조부모의 건강을 비교하는 연구에서, 조사 대상 조손가족 조부모는 일반 조부모 보다 평균 연령이 6년 가량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관적 신체적 건강수준과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일반노인들에 비하여 떨어져 손자녀를 돌보는 상황에서 건강상의 어려움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조손가족 조부모들은 건강을 돌봐야 한다는 의식은 높지만 자신을 돌봐줄 사람이 없거나 손자녀 양육으로 시간이 부족하고 경제적 부담으로 손자녀를 우선으로 여겨 자신의 건강문제에 대한 원조요청을 가능한 한 미루거나 참고 견디면서 심각성을 축소하는 경향이 있었다.

### (3) 조손가족 조부모의 심리 : 우울감 및 낙인감

손자녀 양육의 부담과 고통은 우울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조손가족 조부모는 우울의 ‘숨은 환자’이며, 조손가족 조모 12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우울 평균 점수가 9.08로 대상자의 88%

가 우울 상태인 것으로 보고되었다(김신희·김명희, 2015). 우리나라 노인의 평균 우울점수가 5.3인 것을 감안하면 매우 높은 수치이다. 조손가족 조부모의 삶에서 우울은 비단 손자녀 양육에만 기인한 것이 아니라 조손가족 형성 이전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더 오래 전인 조부모 자신이 어려서부터 돌봄과 교육을 받지 못하고 차별받고 가난했던 삶과 성인자녀의 불행은 조손가족 조부모들에게 심각한 심리적 스트레스를 줄 뿐 아니라, 분노나 슬픔, 수치심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게 해 그 누구에게 말도 못하는 가슴이 답답하고 우울한 경험을 하는 위기를 느끼게 된다. 이러한 생각은 문제를 내재화하거나 내부귀인하려는 노인들의 특성에 따라 자신이 자식을 잘 못 키웠다는 자책과 자녀들에게 본보기가 되지 못했다는 죄책감으로 깊은 우울감으로 이어지게 된다(양경순·한재희, 2013 ; 김세영, 2015). 또한 경제적 궁핍과 건강치 못한 자신의 상황에 대한 걱정, 손자녀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한 걱정, 부모의 역할을 어디까지 얼마나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에 대한 혼란, 본인 사후의 손자녀 양육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는 것으로 보고되며 도움을 청할 사람들의 부족할 때의 걱정과 불안 또한 우울감의 원인이 된다(김미영·윤혜미, 2015 ; 김혜진·김효정, 2018).

낙인감은 조손가족 조부모들의 우울을 낮추는 요인으로서 조손가족 조부모를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들은 온전한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회적 편견으로 인한 우울을 호소하거나(김승희, 2016), 자신의 가족이 온전하지 않은 가정, 즉 정상적인 가족에는 속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손자녀를 ‘남들 앞에 떳떳하게 나설 수 있고 기죽지 않게’ 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이는 것(안유숙, 2016) 등을 보고하고 있다. 조손가족 조모들은 스스로 ‘남들과 다른 가정’이라는 사회적 편견 때문에 스스로 사회적 관계망을 단절하는 경향이 있으며, 손자녀 양육에 있어서도 조부모들은 ‘부모가 없어서 어떡하다’라는 타인의 반응을 의식하고 두려워하여 말과 행동을 지나치게 조심시키거나 엄격하게 혼을 내는 등 자신의 가족이 타인에게 어떻게 비추어지는가를 과도하게 의식한다는 보고가 있다(김명희·김신희, 2015).

### 3. 조손가족 조부모를 위한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란 대인관계를 통해서 주고받는 모든 형태의 도움으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주고받을 수 있는 긍정적인 자원이다(Cohen & Hoberman, 1983). 조손가족 조부모의 사회적 지지를 공적(公的) 사회적 지지와 사적(私的) 사회적 지지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 (1) 공적사회적지지

조손가족이 지원 받을 수 있는 공적 사회적 지지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첫째,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로 생활수준에 따라 제1계층, 제2계층, 제3계층으로 구분하여 차등 지원하고 있다. 제1계층은 조부모와 손자녀 모두 기초생활수급자인 세대로서 손자녀가 아동학습 수당과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제2계층은 손자녀만 기초생활 수급자인 경우이며 제3계층은 제1계층과 제2계층에 해당하지 않고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세대이다. 조손가족 조부모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서 자녀가 살아 있음에도 자녀를 행방불명으로 처리하기도 하는데 이는 다른 제도에서 제공하는 지원금이 너무 적고 기초생활수급자와 동시에 받을 수 없어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이명용·김승희, 2014). 둘째는 대리양육가정위탁 제도로, 이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조부모가 양육하면서 대리양육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월 일정액의 생계비를 지급한다. 셋째, 한부모가족지원법 안에 규정된 조손가족을 특례조항이 있어 자녀가 이혼하거나 실직 등으로 장기간 부양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 이외 지방자치단체의 조손가족지원조례에 의한 지원으로 조손가족수당이 있으나 다른 급여지원을 받지 않는 조손가족으로 지원을 제한하고 있어 실효성에 논란이 있다. 최근 2020년 여성가족부가 발간한 ‘2020년 한부모·조손가족 복지서비스 안내’에서 조손가족에게 해당하는 공적 사회적 지지가 있는데 아동양육비, 가족역량강화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등이 그것이다.

## (2) 사적 사회적지지

조손가족 조부모가 실제적으로 의지하는 사회적 지지는 주로 공적 사회적 지지로 사회적 지지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은 편이나 대체로 성인자녀나 손자녀, 친인척 등이다. 이정화와 최원규(2012)는 사적 사회적 지지가 조손가족 조모의 심리적 복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는데, 이 연구에서는 경제적 지지는 아동의 고모, 삼촌과 같은 성인자녀들로부터의 지원을 비롯한 혈연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정서적 지지와 도구적 지지는 그 외의 친척이나 이웃 지지망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 연구의 또 하나의 중요한 결과는 이 연구에서 조사한 사회적 지지 중 손자녀 부모인 성인자녀의 지지만이 조손가족 조모의 행복감을 증가시켰다는 것이다.

강미희(2011)의 연구에서도 조손가족 조부모와 성인자녀와의 접촉 빈도에 주목하였는데 연구 대상인 조부모들 가운데 일주일에 1번 이상 성인자녀와 연락한다고 답한 가구는 7.8%에 머물렀다. 자녀와의 접촉빈도는 조손가족 조부모들과 손자녀들의 심리적 안녕뿐만 아니라 경제적 지원과도 관련이 깊기 때문에 중요하나 접촉 빈도가 작은 자녀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기대한다는 것은 어려워 사적 사회적 지지에서 손자녀의 부모인 성인자녀의 지지는 중요성이 강조되면서도 조손가족의 형성 원인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지지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강미희, 2011).

한편 손자녀와의 관계는 조손가족 조부모의 우울과 불안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 해소와 극복에도

움이 되는 대표적인 변수로 중요한 사적 지지이다. 손자녀와의 관계는 조부모를 더 우울하게 하기도 하고 덜 우울하게도 하는 중요한 변수로 조부모와 손자녀의 친밀감은 조부모의 정신 건강과 손자녀의 행동 모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윤혜미·장혜진, 2012 ; 김미영·윤혜미, 2015). 또한 손자녀와 의사소통이 개방적이고 긍정적일수록 조모의 자아수용이 높고 심리적 행복감이 높다고 보고되었다(이지영, 이혜원, 2011). Tompkins(2007)은 조손가족 조부모들을 위한 지원은 가족 구성원의 가용성과 적절성을 지속적으로 평가하되 손자녀 세대 또한 조부모 돌봄을 할 수 있는 세대임을 강조하며 손자녀의 능력이 적절한지 평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III. 연구방법

조손가족 조부모의 적응 과정이 어떠한지 살펴보기 위해 사례가 특정한 상황에서 시간의 경과에 따라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 깊이 있게 이해하고 기술하는 질적 사례연구로 수행한다(이정빈, 2018). 질적 사례연구는 인식론 측면에서 기독교 세계관을 전제로 하는 연구의 방법론으로 적절하므로 본 연구는 질적 사례연구를 통해 하나님이 창조하신 한 인간으로서 조손가족 조부모가 적응 과정을 통해 겪는 경험의 세계를 심층적으로 탐색하고 적응 과정에 대한 총체적인 분석을 하고자 한다(김영환, 2006 ; 박안나, 2022).

#### 2. 연구 설계 및 절차

##### (1) Yin의 질적사례 연구

Yin의 사례연구방법론은 개인의 생애 주기와 같은 현실세계의 사건인 ‘사례’의 전체적이고 의미 있는 특징들을 담아내는 것이 가능하며 현상과 관련된 주요 정황 조건들에 대한 이해를 위한 것으로 조손가족 형성 후 조부모의 적응과 관련된 정황 조건들을 이해하고 그 역동적 과정을 파악하기에 적합하다. Yin(2016)의 사례연구방법론은 사건이 얼마나 일어났는지 빈도를 조사하는 통계적 일반화(statistical generalization)가 아니라 사례연구를 통하여 이론을 일반화하는 분석적 일반화(analytic generalization)를 목적으로 하기에 복수의 조손가족 사례를 분석한 다중사례 수행은 조손가족 조부모의 적응과정의 분석적 일반화라는 성과를 이루게 된다. 특히 Yin은 통계적 연구와 보완적 관계가 되는 사례연구가 되기 위해서 연구주제와 관련된 이론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는데 본 연구는 스트레스-대처-적응 이론을 기본으로 환경과 대처 요소들을 분석해 분석적

일반화가 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며 이는 실제 가족 상담에 전략을 제공하는 성과로 이어질 것이다. 본 연구는 서로 다른 조건의 사례들을 분석하기 때문에 본 연구는 Yin의 사례연구 분류 중 다중 사례-다중분석단위를 질적으로 접근한다(Yin, 2016).

### (2) 사례의 경계 및 연구 문제

본 연구에서 사례란 ‘조손가족 조모의 적응 과정’을 말한다. Yin(2016)은 공간적, 시간적 요소 등에 의한 경계를 분명히 한, 실생활에 존재하는 현상인 사례가 사례연구방법에 적합하다고 강조하였는데, 본 연구의 사례의 구체적 경계는 성인자녀를 대신하여 손자녀를 양육한 경험이 최소 5년 이상인 조모로 설정하였다. 조모로 설정한 근거는 우리나라의 경우 조손가족에서 손자녀의 양육을 주로 책임지고 있는 사람의 성별이 여성이 82.7%를 차지하며 이들의 유배우자율이 9.2%에 불과해 조손가족 대부분이 조모와 손자녀로 이루어진 한조부모 가족이라는 인구통계학적 자료에 두었다(여성가족부, 2010 ; 김명희, 2015). 더불어 성인자녀가 동거하지 않으며 도시에 거주하는 조손가족 조모라는 경계를 설정하였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정된 사례의 경계를 반영한 본 연구의 최종 연구 문제를 다음과 같다.

### 연구 문제 : 조손가족 형성 후 조모는 어떠한 적응 과정을 경험하는가?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된 하위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 ① 조손가족 조모의 스트레스는 어떠한가
- ② 조손가족 조모의 대처로서 사회적 지지는 어떠한가
- ③ 조손가족 조모의 적응 과정은 어떠한가

### (3) 연구 명제 및 분석 단위

Yin의 사례연구방법론의 특징은 다양한 자료원에서 증거를 수집하고 이 증거들을 논리적으로 수렴시켜 새로운 결과를 도출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 Yin은 자료 분석 전략으로 ‘이론적 명제’와 ‘분석 단위’를 기반으로 할 것을 강조한다(2016). 사례연구에서 연구 명제와 이를 이루는 분석 단위는 분석적 일반화가 되도록 하는 토대가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명제와 분석 단위가 있는 연구일수록 보다 실현가능한 상태가 되며 Yin은 연구 초기인 설계단계에서 먼저 이론적 명제와 분석 단위를 개발할 것을 제안하였다(2016). 본 연구의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된 연구의 연구 명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 명제 : 조손가족 조모의 적응 과정은 조모의 스트레스 환경(관계, 경제, 신체적 환경)과 심리적 상황(우울과 낙인감)이 존재하며, 스트레스 대처는 사회적 지지(공적지지, 사적지지)를 통해 이루어져 이에 따라 적응 과정이 달라질 것이다.

본 연구는 이 명제를 상정하고 수집된 사례들을 통해 실재를 분석하고자 하며, 사례의 ‘분석 단위’는 연구 문제, 이론적 배경, 연구 명제로부터 도출된 다음 항목이다.

- ① 조모의 스트레스 환경(관계적, 경제적, 신체적 요소)과 심리적 상황
- ② 조모의 대처 및 사회적 지지 - 공적지지와 사적지지
- ③ 조모의 적응

**(4) 자료 원천 및 자료 수집 방법**

Yin은 다양한 대상자들의 현실을 이해하기 위하여 최소 두 개 이상의 자료원을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2016). 본 연구는 심층면담, 직접관찰 및 참여관찰, 문서/기록정보 및 물리적 인공물을 자료원으로 삼았다.

표 1. 자료 원천 및 자료 수집 방법

참여자	연령	면담 횟수	심층면담장소	직접관찰 및 참여관찰	기록물 및 인공물
1	80세	2	연구참여자 집	손자 방에 있던 손자와 인사 손자 방 책장 관찰	성경필사본
2	80세	2	연구참여자의 교회와 집	교회 목사님의 조손가족 사역 및 손자의 생활 관찰	교회에서 준 반찬 및 빵, 가족사진
3	90세	1	소개자의 집	-	-
4	78세	2	연구참여자 집	손녀방 관찰 손녀에 대한 연구참여자의 태도 관찰	가족사진
5	71세	2	복지관	-	손자가 받은 상장들
6	76세	2	연구참여자 집	성인자녀의 방문 관찰	가족사진, 휴대폰 사진
7	80세	2	연구참여자 집	이삿날 연구참여자자와 성인자녀의 관계 관찰	가족사진, 수첩, 상장들, 병원기록, 손녀촬영 비디오
8	80세	1	참여자7의 집	-	-
9	73세	1	참여자 집근처	-	휴대폰 사진
10	70세	2	연구참여자의 교회	-	휴대폰 메시지, 휴대폰 사진

**(5) 연구참여자**

연구자의 이해와 통찰이라는 목적이 있는(purposeful), 의도적(purposive) 표집을 기본으로, 다

양한 변이를 기록하고 중요한 공통적 패턴을 확인할 수 있는 최대변량표집(maximum variation)으로 하여 지역종합복지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 그리고 비영리단체 등의 게이트키퍼(gatekeeper), 즉 내부 위치에 있는 사람과 접촉하여 총 5명의 연구 참여자를 만날 수 있었고, 이들을 통한 눈덩이 표집(snowball sampling)으로 총 10명의 연구 참여자와 면담을 할 수 있었다.

연구 참여자 10명이 손자녀를 맡게 된 이유와 손자녀 양육 기간 등은 다음 표2에 정리하였다.

표 2. 연구참여자의 기본 정보

참여자	연령	조손가족형성당시		조손가족형성사유	양육기간	종교	현재 동거인
		조모연령	손자녀연령				
1	80세	75세	친손자: 14세	장남 이혼	5년	천주교	손자
2	78세	69세	친손자: 10세 친손자: 12세	며느리정신이상	9년	기독교	손자들
3	90세	75세	친손녀: 6세 친손자: 5세	며느리 가출	16년	기독교	성인자녀들 손주들
4	78세	58세	외손녀: 5개월	외동딸 이혼	20년	기독교	손녀
5	70세	51세	친손자: 8개월	외아들 이혼	20년	기독교	손자
6	76세	54세	친손녀: 8세	며느리 가출 장남 사망	22년	기독교	성인자녀
7	79세	55세	친손녀: 1세 친손녀: 2세	며느리 가출	25년	무교	성인자녀들 손녀들
8	79세	60세	친손녀: 8세 친손자: 6세	며느리 가출	20년	기독교	성인자녀 손주들
9	72세	52세	친손자: 4세 친손녀: 2세	장남 이혼/가출	21년	기독교	남편 손자
10	70세	59세	친손녀: 1세	장남 이혼	11년	기독교	손녀

(6)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을 위한 틀은 질적 연구의 양적, 과학적 측면을 강조한 ‘기술(description)’, ‘분석(analysis)’, ‘해석(interpretation)’ 구조와 Yin이 다중사례 분석방법으로 제안한 ‘반복 논리(logic of replication)를 통한 패턴(pattern)의 활용’을 기본으로 하였다(Wolcott, 1994 ; 조용환, 1999 ; Yin, 2013). Yin은 연구자라는 분석도구가 자료에서 반복되는 논리를 찾아 자료 자체로부터 도출되는 개념과 범주 및 의미와 주제 기술을 이끌어내는 분석 방법을 제안했는데 본 연구는 Yin이 제안한 설명하기(Explanation Building), 연대기적 분석(Chronological Sequences), 패턴 매칭(Pattern Matching), 사례통합(Cross-Case Synthesis) 기법을 사용하였고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단계에서 주제화 코딩과 패턴 코딩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는 자료 수집부터 분석까지 일관되게 Yin의 방법론을 충실하게 따랐는데 이는 본 연구의 연구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는 판단과 함께, 분석 과정에서 다른 질적 분석방법을 혼용하는 것이 각 연구방법 개발자가 강조한 논리와 흐름이 짜깁기가 되어 연구 설계와 결과가 맥락적으로 불일치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다(차지영, 2014).

표 3. 연구의 분석 구조 및 단계별 분석 방법

분석구조	Yin의 분석방법
기술 (Description)	1) 설명하기(Explanation Building) 후 주제화 코딩 (Themeing the data) 2) 연대기적 분석(Chronological Sequences)
분석 (Analysis)	1) 스트레스 : 패턴 매칭(Pattern Matching) 2) 대처 : 패턴 매칭(Pattern Matching)
해석 (Interpretation)	1) 적응 유형 : 사례통합분석 (Case-Cross Synthesis) 2) 적응 단계 : 패턴 코딩 (Pattern Coding)

### (7) 연구의 엄격성 및 윤리적 고려

질적연구에서 연구 설계 검증을 위해 제시되는 개념인 신뢰성, 진실성, 확실성, 자료 의존성은 Yin(2016)의 사례연구에서 구성 타당성, 내적 타당성, 외적 타당성, 신뢰성으로 검증된다. 먼저 구성타당도(construct validity)를 위해서 본 연구는 면담은 물론 연구 참여자의 가정 방문을 통한 관찰, 연구 참여자가 제공한 기록물 및 인공물 뿐 아니라 면담시 사용한 자료와 현장 노트, 언론 기사 등 다양한 자료원을 사용하고 분석 단위를 명확히 규정하였다. 내적타당도(internal validity)를 위해서 자료 분석 단계에서 인과 관계를 밝히는 기법을 활용하고, 외적타당도(external validity)를 위해서 ‘반복연구(replication)’논리로 분석적 일반화를 꾀했다. 반복연구는 복수의 실험을 행하는 개념으로, 처음 실험에서 중요한 결과를 발견하였다면 그 결과를 반영하여 두 번째, 세 번째 실험을 하면서 연구의 결과가 보다 공고해지는 원리이다(Yin, 2016). 본 연구에서는 단순반복연구로 같은 결과를 도출하는지 보고자 10개의 사례를 10개의 실험을 실시하는 것과 같은 논리로 분석하여 사례간 비교를 시도했다. 동일한 연구를 반복했을 때 같은 결과가 제시되는가에 대한 신뢰성(reliability)을 위해서는 자료수집 단계에서 사례연구 프로토콜을 사용했다.

또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5조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비밀 보장 및 익명성의 보장, 연구 참여에 대한 이익과 불이익



및 철회 가능, 자료 파기 등을 상세히 고지하고 서면 동의서에 서명을 받았다. 수집한 자료는 법에 따라 연구 종결 후 녹음파일은 삭제하고 인쇄물과 관련 메모 등은 파기할 것을 강조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기술

#### (1) 설명하기 및 주제화 코딩

사례 자료를 반복적으로 검토하면서 조모의 적응 과정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분석 단위’ 중심으로 기술하는 ‘설명하기’를 수행하고 이를 통해 드러난 주제를 하나의 주제문 형태로 코드를 부여하는 ‘주제화 코딩’으로 다음과 같이 64개의 주제문이 도출하였다.

표 4. 주제화 코딩을 통해 도출한 64개의 주제문

사례 1	지적장애에 대한 무지로 인해 양육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손자와 갈등이 이어짐
	조손의 상호 폭력으로 인해 경찰에 신고하는 일이 벌어짐
	양육스트레스로 인해 병이 생기고 깊은 절망과 우울에 빠짐
	성당 신부님에게 도움을 청해 손자가 성당에서 상담을 받게 됨
	성당 사람들의 관심으로 손자가 성당활동에 참여하게 됨
	성경필사와 친구들의 지지로 마음을 잡아감
	성경필사와 성당의지지, 손자의 변화된 모습에 자존감을 회복함
사례 2	뇌수술을 받았음에도 우울증에 걸린 차남 머느리를 대신하여 두 손자를 돌보기로 결심
	장남의 지지로 근근이 손자 돌봄을 이어감.
	수급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주거가 열악하여 늘 궁핍한 생활을 이어감
	가사로 인해 무릎의 통증 등 육체가 허약해 짐
	손자를 키우면서 과거 삶에 대한 회한이 발생함.
	예배를 통해 위로를 얻고 목사의 지지로 심리적 안정감을 되찾음
	머느리의 반항으로 우울했으나 철이 든 손자가 위로로 건디는 힘이 됨
사례 3	친아버지보다 더 자상한 큰아버지의 도움으로 손자들이 잘 자라며 성숙해짐
	남편의 유산은 장남의 빚 변제로 소요되고 궁핍함 속에서 두 손자녀를 양육하게 됨
	거주지를 제공하고 아빠 노릇을 자처한 차남의 희생으로 어려움을 이겨감
	고령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체질이 가장 귀중한 돌봄 자산
	어린이집 원비를 배려해주는 목사 사모지지로 신앙을 갖게 되어 삶을 버티는 힘이 됨.
	통장의 복지관 자원 연계와 이웃들의 세심하고 배려있는 지지로 다양한 후원을 받음
아내를 찾으러 갔던 장남이 돌아와 장남을 의지하며 안정감을 갖게 됨	

사례 4	미혼모인 딸이 낳은 손녀를 입양 보낼 수 없어 자신이 양육하기로 함
	생계가 힘들어 손녀의 출생신고와 학교입학이 모두 1년씩 미루어짐
	친모의 새가정 소식을 듣고 손녀는 부적응적인 행동을 하며 학교를 그만둠
	SH공사 임대아파트에 당첨되어 주거안정은 갖추게 됨
	청년수당에 의지하여 미래에 대한 기약 없이 살아가는 손녀에 대한 실망과 낙담
	자궁암 수술, 당뇨 등 질병이 있지만 의료보호에만 의지하고 큰 병원에 가지 않음
	교인이나 교회 사람들에게 힘든 마음을 이야기하지 않고 기도로서 삶을 이어감
	남편이 죽은 후 계자녀들과 관계가 단절되어 우울하고 자존감이 낮아짐
친딸이 이혼하고 손녀가 함께 사는 것을 반대하면서 우울감이 깊어짐	
사례 5	아들의 이혼 후 8개월 된 손자를 맡은 후 돌보기 위해 일을 그만둠
	지인이 준 정보로 수급자가 되어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음
	가세를 기울게 한 아들로 인해 화가 나나 손자가 아들같이 여겨 의지할 수 있음
	손자가 학교에서 모범생으로 상을 많이 타고 학비도 거의 들지 않음
	교회 봉사하며 재정적, 정서적 지지를 받아 손자와 조모 모두 심리적으로 안정됨
	잘 아프지 않은 건강한 체질로 손자를 키우면서 거의 아프지 않음
사례 6	치매 시아버지로 지쳐있는 상황에서 며느리의 가출로 6살 된 손녀를 맡음
	성인자녀들과 사이가 좋지 않아 자주 갈등을 겪으며 자살시도를 한 적도 있음
	남편이 사고로 죽은 후 얼마 후 간경화였던 장남도 사망해 우울증과 무망감이 생김
	손녀를 키우면서 술을 마시는 손녀 및 성인자녀와의 갈등이 끊이지 않음
	골절사고까지 나 힘든 상황에서도 폐휴지를 주워 근근이 삶을 이어감
사례 7	고부간의 갈등과 며느리의 탈선으로 손녀들을 맡게 되어 며느리를 원망함
	밤잠을 줄여가며 억척스레 일을 하며 손녀들을 양육함
	어린 손녀들 양육으로 친정어머니 임종을 못보고 장례도 못간 것이 한이 됨
	며느리가 손녀들에게 만나 손녀들이 며느리를 닮을까 불안하고 우울함
사례 8	일하는데 자신이 있어 수급 신청을 안했으나 최근 병이 들어 신청 하려고 함
	아들의 이혼에 외도한 며느리가 진 빛까지 청산하게 되어 우울과 절망에 빠짐
	환갑의 나이에 어린 손자녀들을 키우면서 자유 속박과 살림살이에 지치고 화가 남
	며느리 가족들이 손자녀들에게 연락하는 것에 못마땅하고 화가 남
	아들이 전 며느리 가족들과의 교류에 제대로 처신하지 못하는 것이 화가 남
	건강한 체질과 남편을 여의었을 때 만난 예수님을 믿는 신앙심이 버티게 해줌
주민센터, 복지관의 혜택과 교회의 지원, 임대주택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헤쳐 나감	
사례 9	장남의 이혼과 가출, 무책임함으로 손자녀들을 떠맡게 됨
	아는 장로의 정보제공으로 수급자가 되어 경제적인 도움을 받음
	손자녀들을 위해 엄마처럼 애썼으나 엄마의 자리를 채워 줄 수 없음을 깨달음
	무책임한 장남의 빛까지 갹아줌
	손자가 방황해 힘들었으나 손녀는 철이 들어 할머니를 엄마처럼 여기고 배려함
	힘들 때마다 기도했던 신앙심이 가장 큰 힘이 되어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게 됨

사례 10	일하면서 갑자기 어린 손녀를 맡게 되어 당황하고 장남의 무책임에 분노함
	일을 포기하지 않고 손녀를 기관에 맡겨 제대로 된 양육이 이루어지지 않음
	직장 후배가 손녀를 돌봐주며 손녀가 잘 따라 큰 힘이 됨
	학교 연계로 상담센터를 전전했으나 갈 때마다 상처를 받음
	간수술로 건강에 대한 염려가 생길 때마다 자녀들과 이런 현실에 대한 원망이 올라옴
	바쁜 생활로 신앙을 돌보지 못해 큰 힘을 얻지 못함

(2) 연대기적 분석(Chronological Sequences)

사례별 분석 단위 내용에 ‘시간’이라는 변수를 적용하여 분석 단위들의 인과적 연결고리를 확인하는데, 단순히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들을 배열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인과관계를 조사하는 중요한 목적이 있다(김소영, 2016). 이를 위해 조손가족 형성 후 연차 및 조모와 손자녀들의 나이에 따라 주요 사건을 배치하는 표를 작성하고 인과 관계 분석을 다음 3단계로 진행했다.

첫 번째 단계는 ‘스트레스 환경’을 시간의 순서대로 배열하는 것으로 관계적 요소는 (관), 경제적 환경은 (경), 신체적 환경은 (신)으로 표시하고 각 요소가 시작된 시점에서 표기되도록 배치하였다.

두 번째 단계는 ‘결과 또는 대처’이며 면담 자료를 반복적으로 검토하면서 앞에서 배열한 스트레스 환경의 결과나 대처를 인과적 관계로 파악하여 심리적 상황은 (심), 사회적지지는 (사)로 표시한 후 화살표(→)로 인과성을 나타냈다. 조손가족 이전부터 있었던 대처 요소는 두 개의 화살표(→→)로 가장 하단의 조손가족 1년차 위치에 표시하였다. 이렇게 각 요소의 시간적 배열 후 그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작업은 적응 과정 분석의 핵심이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여러 요소 중 적응 과정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친 사건들을 결정적 요소(Critical Factor)로 보고 네모점(■)으로 표시하였다. 결정적 요소는 면담 자료를 검토하면서 연구 참여자가 진술할 때 강조하거나 반복해서 말한 내용, 연구자가 현장에서 기록한 현장 노트의 기록 등을 추출하여 판단하였다. 사례별로 결정적 요소의 개수를 정하지 않고 자료에 충실히 근거하여 추출하였다.<sup>1</sup>

① 사례 1

조손가족연차	1	2	3	4	5
조모나이	75	76	77	78	79
손자나이	14	15	16	17	18
손자반향(관)→조모신체상해(신)					

1) 이 표기는 청년노숙 진입과정을 Yin의 방법론으로 연구한 김소영(2016)의 방법을 참고하였다.

■손자 경찰신고(관)→혈압, 이석증(신),못키우겠다는 절망(심)
■성당도움요청(사)→손자상담 및 적응(사)→관계회복
손녀특수반(관)→장애인수급(경)
→→ 성경필사(사) → 감사 및 자부심(심)
→→ 친구들 모임 꾸준히 참석(사) → 친구들의 꾸준한 방문(사)

② 사례 2

조손가족연차	1	2	3	4	5	6	7	8	9
조모나이	69	70	71	72	73	74	75	76	77
큰손자나이	12	13	14	15	16	17	18	19	20
■좁은집(경)→ 장남의지(관)									
■고된가사(관)→무릎통증(신)→깊은 회한(심)									
깊은 회한(심)→교회출석(관)→ ■교회의 지원과 위로(심)									
■머느리반항(관)→우울(심)→ ■큰손자의지(관)									

③ 사례 3

조손가족연차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조모나이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큰손자녀나이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장남빛상환(경)→우울(심)																
교회도움(사)→신앙(심)																
공공부조(경)→현실수용(심)																
■장남동거(사)→심리적안정(심)																
→→ ■건강한 체질(신)→심리적 안정(심)																

④ 사례 4

조손가족연차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조모나이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1	72	73	74	75	76	77	78
손녀나이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생계고역(경)→암수술(신)																				
■손녀등교거부상담실패(관)→우울(심)																				
■주거불안(경)→불안(심)																				

임대주택(경)→안정(심)
남편사망(관)→우울(심)
■계자녀단절(관)→우울(심)
■친딸이혼(관)→우울(심)

⑤ 사례 5

조손가족연차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조모나이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손자나이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아들카드빚상환(경)→우울(심)																				
지인도움(관)→수급자지정(경)																				
아들재혼(관)→손자녀밀착(심)																				
■교회지원(경)→신앙(심) ■손자모범(관)→안정(심)																				
→→ ■건강한체질(신)→심리적안정(심)																				

⑥ 사례 6

조손가족연차	1~5	6~10	11~15	16~22
조모나이	54~58	59~63	64~68	69~76
손자녀나이	8~12	13~17	18~22	23~30
손녀반항(관)→우울,분노(심)				
■삼남과 갈등(관)→자살기도(신,심)				
■남편사망,장남병환및사망(관)→우울,불면(심)→손녀와갈등(관)				
수급자혜택,주거불안(경)→폐휴지줍기(경)				

⑦ 사례 7

조손가족연차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조모나이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89	
큰손녀나이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머느리원망(관)→우울,분노(심)																										
친정엄마 임종 못지킴(심)→우울,분노(심)																										
■머느리가 손녀들에게연락(관)→우울,분노(심)																										
■부정맥,뇌경색(신)→우울,분노(심)																										

⑧ 사례 8

조손가족연차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조모나이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큰손녀나이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머느리빛 청산(경)→우울(심) 경제적 어려움(경)→교회의 지원(경), 임대주택(경) ■손자탈선(관)→우울(심) ■아들원망표출(관)→우울(심) ■머느리가족연락(관)→우울(심) →→ ■건강한 체질(신), 신앙심→심리적안정(심)																				

⑨ 사례 9

조손가족연차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조모나이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큰손자나이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장로의 정보제공(관)→수급자(경) 심장비대증(신)→우울(심)→상담(심) 장남 빛상환(경)→경제적 어려움(경) ■손자탈선(관)→우울(심) 손녀동거, 딸같은손녀(관) →관계유지(관) →→ ■신앙(심)→극복의 힘(심)																					

⑩ 사례 10

조손가족연차	1	2	3	4	5	6	7	8	9	10	11	12
조모나이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손녀나이	2	3	4	5	6	7	8	9	10	11	12	13
■양육과 일 양립 어려움(관)→원망, 분노(심) ■직장후배의 도움(관)→안정(심) 간이식수술(신)→회환(심) ■손녀와 갈등(관)→우울(심)												

## 2. 분석

### (1) 스트레스 환경 분석

연대기적 방법으로 도출한 인과 관계에서 ‘원인’에 해당하는 내용 중 결정적 스트레스 원인을 중심으로 패턴을 찾고 예측하지 않았던 변수를 자료에서 찾아 경쟁설명을 통해 판정한다. 분석 결과 10개의 사례의 핵심 경험에서 드러난 결정적 스트레스 환경은 아래 표와 같이 총 24개이다.

표 5. 스트레스 환경 - 패턴 매칭 분석

	사례	결정적 스트레스 요인	분류	스트레스 원인 관계 대상	심리적 상황	경쟁적 독립변수
1	1	손녀와의 관계	(관)	손자녀	못키우겠다는 절망	조모의 성격
2	1	혈압, 뇌졸중	(신)		우울	조모의 가치관
3	2	좁은 집	(경)		우울	
4	2	고된 가사	(관)	손자녀	깊은 회한	타향살이
5	2	무릎 통증	(신)		우울	
6	2	며느리반항	(관)	며느리	우울	굴곡진 삶
7	3	장남의 빛 상황	(경)		우울	
8	4	손녀등교거부, 상담실패	(관)	손자녀	우울	
9	4	주거불안	(경)		불안	
10	4	계자녀 관계 단절	(관)	성인자녀	우울	조모의 자존감
11	4	친딸이혼	(관)	성인자녀	우울	조모의 가치관
12	5	아들카드빚상황	(경)		우울	
13	6	삼남과 갈등	(관)	성인자녀	자살기도	굴곡진 삶
14	6	남편 사망	(관)	남편	우울, 불면	조모의 가치관
15	6	장남 사망	(관)	성인자녀	우울, 불면	
16	7	며느리원망	(관)	며느리	우울, 분노	조모의 가치관
17	7	며느리가 손녀들에게 연락	(관)	며느리	우울, 분노	
18	7	부정맥	(신)		우울, 분노	
19	8	손자탈선	(관)	손자녀	우울	타향살이
20	8	며느리가족이 손자녀에게 연락	(관)	며느리	우울	
21	8	아들원망표출	(관)	성인자녀	우울	

22	9	손자탈선	(관)	손자녀	우울	
23	10	양육과 일 양립 어려움	(관)	손자녀	원망, 분노	조모의 가치관
24	10	손녀와 갈등	(관)	손자녀	우울	

조손가족 조모의 적응 과정에서 스트레스의 주요 원인은 관계적인 요인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되고 신체적, 경제적 요인이 그 뒤를 따른다. 관계적 스트레스의 관계 대상은 손자녀, 성인자녀, 며느리, 남편 순으로 가족과 관련된 관계에서 오는 심리적 스트레스가 주요 요인이다. 이 중 손자녀의 갈등과 성인자녀와의 갈등은 거의 모든 참여자들에게 있었고 신체적, 경제적 요인은 참여자 진출뿐 아니라 현장기록에서도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었다. 다음은 각 요인에 대한 대표 진술들이다.

### ① 손자녀와의 갈등

자기 뜻대로 안되면 나를 꼬집고 때리더라고. 얼마나 놀랐던지. 막 혼을 내줬더니, 글썽 112에 전화를 하더라고. 아이고... 그래서 경찰이 왔어.. 난 손자 오기 전에는 건강했는데 그 일로 충격을 받아서 몸이 너무 안 좋아 진거야... 지금까지도 혈압이 높고 안 좋아... (사례 1 연구 참여자)

손자가 고등학교 겨우 나왔어요. 고등학교도 내가 쫓아다니면서 겨우 보냈어요. 자느라고 학교를 안가니 깨워서 보내고 깨워서 보내고... 매일 얼마나 힘들었는지. 담배피우다 몇 번을 걸리고... 그럼 내가 가서 또 손이야 발이야 빌고... 그 놈 때문에 내가 학교를 몇 번을 찾아갔는지... 선생님을 만나 '선생님, 내가 엄마 없이 키웠어요.' 하면 선생님도 어떨 때는 퇴학시킬라 하다가 '할머니가 이렇게 애쓰고 다니시니 졸업은 시켜주겠습니다' 하더라. 그래서 졸업을 겨우 했어요.(사례 8 연구 참여자)

### ② 성인자녀와의 갈등

성인자녀와의 갈등도 스트레스의 주요 원인이다. 조손가족 형성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성인자녀가 주된 갈등 대상이지만 다른 자녀들로 인한 스트레스 상황도 있었다.

'이놈아 내가 니 새끼 봐주러 온 거를 땅치고 후회한다.' 내가 지금도 이렇게 막 해대. 안 그러면 살 수가 없어. 어떤 때는 내 혼자 막 울어. 속이 상해서. 이놈이 날 이렇게 고생시키나 싶어. 뭐 배운다고 빛내서 키웠더니 지 가정도 하나 못 지키고 이제는 이 놈이 낳은 새끼들 뒤치다꺼리까지... 놀



러도 하나 못 갔어... 내가 후회한다고 욱해. '너 때문에 내가 빨리 죽고 싶다' 하고 소리쳐. 그럼 아들이 미안해하지. (사례 8 연구 참여자)

손녀 키우면서 아들하고도 많이 싸웠어. 애(조카)를 너무 잡는다고 뭐라고 하잖아. 엄마도 없는 애 불쌍히 여겨주지 못한다고 손녀 딸 앞에 두고 나를 나무라는 거야. 그게 더 속상해. 조카를 앞에 두고 나를 그렇게 무시하면... 그게 더 속상해. 시어머니처럼.. 아버지처럼 그것들이 또 그래... 내가 아들놈한테 이렇게 무시당하니 억울하고 분이 나서 너무 힘들었지. (사례 6 연구 참여자)

### ③ 며느리와 갈등

조모에게 있어 조손가족 형성의 원인이 된 며느리나 며느리네 가족 생각만 해도 화가 치미는 존재이다. 손자녀를 키우면서 전며느리가 자녀나 손자녀들과 연결되어 영향을 주는 것을 보는 조모는 극한 스트레스를 받으며 분노를 느낀다. 연구 참여자들은 전 며느리를 '그 여자', '계집애'로 표현하며 분노 표현을 숨기지 않았다.

이 엄마라는 것이 애들 주변에서 뱅뱅 돌면서 애들을 불러내. 애들을 데리고 나가서 자고 땡기고 그래. 지 친정에 뭘 일이 생기면 애들을 끼고 가요. 내가 복장이 터져요.. 애들이 그 여자 만나고 오면 애들이 하나도 배울 것이 없어... 그 여자에게는 못된 것만 배우지..우리 손녀한테도 내가 뭐라고 그래. 그 여자한테는 좋은 거 못 배운다고... (사례 7 연구 참여자)

### ④ 경제적 요인과 신체적 요인

신발장이 없고 얇은 철문 열면 바로 복도. 복도에 걸린 손자들 가방과 운동화. 한 사람이 누우면 다른 가족들이 다닐 수 없는 협소한 집안 구조(현장 기록 F-2-2-7)

면담을 위해 사례 2 연구 참여자의 집에 방문했을 때의 기록이다. 성인자녀들과 살지 못한 것은 관계 때문이 아니라 집이 좁아 함께 살 수 없는 상황 때문이었고 손자들이 커가면서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협소했다.

병원에서 준 봉투. 약과 각종 영수증, 기록 등이 가득. 신경질(직접관찰 O-7-2-1)

사례 7 연구 참여자는 건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방에 들어가 큰 쇼핑백을 가져왔다. 그 안에

있는 각종 병원 기록과 영수증, 약 등을 보여 주면서 매우 신경질적으로 이야기 했는데 몸이 아프고 병원비가 많이 드는 데에 스트레스가 심했다.

⑤ 경쟁적 독립변수

자료에서 추출한 경쟁변수는 조모의 성격, 조모의 자존감, 조모의 가치관, 타향살이, 굴곡진 삶 등이다. 분석결과 조모의 성격, 타향살이, 굴곡진 삶은 스트레스가 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조모의 가치관과 조모의 자존감은 적응 과정에서 직접적인 스트레스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2) 대처 및 사회적지지 분석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는 종속변수 개념으로 분석되며 앞에서 수행한 방법과 동일하게 패턴 매칭을 활용한다. 독립변수 패턴 매칭과 달리 종속변수 패턴 매칭은 ‘타당성을 위협할 수 있는 요소’를 검토한다(Yin, 2016). 앞에서 도출한 24개의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대처를 패턴 매칭으로 분석한 결과 아래 표와 같이 교회/성당, 성인자녀, 손자녀의 학교 그리고 ‘대처자원 없음’으로 드러났다.

표 6.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대처 - 패턴 매칭 분석

	사례	결정적 스트레스 요인	대처	사회적 지지	사회적지지 상위수준	타당성 위협요소
1	1	손녀와의 관계	성당에 도움 요청	성당	공적지지	조모성격
2	1	혈압, 뇌졸중	신앙의지, 성경필사	성당	공적지지	
3	2	좁은 집	장남의지	성인자녀	사적지지	
4	2	고된 가사	장남의지	성인자녀	사적지지	형제애
5	2	무릎 통증	교회출석	교회	공적지지	
6	2	머느리반항	손자의지	손자녀	사적지지	
7	3	장남빛상환	성인자녀의지	성인자녀	사적지지	형제애
8	4	손녀등교거부, 상담실패	학교/공공기관 상담	학교	공적지지	
9	4	주거불안	공공부조	교회, 공공부조	공적지지	
10	4	계자녀관계단절	친딸과 교류	성인자녀	사적지지	
11	4	친딸이혼	대처자원없음			
12	5	아들카드빛상환	수급자지정, 신앙심	교회, 이웃, 남편, 손자녀	공적지지	

13	6	삼남과 갈등	대처자원없음			
14	6	남편 사망	대처자원없음			
15	6	장남 사망	차남도움	성인자녀	사적지지	
16	7	며느리원망	대처자원없음			
17	7	며느리가 손녀들에게 연락	대처자원없음			
18	7	부정맥	대처자원없음			
19	8	손자탈선	신앙	교회	공적지지	조모성격
20	8	며느리가족이 손자녀에게 연락	신앙	교회	공적지지	
21	8	아들원망표출	신앙	교회	공적지지	조모성격
22	9	손자탈선	신앙	교회	공적지지	
23	10	양육과 일 양립 어려움	직장후배	직장후배	사적지지	조모성격
24	10	손녀와 갈등	상담	학교	공적지지	

스트레스에 대한 조모의 대처를 각 대표 자료들과 함께 살펴본다.

### ① 신앙

신앙 가진 게 참만 다행이여. 내가 지금 교회 안다녔으면 뭐하고 있을까. 경로당가서 술먹고 화투나 칠라나. 권사님들도 목사님들도 잘 만나서 너무 잘했어. 목사님이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손자 위해서 기도해주시고 하니까 저런 분이 어딴나. 천만다행이지. 목사님 내외분이 잘 해줘. 교회가면 마음이 편안해. 아이들 덕에 교회 갔는데 기도도 하고 설교를 듣고 하니까 마음이 설라서 이런 거 저런 거 다 제쳐놓고 하나님을 믿어보자 한거여. 교회 나오기 시작한 뒤로 위로 많이 받았지. 수요일도 가고 찬송하고 기도하면 마음이 싹 풀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거 같아... (사례 2 연구 참여자)

교회에서 준 반찬 및 빵(직접 관찰 O-2-2-1)

일주일 뒤 사례 2 연구 참여자와의 두 번째 면담을 위해 연구 참여자의 집으로 갈 때는 교회 목사가 노인들을 위해 사역하는 날이어서 교회의 승합차를 타고 몇 집을 돌아 연구 참여자 집으로 갔다. 목사와 사모가 동행해 도착 몇 분 전 전화하면 노인들이 약속 장소로 나와 반찬이나 빵을 받는 모습

이 매우 익숙해보였다.

손주들을 집 앞에 어린이 집에 맡겼는데 교회에서 하는 거라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처음에야 모르고 집 앞에 있으니 그냥 보냈지. 그 원장님이 목사님 사모님인데 우리 애들이 엄마 없는 거 알고 많이 도와줬어요. 돈 내는 것도 많이 봐주고.. 집 앞에 그 교회가 있었던 게 감사하죠..나도 애들 때문에 처음 교회를 간 거야. 믿는 데가 있으니까 마음에 편해요.. 일요일 날이면 애들이 열심히 가요. 나도 ‘니들은 엄마도 없는데 누가 도와주니 하나님이 도와주지’ 하고.. 다 그 교회 잘 나왔어요.(사례 3 연구 참여자)

## ② 성인자녀 및 손자녀

우리 작은 아들이 어린 것들 데려다가 아빠처럼 하면서 고생 많이 했지. 애들이 처음에 엄마 찾고 울었는데 작은 아빠가 정들이느라고 많이 놀아주고 그랬더니 작은 아빠를 아빠라고 불렀어. 진짜 아빠는 큰아빠라고 하고. 애들이 아빠라고 하면 작은 아들도 좋아하더라고. 처음에 이것들을 어떻게 키워야 하나 고민이 많았는데 작은 아들 없었으면 못했죠.(사례 3 연구 참여자)

작은 아들하고 벌어서 같이 애들을 키웠지. 늙은 엄마가 애기 키우는걸 보고 어떻게 안도와주나. 같이 했지. 어떻게 보면 삼촌이 애 아범이야. 조카 업고 다니고 안고 끼고 다니고 그러면서 키웠으니까... (사례 7 연구 참여자)

손자녀가 대처가 된 사례가 있었다. 사례 5 연구 참여자는 첫 번째 면담에서 손자 이야기를 하다 연구자가 부탁도 하기 전에 ‘내 보여드릴게’ 하더니 두 번째 면담에서 손자가 받은 상장들을 잊지 않고 가져와 보여주며 자랑하였다.

손자가 받은 상장들 (직접관찰 O-5-2-1)

표창장 3개로 효행상, 모범청소년상, 구청장상이었다. 이러한 상장들이 교사의 추천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손자가 학교에서 얼마나 모범적으로 지냈는지를 알 수 있었고 조모인 연구 참여자 또한 그것을 자랑스러워하고 있어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대처로 작용했다. 또한 시간이 흘러 손자녀가 성인이 되면서 조모의 대처에 큰 힘이 되어 의지가 되는 사례도 있었다.

### ③ 손자녀의 학교

손녀가 학교를 안가니까 학교에서 연결해준 상담선생이 왔는데.. 더 힘들게 했어. 한 달 있다가 선생이 또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했던 이야기를 또 해야 하니까 애가 어떨겠어. 그 다음엔 멘토 선생님이 왔는데 그 선생이 1주일에 한번 오는 것을 핑크를 내. 애는 나가지도 않고 그 시간을 기다리는데 그게 얼마나 아이에게 안 좋은지... 좋은 선생님이 있다가도 얼마 있다 그 선생님이 가면서 다른 선생님이 오니까 사람에게 실망하고.. 나중엔 문도 애가 안 열어주더라고. 오히려 마음이 닫히더라고.(사례 4 연구 참여자)

상담을 20년인가 하셨다는데.. 아이를 옆에 놓고 말을 함부로 하더라고요. 애 머리가 굉장히 나빠서 학습도 못 따라 갈 거라고.. 아이큐가 두 자리고 애가 산만하다고.. 그렇게 애 듣는데서 함부로 이야기하면서 무조건 약 먹으라고... 우리 손녀가 나중에 자기가 보기에 그 선생이 더 산만한데 그 사람이 의사가 맞냐고 하더라고요. 학교에서 연계해준 곳인데 의사가 인성이 기본적으로 안 되어있고 돈만 벌려고 해서 너무 실망했어요. (사례 10 연구 참여자)

### ④ 대처자원이 없음

사례 4의 친딸의 이혼이나 사례 6의 남편 사망, 삼남과의 갈등을 겪은 조모들은 어떠한 대처를 하지 못해 지금까지 우울감과 허망함을 느끼고 있었다. 이 부분을 이야기할 때 연구 참여자들은 헛웃음을 짓거나 ‘땀을 디디면 허공을 잡는 것 같이 혼이 나갔다’라는 진술을 했다. 사례 7 연구 참여자가 며느리에게 갖고 있는 원망, 며느리가 손녀들에게 연락하는 일에 대해 아들이 방관하는 것 등은 대처가 없어 지금까지도 스트레스 상황으로 남아있고 몸이 아픈 것 또한 성인자녀들이 있어도 병원비와 병원 왕래를 혼자 해결해가고 있어 마땅한 대처가 없었다.

### ⑤ 타당성 위협 요소

대처 자원의 분석에서 타당성을 위협하는 요소는 ‘형제애’와 ‘조모의 성격’이 도출되었다. 자녀나 손자녀의 형제애는 사적지지의 일부로 조모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간접적인’ 대처로 기능해 주 대처 자원을 강화하는 요소이지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대처로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으나 조모의 성격은 관련 진술 분석 결과 그 자체로는 사회적 지지는 아니지만 사회적 지지를 연결하는데 직접적이거나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이 확인되었다. 사례 1, 사례 8 연구 참여자의 적극적인 성격은 교회나 지역 사회 자원이라는 사회적 지지로 연결되었다.

### 3. 해석

#### (1) 적응 유형 분석

10개의 사례로부터 제시된 증거들을 표의 형태로 재배열하여 반복연구논리(replication logic)로 분석하는 사례통합은 사례를 유형별로 분류하는데 유용한 분석 작업이다. 조손가족 조모의 적응 과정의 핵심은 정서적 지지를 제공한 사회적 지지이며 지금까지 분석 결과에 따라 사회적 지지를 기준으로 사례를 통합하여 도출된 사례별 적응 유형은 다음 표와 같다.

표 7. 사례통합으로 도출된 사례별 적응 유형 분류 1

사례	스트레스요인 / 관계대상	사회적 지지	사회적지지 상위수준	적응유형
1	손자녀	성당	공적지지	종교 기관과 종교적 지지를 통한 자존감의 회복
	신체적요인	성당	공적지지	
2	경제적 요인	성인자녀	사적지지	성인자녀의 희생 위에 성인자녀와 종교적 지지를 의지해 헤쳐나감
	손자녀	성인자녀	사적지지	
	신체적요인	교회	공적지지	
	며느리	손자녀	사적지지	
3	경제적요인	성인자녀	사적지지	성인자녀의 희생으로 안정감을 찾음
4	손자녀	학교	공적지지	공적지지의 실패 및 손자녀 및 성인자녀와의 관계의 지속적인 어려움으로 우울을 극복하지 못함
	경제요인	교회, 공공부조	공적지지	
	성인자녀	성인자녀	사적지지	
	성인자녀	-	자원없음	
5	경제적요인	교회	공적지지	종교 기관과 종교적 지지를 통한 일상의 유지
6	성인자녀	대처자원없음		대처자원의 미약한 상황에서 손자녀 및 성인자녀와의 관계의 지속적인 어려움으로 우울을 극복하지 못함
	남편	대처자원없음		
	성인자녀	성인자녀	사적지지	
7	신체적 요인	대처자원없음		대처자원이 없어 불안과 우울을 극복하지 못함
	며느리	대처자원없음		
	며느리	대처자원없음		
8	손자녀	교회	공적지지	종교 기관의 물적, 정서적 지지로 극복해나감
	며느리	교회	공적지지	
	성인자녀	교회	공적지지	

9	손자녀	교회	공적지지	신앙을 의지하여 마음과 관계의 평안을 유지함
10	손자녀	직장후배	사적지지	직장 후배의 도움으로 겨우 적응해나갔으나 공적지지의 실패로 손자녀 양육이 감당이 안 됨
	손자녀	학교	공적지지	

사회적 지지를 기준으로 사례를 통합한 후 상위 유형으로 분류하는 작업과 앞에서 주제화 코딩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다시 검토하고 확인하는 작업을 거쳐 다음과 같이 4개의 유형을 도출하였다.

표 8. 사례통합으로 도출된 사례별 적응 유형 분류 2

적응유형	적응유형 설명	사례
종교지지형	종교 기관의 지지, 신앙심을 통한 자존감 및 일상의 회복	1, 5, 8, 9
성인자녀희생형	(조손가족 형성의 원인이 된 자녀가 아닌) 성인자녀의 희생 위에 종교 등 다른 자원을 의지해 헤쳐나감	2, 3
공적지지실패형	공적지지의 실패를 경험하며 우울과 불안을 극복하지 못함	4, 10
대처자원미약형	대처 자원이나 자원 활용이 미약한 상황에서 관계의 지속적인 어려움 및 우울을 극복하지 못함	6, 7

### ① 종교지지형

이 유형의 조모들은 손자녀를 맡게 된 상황에서 신앙이나 종교 기관을 의지하였고 종교를 통한 물질적, 심리적 지지는 스트레스 환경에 대한 결정적 대처가 되었다. 스트레스 요인은 모두 달랐으나 손자녀를 맡기 전부터 독실한 신자였다는 공통점이 있어 신이 자기를 돕고 자신의 기도를 들어 준다는 믿음이 버터내는 힘의 원천이었다. 또한 이들은 종교 기관의 교역자나 동료들과 자신이 처한 상황을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도움을 받는 토대가 되었다. 이들이 받은 도움은 상담 지원, 현금 및 학원비 등 지원, 심방과 예배를 통한 정서적 지원 등으로 매우 실제적이고 다양했다. 이 유형의 조모들은 손자녀를 키운 의미에 가족, 손자녀 수용을 보여주었다.

### ② 성인자녀의지형

이 유형의 조모들도 신앙은 있었으나 성인자녀가 우선적인 대처가 된 후 신앙을 의지하는 양상을 보였다. 손자녀를 맡으면서 신앙을 갖게 된 조모들이 이 유형에 속하였으나 이것이 이 유형이 되는 결정적 기준은 아니다. 이들은 손자녀를 맡게 된 시점에 미혼인 다른 성인자녀들이 있었고 주거 및 생활비 제공 등 아빠 역할을 하며 희생한 성인자녀들은 자신들의 가정을 이루지 못하였다. 조모들은 손자녀를 맡긴 성인자녀에 대한 아픔과 함께 희생한 성인자녀에 대한 안타까움과 미안함이 더한

고통을 신앙에 의지하며 위로하고 있었다. 이들에게 손자녀를 키우는 삶의 의미는 ‘가족’이었지만 이 ‘가족’은 종교지지형과 달리 그 의미가 성인자녀 중심이었다.

### ③ 공적지지실패형

이 유형의 조모들은 공통적으로 학교에서 연계해준 상담에서 큰 상처를 받은 경험을 겪었다. 이들은 성인자녀들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손녀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공적지지가 실패하면서 어려움이 오히려 가중되었다. 무엇보다 그 공적지지가 ‘학교’, ‘상담’이라는 공통점이 있는데, 손자녀에게 매우 중요하고 영향이 큰 이 두 가지가 오히려 트라우마와 같은 작용을 했다는 것이 그 후로도 조모에게도 극복하기 힘든 일이 되었다. 종교와 관련하여 이들은 공통적으로 이들은 손녀를 키우기 전부터 신앙이 있었지만 교회 내 관계는 돈독하지 않았다. 자원이 별로 없고 공적지지의 실패를 경험한 이들에게 손녀를 키우는 의미는 ‘후회’ 또는 ‘다시 한다면’의 마음이었다.

### ④ 대처자원미약형

이 유형은 적응 과정에서 스트레스에 가장 잘 대처하지 못한 부류이다. 이 유형에 속한 조모들에게 대표적인 대처 자원인 종교나 성인자녀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자원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이 유형에 속하는 두 연구 참여자 모두 미혼 성인자녀와는 사이가 좋지 않았다. 조손가족 형성의 원인이 된 자녀를 두둔하고, 희생하고 있는 자녀에게 희생을 더욱 강요하는 듯한 조모의 태도는 성인자녀와의 관계의 악화를 가져오거나 신앙은 있어도 성인자녀와의 갈등에 묻혀 대처 자원이 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 (2) 적응 단계 분석

64개의 주제문을 스트레스-대처-적응 과정에 대입하여 조손 가족 조모의 적응 과정만의 특징이 나타나는지 패턴 코딩을 한 결과 스트레스 주제문은 33개, 대처 주제문은 19개였으며 이들의 상위 개념을 도출한 결과 스트레스는 ‘충격 및 혼란’으로, 대처는 ‘사회적지지’로 분석되었다. 여기에서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주제문 12개가 있어 중간 단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표 9. 중간 단계의 주제문

주제문	범주화	상위개념	유형
성당 신부에게 도움을 청해 손자가 성당에서 상담을 받게 됨	적극적, 자발적인 도움요청	적극적인 도움요청	종교지지
잘 아프지 않은 건강한 체질로 손자를 키우면서 거의 아프지 않음	건강한 몸이 가장 큰 자산	건강한 몸	종교지지
고령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몸이 가장 귀중한 돌봄 자산			성인자녀
건강한 체질과 남편을 여의었을 때 만난 예수님을 믿는 신앙심이 버티게 해줌	신앙을 의지	신앙을 의지, 종교 기관을 동반자로 여김	종교지지
교회에서 봉사하며 재정적, 정서적지지를 받아 손자와 조부모 모두 심리적으로 안정됨	보답의 마음으로 더욱 섬김		
힘들 때마다 기도했던 신앙심이 가장 큰 힘이 되어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게 됨	기도로 평안 유지		
밤잠을 줄여가며 억척스레 일을 하며 손녀들을 양육함	억척스럽게 일함	자신을 의지, 종교 기관을 신뢰하지 않음	자원미약
일하는데 자신이 있어 수급 신청을 안했으나 최근 병이 들어 신청 하려고 함	자신을 믿음		공적실패
교인이지만 교회 사람들에게 힘든 마음을 이야기하지 않고 기도로서 삶을 이어감	교회에서 마음을 열지 않음		
가세를 기울게 한 아들로 인해 화나 나나 손자를 아들 같이 여겨 의지할 수 있음	현재 관계를 소중히 여김	손자녀를 우선시 함	종교지지
일을 포기하지 않고 손녀를 기관에 맡겨 제대로 된 양육이 이루어지지 않음	손자녀보다 일을 선택함	일을 우선시 함	공적실패
바쁜 생활로 신앙을 돌보지 못해 큰 힘을 얻지 못함	신앙보다 일을 선택함		

이처럼 조모 자신의 자원이거나 선택을 담고 있는 단계는 ‘충격 및 혼란’이나 ‘사회적 지지’ 사이에 있는 ‘중간’ 단계로 조손가족 조모의 적응 과정에서 사회적 지지와의 연결을 보다 구체적 파악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적응 과정은 충격 및 혼란 단계→중간 단계→사회적 지지 단계→적응 단계로 분류되었다.

① 충격 및 혼란 단계

이 단계는 조모가 노년의 시기에 손자녀를 책임지는 피할 수 없는 일을 갑작스레 겪으면서 큰 충격을 받고,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인 손자녀를 키우는 현실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갈등에 의한 극심한 스트레스로 분노와 원망, 우울감을 경험하며 혼란을 겪는 시기이다.

## ② 중간 단계

이 단계에서 조모는 혼란스러운 상황을 추스르며 선택을 하게 된다. 우선 이 단계에서 조모가 원래 가지고 있던 자원 중 건강과 성격은 적응 방향의 주요한 역할을 한다. 조모의 선택은 크게 두가지로 하나는 신앙에 관한 선택으로, 종교 기관을 동반자로 여기고 신앙을 의지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며, 다른 하나는 우선순위와 관련된 선택으로 손자녀를 우선시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다. 이 선택은 다음 단계인 사회적 지지와 부적응의 여부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 ③ 사회적 지지 단계

조모의 선택으로 연결된 사회적 지지가 드러나는 단계이다. 조모의 주변에는 대체로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사회적 지지가 존재했으며 분석 단계와 해석 단계 모두에서 신앙/종교 기관, 성인 자녀, 손자녀, 이웃과 학교 등이 비교적 분명하게 나타났다.

## (3) 최종 명제

지금까지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최종 명제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최종 명제 : 조손가족 조모의 적응 과정에서 스트레스는 경제적, 신체적 환경보다 관계적 환경이 결정적이며 이는 심리적 상황(우울, 자존감, 가치관)에 서로 영향을 준다.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는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는 사회적 지지의 영향이 커 적응에 영향을 주는데, 공적 지지에서는 종교 및 신앙이, 사적 지지에서는 성인자녀의 지지가 가장 두드러진다. 조손가족 조모의 적응 유형은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에 따라 종교지지형, 성인자녀희생형, 공적지지실패형, 대처자원미약형으로 나눌 수 있으며, 적응 과정 단계는 충격 및 혼란 단계→중간 단계→사회적 지지 단계→적응이다. 스트레스 환경과 대처 사이 중간 단계는 조모의 자원을 활용하거나 사회적지지 및 적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선택이 존재한다.

## IV. 논의

### (1) 조손가족 조모의 스트레스 요인에 관한 논의

그동안 조손가족의 가장 취약점은 경제적인 여건으로 여겨져 왔으나 본 연구는 결정적인 스트레스가 가족과의 관계임을 밝히고 있다. 조손가족은 성인자녀의 불행이 그 시작이고 원인이기 때문에 조모들은 조손가족이라는 새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성인자녀들의 아픔을 가슴에 묻고 지속적

으로 생각할 뿐 아니라 손자녀 양육으로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그 아픔을 재경험하는 일종의 트라우마와 같은 반응을 보이며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자녀와의 관계에서 삶의 의를 찾는 우리나라 여성 노인의 특징이기도 한데(이준상·김향아, 2017), 본 연구의 ‘대처자원 미약형’은 성인자녀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던 것이 자원을 활용하지 못하는 원인으로 드러났고 성인자녀와의 갈등은 손자녀, 며느리와의 관계 악화로 연결되므로 성인자녀는 조모의 심리뿐 아니라 노후 자체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존재임이 확인되었다. 조손가족 조모들의 우울의 원인을 손자녀 양육 또는 생계 문제에서 찾던 예전과 달리 최근 연구는 성인자녀와의 관계에 주목하고 그 해결책으로 용서가 제안되기도 했는데(박안나, 2020) 본 연구의 결과는 조손가족 가족상담에서 조모와 성인자녀와의 관계에서 어떠한 심리적 역동이 있는지를 면밀히 탐색해 호소 문제에 영향을 주고 있지 않은지 살펴보아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 (2) 조손가족 조모의 적응 유형에 관한 논의

스트레스 환경에 대한 대처는 종교가 가장 주요한 변수로 드러나 각 적응 유형을 잘 설명하는 기준이 되었다. 본 연구에서 신앙은 크게 ‘신앙심’과 ‘종교 기관의 지원’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었으나 공공기관을 통해 모집한 연구 참여자도 기독교인이 많아 종교가 있는 조모는 위기에 대응하는 ‘대처’로서 신앙을 의지하는 현상이 뚜렷했다. 이는 조손가족 조부모의 우울에 신앙심이 조절효과가 있음을 밝힌 연구와 내적 신앙이 조손가족 조부모의 자원이 된다는 질적연구들과 결과가 같은 것이다(송유미·이선자, 2011 ; 양경순, 2013 ; 안유숙, 2016). Pargament(1997)는 대처가 스트레스 상황의 의미를 찾는 과정으로 보고 극심한 스트레스 사건에 대해 ‘신과 함께 사건을 해결해나간다는 믿음’이라는 영적 자원으로 대처한 사람들이 위기에 더 잘 적응했다고 주장했다. 새로운 가치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종교는 지지자인 신을 의지하여 그 변화의 강을 건너가게 하기 때문에 수용과 변화의 힘 두 가지가 모두 있다고 본 것이다(Pargament, 1997). 본 연구의 연구 참여자들 또한 조손가족이라는 현실은 다시 겪고 싶지 않은 일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밖에 없더라’, ‘하나님께 다 맡겨.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생각하고 산다.’, ‘신앙이 없으면 나는 벌써 죽었을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이 상황에서 신을 의지하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 같아.’ 라는 수용과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는 고백으로 변화 과정을 지나가고 있었다. 또한 미혼인 성인자녀가 조손가족의 실질적인 가장 노릇을 해 결혼할 시기를 모두 놓친 ‘성인자녀희생형’에 속한 두 사례의 조모들은 모두 원래 기독교인이 아니었다가 손자녀들을 키우면서 신앙을 갖게 되었는데, 자녀의 희생을 보는 조모들의 심리적 상황은 신앙을 갖게 되는데 도화선이 된 것으로 보인다. 원래 신앙이 있던 참여자들보

다 이들은 자녀들의 불행에 대한 한(恨)을 들어주고 받아주는 유일한 존재로서의 신과 기도로 연결되게 된 것을 강조했다. 직간접적으로 종교를 대처자원으로 삼은 조모들의 적응 과정은 상대적으로 긍정적이었다.

한편, 종교 기관의 지원에 대해서는 교회에 다니는 조손가족 조모들이 교회에서 거의 도움을 받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던 안유숙(2016)의 연구와는 다른 결과로 나타났는데, 본 연구에서는 종교 기관은 정서적이지 뿐 아니라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는 역할, 손자녀를 함께 키우는 양육 공동체로서의 역할, 상담을 제공하는 역할, 전도의 역할 등 보다 다양하게 지원했을 뿐 아니라 각 기관의 특성이나 규모에 맞게 - 예를 들면 지역교회는 성도의 사정을 깊이 알고 돌봄과 육아 도움 등을 제공했고, 대형교회는 현금과 학습지원 등 - 지원을 제공해 조손가족 조모에게 실질적인 대처가 되는 주요 사회적 지지였다. 특히 대형교회 성도가 그 교회 신자가 아닌 연구 참여자의 손자에게 한 달에 한 번씩 수년간 찾아와 학습 도움을 주거나 의류를 사주고 교통카드 충전을 제공하며 손자를 격려해주고 갔다는 연구 참여자의 진술은 연구자가 이번 연구 모든 면담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이기도 하다. 이처럼 종교 기관으로부터 실제적인 지원을 받은 연구 참여자들은 이로 인하여 신앙심이 더욱 깊어졌고 그것이 이 적응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난관을 헤쳐 나가는 힘이 되었음을 고백한다. 안유숙(2016)의 연구는 저소득 조손가족을 대상으로 하였고 그들이 교회에서도 자신들에 대한 편견과 낙인감으로 인한 위축감과 무력감으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으나 '저소득'이라는 변수보다는 조부모의 성격이나 종교 기관의 분위기와 같은 다른 변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한 연구 참여자 역시 저소득층에 속하였고 목회자에게는 자신의 형편을 말하고 싶지 않다고 했지만 자신의 사정을 아는 교우를 통해 임대주택에 대한 정보를 받아 보다 나은 주거환경의 길이 열렸고 또 같은 교회 내에 같은 처지에 있는 조손가족 조모를 연구자에게 소개해 연구 참여자로 연결해주며 성도들이 서로의 사정을 공유하는 공동체임을 스스로 증명했는데 이는 교회 내 진솔한 교제나 소통 분위기의 중요성을 보여주며 교회의 구제 사역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성인자녀희생형'도 종교와 관련이 있다. 여기에서 성인자녀는 조손가족 형성의 원인이 된 성인자녀가 아닌 다른 성인자녀로 이들은 형이나 동생 가정이 해체되면서 조카들의 아빠 역할을 자의 반 타의반 맡게 되었다. 미혼이었던 이들은 홀어머니와 조카들로 구성된 새로운 형태의 가족의 실질적인 가장 노릇을 해 결혼할 시기를 모두 놓치게 되었다. 조모들에게는 이 자녀를 의지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은 없었지만 조모에게는 조손가족 형성의 원인이 된 자녀에 대한 아픔과 희생하게 된 자녀에 대한 아픔까지 더해졌다. 특이한 점은 성인자녀를 의지한 모든 사례의 조모들은 1차적으로는 이들을 의지하면서도 후에 신앙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다. 공교롭게도 두 사례의 조

모들은 모두 원래 기독교인이 아니다가 손자녀들을 키우면서 신앙을 갖게 되었는데, 자녀가 자신을 희생하며 독신으로 살아가는 모습은 조모들의 심리적 상황에 영향을 주어 대처 자원으로서의 불안 전해 오히려 신을 찾는 계기가 되었다. 이들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서 많이 울었다는 고백을 했다. 하나님은 이들의 모든 냇두리, 특히 자녀들의 불행에 대한 고통을 다 들어주고 받아주는 유일한 존재였으며 그 가운데 신앙심이 커져갔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종교지지형’이나 ‘성인자녀희생형’은 1차적이든 2차적이든 종교를 그들의 대처자원으로 삼았다는 공통점이 있다.

‘공적지지실패형’은 학교에서 연계한 상담이 오히려 손녀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마음을 닫는 결과를 낳았는데, 조기조결의 요인으로 상담관계와 상담 만족도가 꺾히고 있어 조손가족 상담에서 상담관계는 조모와 손자녀의 상황을 충분히 공감하여 쌓은 신뢰 기반의 관계형성이 더욱 중요하다는 시사점을 준다(김현미·권현용, 2009). 또, 이 유형의 조모들은 모두 신앙생활을 오래한 기독교인이었던 것을 고려했을 때 그들의 종교 기관에서 보다 인격적이고 사명감 있는 기독교 상담사를 만났었다면 하는 아쉬움과 함께 전문상담으로의 연계가 신속하고 효율적이었던 가톨릭 신자인 연구 참여자의 사례와 비교할 때 그 체계와 준비에 있어 미흡했던 교회나 기독교 상담에 목격한 과제를 남긴다. 가톨릭 신자인 연구 참여자는 성당 신부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신부는 교구 체계를 활용해 즉시 전문 상담사를 파견했다. 연구 참여자는 상담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였으나 전적으로 신뢰하는 신부가 권면한 것이기에 수용하였고 연구 참여자와 손자 모두 상담을 받았다. 손자의 경우 1년 이상 상담이 지속되어 손자의 심리적 안정과 종교생활에 영향을 미쳐 이 조손가족이 적응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대처자원미약형’이다. 이들이 종교적 자원이나 성인자녀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따라서 대처자원미약이란 자원 자체가 미약했다기보다는 자원을 사용하고 활용하는 힘이 미약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 유형에 속한 사례의 연구 참여자들은 가족들과의 관계, 특히 성인자녀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던 것이 자원을 활용하지 못하는 원인으로 드러났다.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자녀와의 관계는 여성 노인에게 삶의 의미, 원천이 되기에 이 영역의 결핍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거나 가용한 사회적 자원을 활용하지 못하는 일로 이어졌다.

### (3)조손가족 조모의 적응 단계에 관한 논의

조손가족 조모의 적응 과정은 충격 및 혼란 단계→중간 단계→사회적지지 단계→적응으로 나타났으며, 조손가족 조모에게 사회적 지지가 결정적인 ‘대처’가 된다는 점은 그동안의 연구들과 같은 결과이다. 우선 조모의 건강과 성격은 사회적 지지로의 연결을 촉진한다는 점에서 조손가족 조모의 대처 능력을 예측하는 자원이 되므로 조손가족 조모 상담에서 이 두 가지 자원을 확인하고 적응

과정에서 긍정적인 유지요인이 되도록 해야 한다. 더 나아가 적합한 사회적 지지로의 연결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조모가 어떠한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 본 연구에서 드러난 가장 중요한 내용 중 하나이다. 사회적지지 단계 바로 앞에 존재하는 ‘중간 단계’가 그 역할을 하는데 중간단계에서 조모가 하는 선택은 가장 적응적인 ‘종교지지형’과 나머지 유형을 나누는 기준이 되었다. 무엇에 대한 ‘선택’인가는 두 가지로, 하나는 신앙을 의지하고 종교 기관을 동반자로 여기는가 아니면 자신을 의지하고 종교 기관을 신뢰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며, 또 하나는 손자녀를 우선시 하는가 일을 우선시 하는가이다. 첫 번째 선택은 종교지지형과 대처자원미약형, 공적지지실패형으로 나뉘는 기준이 되었고, 두 번째 선택은 종교지지형과 공적지지실패형으로 나뉘는 기준이 되었다. 신앙을 의지하고 종교 기관을 동반자로 선택한 경우는 심리적인 안정뿐 아니라 경제적, 관계적 안정을 얻어 적응 과정에 결정적인 자원이 되었다. 그러나 종교라는 자원이 있음에도 자신을 의지하고 종교 기관을 신뢰하지 않은, 즉 자원을 활용하는 능력이 미약했던 조모는 스트레스에 대처하지 못하거나 사회적 지지를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었다. 또한 손자녀 양육을 우선시 하는 선택은 한 개인에게 발달에 따른 적절한 돌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이 후 삶에서 여러 가지 심리적 부적응과 정신병리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중요한데, 본 연구에서도 두 사례가 조모의 이 선택이 조모의 미래를 극명하게 갈라놓는 것을 보여주었다. 손자를 위해 일을 그만두고 돌봄에 전념했던 연구 참여자는 손자가 학교에서 교사들의 칭찬을 받는 모범생이 되어 원래 받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으며 조모가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된 반면, 다른 연구 참여자의 손녀는 조모와 끊임없이 갈등을 일으키며 정신과에 전전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조손가족의 적응 과정을 돕는 가족상담에서 손자녀의 발달을 고려한 조모의 주양육자 역할에 대한 교육과 도움은 반드시 제공되어야 한다.

#### (4) 조손가족을 위한 가족상담에 대한 실천적 제언

##### ① 조손가족을 위한 기독교 상담의 사례개념화 적용

지금까지 살펴본 본 연구의 결과는 조손가족 상담에서 사례개념화의 주요 요소, 즉 촉발 및 유발 요인, 부적응적 패턴, 자원 및 강점에 대한 정보에 활용될 수 있다. 조모의 스트레스 환경 요소인 관계적, 경제적, 신체적 환경뿐 아니라 경쟁적 변수로 살펴본 가치관, 자존감 등은 모두 조모의 충격 및 혼란 단계의 스트레스를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틀을 제공하여 문제를 다각적으로 탐색하도록 한다. 이 때 본 연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조모의 핵심 스트레스는 관계적 환경이므로 성인자녀를 위시해 손자녀와 며느리 등 가족을 중심으로 탐색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또한 이들의 적응/부적응적 패턴이나 유지요인은 조모의 대처인 사회적 지지를 구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크게 공적지지와 사적지지로 나누어 보편적인 관점으로 시작해 종교적 지지, 성인자녀와 같은 관계적 지지뿐 아

니라 대처자원이 미약한 부분까지 볼 수 있어야 한다. 문제와 대처 패턴에 관한 부분이 윤곽이 드러나면 중간 단계에서 확인했던 조모의 자원과 선택을 확인한다. 상담에서는 사회적 지지가 그 자체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지지를 활용하게 된 과정에서 조모의 생각과 감정, 행동이 중요하며 중간 단계는 그것을 밝혀주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특히 중간 단계의 조모의 선택은 적응 또는 부적응 패턴에 대해 결정적이므로 상담 목표로 연결하여 상담에서 중점적으로 다룰 수 있는 지점이며 조모 상담의 핵심이다.

## ② 조손가족 상담에서 계열적 개입절차

본 연구의 연구 결과를 개인수준→관계수준→전체수준의 계열적 개입절차를 통해 조손가족 가족 상담에 적용할 수 있다(김선남, 2005). 개인수준의 상담은 앞에 논의한 사례개념화를 조모의 상담에 적용한다. 관계수준의 상담은 손자녀의 적응 과정인 갈등→인식→성장 단계를 조모의 적응 과정인 충격 및 혼란→중간→사회적 지지 단계와 통합하여 보는 상담이다. 특히 조모의 충격 및 혼란 단계나 사회적 지지 단계에 모두 손자녀와의 관계가 영향을 미치는 것이 본 연구 결과에서도 드러났고, 손자녀의 적응 과정도 모든 단계에서 조부모의 특성과 관계가 변수가 되므로 상담사는 이들의 적응 과정을 이해하고 이들이 각각 처해있는 단계를 확인하여 이들의 상호 작용을 다루어야 한다. 전체수준에서는 본 연구에서 강조되었던 성인자녀와의 관계를 조모 및 손자녀와의 관계로 확장해 3세대의 관계가 회복되는 방향으로 상담이 진행되어야 한다. 성인자녀와의 관계가 조손가족의 당면 문제에 촉발, 유발 요인이 되는지, 부적응적 패턴을 유지하는 요인이 되는지 면밀히 살펴 문제에 따라 사례개념화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상담 흐름에 따라 전체수준으로 확대하면서 용서와 회복이라는 궁극적 해결에 다가갈 수 있다.

## (5) 전문 상담 제공이 가능한 기독교 기관에 대한 함의

교회로 대표되는 사회적 지지로서 기독교 기관이 조손가족을 지원할 때, 이들에게 가장 힘든 것이 관계적인 요소인 것이 드러난 만큼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 복지에서 상담 영역으로 그 지원이 확장되어야 한다. 특히 본 연구의 연구 대상자 중 천주교인 1명이 기독교인 8명이 받지 못한 서비스를 받았는데 그것은 바로 '전문상담'이었다. 이 전문상담이라는 사회적 지지는 연구 참여자의 스트레스 환경 또는 위기 환경을 극복하는 결정적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기독교인 연구 참여자 중에는 교회나 교역자로부터 전문상담을 지원받은 사례가 하나도 없었다. 돌봄과 목회상담을 결합한 형태로 지원을 받았으나 간헐적으로 목사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일 뿐 전문상담은 아니었다. 오히려 신앙이 있고 소속된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 기관에서 연계한 상담 경험에서 큰 상처를 받은 사례

가 둘이나 있었다. 이처럼 교회는 전문상담을 제공할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이다. 교회 안에 상담소가 없는 구조적인 문제라는 점과 전문상담사역을 목회와 분리·연계할 필요성을 고려한다면, 이미 기독교 복지재단들이 운영하고 있는 복지관이나 어린이집, 아동센터, 요양센터 등 직영시설과 위탁 시설의 시스템을 활용하여 상담인력을 배치하거나 상담실을 설치하는 방안도 효과적이고 현실적이라고 사료되며, 정책적으로도 조손가족과 같이 노인이 포함된 위기가족에게 종교 기관이 그들의 손이 가장 먼저 닿는 도움이었다는 점에서 교회 특히, 전문 상담 제공이 가능한 교회와의 협력 또는 교회에 전문 상담이 제공되도록 지원하는 것은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 (6) 연구의 한계, 제한점 및 제안

본 연구는 조손가족의 조모의 적응 과정을 구조적이고 논리적으로 분석하여 적응 유형과 적응 단계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여 조손가족을 위한 상담에서 사례개념화 및 계열적 개입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더 나아가 사회적 지지로서 종교적 지지의 중요성이 밝혀진 결과를 토대로 종교기관의 상담 인력의 배치 및 상담실 설치를 제안하였고 종교기관과의 협력을 강조한 정책을 제언하여 조손가족의 가족기능 회복을 위한 제언을 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질적 연구의 특성상 소수의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본 연구 결과를 지나치게 일반화하거나 모든 조손가족에게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밝힌다. 향후 후속 연구로 본 연구의 결과가 적용된 조손가족의 가족상담 프로그램의 개발이나 본 연구에서 제시한 사례개념화를 적용한 상담 사례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조손가족의 복지 향상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 참 고 문 헌

- 강경미 (2013). 조손가족의 위기문제와 기독교상담. **성경과 신학**, 65, 75-101.
- 강미희 (2011). 사회복지서비스 컨설팅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 조손가족 실태조사를 활용하여. **경영컨설팅연구**, 11(2), 69-94.
- 김명희·김신희 (2015). 조손가족 조모의 자아분화 상태. **보건의료산업학회지**, 9(3), 233-246.
- 김미영·윤혜미 (2015). 저소득 조손가족 조모와 손자녀의 가족관계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50, 145-177.
- 김미혜·김혜선 (2004). 저소득층 조손가족 조부모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 **한국노년학**, 24(3) 153-170
- 김선남 (2005). 가족기능화 상담 모형에 관한 연구, **상담학연구**, 6(3), 989-1010.
- 김소영 (2016). **청년노숙 경로에 관한 연구: 노숙진입과 노숙생활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김송이·김동일 (2020). 조손가정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과 또래애착 사례연구. **예술인문사회융합 멀티미디어논문지**, 10(3), 79-89.
- 김은정 (2024). 조손가정 조부모 전담양육 경험의 특징에 대한 질적 연구. **학부모연구**, 11(1), 81-106.
- 김은정·하문선 (2023). 조손가정 조부모의 손자녀 학습관리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학부모연구**, 10(1), 107-127.
- 김승희 (2016). 사회적 자본의 관점에서 본 조손가족 조부모의 양육문제 해결방안. **육아정책연구**, 10(1), 1-30.
- 김영한 (2006). 기독교 세계관의 독특성 - 개혁주의 관점에서 -. **기독교철학**, 3, 9-49.
- 김예성·인훈·박채희 (2014). 조손가족 노인들의 운동참여와 신체적 정신적 건강 수준에 관한 연구. **한국스포츠학회지**, 12(3), 249-261.
- 김원경·전제아 (2010). 국내 학술지에 나타난 조손 관련 연구 동향.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5(4), 653-671.
- 김정희 역 (1991). **스트레스와 평가 그리고 대처**. Lazarus, R. S. & Folkman, S.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서울:大光文化社.
- 김준 (2015). 기독교상담과 정신의학: 약물치료에 대한 기독교상담적 제안. **복음과 상담**, 23(1). 47-72.
- 김준 (2021). **성경적 상담과 하나님 관점의 이야기**. 서울: 도서출판 그리스.
- 김현미·권현용 (2009). 청소년 내담자의 조기종결 관련 변인, **미래청소년학회지**, 6(2) 63-84.
- 김혜진·김효정 (2018). 조손가족 아동의 미술수업에 관한 질적 연구. **문화예술교육연구**, 13(3), 49-80.
- 민기채 (2010). 조손가족 조부모의 소득구성원과 총소득 결정요인. **韓國老年學**, 30(2), 323-341.

- 민기채 (2011). 조손가구 이전소득의 빈곤감소 효과. **韓國老年學**, 31(2), 321-341.
- 박선희·조계표 (2019). 조손가족 실태에 대한 공법적 검토- 지원방안을 중심으로 -. **土地公法研究**, 85, 413-429.
- 박수선 (2013). 조손가족 기능강화를 위한 사례관리 실천 과정 기초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1(2), 41-57
- 박안나 (2020). 조손가족 조부모의 우울 감소를 위한 기독교 상담의 고찰 : Hargrave의 가족 용서 모델을 적용한 성인 자녀 용서를 중심으로. **복음과 상담**, 28(1), 119-145.
- 박안나 (2021). 조손가족 연구의 최근 동향과 향후 기독교 상담의 방향 고찰 : 룯기의 가족기능을 중심으로. **복음과 상담**, 29(1), 143-172.
- 박안나·김준 (2022). 기독교 세계관 관점에 기초한 상담 연구 방법에 관한 고찰. **신앙과 학문**, 27(1), 143-164.
- 박윤미·전수경 (2014). 조손가정 가족원의 자아존중감과 가족기능 향상을 위한 가족미술치료 사례연구. **미술치료연구**, 21(5), 1021-1040.
- 박지연·이숙향·김남희 역 (2013). **질적연구: 시작부터 완성까지**. Yin, R, K. (2010). *Qualitative Research from Start to Finish*. 서울: 학지사.
- 서홍란·김양호 (2010). 조손가족 조부모를 위한 강점기반 집단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노인복지연구**, 47, 161-186.
- 송유미·이선자 (2011). 조손가족 청소년의 가족관계와 적응유연성의 관계 -자아존중감, 공감, 내,외통제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2(3), 329-353.
- 신경식·서아영·송민채 역 (2016). **사례연구방법**. Yin, R. K. (2013). *Case Study Research: Design and Methods*. 서울: 한경사.
- 신명주 (2019). 저소득 조손가족 조모의 양육경험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9(6), 655-662.
- 안경승 (2023). 기독교상담에서 신학복원을 위한 제언. **복음과 상담**, 31(3). 131-155.
- 안유숙 (2016). 저소득층 조손가족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경험과 목회적 돌봄.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27(2), 137-170.
- 양경순·한재희 (2013). 조손가족 조모의 심리적 경험. **상담학연구**, 14(2), 911-930.
- 윤주영·고보선 (2017). 조손가족 손자녀의 성장과정에 관한 생애사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56, 69-104.
- 윤혜미·장혜진 (2012). 조손가족의 삶 : 쟁점과 지원방안. **아동과 권리**, 16(2), 259-288.
- 이관직 (2007). **개혁주의 목회상담학**. 서울: 도서출판 대서.
- 이명용·김승희 (2014). 조손가정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유형에 따른 사회적 지원방안 모색. **한국가족복지학**, 19(3), 549-572.

- 이선화·최해경 (2012). 조손가족 청소년의 성인역할 부담정도와 영향요인. **사회과학연구**, 23(3), 81-103.
- 이옥주·유금란 (2019). 조손가족 청소년의 대인관계에서 경험하는 외로움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30(2), 303-332.
- 이영애·방은령 (2018). 조손가족과 공동양육 조부모의 양육에 관한 질적 연구 내용 비교분석.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4(3), 491-518.
- 이윤정 (2014). 조손가족 내 조부모의 여가활동이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韓國老年學**, 34(2), 299-313.
- 이정빈 (2018). **질적 연구방법과 상담심리학**. 서울: 학지사.
- 이정화·최원규 (2012). 사회적 지지가 농촌 조손가족 조모의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23(4), 419-439.
- 이준상·김향아 (2017). 노인의 가족관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웰니스학회지**, 12(2), 27-36.
- 이지영·이혜원 (2011). 조손가족의 가족기능과 의사소통이 조모의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32, 205-233.
- 이지연·그레이스 정 (2019).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통한 청소년기 다문화가족 자녀의 적응 유형 연구. **다문화사회연구**, 12(2), 85-114.
- 이현주 (2012). **미혼모의 스트레스-대처-적응 모형 검증 및 아기 장래 결정에 따른 집단 간 비교 연구**. 박사 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 장영은 (2016). 조부모의 우울이 적응유연성에 미치는 영향. **인문사회** 21, 7(4), 1161-1181.
- 장영은 (2017). 조손가족 조모의 적응유연성 연구 - 지역사회자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인문사회** 21, 8(6), 1193-1208.
- 장동진·김용태 (2013). 기독교상담에 대한 기독교 상담자들의 인식유형 연구.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25(3), 249-277.
- 정순돌·정세미·송보가·박화옥 (2023). 세대를 건너뛴 양육에서 조손가족의 삶의 경험 -세대차이와 어려움-. **한국가족복지학**, 70(3), 5-38.
- 조용환 (1999). **질적연구: 방법과 사례**. 서울: 교육과학사.
- 허미화 역 (1997). **질적사례연구법**. Merriam, S. (1994). *Case Study Research in Education: A Qualitative Approach*. 서울: 양서원.
- 황미진·정혜정 (2014). 조손가족 조모의 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2(4), 1-22.
- Cohen, S. & Wills, T. A. (1985). Stress, Social Support, and the Buffering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98(2), 310-357.
- Dannison, L. L. & Smith A. B. (2003). Custodial grandparents community support program: Lessons learned. *Children & Schools*, 25(2), 87-95.

- Dolbin-MacNab, M. L., Smith, G. C. & Hayslip, B. (2021). Reunification in Custodial Grandfamilies: *An Examination of Resilient Family Processes Family Relations*, 70(1), 225-245.
- Edwards, O. W. & Ray, S. L. (2010). Value of Family and Group Counseling Models Where Grandparents Function as Parents to their Grandchildren. *International Journal for the Advancement of Counselling*, 32(3), 178-190.
- Sands, R. G., Goldberg-Glen, R. S. (2000). Factors associated with stress among grandparents raising their grandchildren. *Family Relations*, 49(1), 97-105.
- Tompkins, C. J. (2007). Who Will Care for the Grandparents? Exploring Relationships Between Grandparents and Grandchildren. *Journal of Psychosocial Nursing & Mental Health Services*, 45(5), 19-22.
- Pargament, K. I. (1997). *The psychology of religion and coping: Theory, research, practice*. NY: Guilford Press.
- 경향신문 2019. 5. 4일자. “조손가족 “어떻게 지원 받는지 몰라요”... 찾아가는 돌봄 절실” <http://news.khan.co.kr> (검색일 2019.12.18.)
- 여성가족부 (2020). 2020년 한부모·조손가족 복지서비스 안내.

# 조손가족 조모의 적응 과정 분석 - 기독교 상담 관점의 질적 사례연구

## Analysis on the Adaptation Process of Grandmothers in Grandparent-Headed Families : A Qualitative Case Study from the Perspective of Christian Counseling

박안나 (헤세드상담센터)  
김준 (충신대학교/교신저자)

### 논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조손가족 조모의 적응 과정을 분석하는 것으로, 조모의 적응 과정을 스트레스-대처-적응 이론에 적용하여 10개의 사례를 Yin의 사례연구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각 사례에 대한 설명하기와 연대기적 분석으로 분석 단위 간 인과관계를 밝힌 후 스트레스와 대처를 각각 패턴매칭으로 분석한 결과, 스트레스 환경은 관계적 요인이, 대처로서 사회적 지지는 종교가 가장 결정적이었다. 사례통합분석으로 적응 유형을 종교지지형, 성인자녀희생형, 공적지지실패형, 대처자원미약형 4개로 도출하였다. 또한 패턴코딩 분석으로 조모의 적응 과정을 충격 및 혼란 단계→중간 단계→사회적 지지 단계→적응으로 도출해 사회적 지지와 적응 여부를 결정하는 중간 단계의 존재를 밝혔다. 본 연구는 조손가족 조모의 적응 과정을 구조적으로 분석하고 각 유형과 단계의 발생 기제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여 조손가족을 위한 기독교상담의 사례개념화와 개입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했으며 종교기관과 정책에 대한 함의를 제공하였다.

**주제어:** 조손가족, 적응, 사회적 지지, 기독교 상담, Yin의 사례연구



# 기독교인의 종교적 서사정체성과 영적 웰빙 간 종교성향의 매개효과\*

## The mediating effect of religious orientation on the relation between religious narrative identity and spiritual well-being among Christians

장상원 (Sang Won Jang)(1저자)\*\*

김혜민 (Hyemin Kim)\*\*\*

허유진 (Yujin Huh)\*\*\*\*

이윤희 (Yunhee Lee)\*\*\*\*\*

박선웅 (Sun W. Park)(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ABSTRACT

The goal of the present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 between religious identity and spiritual well-being and the mediating role of intrinsic religiosity between the two. Participants who were Christian ( $N = 121$ ) completed measures of spiritual well-being and religious orientation and wrote a narrative about how they had become Christian. The collected narratives were coded by four trained coders based on the level of religious identity through internalization of religious self-concept. Results showed that there was a positive relation between religious identity coded from narratives and spiritual well-being, and this relation was mediated by intrinsic religiosity. In addition, extrinsic religiosity also mediated the relation between religious identity and spiritual well-being. The present research demonstrates the importance of internalization of religious self-concept in understanding religious orientation and spiritual well-being among Christians.

**Key words:** narrative identity, religious orientation, spiritual well-being, religious identity

\* 2024년 2월 6일 접수, 3월 1일 최종수정, 3월 4일 게재확정

본 논문은 고려대학교 장상원의 석사학위논문(2024년 2월, 지도교수: 박선웅)의 일부를 요약 및 재구성한 논문임.

\*\* 고려대학교(Korea University) 심리학부 박사과정,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145, sangjang@korea.ac.kr

\*\*\* 고려대학교(Korea University) 심리학부 석사과정,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145, jackim0210@naver.com

\*\*\*\* 고려대학교(Korea University) 심리학부 석사과정,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145, yougenie219@korea.ac.kr

\*\*\*\*\* 고려대학교(Korea University) 심리학부 학사과정,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145, yunhee\_rachael@korea.ac.kr

\*\*\*\*\* 고려대학교(Korea University) 심리학부 교수,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145, sunwpark@korea.ac.kr

## 1. 서론

최근 한국 사회에서 종교인은 줄고 무종교인은 증가하고 있으며, 한국 교회 역시 지속적인 교인의 감소를 경험하고 있다. 과거 기독교인이었다가 현재 무종교인이 된 사람들이 신앙을 떠난 가장 큰 이유는 ‘종교에 관심이 없어서’였다(목회데이터연구소, 2023). 이 결과는, 코로나 19로 인해 교회모임과 멀어지고 언론을 통해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이 다뤄진 이유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기독교인들이 스스로 내적인 동기를 가지지 못할 때 신앙에서 떠난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는 종교가 존속하기 위해서는 신앙을 전달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신앙을 전수 받은 개인이 그 신념을 받아들여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주장과도 맥이 닿아 있다(Ryan et al., 1993). 따라서 교회는 기독교 신앙을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각 교인이 신앙을 내면화하여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잘 형성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종교는 한 개인이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Erikson, 1962). 정체성이란 개인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가치나 목표를 선택하여 이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삶을 살겠다는 결정을 내린 상태로서, 타인과 자신을 구분하는 심리적 개념이다(문헌 외, 2023 ; 윤가영 외, 2022 ; Waterman, 1984). 정체성과 심리적 웰빙 간에는 정적 상관관계가 일관되게 보고되기 때문에(박선웅 외, 2023 ; 박선웅·박예린, 2019 ; Park et al., 2023), 정체성에 대한 연구는 여러 학문 분야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성격심리학자들은 정체성이 인생 이야기의 형태로 구성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McAdams, 1995). 인생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를 묘사한 정보가 아니라 개인이 과거 경험을 재구성하여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관한 이야기로서 삶에 의미와 목적을 부여하는데, 이렇게 이야기 방식으로 구성된 정체성을 서사정체성이라 부른다(narrative identity; McAdams & McLean, 2013). 그리스도인들의 인생 이야기는 신앙이 그들의 정체성에 얼마나 크게 자리 잡고 있는지 확인하고, 종교적인 서사정체성이 심리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

서사정체성이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은 다양한 맥락에서 확인되었다(심리치료 과정 참여자, Adler, 2012 ; 성소수자, King & Noelle, 2005 ; 다운중후군 자녀의 부모, King et al., 2000 ; 대학생, Lilgendahl & McLean, 2020). 그런 점에서 기독교인들의 서사정체성이 그들의 정신건강과 종교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Schnitker et al., 2021). 기독교인들의 인생 이야기에 담긴 정체성은 그들의 영적인 수준에서의 웰빙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기독교인들의 정체성은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와도 관계가 있어 보인다. 심리학에서는 종교인들의 신앙생활 방식을 크게 두 가지 종교성향(religious orientation)으로 나누었다(Allport & Ross, 1967). 종교인들이 종교 자체를 목적으로 여기는 내재적 성향과 종교를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여기는 외재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많은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다(김행복·설경옥, 2015 ; 박미하, 2014 ; 홍구화, 2022 ; Fulton, 1997 ; Mahalik & Lagan, 2001 ; Weinberger-Litman et al., 2016). 하지만 종교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종교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정체성을 상정하였다. 종교인들이 가지는 종교에 관한 정체성은 그들의 종교성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종교적 경험에 대한 서사문에 드러나는 정체성과 영적 웰빙의 관계와 이 관계를 내재적 종교성향이 매개하는지 경험적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기독교인의 종교적 서사문을 수집하고 분석하여 종교적 정체성이 잘 형성되어 있는 사람들이 더 높은 영적 웰빙을 경험하는지와 이 관계에서 종교를 본질적으로 추구하는 내재적 종교성향의 역할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신앙적 가치 내면화되어 자신만의 이야기로 형성된 사람들이 더 건강한 형태의 종교생활을 영위하는지 확인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 II. 이론적 배경

### 1. 영적 웰빙

인간의 건강한 상태를 논할 때 육체와 정신적인 건강에 더해 영적인 상태도 함께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심리학적 구성개념인 영성(spirituality)은 삶의 물질적인 차원을 초월하는 존재나 힘을 인식하거나 세상과의 연결을 경험하는 것으로서 정신건강의 중요한 요인으로 제안되었다(Myers et al., 2000). 선행연구에서 영성은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는 인간의 정신건강과 긍정적인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영성과 정신건강의 관계에 관한 메타 연구에 따르면, 종단 연구를 포함한 많은 연구가 영성이 우울, 웰빙 그리고 자존감과 같은 정신건강의 변인들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확인했다(Garssen et al., 2021 ; Yonker et al., 2012).

세계의 대표적인 종교들은 가장 성숙한 수준의 웰빙을 영성과 같은 삶에 대한 초월적인 태도에서 찾고 있다(Ellison, 1983). 절대자에 대한 믿음을 가지거나 삶의 궁극적 의미와 목적을 추구하는 종교인들의 심리적 건강을 측정할 때 보편적으로 쓰이는 척도는 영적 웰빙이다. 영적 웰빙은 인간의

웰빙을 예측할 때 경제적 지표만으로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며 인간이 가지는 초월에 대한 열망도 다루어야 한다는 요구에서 등장하였다(Ellison, 1983). 영적 웰빙은 종교적 웰빙과 실존적 웰빙이라는 두 가지 하위 요인으로 이루어져 있다. 종교적 웰빙은 신이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아 준다고 느끼는 것과 같이 절대자와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웰빙을 말하며, 실존적 웰빙은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추구하며 경험하는 웰빙이다.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영적 웰빙은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영적 웰빙은 우울과는 부적의 상관이 나타나고, 정신건강과는 정적인 상관이 나타났다(전예령·유지은, 2019 ; Bekelman et al., 2007 ; Jafari et al., 2010). 즉, 높은 영적 웰빙을 경험할수록 낮은 우울감을 느끼고 높은 수준의 정신건강을 보고했다. 또한 영적 웰빙은 웰빙을 측정하는 다른 변인인 심리적 웰빙, 정서적 웰빙과도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황혜리 외, 2011 ; Kim et al., 2000). 중독과 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영적 웰빙은 중요하다. 알코올 중독자 대상 연구에서 영적 웰빙의 하위요인인 실존적 웰빙은 참여자들이 자신의 신체적, 정신적 측면을 주관적으로 평가한 변인인 삶의 질과 정적인 관계가 있었다(이상민·강문희, 2019). 또한 암 환자의 외상 후 성장과 건강증진 행위의 관계를 영적 웰빙이 매개하였다(박순희·오복자, 2021). 영적 웰빙이 높을수록 스트레스에 대해 긍정적인 대처방식을 많이 사용하였다(서경현·전경구, 2004).

본 연구는 기독교 종교인들의 종교에 관한 인생 이야기를 분석하여 영적 웰빙과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종교적 인생 이야기와 영적 웰빙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을 통해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서사정체성과 웰빙의 연관성을 지지하는 실증적인 결과를 종교적 맥락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이 관계를 종교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동기로 종교생활을 하는 내재적 종교성향이 매개하는지 확인하여 그 관계를 더욱 면밀히 살펴보려고 한다.

## 2. 종교성향

종교성향이란 종교인들이 종교에 접근하는 방식으로 내재적 종교성향(intrinsic orientation)과 외재적 종교성향(extrinsic orientation)으로 구분된다(Allport & Ross, 1967). 내재적 종교성향은 종교적 신조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면화하여 따르는 것에 관심을 둔다. 즉, 내재적 종교성향이 높은 종교인은 종교 그 자체를 살아내는 사람들이다. 반면에 외재적 종교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종교를 자신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접근한다. 이들은 종교가 가지는 도구적인 유용성에 관심이 있는데, 이는 종교가 주는 평안과 위안, 종교 공동체 안에서 경험하는 관계성과 지위에 관심을 가진다는 것이다. 종교가 말하는 신조를 따르거나 삶의 핵심에 두어서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보다는 종교적

가르침에서 자신이 원하는 부분만 수용한다고 볼 수 있다.

종교성향 연구는 대체로 종교성향의 두 가지 방향성과 정신건강 변인 간의 관계 연구에 집중되어 왔다. 내재적 종교성향은 불안과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인 반면, 외재적 성향은 불안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졌다(김행복·설경옥, 2015 ; Bergin et al., 1987). 우울 역시 종교성향과 관계가 나타났는데, 내재적 종교성향이 높을수록 우울이 낮았고, 외재적 종교성향이 높을수록 우울이 높게 나타났다(박미하, 2014). 또한, 섭식장애는 내재적 종교성향과는 부적인 관계, 외재적 종교성향과는 정적인 관계를 가졌다(Weinberger-Litman et al., 2016, 2018). 내재적 종교성향이 높은 사람은 성별과 성격 특질을 통제하고도 공격성이 유의하게 낮았다(Haney & Rollock, 2020). 내재적 종교성향이 높을수록 긍정 정서, 사회적 삶의 만족, 심리적 웰빙 등이 높았고, 외재적 성향은 이러한 긍정적인 심리 변인들과 유의한 관계가 없거나 이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허현나, 2002 ; Steffen et al., 2015). 이러한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내재적 종교성향은 정신건강과 심리적 기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며, 외재적 종교성향은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거나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종교성향은 영적 웰빙과도 연관성이 있다. 다수의 연구가 종교성향과 영적 웰빙 사이의 관계성을 살펴보았다. 내재적 종교성향은 영적 웰빙의 두 하위요인 모두와 정적인 관계를 가지고, 외재적 종교성향은 영적 웰빙의 두 가지 하위요인 중 종교적 웰빙과만 정적 관계를 갖거나(허현나, 2002) 두 가지 모두와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다(Mahalik & Lagan, 2001). 반면에 종교성향의 두 가지 방향이 동일하게 영적 웰빙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Ellison(1983)과 Genia(1996)의 연구에서 내재적 종교성향과 외재적 종교성향이 모두 영적 웰빙과 정적인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재적 종교성향과 영적 웰빙의 관계가 일관적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외재적 종교성향을 제외하고, 내재적 종교성향의 매개효과만을 가설로 세웠다.

종교성향과 영적 웰빙 간의 관련성에 관한 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종교성향의 형성에 영향을 주는 심리적 변인에 대한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종교사회학의 관점에서 한 사람의 종교성향은 종교적 가치를 내면화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며, 성별과 나이 그리고 거주 지역 등의 영향을 받는다고 본다(이원규, 1997). 즉, 사회적 조건에 따라 종교에 참여하는 방식이나 동기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외적인 조건만으로는 선행연구에서 나타나는 종교성향의 개인차를 설명하기 부족하다. 심리학에서는 종교성향을 이해하기 위해 정체성 지위(identity status)와의 관계를 살펴보기도 하였다. 그 결과, 자신이 누구인지 여러 가지 가능성을 살펴보는 탐색(exploration)과 한 가지를 선택하여 몰입하는 전념(commitment)이 모두 높은 상태인 정체성 획득(identity

achievement)이 내재적 종교성향과 정적인 상관을 나타냈다(Fulton, 1997).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직업, 정치, 세계관과 종교를 아우르는 일반적인 이념 영역의 정체성을 측정하였다. 정체성이 종교성향과 관계가 있음을 밝힌 것은 의의가 있지만, 종교적 정체성이 형성된 수준을 따로 측정할 수 있다면 종교성향과의 관계가 더 명확히 드러날 것으로 기대된다.

종교성향의 형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종교를 처음 접하고 신앙을 발전시켜나가는 과정에서 종교적 가치를 수용하고 내면화한 결과가 종교성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할 필요가 있다. 심리학에서 내면화란 상황의 요구에 따라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따라야 했던 외적인 가치를 누군가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해야겠다는 내적인 가치로 변화시키는 과정이며,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 내면화가 드러나는 대표적인 현상이다(Ryan et al., 1993). 즉, 종교적 가치를 자신만의 기준으로 받아들이고 다른 삶의 영역으로 확장되는 준거 기준으로 삼는 내면화 과정을 통해 형성된 종교적 정체성은 종교성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서사정체성을 이용하여 종교적 정체성 수준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 3. 서사정체성

McAdams(1995)는 한 개인을 알기 위해서는 이야기의 형태로 구성된 서사정체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서사정체성이란 과거의 경험을 재구성하여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관한 인생 이야기로서 자신의 삶에 목적과 의미를 제공한다(McAdams & McLean, 2013). 누군가의 정체성은 그 사람의 인생 이야기를 통해 드러나며, 그 안에는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와 삶의 의미가 담겨있다는 것이다. 이에 성격심리학자들은 자신의 삶을 이해하고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도구로서 인생 이야기를 수집한다(McAdams, 2001). 수집된 인생 이야기는 서사문의 동기적 주제, 정서적 주제, 의미 유무, 서술 구조 등을 기준으로 코딩하여 다른 심리 변인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방식으로 연구된다(Adler et al., 2016). 여기서 코딩이란 서사문과 같이 숫자로 표현되어 있지 않은 자료를 통계적 분석을 위해 특정 기준에 의거하여 숫자로 변환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McLean과 Thorne(2003)은 개인이 과거 사건을 통해 새롭게 이해한 것을 의미(meaning)라고 정의하고, 동일한 상황에만 적용되는 단순한 수준의 의미인 교훈(lesson)과 다른 삶의 영역으로 확장 가능한 높은 수준의 의미인 통찰(insight)로 구분하여 코딩하였다. 이후 이 코딩방식은 인생의 전환점(turning point)을 서술한 지시문을 코딩하는 데 사용되었으며, 높은 수준의 의미를 보인 서사문은 긍정적으로 발달한 정체성 지위와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McLean & Pratt, 2006). 하지만 최근에는 의미를 코딩하는 방법론의 한계도 지적되고 있다. Park과 Moon(2022)은 높은 수준의 의미

를 가진 글이 높은 점수로 코딩되지만, 그 서사문을 통해 McAdams(1995)가 말한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러면서 특정 자기개념이 내면화되어 다른 자기개념보다 중요하게 된 상태인 정체성으로 발달한 수준을 코딩하고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서사문에 나타난 정체성 형성 수준이 심리적 웰빙을 긍정적으로 예측하였다(문현 외, 2022). 본 연구에서는 Park과 Moon(2022)이 제시한 정체성 형성 수준을 코딩한 방법을 사용하여 그리스도인의 서사문에 나타난 종교적 정체성 형성 수준을 확인하였다.

선행연구에 종교적인 전환점에 관한 서사문을 연구한 결과가 있지만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Kimball 등(2013)은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인생에서 겪은 종교적 전환점에 관한 서사문을 수집한 후 McLean과 Pratt(2006)의 코딩방식을 사용하여 글 안에 얼마나 성숙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에 따라 코딩하였다. 하지만 이 코딩방식을 따르면 종교적 전환점에 관한 서사문에 종교적인 측면이 부각되지 않거나, 그 경험이 현재 자신의 삶에 대해 어떤 종교적 의미를 주었는지 서사문에 담고 있지 않아도 높은 점수를 받게 된다. 종교적 전환점 서사가 꼭 종교적이지 않아도 된다는 점은 종교적 서사를 연구하면서 중요한 정보를 놓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가장 성숙한 의미를 담고 있는 3점의 이야기를 보면, 과거에는 삶에 대한 이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은 현실적으로 보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담겨 있다. 하지만 이는 그 사람이 현재 기독교인으로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드러내지 못한다. 또한 내재적 종교성향과 외재적 종교성향의 각 중위값을 사용하여 집단을 구분하고, 집단에 따라 최고점을 받은 서사문 개수를 비교하는 등 분석 방법의 문제점도 존재한다.

따라서 종교적 정체성을 다룬 선행연구를 보완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서사문에 나타난 종교적 정체성과 영적 웰빙의 관계를 검증하고, 내재적 종교성향을 매개변인으로 보고 그 영향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종교적 정체성이 높은 사람들은 내재적 종교성향을 보일 것이며, 이는 높은 영적 웰빙을 예측할 것으로 기대된다.

**가설 1: 종교적 정체성은 영적 웰빙에 정적인 관계를 보일 것이다.**

**가설 2: 종교적 정체성과 영적 웰빙 간 관계를 내재적 종교성향이 매개할 것이다.**

### III. 연구 방법

#### 1. 참여자 및 연구 절차

본 연구를 위해 교회 교역자를 통해 다수 교회와 대학교 온라인 게시판에 연구를 홍보하여 현재 교회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스스로 기독교인이라 여기는 참여자 125명을 모집하였다. 연구 참여 의사를 밝힌 사람들은 이메일을 통해 설문 링크를 받아 개별적으로 온라인으로 연구에 참여하였다. 참여자들은 연구 참여에 방해받지 않는 환경에서 개인 컴퓨터를 사용하여 자기보고식 척도와 그리스도인이 된 결정적인 경험을 서술하는 문항에 답변하였다. 이 중 주의점검 문항에 오답을 택한 4명을 제외하고 최종 121명의 응답을 사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참여자들의 평균나이는 29.87세(표준편차 = 9.16)였다. 남성은 55명, 여성은 66명이었다.

#### 2. 설문 도구

##### (1) 영적 웰빙 척도

영적 웰빙 척도는 Paloutzian과 Ellison(1982)이 개발하고, 박지아(2002)가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영적 웰빙 척도는 총 20문항으로, 종교적 웰빙과 실존적 웰빙으로 구성된다. 종교적 웰빙은 신과의 수직적 관계에서 느끼는 웰빙을 측정하며, 예시 문항은 ‘나는 신이 나를 사랑하고 돌보아 주신다고 믿는다.’ 등이 있다. 실존적 웰빙은 삶의 의미와 목적을 추구하며 경험하는 웰빙으로, 예시 문항은 ‘나는 살아가는 것에 어떤 참 목적이 있다고 믿는다.’ 등이 있다. 종교적 웰빙과 실존적 웰빙은 각각 10문항씩이며, 6점 척도로 평정하였다(1 = 전혀 그렇지 않다, 6 = 매우 그렇다).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영적 웰빙을 가리킨다. 본 연구에서 종교적 웰빙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alpha)는 .93, 실존적 웰빙의 내적 합치도는 .89였으며, 영적 웰빙 전체의 내적 합치도는 .94이었다.

##### (2) 종교성향 척도

종교성향 척도는 Allport와 Ross(1967)가 개발했고, 신혜진(1991)이 번안하여 심수명(1993)이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원판의 종교성향 척도는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 중 한 문항은 ‘만약 교회에서 집단 활동을 한다면 (1)성경 공부 (2)친목 단체에 먼저 가입하고 싶다.’로 6점 척도로 답변하는 다른 문항과 응답 방식에 있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외하고 19문항을 사용하였다. 내재적 종교성향 8문항과 외재적 종교성향 11문항으로 하위요인이 구성되며, 6점 척도로 평정하였다. 내재적 종교성향은 종교를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보며, 종교적 가르침을 살아내려는 것을 의미

한다. 외재적 종교성향은 종교를 자신의 위안과 사교 및 지위 정당화를 위해 도구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내재적 종교성향의 예시 문항은 ‘나의 종교적 신념은 삶의 태도에 실제로 근본이 되게 한다.’ 등이 있고, 외재적 종교성향의 예시 문항은 ‘종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슬픔과 불행한 일이 닥쳐올 때 위안을 주는 것이다.’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 내재적 종교성향의 내적 합치도는 .85, 외재적 종교성향의 내적 합치도는 .77이었다.

### (3) 서사문

참여자들은 자신이 그리스도인(기독교인)이 된 결정적인 경험에 대해 짧은 글을 작성하였다. 참여자들은 개인 컴퓨터에 제시된 빈칸에 최소 500자 이상 채워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정해진 분량을 다 채우지 않으면 다음 순서로 넘어가지 않았다. 참여자들의 서사를 수집하기 위해 제시된 지시문은 서사문을 통해 정체성 형성 수준을 평정한 선행연구의 지시문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문현외, 2022). 본 연구에서 사용한 지시문은 다음과 같다.

귀하가 그리스도인(기독교인)이 된 결정적인 경험에 대해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경험은 하나의 사건일 수도 있고 일련의 사건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 경험에 대해 자세히 서술하여 하나의 글로 완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있었고, 누구와 관련이 있었으며, 귀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감정을 느꼈습니까? 왜 이 경험이 귀하가 그리스도인(기독교인)이 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는지 서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에는 정해진 답이나 옳고 그름이 없으므로 최대한 솔직하고 자유롭게 서술하시면 됩니다.

### 3. 서사문 코딩: 종교적 정체성 형성 수준

본 연구는 서사문에 나타난 그리스도인이라는 자기개념의 내면화 수준을 통해 참여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얼마나 확고하게 형성하고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자기개념이란 자신이 누구인지를 떠올릴 때 이야기할 수 있는 자신의 특성이나 사회적 역할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누군가 자신을 떠올릴 때 남자이고, 스포츠를 좋아하며, 성격이 급한 편이고, 교사가 되는 꿈을 가지고 있다는 자기개념들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한 사람 안에서 이러한 자기개념들이 분리되어 있어 서로 영향을 주고받지 않고 흩어져 있는 상태일 수도 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경험한 중요한 사건을 통해 수많은 자기개념들 가운데 특정한 자기개념이 내면화되고, 다른 가치보다 더 중요해져서 자신의 삶의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정체성으로의 발전을 경험하기도 한다. 즉, 정체성 형성(identity

formation)이란 자기개념들이 재구성되어 삶의 의미와 목적을 부여하는 정체성으로 발전하는 과정을 의미하는데, 형성된 정체성은 삶의 여러 맥락에서 가치판단의 준거 기준(frame of reference)으로 작동한다(문현 외, 2022).

본 연구에서 정체성 형성 수준을 포착하기 위해 서사문에 나타난 그리스도인이라는 자기개념이 내면화된 수준을 코딩하였다. 서술한 사건을 통해 나타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 형성 수준이 높은 사람에게는 그들의 삶을 일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통일성과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의 목적의식이 글 안에 비교적 분명하게 나타난다. 또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의 형성 수준이 높은 경우, 해당 사건에서 얻은 통찰은 그 사건과 유사한 상황에만 적용되지 않고, 다른 삶의 영역(domain)까지 확장되어 적용될 것이다(McLean & Pratt, 2006). 이러한 이론적 배경에 따라 종교적 정체성 코딩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자기개념의 내면화 수준에 따라 1점에서 4점까지의 점수를 부여하였다.

1저자를 포함해 성격심리학을 전공하는 대학원생 3명과 심리학을 전공하는 학부 연구보조원 1명으로 이루어진 4명의 연구원이 코딩을 실시하였다. 연구원들은 코딩 매뉴얼을 숙지하고, 함께 실습하여 코딩방식을 습득했다. 이후 각 연구원은 독립적인 장소에서 121개의 서사문을 읽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자기개념의 내면화 수준에 따라 1점에서 4점까지의 점수를 부여하였다. 연구원 전원은 코딩 시 서사문만 제공받았으며, 연구 참여자들이 응답한 다른 변인들과 인구통계학적 응답은 모르는 상태에서 코딩을 진행하였다. 이렇게 종합된 점수는 4명의 평균을 내어 종교적 정체성 점수로 사용하였으며, 급내상관계수(2, k)를 통해 코딩에 참여한 연구원들 간의 신뢰도는 .86으로 나타났다.

1점은 필자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건이라 할 만한 것을 적지 않았거나, 경험한 사건을 통해 자신과 세상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것이 나타나지 않을 때 부여된다. 아래 예시의 경우 자신이 회심, 즉 마음을 돌이킨 경험은 없고 종교 경험을 부정적으로 서술한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자기개념이 드러나지도,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1점에 해당한다.

**1점 예시.** 모태신앙인으로서 예배에 참석하는 등의 기본적인 종교생활을 하지만 교회 안에서의 친목이나 봉사 같은 활동은 참여하지 않습니다. ... 바쁜 일상으로 인해 예배 참석 이외의 것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결정적 계기라 할 수 있는 부분은 글썩요. 특별히 회심을 갖게 된 사건은 없습니다. 지금도 회심을 했다고는 생각이 들지 않구요. ... (가족 때문에) 교회에 나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생각도 합니다. 그런 환경이 아니어도 아마 교회에 나가서 예배는 드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예수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부활하심은 믿기 때문이라고 할



까요? 추가적으로 교회 공동체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리 긍정적이지 않으며, 교회 안에서 공동체에 들어가는 것보다 지친 일상과 삶으로 쉬고 싶은 마음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친히 간섭하신다는 생각도 들지 않습니다. 다만 지켜보고 계실뿐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약간의 이신론적인 성향이 있는 거 같아요. 그럼에도 늘 기도는 합니다. 나의 삶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내 아이들을 위해서, 내 가족들을 위해서.

2점은 과거의 사건을 통해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과 세상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것이 생겼으나 그 영향이 제한적으로 나타날 때 주어진다. 구체적으로 사건을 통해 그리스도인이라는 자기개념이 나타나지만, 현재는 과거만큼의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다거나 현재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자기개념이 중요하다는 이해가 없다면 2점이다. 아래에 제시된 예시의 경우, 필자는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난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된 결정적인 경험에 대한 이야기는 없지만, 성인이 되는 과정에서 삶과 죽음 그리고 신에 대한 고민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자기개념을 나타낸다. 하지만 이 자기개념이 현재 삶에서 왜 중요한지에 대한 이해가 나타나지 않고, 다른 자기개념보다 중요하게 생각되는 언급도 없다. 또한 신과 종교는 필요한 것이라는 정도의 이해는 정체성으로 발달했다고 보기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이 서사문은 2점에 해당한다.

**2점 예시.**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이었습니다. 외할아버지는 목사이시고 어머니 집안이 전부 독실한 기독교 집안입니다. ... 어디로 이사를 하던 한 번도 교회에 안 다니고 있었던 적이 없었고 태어나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를 전부 거치는 내내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부모님이 기독교인이시고 태어날 때부터 교회에 다녔기 때문에 그렇게 자연스럽게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저 모태신앙이라 얼마나 더 길게 제가 기독교인이 된 결정적인 경험을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다녔고 설교를 듣고 교회 사람들과 가장 많이 어울렸고 교회에서 가장 오랜 시간 머물렀기 때문에 다른 종교는 생각도 못해봤고, 그저 기독교 안에서만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단순히 반강제적으로 기독교 생활을 이어간 것은 아니고, 고등학생을 거치고 성인이 되면서 삶과 죽음, 신의 존재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결국 신과 종교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수많은 신이 있겠지만 제가 평생 믿어온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할 수 있는 삶은 분명 가치가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3점은 과거의 사건을 통해 그리스도인이라는 자기개념이 현재 삶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서술할 때 부여한다. 최고점인 4점과의 차이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자기개념이 삶의 전반적

인 곳에 구체적으로 적용되지 못하고 종교적인 영역에만 머물거나, 다른 자기개념 중에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발전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즉, 3점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자기개념이 삶의 중요한 가치로 다뤄지고는 있으나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표현되지 못하거나 다른 사건들을 해석하는 핵심적인 준거 기준이 되지 못할 때 주어진다. 아래 예시에서 필자는 학창시절 어려움을 기도를 통해 이겨내었던 경험을 서술하며 그리스도인이라는 자기개념이 삶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함을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이 글에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삶의 목적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나타나지 않으며, 종교적인 영역을 넘어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3점에 해당한다.

**3점 예시.** 가장 결정적인 경험은 고등학교 1학년 시절 기숙사 생활을 하던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뜻대로 풀리지 않는 상황들(친구, 성적, 기숙사 생활 등)이 많았기에 힘든 나날들이었습니다. 힘든 정도가 극에 달하던 시기에 미션스쿨은 아니지만 학교에 있던 교회에서 진행되는 기도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기도회는 한 공간에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찬양을 틀어놓고 자유롭게 기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하루는 기도를 하는데 원망스런 기도만 나와 하나님께 전학을 가고 싶다고 솔직하게 이야기 했습니다. 정말 나가고 싶다고 기도하는 와중에 예수님의 기도가 생각나 정 피할 수 없다면 감당할 수 있는 힘이라도 달라는 기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버틸 수 없을 것 같아 안 되겠다고 기도하는데, 자꾸 순종하라는 듯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수없이 고민을 하다 어느 순간 순종하겠다는 마음이 들어 순종하겠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평안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주변 상황은 그대로였지만 저의 마음가짐과 태도가 달라지며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가졌던 경험이었습니다. 이후 저는 어려웠던 상황을 극복하고 일상 속에서도 주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학교에서, 일상 속에서 잔잔하게 주님을 경험했던 일들이 모두 저의 삶에 스며들어 지금까지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고점인 4점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자기개념이 전반적인 삶의 준거 기준이 되어 삶에 대한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때 주어진다. 이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자기개념이 삶에 통일성과 목적을 부여하는 정체성이라 부를 만한 수준으로 발전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의 경험을 통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로 작정했지만, 그 결심이 종교적인 삶에 국한되어 있다면 3점 이하를 받는다. 반면에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자기개념이 삶의 다른 영역에서 일어나는 결정과 가치평가의 기준이 되어 작용한다면 4점을 준다. 이들의 글에서는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뚜렷한 확신과 목적의식이

나타날 것이며,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자신감을 의미하는 독자성(agency ; 김윤영 외, 2016 ; Park et al., 2023)이 나타난다. 예시의 필자는 그리스도인이 된 과거의 경험이 자신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야 하겠다고 생각할 만큼 삶에 큰 영향을 미쳤다.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는 중요한 삶의 판단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기개념이 기준이 되어 작용하며, 자신이 하는 음악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전하겠다는 목적의식도 나타난다.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빼고 설명할 수 없다는 부분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자기개념이 다른 어떤 자기개념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서사문은 4점에 해당한다.

**4점 예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성령님의 강림하심을 청소년기 15살에 처음으로 느끼고 난 후, 내 삶을 완전히 변화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회개 기도하고, 절제와 훈련, 신앙생활을 실천하면서 살았습니다. 학창 시절 때만큼 기도예 그리고 예배에 시간과 노력을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 내가 하는 전공이나 진로 방향이 그 때 정해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 고찰하며, 내게 주신 달란트가 음악 분야에서 특출하다는 것을 발견하고, 지금까지 그 길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아마 음악을 깊이 파고들면 누구라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부정하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영감은 하늘에서부터 오는 것이고 내 자신이 창출해 내는 것이 아님을 겸허히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주일에 평신도 사역자로서 말씀을 가르치고, 아이들을 섬기고 있습니다만 나중에 내가 준비가 되었을 때, 찬양 사역으로 아픔이 있는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전하고 싶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때에 아름답게 열매 맺게 되리라 믿습니다. 코로나 펜데믹을 겪으며 제가 더 부지런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면 저의 소망들을 이루어가기 위해, 많은 부분들을 착실히 준비하지 않았을까 후회가 되기도 합니다. 달라진 작업 환경에 적응해가며,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앞으로도 문화 사역에 정진하고자 합니다. 내 존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빼고는 그 어떤 것도 온전하게 설명되지 않습니다.

위 코딩 방식을 통해 높은 점수를 받은 서사문들을 더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가정과 삶의 현장에서 본을 보이며, (중략) 다음 세대에게 좋은 신앙을 전수하고 대물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고 서술한 참여자의 경우 신앙적 가치를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드러내기를 원하며, 다음 세대에 물려주고 싶어 하는 의지가 나타난다. 다른 참여자의 경우 어머니의 죽음 등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던 때가 있었지만,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는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이라는 감사와 소망의 마음으로 바뀌었다고 서술하였다. 어머니의 죽음이라는 부정적인 사건이 감사와 소망으로 전환하게 된 과정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 형성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에 나가 직

업인으로 생활할 때에도 기독교인으로서의 나를 점검하고자 합니다. 맡은 일을 성실히 하고, 만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만나고 생각합니다.”라고 적은 참여자의 경우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종교생활의 영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직장 맥락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예시들을 통해 그리스도인이라는 자기개념이 내면화되어 정체성으로 발전한 사람들의 경우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내리는 결정과 판단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IV. 연구 결과

### 1.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표 1. 주요 변인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변인	1	2	3	4	4-1	4-2	5	6
1. 종교적 정체성	-							
2. 내재적 종교성향	.54***	-						
3. 외재적 종교성향	-.40***	-.47***	-					
4. 영적 웰빙	.59***	.73***	-.52***	-				
4-1. 종교적 웰빙	.62***	.78***	-.50***	.94***	-			
4-2. 실존적 웰빙	.47***	.57***	-.47***	.93***	.75***	-		
5. 성별(여=1, 남=2)	-.08	-.00	.02	-.04	-.07	.00	-	
6. 나이	.27**	.20*	-.31**	.33***	.31**	.32***	.14	-
평균	2.61	4.47	3.26	4.69	4.70	4.69	-	29.87
표준편차	0.73	0.81	0.68	0.79	0.89	0.79	-	9.16

\* $p < .05$ . \*\* $p < .01$ . \*\*\* $p < .001$ .

표 1에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서사를 코딩하여 도출한 종교적 정체성은 영적 웰빙, 종교적 웰빙, 실존적 웰빙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는데 이는 가설 1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다시 말해, 서사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 수준이 높게 나타난 기독교인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의 영적 웰빙을 경험했다는 것이다. 추가적으로 종교적 정체성은 내재적 종교성향, 나이와는 정적으로, 외재적 종교성향과는 부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내재적 종교성향은 영적 웰빙, 종교적 웰빙, 실존적 웰빙 그리고 나이와는 정적으로, 외재

적 종교성향과는 부적인 상관관계를 맺고 있었다. 반면, 외재적 종교성향은 영적 웰빙, 종교적 웰빙, 실존적 웰빙 그리고 나이와 부적인 관계에 있었다.

## 2. 종교적 정체성과 영적 웰빙 변인 간 내재적 종교성향과 외재적 종교성향의 매개효과

이 연구의 주요 목적은 종교적 정체성과 영적 웰빙, 종교적 웰빙, 실존적 웰빙 간의 관계를 내재적 종교성향이 매개하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병렬매개분석을 실시하였으며, SPSS의 PROCESS(Hayes, 2018; Model 4)를 사용하여 5,000번의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실행하였다. 이 분석을 통해 한 모델 안에서 내재적 종교성향과 외재적 종교성향의 매개효과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었다. 분석을 위해서 예측변인으로 종교적 정체성을 설정했으며, 매개변인으로는 내재적 종교성향과 외재적 종교성향, 결과변인으로는 각각 영적 웰빙, 종교적 웰빙, 실존적 웰빙을 설정하여 총 3번의 병렬매개분석을 진행하였다.

그림 1에 병렬매개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종교적 정체성은 내재적 종교성향과는 정적으로 외재적 종교성향과는 부적으로 관련이 있었다. 병렬매개분석 모형에서 내재적 종교성향과 세 가지 웰빙 변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내재적 종교성향은 3번의 분석 모두에서 영적 웰빙, 종교적 웰빙, 실존적 웰빙과 정적 관련이 있었다. 반면 외재적 종교성향은 영적 웰빙, 종교적 웰빙, 실존적 웰빙 모두와 부적으로 관련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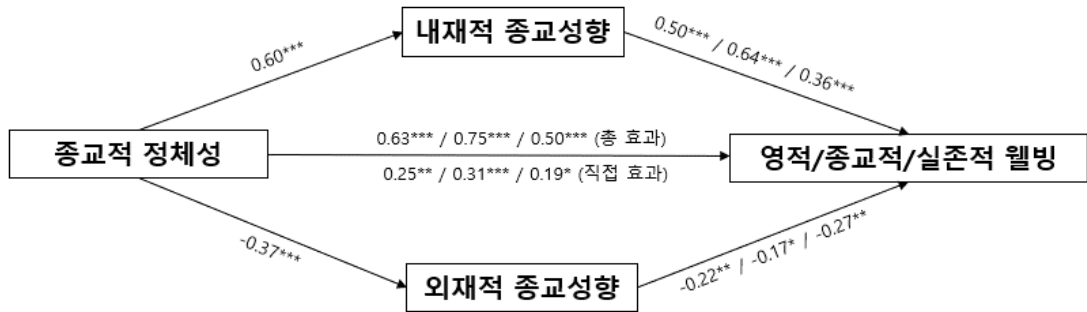


그림 1. 종교적 정체성과 웰빙 변인 간 내재적 종교성향과 외재적 종교성향의 간접효과

주. 비표준화 계수가 제시되었다. 사선(/)을 기준으로 왼쪽부터 영적 웰빙, 종교적 웰빙, 실존적 웰빙의 통계 값을 나타낸다.

\* $p < .05$ . \*\* $p < .01$ . \*\*\* $p < .001$ .

다음으로, 종교적 정체성과 웰빙 변인들 간의 관계에서 내재적 종교성향과 외재적 종교성향의 간접효과를 검증하였고, 표 2에 결과를 제시하였다. 95%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을 때 간접효과

가 유의한 것으로 해석한다. 분석 결과, 종교적 정체성이 내재적 종교성향을 통해 각각 영적 웰빙, 종교적 웰빙, 실존적 웰빙으로 이어지는 간접효과는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가설 2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더불어 외재적 종교성향의 간접효과도 세 가지 웰빙과의 관계에서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과 나이를 공변인으로 투입했을 때, 종교적 웰빙이 결과변인인 모델에서 외재적 종교성향의 간접효과만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b = 0.04, SE = .03, CI [-0.003, 0.117]$ ). 이 외의 모든 간접효과의 유의성은 성별과 나이를 공변인으로 투입했을 때도 동일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표 2. 간접효과 결과 요약

간접효과	<i>b</i>	<i>SE</i>	95% CI
종교적 정체성 → 내재적 종교성향 → 영적 웰빙	0.30	0.07	[0.172, 0.442]
종교적 정체성 → 외재적 종교성향 → 영적 웰빙	0.08	0.03	[0.026, 0.158]
종교적 정체성 → 내재적 종교성향 → 종교적 웰빙	0.38	0.08	[0.237, 0.546]
종교적 정체성 → 외재적 종교성향 → 종교적 웰빙	0.06	0.03	[0.009, 0.143]
종교적 정체성 → 내재적 종교성향 → 실존적 웰빙	0.22	0.06	[0.101, 0.355]
종교적 정체성 → 외재적 종교성향 → 실존적 웰빙	0.10	0.04	[0.033, 0.180]

## V. 논의

본 연구는 기독교인들의 종교적 서사문을 통해 측정된 종교적 정체성과 영적 웰빙 간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나는지, 그리고 둘 간의 관계를 내재적 종교성향이 매개하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서사문에 나타난 종교적 정체성은 영적 웰빙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또한 종교적 정체성은 내재적 종교성향과 정적인 관계를 보였고, 내재적 종교성향은 영적 웰빙을 정적으로 예측하였다. 즉, 종교적 정체성과 영적 웰빙 간 관계에서 내재적 종교성향의 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이 결과는 종교적 정체성과 영적 웰빙의 관계에 관한 가설 1과 내재적 종교성향의 매개효과에 관한 가설 2를 지지하고, 서사정체성과 웰빙의 정적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의 결과들과 합치한다(문현 외, 2022 ; Adler et al., 2016 ; Cox et al., 2019). 즉, 그리스도인이라는 자기개념이 내면화되어 종교적 정체성 수준으로 발달한 것이 서사문에 나타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높은 영적 웰빙을 경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종교적 정체성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내재적 종교성향으로 중

교생활을 하며, 내재적 종교성향을 많이 가질수록 높은 영적 웰빙을 누렸다. 추가적으로, 외재적 종교성향 역시 종교적 정체성과 영적 웰빙의 관계를 매개하였다. 종교적 정체성이 높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외재적 종교성향이 낮았고, 낮은 외재적 종교성향은 높은 영적 웰빙을 예측하였다.

종교적 정체성과 영적 웰빙의 정적 관계에 관한 가설 1이 지지되었다는 것은 기독교인이 스스로 신앙에 관해 어떤 이야기를 품고 있느냐에 따라 하나님과의 관계와 삶의 목적과 의미를 인식하는 수준이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결과는 교인들이 신앙경험을 통해 어떤 이야기를 형성하는지가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발견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가설 2 역시 지지되었고 신앙에 관한 인생 이야기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자기개념이 다른 자기개념보다 중요해진 사람들은 신앙적 가치를 본질적으로 추구하는 내재적 종교성향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통해 긍정적인 신앙생활 형태로 여겨지는 내재적 종교성향은 주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한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특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종합하면, 신앙적 가치가 내면화되어 인생 이야기에 드러나는 사람들은 더 긍정적인 종교생활을 영위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서사정체성 관련 선행연구에서 주로 사용된 코딩의 기준은 서사가 가지는 구조적 특성 또는 주제에 관련된 비교적 지엽적인 분석이라는 한계가 있었다. Park과 Moon(2022)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정체성 형성 정도를 직접 코딩하는 방식을 개발하였고, 본 연구에서 이 방법을 차용하였다. 그 결과, 기독교인의 서사문에 나타난 내면화가 웰빙의 한 가지 차원인 영적 웰빙을 예측함으로써 이 코딩 방식의 타당성에 기여하였다. 정체성은 자기개념을 내면화한 결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의 서사문은 그들이 신앙적으로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가장 좋은 연구 방법 중 하나로 여겨진다. 향후 연구에서는 직업, 가정에서의 역할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내면화를 코딩하는 연구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이번 연구의 주요 성과는 종교심리학에서 활발하게 연구된 두 가지 종교성향의 선행요인으로서 종교적 정체성을 발견한 것이다. 서사문에 나타난 종교적 정체성은 내재적 종교성향을 정적으로, 외재적 종교성향을 부적으로 예측하였다. 이는 종교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종교적 정체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밝혀냈다는 중요한 함의가 있다. 선행연구에서 종교성향과 정신건강 및 웰빙 변인과의 관계성이 규명되어 왔다(김행복·설경옥, 2015 ; Bergin et al., 1987 ; Ellison, 1983 ; Mahalik & Lagan, 2001). 하지만 종교성향의 선행요인을 규명하는 연구는 저자가 아는 범위에서는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본 연구를 통해 인생 이야기의 형태로 존재하는 종교적 정체성이 종교생활의 동기인 종교성향에 영향을 미침을 밝혔다. 종교적 측면에서 서사정체성의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왔기 때문에 기존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새로운 연구의 방향성을 실

증적으로 제시하였다는 합의가 있다(Schnitker et al., 2021).

한편, 종교적 정체성과 내재적 종교성향이 정적인 관계로 나타난 이유가 서사문에서 내재적 종교성향을 코딩했기 때문일 수 있다. 서사문에 나타난 종교적 자기개념의 내면화 수준과 내재적 종교성향은 단어 안에 모두 내적이라는 의미가 포함된다. 하지만, 내재적 종교성향은 종교생활의 동기를 친교나 위안과 같은 종교 외적인 목적에 두지 않고, 종교 자체에서 찾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비해서 자기개념의 내면화란 내가 누구인지를 결정해가는 과정이며, 그 결과로서 타인과 자신을 구분할 수 있는 고유한 정체성이 형성된다. 따라서 서사문을 코딩하여 얻은 종교적 정체성은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개념이며, 내재적 종교성향은 실제 종교생활의 행동양식과 경험을 포함하여 측정하기 때문에 이 둘은 개념적으로 구분된다고 할 수 있다.

종교적 정체성과 영적 웰빙 사이에서 나타나는 외재적 종교성향의 매개효과도 주목할 만하다. 선행연구에서 외재적 종교성향이 영적 웰빙을 예측하는 방향이 비일관적이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외재적 종교성향의 매개효과를 가설에 포함하지 않았다. 하지만 분석결과, 내재적 종교성향은 영적 웰빙을 정적으로, 외재적 종교성향은 영적 웰빙을 부적으로 예측하였다. 이것으로 두 가지 종교성향이 영적 웰빙을 반대방향으로 예측한다는 것을 추가적으로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두 종교성향 간 부적 상관( $r = -.47$ )이 나타났기 때문일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보수적인 교파의 집단이나 종교성이 비교적 높은 집단에서는 두 가지 종교성향의 부적 상관이 강하게 나타났다(Donahue, 1985).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종교 참여 정도나 교파 등 종교성을 측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이유를 확인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를 통해 종교적 정체성이 낮은 사람들은 높은 사람들에 비해 사교나 지위 정당화와 같은 종교생활의 비본질적인 측면을 더 추구한다는 점을 밝혀냈다는 것은 중요한 발견이라고 볼 수 있다.

서사에 나타난 종교적 정체성 수준이 나이와 독립적으로 종교성향과 영적 웰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도 확인하였다. 나이는 서사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나이가 어릴수록 과거의 경험에서 얻은 깨달음이 삶의 다른 영역으로 확장된다는 표현이 서사문에 덜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McLean, 2005). 이는 서사정체성이 나이와 일정 수준 관계가 있음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도 종교적 정체성과 나이의 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지만, 나이와 성별을 통제하였을 때 종교적 웰빙에 대한 외재적 종교성향의 간접효과만 사라졌다. 나이가 많다는 것은 분명히 정체성 형성에 더 많은 기회와 관련되기 때문에 예측 가능한 결과이다. 하지만 나이를 통제하고도 여섯 가지 매개효과 중 다섯 가지는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나이와 독립적으로 종교적 정체성의 고유한 역할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서사정체성을 횡단적으로 연구하였기 때문에 각 변인 간의 인과관계를 확신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비록 이론적으로 설정한 방향성대로 매개효과가 유의하기는 했지만, 그 효과를 제대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종단연구가 필요하다. 서사정체성 연구는 인생 이야기의 정신건강에 대한 예측력을 확인하기 위해 종단적으로 수행되기도 하였다(Adler et al., 2015 ; Cox et al., 2019). 서사정체성의 변인들이 종단적으로 정신건강을 예측한 결과를 고려할 때, 종교적 서사의 종단적 예측력도 연구의 주제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교회에 등록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초신자의 종교적 경험을 내용에 따라 코딩하고 종교성향을 시간 간격을 두고 측정한다면, 어떤 종교적 경험이 종교성향의 형성에 영향을 주는지 밝혀낼 수 있을 것이다. 종교 영역에서 서사정체성 연구는 이제 시작 단계에 있으며, 다양한 시도와 접근이 가능하다.

후속 연구에서는 모태 신앙 여부가 코딩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수집한 서사문이 그리스도인(기독교인)이 된 결정적인 사건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모태 신앙인들이 높은 점수를 받기에 불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내면화의 의미 안에 타의로 인해 종교적 가치를 따랐던 것에서 자의로 종교적 가치를 살아내는 것으로의 변화를 담고 있기 때문에 높은 점수의 서사문에도 스스로 모태 신앙이란 표현이 다수 존재한다. 그리고 종교적 정체성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삶에서 종교가 차지하는 역할을 중요하게 묘사하기 때문에 모태 신앙 여부 자체가 코딩 점수에 큰 차이를 만들 것이라 여겨지지는 않는다. 하지만 후속 연구에서는 모태 신앙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한다면, 종교적 정체성에 대해 더욱 면밀한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추가적으로 종교적 맥락에서 서사정체성을 교육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제안한다. 서사정체성의 연구는 대부분 서사문의 구조와 내용을 파악하여 다른 변인과의 관계를 알아보는 방식으로 진행해 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개인의 인생 이야기를 적거나 이야기하는 것 자체의 효과를 검증하기도 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인터뷰 형식으로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하게 했을 때, 인터뷰 전에 비해 인터뷰 후의 긍정정서가 증가했다(Turner et al., 2024). 이는 사람이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로 긍정적인 경험을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서사정체성을 측정하기 위해 수집한 그리스도인이 된 결정적인 경험에 관한 인생 이야기는 간증과 비슷하다. 이 점에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신앙에 대한 간증을 하는 것이 정서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것이라 예측해볼 수 있다. 실제 일부 참여자들이 연구 참여 자체에서 즐거움과 신앙적인 고양감을 경험했다고 이야기했다. 이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적거나 이야기하는 과정 가운데서 긍정적인 심리적 효과를 야기하는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교회의 초신자들이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공유할 기회를

가진다면, 더 내적인 동기를 가지고 종교 생활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적응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자기의 과거 경험을 글이나 말로 표현하는 것은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를 제공하여 자신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종교적 장면에서 진술할 기회를 늘려준다면 교육적 효과도 클 것이다(김종백·김태희, 2014).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 참 고 문 헌

- 김윤영·이예은·주민주·박유빈·박선웅 (2016). 독자성과 융화성: 인간 실존의 근원적인 두 차원.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5(2), 283-308.
- 김종백·김태희 (2014). 자아정체감 탐색 도구로서 내러티브 접근의 교육적 의미와 가능성. **청소년학연구**, 21(8), 463-493.
- 김행복·설경옥 (2015). 종교정향과 불안의 관계: 경험표집법을 통해 살펴본 부정정서와 자기조절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7(2), 383-403.
- 목회데이터연구소 (2023). 한국인의 종교 현황과 의식. [http://www.mhdata.or.kr/bbs/board.php?bo\\_table=gugnae&wr\\_id=94&page=1](http://www.mhdata.or.kr/bbs/board.php?bo_table=gugnae&wr_id=94&page=1) (검색일 2024.01.11).
- 문현·이다예·김소을·박수연·박선웅 (2023). 상향사회비교와 부정적 자기평가의 관계에서 정체성 발달과 학년의 조절효과: 대학생 표본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37(4), 553-572.
- 문현·이다예·김소을·박선웅 (2022). 심리적 웰빙에 대한 서사정체성의 증분타당도: McAdams의 성격 3수준 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36(1), 1-24.
- 박미하 (2014). 기독교인의 종교성향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연구: 자존감의 매개효과. **신앙과 학문**, 19(1), 77-96.
- 박선웅·김혜민·이준배·문현 (2023). 한국어판 자기개념과 정체성 척도 단축형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37(2), 237-258.
- 박선웅·박예린 (2019). 불확실한 정체성과 낮은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에서 물질주의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33(2), 1-21.
- 박순희·오복자 (2021). 암 환자의 외상 후 성장과 건강증진행위: 영적안녕의 매개효과. **Asian Oncology Nursing**, 21(1), 33-41.
- 박지아 (2002). **적응 유연성과 영적 안녕 및 부모애착 간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서경현·전경민 (2004). 영적 안녕, 생활 스트레스 및 대처.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9(2), 333-350.
- 신혜진 (1991). **내적-외적 종교성향과 편견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 심수명 (1993). **기독교인의 종교성향에 따른 자아분화와 죄책감**.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 윤가영·이준배·박선웅 (2022). 지각된 부모의 학업성취압력과 정신건강 간의 관계에서 정체성 발달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8(4), 529-553.
- 이상민·강문희 (2019).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의 영적 안녕, 죽음에 대한 태도와 삶의 질의 관련성. **정신간호학회지**, 28(2), 114-123.
- 이원규 (1997). **종교사회학의 이해**. 서울: 사회비평사.
- 전예령·유지은 (2019). 기독교 대학생의 종교적 안녕감, 실존적 안녕감 우울, 삶의 만족도의 관계. **기독교교**

육 논총, 58, 285-310.

- 허현나 (2002). **종교적 지향성과 영성적 안녕 및 심리적 안녕간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 홍구화 (2022). 기독교인의 종교성향과 심리적 기능의 관계: 종교적 지지의 매개효과. **신앙과 학문**, 27(4), 177-198.
- 황혜리·서경현·김지윤 (2011). 대학생의 영적 안녕과 심리적 안녕 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6(4), 709-724.
- Adler, J. M. (2012). Living into the story: agency and coherence in a longitudinal study of narrative identity development and mental health over the course of psychotherap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2(2), 367-389.
- Adler, J. M., Lodi-Smith, J., Philippe, F. L. & Houle, I. (2016). The incremental validity of narrative identity in predicting well-being: A review of the field and recommendations for the futur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20(2), 142-175.
- Adler, J. M., Turner, A. F., Brookshier, K. M., Monahan, C., Walder-Biesanz, I., Harmeling, L. H., Albaugh, M., McAdams, D. P. & Oltmanns, T. F. (2015). Variation in narrative identity is associated with trajectories of mental health over several yea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8(3), 476-496.
- Allport, G. W. & Ross, J. M. (1967). Personal religious orientation and prejudi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 432-443.
- Bekelman, D. B., Dy, S. M., Becker, D. M., Wittstein, I. S., Hendricks, D. E., Yamashita, T. E. & Gottlieb, S. H. (2007). Spiritual well-being and depression in patients with heart failure. *Journal of General Internal Medicine*, 22, 470-477.
- Bergin, A. E., Masters, K. S. & Richards, P. S. (1987). Religiousness and mental health reconsidered: A study of an intrinsically religious sampl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4(2), 197-204.
- Cox, K. S., Hanek, K. J. & Cassario, A. L. (2019). Redemption in a single low point story longitudinally predicts well-being: The incremental validity of life story elements. *Journal of Personality*, 87(5), 1009-1024.
- Donahue, M. J. (1985). Intrinsic and extrinsic religiousness: Review and meta-analy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8(2), 400-419.
- Ellison, C. W. (1983). Spiritual well-being: Conceptualization and measurement. *Journal of Psychology and Theology*, 11(4), 330-338.
- Erikson, E. H. (1962). *Young Man Luther: A study in psychoanalysis and history*. New York: W. W. Norton.

- Fulton, A. S. (1997). Identity status, religious orientation, and prejudi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6(1), 1-11.
- Garsen, B., Visser, A. & Pool, G. (2021). Does spirituality or religion positively affect mental health? Meta-analysis of longitudinal studies. *The International Journal for the Psychology of Religion*, 31(1), 4-20.
- Genia, V. (1996). I, E, quest, and fundamentalism as predictors of psychological and spiritual well-being.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35, 56-64.
- Haney, A. M. & Rollock, D. (2020). A matter of faith: The role of religion, doubt, and personality in emerging adult mental health. *Psychology of Religion and Spirituality*, 12(2), 247-253.
- Hayes, A. F. (2018).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2nd ed.)*. New York, NY: Guilford Publications.
- Jafari, E., Dehshiri, G. R., Eskandari, H., Najafi, M., Heshmati, R. & Hoseinifar, J. (2010). Spiritual well-being and mental health in university students. *Procedia-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5, 1477-1481.
- Kim, J., Heinemann, A. W., Bode, R. K., Sliwa, J. & King, R. B. (2000). Spirituality, quality of life, and functional recovery after medical rehabilitation. *Rehabilitation Psychology*, 45(4), 365-385.
- Kimball, C. N., Cook, K. V., Boyatzis, C. J. & Leonard, K. C. (2013). Meaning making in emerging adults' faith narratives: Identity, attachment, and religious orientation. *Journal of Psychology and Christianity*, 32(3), 221-233.
- King, L. A. & Noelle, S. S. (2005). Happy, mature, and gay: Intimacy, power, and difficult times in coming out stories.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9(2), 278-298.
- King, L. A., Scollon, C. K., Ramsey, C. & Williams, T. (2000). Stories of life transition: Subjective well-being and ego development in parents of children with Down Syndrome.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4(4), 509-536.
- Lilgendahl, J. P. & McLean, K. C. (2020). Narrative identity processes and patterns of adjustment across the transition to college: A developmentally contextualized approa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19(4), 960-977.
- Mahalik, J. R. & Lagan, H. D. (2001). Examining masculine gender role conflict and stress in relation to religious orientation and spiritual well-being. *Psychology of Men & Masculinity*, 2(1), 24-33.
- McAdams, D. P. (1995). What do we know when we know a person? *Journal of Personality*, 63(3), 365-396.

- McAdams, D. P. (2001). The psychology of life stories.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5(2), 100-122.
- McAdams, D. P. & McLean, K. C. (2013). Narrative identity.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22(3), 233-238.
- McLean, K. C. (2005). Late adolescent identity development: narrative meaning making and memory telling. *Developmental Psychology*, 41(4), 683-691.
- McLean, K. C. & Pratt, M. W. (2006). Life's little (and big) lessons: identity statuses and meaning-making in the turning point narratives of emerging adults. *Developmental Psychology*, 42(4), 714-722.
- McLean, K. C. & Thorne, A. (2003). Late adolescents' self-defining memories about relationships. *Developmental Psychology*, 39(4), 635-645.
- Myers, J. E., Sweeney, T. J. & Witmer, J. M. (2000). The wheel of wellness counseling for wellness: A holistic model for treatment planning.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78(3), 251-266.
- Paloutzian, R. F. & Ellison, C. W. (1982). Loneliness, spiritual well-being and the quality of life. *Loneliness: A Source book of Current Theory, Research and Therapy*, 1(1), 224-237.
- Park, Y., Kim, S., Kim, G., Johnson, S. K. & Park, S. W. (2023). Testing a process-oriented model of identity development in South Korean young adults. *Current Psychology*, 42, 5447-5461.
- Park, S. W., Kim, S., Moon, H. & Cha, H. (2023). Incremental validity of narrative identity in predicting psychological well-being: A replication and extension in Korean adults. *Narrative Inquiry*, 33, 176-191.
- Park, S. W. & Moon, H. (2022). Assessing identity formation via narratives. *Current Psychology*, 41(6), 4066-4078.
- Ryan, R. M., Rigby, S. & King, K. (1993). Two types of religious internalization and their relations to religious orientations and mental healt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5(3), 586-596.
- Schnitker, S. A., Williams, E. G. & Medenwaldt, J. M. (2021).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approaches to religious and spiritual development in adolescents. *Adolescent Research Review*, 6(3), 289-307.
- Steffen, P. R., Clayton, S. & Swinyard, W. (2015). Religious orientation and life aspirations. *Journal of Religion and Health*, 54, 470-479.
- Turner, A. F., Cowan, H. R., Otto-Meyer, R. & McAdams, D. P. (2024). The power of narrative: The emotional impact of the life story interview. *Narrative Inquiry*, 34(1), 1-29.

- Waterman, A. S. (1984). Identity formation: Discovery or creation? *Th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4(4), 329-341.
- Weinberger-Litman, S. L., Latzer, Y., Litman, L. & Ozick, R. (2018). Extrinsic religious orientation and disordered eating pathology among modern orthodox Israeli adolescents: The mediating role of adherence to the superwoman ideal and body dissatisfaction. *Journal of Religion and Health*, 57, 209-222.
- Weinberger-Litman, S. L., Rabin, L. A., Fogel, J., Mensinger, J. L. & Litman, L. (2016). Psychosocial mediator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religious orientation and eating disorder risk factors in young Jewish women. *Psychology of Religion and Spirituality*, 8(4), 265-276.
- Yonker, J. E., Schnabelrauch, C. A. & DeHaan, L. G. (2012). The relationship between spirituality and religiosity on psychological outcomes in adolescents and emerging adults: A meta-analytic review. *Journal of Adolescence*, 35(2), 299-314.

# 기독교인의 종교적 서사정체성과 영적 웰빙 간 종교성향의 매개효과

**The mediating effect of religious orientation on the relation between  
religious narrative identity and spiritual well-being among Christians**

장상원 (고려대학교)

김혜민 (고려대학교)

허유진 (고려대학교)

이윤희 (고려대학교)

박선웅 (고려대학교/교신저자)

## 논문초록

본 연구는 종교적 정체성과 영적 웰빙 사이의 관계와 이 둘 사이의 관계를 매개하는 내재적 종교성향의 역할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121명의 기독교인 참여자들이 영적 웰빙과 종교성향 척도에 응답하였고, 이 후에 자신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에 대한 서사문을 작성하였다. 수집된 서사문은 종교적 자기개념의 내면화로 형성된 종교적 정체성 수준에 따라 4명의 코더에 의해 코딩되었다. 그 결과, 서사에 나타난 종교적 정체성은 영적 웰빙과 정적인 관계를 보였으며, 이 관계를 내재적 종교성향이 매개하였다. 추가적으로, 외재적 종교성향도 종교적 정체성과 영적 웰빙 사이의 관계를 매개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종교성향과 영적 웰빙을 연구하는 데 있어 내면화된 종교적 자기개념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주제어: 서사정체성, 종교성향, 영적 웰빙, 종교적 정체성



## 다원적 자유 민주주의 사회에 적합한 종교교육 유형 탐구\*

Exploring types of religious education suitable for  
a plural liberal democratic society

정문선 (Moon-Sun, Jung)\*\*

### ABSTRACT

Religious education in a plural liberal democratic society is very diverse in its types and methods. Discussing religious education in our society is a discussion about religion's participation in the public sphere, no matter what form it takes or what form of religious education comes to mind. This paper examines pluralism and public theology as the background of religious education. I distinguish between three types of religious education, White, Brighthouse, and De Ruyter and Merry and explore which ones are appropriate for our society. In today's context, the pursuit of public goods, cooperation competency is one of the very important them for students to achieve well-being. In a plural democratic society, religion should be treated as a public form of knowledge, and in this case, religious education should not be limited to simply understanding the superficial differences between religions or worldviews and cultural diversity. Religious education must advance to achieving true self-understanding and inclusiveness for a good public life through encounters with others and open discussions based on the premise of mutual respect. In a plural situation where various beliefs coexist, it is very important to be a companion to students who ask questions about the truth, and it is also an educational responsibility to enable them to face differences with others rather than ignore or avoid them.

**Key words:** public well-being(human flourishing), pluralism, religious education, cooperation competency, discussions

\* 2024년 2월 6일 접수, 3월 1일 최종수정, 3월 4일 게재확정  
본 논문은 제3차 기독교적 학교교육포럼(2023.07.01,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에서 발표한 원고를 수정·보완함.

\*\* 성균관대학교(Sungkyunkwan University), 강사. 서울 종로구 성균관로 25-2. moonsun@skku.edu

## 1. 서론

얼마 전 Netflix에서 방영된 <나는 신이다>라는 다큐멘터리가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 다큐멘터리는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사이비 종교, 예를 들어 JMS, 아가동산 등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 종교에 대한 르포이다. 영상은 직접 보고 들으면서도 비현실적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믿기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런 종교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어떻게 이렇게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데도 여전히 사람들은 그러한 종교에 빠지게 되는지, 여러 가지 불법과 편법을 저지르는 데도 처벌을 받지 않는지 등 아연실색했다. 이러한 다큐멘터리를 보면서도 여전히 ‘종교는 사적 신념에 불과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 실제 삶에서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날카롭게 구분되지 않는다.

다원적 자유 민주주의 사회에서 종교교육을 논의한다는 것은 그것이 어떤 형태가 되었던, 어떤 형식의 종교교육을 떠올리든 종교가 공적영역(공론장)에 참여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혼란에 빠지게 된다. 공적영역은 어떤 형태, 어떤 형식의 공적영역을 가리키는가? 그리고 참여(방식)은 또 어떤 참여를 의미하는가? 신학 분야에서 이와 비슷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 ‘공공신학(public theology)’이다. 공공신학은 아직도 생성 중에 있는 분야로, 더키 스미트(D. Smit)는 다양한 공공신학의 공통된 질문을 찾아내고, 그 유형을 7가지로 분류하였다. 공공신학이 이처럼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난 것은 공유하고 있는 공통된 질문에 각 사회문화적 맥락에 비추어 고민한 결과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것은 어떤 것이 맞고 어떤 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 이 모두가 사회와 종교의 관계, 특별히 종교와 공적영역(공론장)과의 관계에 대한 다채로운 풍성한 논의들이다.

공적 영역 내지 공공에 대한 관심은 미래교육의 비전을 담고 있는 <Education 2030>의 주요 주제이기도 하다. 이 보고서는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과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EFA, Education For All) 기회증진”을 주요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이 보고서의 비전 7조항에 의하면, 교육은 사회적 결속과 정의 실현에 반드시 필요한 문화 간 대화를 촉진하고, 문화적, 종교적, 언어적 다양성에 대한 존중을 함양해야 한다. 이 조항은 교육이 미래사회의 인간 발전 및 경제·사회·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위해, 교육의 목적이 새롭게 논의되고 설정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다(UNESCO, 2016: 26). 미래교육은 교육에 대한 단순한 공리주의적 접근을 넘어 인간 실존의 다양한 차원을 통합해야 한다. 이러한 <Education 2030>의 비전은 교육을 보다 포용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교육이 민주주의, 인권 증진과 세계시민성, 관용, 시민 참여, 지속가능한 발전의 촉진에 대단히 중대한 역할을 감당해야 함을 보여준다.

우리나라도 새로운 변화와 도전에 대한 대응으로 지난 2022년 교육과정을 개정하였다. 개정 배경 네 가지 중 두 번째 요인으로 “사회의 복잡성과 다양성이 확대되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상호 존중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이에 비추어 <2022 개정 교육과정> 구성의 중점 중 ‘나’ 조항은 “학생 개개인의 인격적 성장을 지원하고, 사회 구성원 모두의 행복을 위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협력하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한다.”(교육부, 2022a: 4)라고 밝히고 있으며, 학생들의 공공선 추구를 그 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별히 종교와 관련된 교과로는 고등학교 교양교과 중 진로선택 과목으로「삶과 종교」가 있다(교육부, 2022a: 27). 교육과정 문서에 나타난 이 교과의 목적은 학생들이 지혜로운 시민이 되는 것으로, 학생들이 종교적으로 성찰하고, 지혜를 발견하며, 나아가 공동선의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공동체 모두를 위한 풍성한 삶을 영위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교육부, 2022a: 27 ; 2022b: 2113-2114). 이 교과를 통해 학생들은 인간 삶에서 종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나아가 다양한 종교에 관한 이해를 갖게 됨으로써 타인을 상호 존중하는 태도를 갖고 공공적 잘 삶(public well-being; human flourishing)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적 잘 삶이란 한 마디로, 좁은 의미의 성공 내지 개인주의적 잘 삶(personal well-being)을 넘어 인류가 타자와 더불어 사는 존재이며, 상호 존중하며 공동선을 추구하는 다소간 공동체적 잘 삶을 의미한다. 공적 영역은 인간 삶의 한 영역 혹은 측면이며, 공익, 공공선과 관련된 이슈와 제도를 포괄하는 영역이다. 또한 사회에서 함께하는 삶으로 여겨지는 삶이다. 투표를 하거나 공직에 출마할 때처럼 공적 측면이 분명한 경우도 있다. 혹은 자녀를 공립학교보다 사립학교에 보내야 할지 결정할 때처럼, 파악하기가 더 힘든 경우도 있다. 그러나 거기에도 분명 공적 측면이 있다. 모든 삶은 희미하게라도 분명, 정부, 경제, 교육제도, 미디어 등 공적 삶에 영향을 미친다(Volf & McAnnally-Linz, 김명희 역 2017: 12-14). 요컨대 공공적 잘 삶은 개인의 사적 영역에서의 삶과 공적 영역에서의 삶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인식하고, 개인적 잘 삶뿐 아니라 공적 영역에서의 삶도 잘 사는 것 나아가 인류 공동선 내지 번영을 추구하는 삶이다.

최근 다원주의 사회에서 종교교육에 관한 논의는 크게 신학과 철학, 종교학, 교육학 분야에서 이루어져 왔다(정문선, 2023 참조). 신학적으로는 종교의 공공성, 공공신학 논의를 중심으로, 종교학적으로는 별도의 교과를 제정하고 도입하려는 논의를 중심으로, 교육학적으로는 공교육에서 종교교육을 정당화하려는 논의, 종립계 학교에서 종교를 가르칠 자유, 시민교육 등에 관한 논의들이 이루어져 왔다. 각각의 학문 내에서의 논의를 전부 살펴보는 것은 한계가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교육철학적 논의, 자유 다원적 민주주의 사회 맥락에서 공교육에서 종교를 가르친다고 할 때 어떤 유형이 적합한지 탐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첫째, 세속적 종교교육 유형의 대표적인 예로 존 화이트

(J. White)의 웰빙교육에서 종교교육을 살펴보고, 둘째, 화이트와 동일하게 웰빙(잘삶)을 추구하면서도 다른 방식의 세속적 종교교육을 주장하는 브릭하우스(H. Brighthouse)의 논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셋째, 화이트와 브릭하우스의 세속적 종교교육의 한계를 보완 내지 넘어설 수 있는 다른 유형의 종교교육으로, 세계관적 종교교육 유형의 예로 드 루터와 메리(De Ruyter & Merry)의 논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본 논문은 우리나라 공교육에서 종교를 가르친다고 할 때, 어떤 유형이 적합한가를 통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 II. 다원적 자유 민주주의 사회에서 종교교육의 배경

### 1. 다원주의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종교교육은 그 유형과 방식이 매우 다양하다. 사실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종교의 개수만큼 다양한 종교교육이 존재한다고도 말할 수 있다. 종교교육은 우선 ‘종교’를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기독교라는 하나의 종교 전통 안에서도 다양한 종파에 따라 각각 다르게 이해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논의는 어디에서 출발해야 할까? 우선 ‘다원주의’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고, 본 논문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종교’ 그리고 ‘종교교육’의 의미를 한정하고자 한다.

“현대사회는 다원주의 사회이다.”라는 말은 기술적(descriptive) 의미와 규범적(normative)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 기술적 의미의 다원주의는 ‘사실(fact)’로서, 다양한 문화, 종교와 생활 방식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다원은 ‘다원성(plurality)’ 내지 ‘다원적인 것(plural)’이다. 기술적 다원주의는 ‘다원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려줄 뿐 모종의 가치주장이나 태도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규범적 의미의 다원주의는 단순히 다원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을 넘어 다원성이 존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것을 승인하는 것이 옳다는 가치판단과 주장을 내포한다.

규범적 의미의 다원주의는 ‘상대주의’(relativism)와 ‘자유주의’(liberalism)를 전제한다. 상대주의는 규범적 다원주의에 논리적으로 가정되어 있으며, 진리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수용한다. 즉, 시간, 지역, 공동체 등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 진리가 다를 수 있으며, 이점에서 그 자체로 보편타당한 것은 없다고 본다. 대체로 상대주의는 절대화된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다원적 자유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공공적 잘삶을 위해서 각 공동체/개인 간의 차이가 인정받고 사회구성원(시민)들

모두가 상호 존중하는 덕성 및 태도를 갖출 필요가 있다.

자유주의에 의하면, 모든 종교는 본질적으로 동일하고 삶에 대해 타당성 있는 관점을 제공한다. ‘자유’의 원리에 의하면, 특정 종교를 ‘진리’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 원리에 위배될 수 있다. 따라서 다원적 자유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종교적 진리를 타인에게 강요하거나 가르쳐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사례의 대표적인 예가 미국의 수정 헌법 제1조이다. 이 조항에는 “의회는 종교의 설립을 추진하는 어떤 법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기술되어 있다. 대체로 이 조항은 국가가 특정 종교를 국교화하거나 의도적으로 특정 종교적 관점을 옹호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된다(Birghouse, 2006: 81).<sup>1</sup>

다원주의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원주의의 의미는 기술적 의미와 규범적 의미로 구분된다. ‘규범적’ 의미로서 다원주의는 다원적 현상이라는 ‘사실’을 넘어 ‘가치’를 담고 있는 개념이다. 이는 가치중립적 태도가 옳은 것이며, 그러해야 한다는 적극적 주장을 담고 있다. 둘째, 다원주의는 자유주의와 정치적으로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자유주의자들은 모든 종교가 나름의 신념이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본다. 셋째, 다원주의에는 논리적으로 상대주의가 전제되어 있다. 특히 규범적 다원주의가 타당하려면, 보편적인 진리란 존재하지 않으며, 다만 시간과 공간이라는 맥락에 따라 상이한 진리(신념)들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어야 한다(정문선·유재봉, 2014: 110-112).

종교에는 신념이 포함되기는 하지만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나는 천지창조를 믿는다’는 문장은 신념을 표현한 것이지만, ‘천지가 창조되었다’는 것은 ‘사실’과 관련된 문제이다. 신념은 선택의 문제로서 사적(private) 영역에 속하는 것이나, 사실은 공적 지식의 문제로서 개인의 취향과는 상관이 없다. 다원주의에서 ‘종교’는 하나의 ‘경험’으로 이해되는 경향이 있다. 종교를 경험으로 본다는 것은 종교를 일종의 ‘주관적’ 신념체계로 이해하는 것이며, 그것은 민족이나 역사적 배경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함의한다. 그러므로 다원주의에서 ‘종교’는 상대주의적인 가치를 갖는 주관적 신념으로 간주하며, 공적 지식이 아니므로 개인의 선택 문제일 뿐 공적 영역에서 다룰 수 없다고 주장된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 삶을 영위할 때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은 객관적으로 구분되지 않는다. 양자가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으며 또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사실은 그 자체가 하나의 신념이다.

요컨대, 우리는 ‘신념’에 관해서는 다원주의 태도를 취할 수 있지만, ‘사실’과 관련해서는 그럴 수 없다. 종교는 하나의 공적 지식이다. 종교가 세계와 인간에 대한 ‘사실’을 담고 있다면 이것은 공적 지식으로서 다루어져야 하며, 마땅히 공적영역(공교육)에서 가르쳐야 한다(정문선·유재봉, 2014:

1) 이러한 종교적 자유주의를 옹호하는 입장의 교육적 주장으로는 존 롤스(J. Rawls), 존 화이트, 리처드 로티(R. Rorty)가 대표적이다.

115-116). 이러한 추론이 타당하다면 다원적 자유 민주주의 시민사회에서 종교는 오히려 활발히 논의되어야 하는 중요한 주제이다. 공적영역에서 종교를 가르친다는 것은 공교육에서 종교를 가르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교육과정에도 종교 관련 교과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고등학교 교육과정 중 교양 선택 교과로 개설되어 있고, 그나마 실제로 이 교과를 선택한 학교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는 공식적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현재 우리나라 공교육 실제에서, 종교는 ‘영 교육과정(null curriculum)’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영 교육과정은 아이즈너가 제안한 개념으로, 학교 공식 교육과정에는 배제되어 있으나, 가르칠 만한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학교에서 의도적으로 가르치지 않아서 생기는 학습 결과이다(Eisner, 1979; 1986). 영 교육과정은 학교가 특정 인지 과정을 강조하거나 무시하는 경우, 그리고 학교가 특정내용이나 교과 영역을 교육과정에서 제외하고 가르치지 않는 경우 발생할 수 있다. 전자와 관련하여 영교육과정은 학교교육이 지나치게 지적 측면만을 강조한 결과 학생들이 다른 측면을 개발할 수 없게 되고 통합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후자와 관련하여 영교육과정은 특정 내용 또는 교과를 교육과정에서 배제해 생기는 경우이다. 어떤 교과는 학교에서 많은 시간을 들여 가르치지만 어떤 교과는 훨씬 적은 시간만 할애하여 가르치거나 아예 가르치지 않는다. 대체로 수학, 역사, 과학, 영어 등은 많은 시간을 분배해 가르치는 반면, 종교, 법, 심리학, 예술 등은 잘 가르치지 않는 교과이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전반적인 교육목적에 비추어 교과 및 교육내용을 세밀하게 검토하지 못하고, 대체로 전통적으로 가르쳐 온 교과들을 관습적으로 따르기 때문이다.

영 교육과정 개념은 학교가 의도적으로 가르치려고 하는 공식적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무시하고 배제하고자 한 교과나 교육내용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이고 논의할 필요가 있음을 드러내 준다(진영은, 2003). 영 교육과정의 문제, 즉 학교가 특정 내용을 가르치지 않아 발생한 결과는 학생들로 하여금 그 문제에 대한 무지, 사고의 빈곤함, 비판적 사고의 결여, 편견 등을 갖도록 한다. 영 교육과정 개념은 학생이 어떤 문제나 사태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편견을 갖는 것이 단순히 학생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적으로 이루어지는 학교 교육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심각하게 배제된 교육과정의 영향도 크다는 것을 일깨워 준다. 종교가 단순한 사적 신념이 아니라 세계의 사실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들을 다루고 있고, 삶의 의미에 대한 원천이라면, 다원주의 사회에서 종교는 하나의 공적 지식으로서 공교육에서도 필수적으로 다루어져야 하는 중요한 교육내용이어야 한다.

## 2. 공공성: 공공신학

일반적으로 ‘공공성’은 공공신학에서 교회, 복음, 신학이 일반적이고 보편적 영역인 공적 삶과 관련이 있음을 드러내는 용어로 사용된다. 공공신학은 대체로 ‘공적 삶 속에서 교회의 위치(the place of the church in public life)’와 ‘교회의 사회적 형식(the social form of the church)’ 그리고 ‘사회 속에서 교회의 역할(the role of the church in society)’을 주로 다룬다(Smit, 2007: 438-439). ‘신학’은 창조, 역사, 문화, 사회, 인류 전체를 포괄한다. 세상 속에 있는 교회의 위치와 부르심에 대한 이러한 보편적 인식은 전통적으로 다양한 신학적 주제와 이슈를 불러일으켰으며, 이것은 곧 교회의 증언과 공적 역할 그리고 공적 삶과 관련된 다양한 물음들을 제기하였다.<sup>2</sup> 공공신학은 여전히 형성 중이며 비교적 신생 학문에 속한다.<sup>3</sup>

공공신학은 다원주의 사회에서 발생하는 신학적 문제의 다양성만큼 그 내용과 방법이 다원적일 수밖에 없다. 각각의 상황 속에서 전개된 공공신학의 발생조건은 사회의 ‘다원화’와 ‘세속화’에 대한 경험 그리고 ‘민주주의’라는 정치적 조건이다(Frederike van Oorschot, 2013: 227). 공공신학은 기본적으로 민주주의라는 정치·사회적 조건 속에서 교회가 공적 삶에 어떻게 관여하고 영향을 끼치는지를 연구한다. 그리고 그 속에서 자기 정체성을 어떻게 형성하는지를 탐구하며, 무엇보다 교회가 다원화와 세속화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공적 삶을 형성해야 하는지에 관심을 갖는다.<sup>4</sup>

공공신학의 과제는 복음의 보편성과 특수성 중 무엇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이해된다. 다소간 자유주의 신학은 보편성에, 교회의 전통과 성서의 내러티브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학은 특수성을 강조하는 경향을 보인다. 전자의 대표적 학자로는 데이비드 트레이시(D. Tracy)와 맥스 스택하우스(M. L. Stackhouse)를<sup>5</sup>, 후자에는 스탠리 하우어워스(S. Hauerwas)를 들 수 있다.

- 2) 신학에서 공적 특성 또는 공공성 담론은 신학의 위기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났다. 이 논의는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신학 자체의 공적 특성이고, 다른 하나는 공공신학(public theology)이라는 새로운 학문이다. 전자는 신학이 그 자체로 공적 특성을 갖는다고 본다. 신학은 공적 역할, 즉 학문으로서의 신학은 학계와 교회와 사회 안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수행해야 한다. 후자는 공공신학의 등장이다. 공공신학은 신학 자체의 공공성(the publicness of theology)과 연결되지만 강조점이 다르다. 전자가 신학 자체에 내포된 공적 특성(정체성)을 강조한다면, 후자는 신학의 사회적 역할에 강조점을 둔다(정희완, 2022: 34-35).
- 3) 공공신학이 발흥하게 된 배경과 맥락은 6 가지로 구분된다(Smit, 2013: 11-23; 최경환, 2019: 19-20).
  - ① 별거벗은 공론장에서의 신학(Theology in the Naked Public Square)
  - ② 공적담론으로서의 신학(Theology as Public Discourse)
  - ③ 신학과 공론장(Theology and Public Square)
  - ④ 신학과 공적투쟁(Theology and Public Struggles)
  - ⑤ 신학과 글로벌 세계 속에서의 공적 삶(Theology and Public Life in a Global World)
  - ⑥ 신학과 종교적인 것의 공적 귀환(Theology and the Public Return of the Religious)
- 4) 최경환은 공공신학과 정치신학, 기독교 윤리 또는 기독교 세계관을 구분한다. ‘공공신학’을 단순히 교회와 세상의 상호관계를 연구하는 것으로 규정하거나 신학은 항상 대중을 상대로 공적인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고 말하면, 정치신학이나 기독교 윤리 또는 기독교 세계관과 차이가 모호해진다. 그는 공공신학이 다루고 있는 주제와 소재는 그보다는 훨씬 실제적인 인식을 제공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 5) 트레이시나 스택하우스에게 공공성은 보편성과 거의 동의어처럼 쓰인다(Eneida Jacobsen, 2012: 73-77).

맥스 스택하우스는 공공신학을 가장 대중적으로 소개한 신학자로, 프린스턴 신학교의 공공신학 연구소장이다. 그는 “신앙은 철학이나 타종교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윤리적인 진정성을 갖추어야 한다.”(Stackhouse, 2004: 191)고 말하며, 기독교 신앙이 비판적 검증을 통해 보편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의 공공신학은 또한 하나님 나라의 희망을 바라보는 우주론적 특징을 갖는다. 공공신학은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근거한 공동선(common good)에 집중해서 기독교와 세상이 중첩되는 영역에 모종의 도덕적이고 문화적인 에토스(ethos)를 제공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기독교 신학은 세상의 언어와 문법으로 번역가능해야 하며, 가능하면 공통의 근거와 토대를 활용해 기독교의 진리체계를 효과적으로 변증해야 한다(최경환, 2019: 76).

트레이시를 비롯한 시카고학파에 의하면, 다원주의 상황 속에서 특정한 맥락에 매여 있는 신학은 공적 이슈에 대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합의를 방해한다. 트레이시는 단순히 공적인 삶에서 신학이 어떤 윤리적 기여를 할 수 있는가에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으로 신학이 어떤 의미에서 학문의 조건과 본질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탐구했다. 신학이 교회, 학계, 사회라는 하는 세 가지 공적 영역에 모두 유의미한 담론을 제공해야 하며, 나아가 보편성을 갖기 위해서는 개인적 신념이 아닌, 철학적 논증의 형식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Tracy, 1981: 64). 이것은 공공신학이 곧 정합성, 일관성, 논리적 타당성을 갖춰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트레이시는 모든 신학이 반드시 공적담론을 공유하고, 모든 관심을 포괄하기를 원했다. 그는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를 주장했는데, 첫째, 신학의 다양한 주제와 대상은 확실한 야망 혹은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둘째, 신학은 현대 학문의 방법론과 주제를 충분히 소화하면서도 그 근거에 놓여 있는 형이상학적 토대나 인식론적 신념을 제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았다(최경환, 2019: 74). 그에 의하면, 신학은 공적학문 영역에서 과학적 방법론을 택하고, 가능한 한 모든 사람이 납득할 만한 합리적 방법으로 신앙의 확신을 만들어내야 한다.

복음의 특수성을 강조하는 공공신학자들<sup>6</sup> 중 하우어워스(Stanley Hauerwas)는 교회 중심적 윤리, 즉 “교회는 사회윤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교회 자체가 사회윤리다”라는 주장으로 유명하다(Hauerwas, 1983: 99). 그는 그동안 기독교 신앙의 핵심 가치들, 즉 덕, 이야기, 공동체, 정체성, 목적론을 강조한다. 기독교윤리는 사회정의를 위한 전략이나 계획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신실한 이야기를 살아냄으로써 분열된 세상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다(Hauerwas/문시영, 2010: 180-183). 교회는 자유주의의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적 덕을 함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장

6) 복음의 특수성을 강조하는 공공신학자로는 조지 린드백(George A. Lindbeck), 한스 프라이(Hans W. Frei), 폴 호머(Paul L. Holmer), 로널드 티먼(Ronald F. Thiemann), 그리고 하우어워스이며, 흔히 예일학파로 불린다. 이들은 자유주의적 기획에 반대하며, 신학의 과제를 공적영역에서 합의를 통해 공동의 의제를 만들거나 합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추구하지 않는다.



소이다. 자유주의의 문제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가장 근원적인 가치로 믿는 것인데, 이것은 개인에게 공동체를 위한 헌신과 열망을 끌어내기 어렵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자유주의 정치철학은 대화와 토론, 절차와 공정성을 중시하고 합리적 인간을 이상적인 모델로 상정하지만, 정작 민주주의 사회에서 필요한 인간은 서로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열린 마음으로 타자의 의견을 수용할 줄 알며, 서로 신뢰하고 존중할 줄 아는 시민적 덕(civic virtue)을 함양한 인간이다. 이는 최근 정치적 자유주의가 실제로 시민들의 마음을 얻는 데 실패하고, 오히려 공동체주의가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는 이유이기도 하다.

하우어워스가 교회의 정체성을 강조한 것은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위해서였다.

교회가 현실 정치의 도전에 응답해야 하는 방식은 교회 그 자체가 되는 것이다. 이것은 세상을 거부하라는 것이 아니며, 세상으로부터 물러나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이것은 오히려 교회가 세상을 섬기되 자신의 방식으로 섬겨야 함을 뜻한다. 교회는 교회 자체의 방식으로 충실해야 한다. ...교회의 첫째가는 책무는 정부의 합법성에 관한 이론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사회 개선 전략을 제안하는 것도 아니다. 교회의 으뜸가는 책무는 공동체적 삶에서 두려움이 아닌 신뢰가 삶을 지배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다(Hauerwas/문시영, 2010: 172).

교회는 어린양 예수를 따라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상호복종과 참을성 있는 배려를 통해, 즉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의 정치학으로 신실하게 현존함으로써 정치를 새롭게 했다. 역사 속에서 교회가 세계를 더 정의롭고 평화롭고 공정하게 만들었던 방법은 기독교적인 방법으로 법을 만들고 통치자를 세운다거나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교회됨 자체를 충실하게 살아내는 것이다.

이 상의 논의들을 요약하면, 스택하우스의 논의는 가능한 한 기독교와 세상의 언어와 문법의 공통 근거와 토대를 활용해 공적 영역에서 기독교를 효과적으로 변증할 것을 강조한다. 한편 트레이시는 공적 영역에 종교가 참여하기 위한 '형식적' 측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트레이시의 논의는 종교가 공적 영역에 참여하는 데 있어 학문의 보편적 기준에 부합할 것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특히 '신학'이 공적 영역에 참여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보여준다. 하우어워스는 좀 더 종교(기독교)의 특수성을 살리는 참여방식을 제안하는데, 이것은 내용면에서는 보수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그 참여 방식 면에 있어서는 오히려 다원주의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자유 다원적 민주주의 사회에서 종교교육을 논의하는 데 있어, 여러 가지 공공신학을 이해하는 것은 사회와 종교의 관계, 공적 영역에서 종교의 성격 및 위치 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자유 다원적 민주주의 사회 맥락에서 공교육에서 종교를 가르쳐야 한다고 할 때 택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로

는 스택하우스의 논의가 좀 더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트레이시의 논의는 신학의 공적 영역 참여방식에, 하우어워스의 논의는 교회에서의 종교교육에 보다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 3. 종교교육

종교교육의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신앙고백적 접근(confessional approach)으로서의 종교교수 또는 종교수업으로서 종교교육(Religious Instruction: RI)이다. 영국에서 1944년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는 RI 형태의 종교교육을 해왔다. RI에는 적극적인 집합 예배와 종교교리 교육이 포함된다. RI의 목적은 교육을 통해 일상적인 삶에서 기독교 가치를 실현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신앙고백적 종교교육은 종교적 신념과 교리, 가치 등을 적극적으로 교수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그 가치를 받아들이도록 하는 형식의 종교교육이다(유재봉, 2013b: 202-3). RI의 장점은 학생들이 기독교 가치를 내면화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는 것이다. 하지만 다원적 자유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른 종교나 세속적 가치를 추구하는 학생은 수용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이는 정치적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

둘째, ‘종교학으로서의 종교교육(Religious Studies: RS)’이다. 영국에서는 1970년대 중반 이후 이민자가 급증하면서 다인종·다문화·다종교 사회로 변화됨에 따라, 종교교육의 성격도 변화되었다. RS는 현상학적 접근(phenomenological approach)에 근거하여 객관적인 종교 이해를 추구한다. 이러한 관점에는 가치중립적인 태도가 전제되어 있다. RS로서의 종교교육 내용은 기독교 역사나 교리보다는 다양한 세계종교나 종교현상 이해 등 비(非)교리적인 내용들로 구성되었다. 교육방법은 교리를 주입하는 인독트리네이션(indoctrination) 보다는 종교의 의미와 가치를 학생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종파교육을 주장하는 입장에서 RS로서의 종교교육은 다소 비신양적으로 보일 수 있으며, 그 결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반면 인본주의자의 입장에서는 종교적 내용과 가치를 여전히 가르치고자 한다는 점에서 비판적인 태도를 보인다(유재봉, 2013b: 203-204).

세 번째 종교교육 유형은 바로 종교‘교육’(Religious Education: RE)이다. RE는 비교종교학적 지식을 전달하는 RS나 종교교리를 주입하는 RI에 그쳐서는 안 되고 ‘교육’이어야 함을 강조하는 방식이다. 1988년 영국은 교육개혁법(Education Reform Act: ERA)을 통해 적극적인 신앙교육 유형인 RI나 종교학 중심의 RS 유형을 지양하고 ‘교육’인 RE로 변경했다. 모든 교과는 국가수준 교육과정에서 학생의 영적, 도덕적, 문화적, 지적, 신체적 발달’을 도모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종교교육은 이러한 교육목적에 부합해야 한다(McCreery·Palmer·Voels, 2008: 3 ; 유재봉, 2013: 205). 종교교육

은 종교에 관한 ‘반성적 접근’(reflective approach)을 추구한다. 이것은 종교의 의미 탐색과 더불어 엄격한 탐구, 비판을 허용한다(Rudge, 2000: 22 ; 유재봉, 2013: 206). RE로서의 종교교육은 RI 혹은 인독트리네이션을 넘어 반성적 접근이어야 한다.

다원적 자유 민주주의 사회에서 종교를 가르치는 것은 두 가지가 포함되어야 한다. 하나는 ‘헌신된 다원주의를 추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RE 또는 세계관 교육으로서의 종교교육을 하는 것이다. 다원주의에는 ‘자유주의적 다원주의’, ‘불가지론적 다원주의’(agnostic pluralism), ‘헌신된 다원주의(committed pluralism)<sup>7</sup>가 있다. 인식론적 모순에 빠지지 않으면서, 건전한 시민의 공공적 잘 삶을 위해서는 자유주의적 다원주의나 불가지론적 다원주의가 아닌 헌신된 다원주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 지식을 형성하는 데 있어 앎의 대상과 주체가 통합되어 있음을 강조하는 헌신된 다원주의는 가치중립주의 신화에서 벗어나도록 돕는다. 그리고 RE는 종교를 ‘교육’답게 가르침으로써 종교 교리를 단순히 주입하는 인독트리네이션이나 RI, RS의 수준을 넘어서게 한다. 이하에서는 자유 다원적 민주주의 사회에서 공적영역에서 종교교육, 즉 공교육에서의 종교교육이 가능한 유형들을 존 화이트, 브릭하우스, 드 튀터와 메리의 논의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III. 다원적 민주주의 사회에서 공공적 잘삶(웰빙)을 위한 종교교육 유형

공적영역에서의 종교교육, 즉 종교수업(RI)이나 종교학 연구(RS)가 아니라 종교교육(RE)을 해야 한다는 아이디어도 그 스펙트럼이 매우 다양하다. 본 논문에서는 존 화이트, 브릭하우스, 드 튀터와 메리의 논의로 한정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 1. 유형(1): 존 화이트, 세속적 웰빙을 추구하는 종교교육

화이트는 학생들 또는 개인의 웰빙 추구가 교육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웰빙교육에서 종교적 차원 자체를 배제하지는 않으나, 종교가 반드시 기독교적인 것은 아니라고 이해한다. 그는 철저하게 세속사회, 즉 자유 다원적 민주주의 사회에 적합한 웰빙이 무엇인지 탐색하며, 그것을

7) ‘헌신된 다원주의’ 플라니의 ‘인격적 지식’(personal knowledge) 아이디어에 의지해 명명된 것이다. 플라니의 인격적 지식은 과학적 지식에 대해 분석한 것이지만, 그는 모든 앎에 인격적 헌신과 공적 요소가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객관주의와 주관주의의 극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제시해주었다. 헌신된 다원주의는 어떤 앎(지식, 가치)이 진리인지 아닌지 열린 마음으로 검토하되, 실재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앎 혹은 진리를 우리가 완전히 알 수 없다 하더라도 그것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불가지론적 다원주의보다 인식론적 측면에서, 인간 이성의 한계를 겸허히 인정한다는 점에서 합리적이며 앎 혹은 진리의 추구에 있어 건강한 겸손의 태도이다(정문선, 유재봉, 2014: 123).

목적으로 하는 ‘웰빙교육’을 제안한다.

화이트는 또한 종교교육을 ‘삶의 의미’와 연결해서 논의한다. 실제로 영국의 <종교교육> 교과에 ‘삶의 의미’라는 주제가 공식적으로 언급되기 때문이다(White, 2011/2014: 211).

모든 학교에서 도덕, 개인 복지 및 ‘인생의 의미(meaning of life)’에 대한 초월적 견해뿐 아니라 세속적 토론에 학생들을 참여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 비-신앙적(non-faith) 관점으로 교화하기보다는, 세속적인 학생들이 생각을 열고 자유롭게 생각하도록 격려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자신의 생각을 명확히 하고, 그것들 안에 있는 난독증(obfuscations)에 대해 더 잘 알게 되도록 해야 한다(White, 2014: 534).

영국의 종교교육에서 기독교와 이슬람교와 불교는 ‘반드시’ 배워야 하는 것으로 포함되며, ‘세속적 세계관’은 11-14세 학생들을 위한 종교수업 시간에 ‘적절한 경우에’ 포함될 수도 있다.

화이트는 종교교육 자체는 거부하거나 배제하지 않지만, 종교에 대한 그의 태도는 ‘세속적인 것’에 경도되어 있다. 그는 삶의 의미를 ‘외부에 존재하는 외적 목적(external purpose)’을 부과하는 것으로 보는 입장에 매우 비판적인 태도를 취한다. 영국 아이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인간의 삶은 신의 목적에 따라 창조되었다.’라는 아이디어와 ‘현재 현존하는 것들은 자연도태설에서 말하는 수많은 우연을 통해 그렇게 된 것이다.’라는 아이디어를 함께 배워야 한다. 그에 의하면, 학생들은 ‘삶에는 전통적인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는 아이디어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최소한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White, 2011/2014: 212).

화이트는 특별히 종교가 없는 아이들의 웰빙을 위한 종교교육에 대해 자세히 논의하였다. 그는 종교를 ‘우주적 개념틀(cosmic framework)’을 제공해 주는 것으로 이해하며,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연(nature)’이 종교를 대신할 수 있다고 본다. 그에 의하면, 세속사회에서 종교교육은 종교(기독교)적 색채가 담긴 ‘경외감(awesome)’이 아닌 ‘경이감(wonder)’을 다루어야 한다. 이 점에서 화이트의 종교교육은 자연과 미학교육과 연결된다.

나의 세속적 관점에서, 자연 세계 또는 자연 세계의 예술적 표현에 대한 우리의 기쁨을 고려할 때 가치로서의 수용성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 ...비-종교인들이 세상과의 이러한 수용적인 참여를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세속적 사고가 자연 그 자체로 중요한 자리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그것이 가지고 있는 ‘영적’ 속성이 무엇이든, 세속 너머의 영역과 아무 관련이 없다. 이것은 또한 탈종교 시대의 교육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White, 2014: 538).

화이트는 종교교육 자체는 거부하거나 배제하지 않는다. 탈종교 현상이 가속화되고, 자유 다원적 민주주의 사회인 영국 맥락에서 지배적인 유신론적 종교뿐 아니라 종교가 없는 아이들을 위해 무신론적 종교 모두를 가르쳐야 한다는 그의 의견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종교를 대하는 태도는 세속적인 것에 경도되어 있다. 화이트의 우주적 개념틀인 자연과 미학적 경험으로서의 ‘종교’ 개념을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기존의 유신론적 종교, 특히 기독교라는 종교 개념과는 다른 종류의 ‘종교’이다. 포스트모던 사회로 접어들면서 다양한 갈등 양상으로 표현되는 ‘종교’문제는 오히려 훨씬 더 두드러지고 있다. 여전히 끊이지 않는 종교 전쟁뿐만 아니라, 무신론-유신론 논쟁, 진화론-창조론 논쟁 등은 단순히 개인의 사적 신념에 관한 문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회-정치적으로 ‘차별법’에 대한 논쟁을 촉발시켰고, 영미권 공교육에서는 예배와 기도에 대한 금지/허용에 관한 법적 논쟁으로까지 이어진 실제적인 문제들이다. 여전히 세계적으로 종교는 첨예하고도 중요한 사회-정치적 논제이다.

화이트의 웰빙교육이 ‘종교적 차원’ 자체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고무적이다. 그러나 전통적 유신론적 종교들에는 소극적 태도를 취한다는 점에서, 인간의 웰빙에 있어 중요한 차원 내지 지식을 배제할 수 있는 위험성과 한계를 안고 있다. 화이트는 자신의 웰빙교육이 자유 민주주의 사회를 전제하고 있으며, 세속사회에 적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현대 사회는 세속화가 두드러지는 사회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기존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자유 다원적 민주주의 사회의 공교육에서 인간 웰빙의 중요한 차원 내지 지식 중 하나인 전통 종교를 소홀히 하는 것은 플라톤이 지적했던 ‘다수의 횡포’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요약하면, 화이트는 자유 민주주의 사회에서 유신론적 종교교육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이다. 그는 영국의 사회적 맥락을 탈기독교 내지 종교의 다원화, 자유 민주주의로 이해한다. 이러한 사회에 적합한 교육은 더 이상 기독교적 교육이어서는 안 되며, ‘(세속적) 웰빙교육’이어야 한다. 화이트는 기독교의 목적, 구원이나 내세에서의 잘살이 더 이상 영국 사회의 ‘이상(理想)’이 될 수 없으며, 되어서도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것을 대체할 만한 모든 사람을 위한 포괄적이고 전반적인 교육목적은 ‘(개인의) 웰빙’이다. 그러나 그가 제안하는 ‘자연’에 대한 경이감은 ‘종교’의 다양한 개념 중 하나에 불과하다. 이것은 자유 민주주의 사회에서 모든 사람의, 혹은 다수의 웰빙을 추구하는 화이트 자신의 웰빙 개념에 비추어 보아도 논리적으로 일치하지 않는다.

## 2. 유형(2): 브릭하우스, 종교계 학교 지원을 통한 자율성과 웰빙 기여

브릭하우스는 국가가 종교계 학교(religious schools)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가가 종교계 학교를 지원해야 하는가의 문제가 공교육에서 종교를 가르쳐야 하는가의 문제와 정확히 일치하

는 것은 아니지만, 유사한 논쟁거리가 있다. 종교계 학교에 대한 국가의 지원과 관련하여, 한편으로는 지원을 반대하는 주장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오히려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 있다. 전자의 대표적인 학자인 그레이링(Grayling)은 세속화된 사회에서 종교에 대한 관심을 달아야 하며, 세속적인 공적 문제들에서 마치 종교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영국은 ‘2002 교육법(The 2002 Education Act)’이 실시된 이후 특히 종교계 중등학교에 대한 국가지원을 확대해 왔다. 이에 대한 반대 목소리는 크게 세 가지 이유이다. 첫째, 종교계 학교는 아이들에게 특정 종교를 주입함으로써 자율성을 침해하고, 둘째, 다양한 종교적 배경을 가진 아이들이 섞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에서 사회적 분열을 조장하며, 나아가 셋째, 공정한 정치체제를 지속하기 위한 시민들의 공공의식을 기르는 것, 즉 민주시민을 길러내는 일에 실패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브릭하우스는 후자의 대표적인 학자로, 단순한 것은 아니지만 국가가 종교계 학교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학생 전체의 자율성을 증진시키고 자유 민주주의 사회의 좋은 시민을 길러내는 데 기여한다고 본다. 그는 모든 종교계 학교들이 학생들의 자율성을 기르지 못하도록 한다든가 나쁜 시민을 길러내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한다. 종교계 학교에 재정 지원을 허용하는 정책이 부분적으로 오히려 학생들의 자율성 증진이나 좋은 시민 양성과 같은 세속적 목적을 더 잘 증진시킬 수 있다(Brighouse, 2006: 80-83). 그는 세속사회의 의미가 공적 영역에서 종교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세속사회는 종교적·비종교적 관점들이 모두 상호존중의 정신 속에서 논의되고 평가되는 곳이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학교교육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좋은 시민을 양성하는 데 있다. 대표적인 예로 미국은 세계 최초로 보편적 공립학교를 제도화 한 국가이다. 공교육 정당화의 핵심 논지는 다양한 정체성과 충성심을 가진 이민자들이 모인 국가에서 통합된 시민을 길러내는 것이었다. 하지만 좋은 시민의 자질이 정확히 무엇이고 그것을 교육에서 어떻게 길러야 하는가에 대한 합의는 매우 부족하다(Brighouse, 2006/2021: 102). 시티즌십(citizenship)은 한편으로는 시민이 국가에 대해서 갖는 권리와 의무 관계를 나타내는 ‘시민권’의 의미로 쓰이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시민으로서의 자질이나 덕성을 나타내는 ‘시민성’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시티즌십은 영국에서 초·중등학교의 교과 명칭 중 하나이기도 하다.

브릭하우스는 ‘시민성’의 관점에서 논의를 이어 나간다. 그는 시민성을 “정치적 성찰 능력이 자신의 삶을 반성하는 능력과 크게 구분되지 않는 것”(Gutmann, 1995: 578)으로 이해하며, 자유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성 교육에 필요하고 충분한 대부분의 능력과 덕목들은 아동들이 자신의 삶의 방식을 숙고하는 데 필요하고 충분한 능력과 덕목들이다. 그가 보기에, 자유 민주주의 사회의 좋은 시민 개념은 세 가지 주요 요소로 구성되는데, 모두 ‘성향(disposition)’과 관련된다. 첫째, 법을 준수

하는 성향이다. 시민은 민주주의 제도를 지니고 있고 법의 지배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개인의 자유가 합당하게 보호되는 사회에서 합법적으로 통과된 법규를 준수하는 성향을 가져야 한다. 법의 지배는 그 법 아래에서 사는 모든 사람에게 가치있는 것이기 때문에 준법성향은 중요하다.

둘째, 정의를 이루기 위해 합법적인 통로로 정치에 참여하고, 자신의 이익을 합법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성향이다. 이에 대한 고전적 사례는 사립학교 취학이나 아니면 공립학교 취학이나에 관한 것이다. 영국에서는 아동의 7% 정도가 사립학교에 다니는데, 그 중 상당수의 아이들이 사회경제적 엘리트로 쉽게 진입하도록 고안된 학교에 다니고 있다. 사립학교를 금지시키는 것은 정당하며, 공립학교 교육을 개선하고, 또한 부유한 가정의 아이들이 부모의 재산 덕분에 부당한 방법으로 이득을 얻는 것을 방지하기 때문에 기회균등 수준을 향상시킬 것이라는 주장은 강력한 타당성을 갖는 것처럼 보인다. 만일 이 주장이 타당하다면, 사립학교는 금지되어야 하고 어느 누구도 자기 아이를 사립학교에 보내는 일은 정당화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부당하게도 현실에서 사립학교는 허용되어 있으며 공립학교에 해를 끼친다. 이런 상황에서는, 만약 금지되었다면 사립학교에 보내는 게 정당화되지 않았을 부모도 쉽게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그 부모는 아이가 다닐 수 있는 공립학교에서는 자신의 아이가 미흡한 교육적 경험을 하게 될 것이라 믿고, 사립학교에서는 적절한 교육적 경험을 하게 될 것이라고 당연히 믿을 것이다. 또한 만약 사립학교가 폐지되고 공립학교가 자기 아이에게 적절한 교육적 경험을 실제로 제공할 것이라고 믿는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 부모가 자녀를 사립학교에 보내려는 것은 정당화 될 수 있다. 실제로 그 부모는 사립학교가 폐지된다면 공립학교에서 자기 아이는 용납할 수 없는 교육경험을 갖게 된다고, 즉 누구도 해서는 안 되며 누구도 하고 싶지 않을 그런 경험을 갖게 된다고 믿는다면, 그 부모는 자신의 아이를 사립학교에 보내는 것을 도덕적 책임으로 여길 수도 있다(Brighouse, 2006/2021: 104-107). 좋은 시민은 정의와 부정의, 그리고 자신이 처한 구체적인 상황에서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정당한지 등에 대한 지식과 숙고가 필요하다.

셋째, 존중의 정신 및 공적 추론에 기꺼이 동참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정치에 참여하고자 하는 성향이다. 이 아이디어는 존 롤스(J. Rawls)에 의해 유명해졌고, 정치학 분야에서 에이미 거트먼(A. Gutmann)과 데니스 톰슨(D. Thomson)이 ‘호혜성의 원칙(norm of reciprocity)’에서 영향을 받았다.

누군가의 도덕적 주장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도덕적 이해에 다가가기 위한 조건으로 그 사람의 분파주의적 인생관을 다른 시민들에게 수용하라고 강요한다면 그것은 호혜성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다(Gutmann & Thomson, 1994: 57).

호혜성의 원칙은 우리가 국가의 강제력 행사를 지지할 때, 타인들이 그들의 세계관, 즉 그들이 지금 지니고 있는 세계관이 인간이라면 합당하게 견지할 수 있는 것인 한에서는 세계관을 완전히 바꿔야만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들을 근거로 지지하는 것은 피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가 시민들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려는 그 행위는 적어도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하나는 그 행위에 대한 합법성(legitimacy)이 필요하다. 다른 하나는 물리력 행사의 정당화에 대해서 합리적인 시민들이 원칙적으로 스스로의 이성을 자유롭게 구사하여 이해하고 또 공유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신의 계시나 신성한 경전의 권위, 자기 이익 또는 사적이며 재현불가능한 경험에 호소하는 정당화는 호혜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호혜성의 원칙에 대한 반론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사람들이 정치적 조치를 정당화하는 데 있어 자신의 가장 근본적인 도덕적 신념을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요구이다. 인간은 자신이 진리라고 믿는 바를 포함해서 자신의 모든 자원을 자기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은 '정직성'의 문제이기도 하다. 즉, 자신의 가장 근본적인 도덕적 신념을 활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그 개인의 정직성을 해치는 것이다. 둘째, 사람들이 자신의 정치적 행위에 일정한 제약을 두는 것이 원칙적으로 잘못된 아니지만, 그런 제약을 (강제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요구이기 때문에 잘못이다.

브릭하우스는 호혜성의 원칙에 대한 두 가지 반론에 대해 모두 상호성의 원칙을 폐기할 만큼의 이유는 되지 못한다고 본다. 호혜성의 원칙에 대한 반론들은 이 원칙이 특정인에게 어느 정도의 요구를 하는가가 제도적 요인의 범위에 달려 있다는 점을 지적한 면에서는 유익하다. 예를 들어, 정치에 관한 공적 담론 영역이 공적 이성에 입각하여 합리적 참여를 이끌어내도록 구축되어 있다면, 그 영역이 단지 충실한 정치적 지지자들을 결집하기 쉽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에 비해, 거의 모든 사람들이 호혜성의 원칙을 준수하기가 더 쉬울 것이다. 사실, 호혜성의 원칙은 적어도 대부분의 합리적인 사람들에게는 지나친 요구가 아니다. 타인에게 어떻게 살 것인지 이러쿵저러쿵 할 입장이 아니라 하는 것은 우리 모두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합리적인 사람들은 타인의 도덕적 주체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과 정치에 적절하게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다.

그렇다면, 공적영역에서 학교는 어떻게 아동이 좋은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도록 할 수 있는가? 첫째, 합리적으로 잘 구축된 정치체제에서도 공적 이성의 원칙을 따르는 성향을 길러주는 일은 매우 어려운 과업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요구된다. 학교는 정치체제와 정치문화의 실패를 보상하는 데 한계가 있다. 범죄나 불합리성을 부추기는 정치체제는 학교가 준법정신이나 공적 합리성을 가르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둘째, 학교의 공식적 교육과정만큼 풍토와 인적구성이 중요하다. 좋은 시민을 기르는 데 적합한



공식적 교육과정이 충분하지 않더라도, 자신들이 성장한 주요한 사회적 상황 속에서 상당한 정도로 자기규율 능력을 보여주도록 기대된다면 사람들은 법규 준수가 보다 쉽게 느껴질 것이다. 만일 아동·청소년 시기에 다른 문화적·사회적 혹은 종교적 배경의 타인들과 적절히 규율된 분위기 속에서 어울려 지내는 시간을 가진다면, 타인이 지닌 생각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을 더 쉽게 할 수 있다.

셋째, 학교는 아동이 학교에 다니는 동안에 아동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며, 그 영향은 졸업한 후까지 이어진다. 또한 학교는 의무적으로 다녀야 한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아동의 학교 내 입장은 시민의 국가 내 입장과 유사하다. 학교가 운영되는 방식 그리고 아동이 학교 내에서 자신의 위치를 어떻게 여기는가 하는 방식은 아동이 어떤 성향을 함양하는가에 영향을 준다. 그렇다고 학교가 아동 중심주의적으로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학교는 그 안에 몸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게 운영되는 것이 중요하다. 교사는 서로 동료의식과 연대감을 지니며, 교사와 교장은 아동을 품위와 존중으로 대할 뿐만 아니라 교직원들도 존중해야 한다.

브릭하우스의 종교교육을 정리하면, 그는 다양성 내지 다원성을 넓히는 것이 자율성 증진과 모든 시민들의 유익, 즉 웰빙에 기여한다고 본다. 그는 영국의 종교계 학교에서 같은 종교를 가진 학생 선발을 선호하는 차별행위가 금지되는 것이 학생들의 자율성과 숙의적 특성을 더 잘 기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첫째, 종교적 기반을 가진 학교가 가족의 종교에 따라 아이들을 선발할 수 없게 되면, 그 학교에는 더욱 다양한 학생들이 모이게 된다. 그 결과 학생들은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진 같은 또래 친구를 관찰하면서 타 종교에서 권장하는 삶의 방식에 대해 배울 수 있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이러한 종교계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자율적이 될 기회를 더 많이 갖게 된다. 둘째, 이러한 선발방식은 종교계 학교에 다니지 않는 학생들에게도 자율적이 될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종교계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자율성의 기회를 침해받는다는 우려가 많은데, 브릭하우스는 오히려 종교계 학교가 아닌 세속학교(일반 공립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자율성의 기회를 침해 받는 것에 문제를 제기한다. 세속적인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자율성을 증진하려면, 종교적 삶이 갖는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경험이 필수적이다(Brighouse, 2006/2021: 146). 그런데, 세속적인 가정의 부모들이 이러한 경험을 제공해 줄 수는 없다.

이 지점이 브릭하우스가 존 화이트의 웰빙교육에서의 종교교육과 다른 부분이다. 화이트는 종교적 경외감 없이도 얼마든지 세속적 웰빙에 기반을 둔 종교교육이 가능하며, 웰빙을 영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 이와 달리 브릭하우스는 오히려 웰빙을 위해 세속학교에 다양한 종교적 배경을 지닌 아이들이 함께 있어야 하고, 종파주의적 종교계 학교로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만약 종교계 학교가 다양한 종교적 배경을 지닌 아이들을 선발하고, 무신론자 가정의 아이들도 지원할 수 있다면, 종교를 가진 아이들이 더 많이 세속학교에 다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종교계 학교에

국가가 재정을 지원하는 정책이 학생들의 민주적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 데 도움이 된다.<sup>8</sup> 자율성과 민주적 시민성 함양을 목적으로 삼는 학교는 학생 구성원들이 종교적으로 다양하게 구성되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아이들이 함께 모여 실제적인 교류와 참여가 장려되는 학교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

### 3. 유형(3): 드 뤼터와 메리, 삶의 이상으로서의 종교, 그리고 종교교육

드 뤼터와 메리는 공교육에서 종교를 ‘이상(ideals)’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공립 학교가 무비판적으로 종교를 포함해야 한다거나, 사회에 널리 퍼진 모든 종교의 모든 측면을 교육과정(curriculum)에서 다루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또한 학교가 학생들에게 종교에 대한 믿음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는 뜻도 아니다. 공립학교에서 종교에 대해 최소한 한 가지 측면, 즉 종교 전통 내에서 육성되고 신자들이 고수하고 추구해 온 이상을 포함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다원적 자유 민주주의 사회에서 공교육에서 종교를 가르쳐야 하는 이유는, 학생들이 다양한 종교적 이상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이다. 민주주의 교육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는 학생들로 하여금 합리적인 시민(reasonable citizens)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De Ruyter & Merry, 2009: 295-296).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이란 다른 사람의 말을 정중하게 경청하고 해석할 준비가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의하지 않을 수 있는 다른 사람과 공정한 협력 조건을 제안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공교육의 종교교육에서 종교적 이상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앙인에게 종교적 이상은 의미의 가장 중요한 원천 중 하나이다. 종교적 이상은 다문화 사회(multicultural societies) 속에 존재하고 있는 학교에서 학생들 스스로가 인식해야 하는 정체성의 중요한 부분을 구성한다(Salili and Hoosain, 2006 참조). 종교적 이상은 풍성한 삶(웰빙)에 기여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대안적 견해의 귀중한 원천을 제공한다(De Ruyter & Merry, 2009: 296-297). 건강, 인간관계, 창의적·지적 발달 등 모든 인간에게 유익한 객관적인 선(the objective goods)에 개인적 의미를 부여하고 그에 따른 삶이 만족스러울 때 인간은 풍성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둘째,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시민이 되려면 지식과 이해뿐만 아니라 특별한 성향이 필요하다. 아이들은 다른 시민의 행동에 동기를 부여하는 이상에 대한 이해를 가질 때, 합리적인 자유 민주 시민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높다. 부연하면, 아이들이 다른 사람들의 궁극적인 동기, 즉 다른 시민들이 열망하는 이상을 이해하는 것이 그들 사회에서 주요 종교의 관행과 중심 교

8) 브릭하우스는 이러한 조치가 부모의 자녀 학교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그는 부모에게 그러한 권리가 없기 때문에 침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Brighouse, 2006/2021: 147).

리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셋째, 아이들에게 검토하고 고려할 수 있는 다양한 이상을 제공함으로써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 풍성한 삶을 영위할 가능성이 높아진다(Levinson and Levinson 2007; De Ruyter 2007). 공립학교 교육과정에 종교적 이상을 포함시켜야 하는 설득력이 높은 실천적 이유는 다음과 같다. 종교적 이상이 종교적 교리와 규칙보다 더 쉽게 공교육에 포함될 수 있다. 이상은 전형적으로 그 성격이 추상적이기 때문에 이상에 동의하는 사람들에 대한 개인적인 해석들에 개방되어 있다. 해석에 개방성이 높다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유익하다(De Ruyter & Merry, 2009: 296-297). 하나는 개인과 공동체(communities) 그리고 다른 공동체에 애착을 갖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는다. 다른 하나는 이상의 가치에 대해서 토론이 가능하다. 그 결과 그 중요성을 면밀히 검토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어떤 가치들의 인식론적 기반이나 공립학교의 종교적 신념에 대한 진리 주장은 공립학교에서 논의하기에 적합하지 않다(Rosenblith, 2008; Rosenblith 및 Priestman 2004). 종교적 이상은 다른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나아가 종교적 이상이 그들에게도 가능한 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 IV. 결론

지금까지 다원적 자유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종교교육의 배경을 다원주의, 공공신학, 종교교육 측면에서 살펴보고, 존 화이트, 브릭하우스, 드 루터와 메리의 논의를 중심으로 종교교육의 유형을 논의하였다. 대체로, 유형(1) 존 화이트에서 유형(3) 드 루터와 메리로 갈수록 공적 영역에서 종교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유형(1) 화이트의 종교교육은 현대 사회에서 더 이상 신을 믿지 않는 비-종교인들을 위해 ‘자연에 대한 경이감’과 ‘미학적 경험’ 추구를 통한 모종의 우주적 개념들을 제공해주는 종교교육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이것은 점점 탈종교화되고 세속화되어가는 사회적 맥락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일견 타당하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을 믿는 종교인들이 우리 사회에 다수 존재하며 그들의 신앙이 단순히 사적신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공적 삶과도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유신론적 종교도 소홀히 다루어지거나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 유형(2) 브릭하우스의 종교교육은 화이트와 동일하게 웰빙 추구가 교육의 중요한 목적임을 강조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종교교육 방법이나 정책 면에서는 다소 다른 입장을 취한다. 브릭하우스는 종교계 학교를 공적 자원을 들여 지원하는 것이 개인과 사회의 전반적인 웰빙을 증진시키는 데 유익이 된다고 보며, 학교 현장에서는 서로 반대되는 종교적 주장들도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럴 때 우리는 타자와의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지며, 상호 이해, 상호존중이 가능한 웰빙을 영위할 수 있다. 유형(3) 드 워터와 메리의 종교교육은 종교교육의 목적과 내용면에 종교가 삶의 다양한 이상으로 포함되어야 함을 드러냄으로써, 특히 종교가 영교육과정에서 벗어나 공교육에서 가르쳐질 수 있는 한 가지 유형을 제시해준다.

미로슬라브 볼프는 『인간의 번영(the Flourishing): 지구화시대, 진정한 번영을 위한 종교의 역할을 묻다』에서 종교가 ‘좋은 삶(the good life)’의 원천 내지 비전(vision)을 제시해 준다고 보았다. 그가 보기에, 인간의 번영(웰빙)이라는 것은 기쁨과 의미로 이루어져 있다. 그는 기독교가 ‘기쁨과 의미의 연결(연합)’을 잘 보여주는 사례임을 드러내며, 일관된 종교적 배타주의자도 정치적 다원주의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Volf, 2016/2017: 191 이하 참조). 그에 의하면, 세속사회의 삼위일체, 즉 리바이어던(정치권력), 유스티티아(법), 맘몬(돈)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종교이다.

이에 우리는 다원적 자유 민주주의 사회 맥락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종교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신념, 종교/세계관의 다양한 차이에 대해 사적인 선택으로만 내버려두어서는 안 된다. 삶에 존재하는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삶인가?’ 등 실존적 문제들은 피하거나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저절로 사라지지 않는다. 또한 개인의 권리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현대 시민들에게 어떻게 선한 삶, 좋은 삶, 공동선을 위한 열망을 이끌어내고 이들을 광장으로 소환시킬 것인가는 중요한 문제이다. 이와 관련해서 중요한 개념으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시민성, 시민의 덕, 시민 참여 등인데, 종교는 이런 것들을 교육하는데 있어 중요한 전통이자 공적지식이다.

종교는 좋은 삶(웰빙; 풍성한 삶), 공동선, 시민성 등을 논의해 온 오랜 역사와 학문적 전통을 갖고 있다. 다원적 자유 민주주의 사회에서 종교는 하나의 지식으로 다루어져야 하며, 이때 종교교육은 종교 내지 세계관들 사이의 표층적인 차이와 문화의 다양성을 단순히 이해하는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된다. 다원적 자유 민주주의 사회에서 공공적 잘삶을 위해서는 다름을 차별하기 위한 교육이 아니라 가치관의 다양한 차이가 존재함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차이에 따른 갈등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태도는 건전하고 통합된 삶의 태도이다. 그것은 교육에서 타자와의 만남과 상호존중을 전제로 한 열린 대화를 통해 진정한 자기 이해와 공공적 잘삶을 위한 포용성을 갖추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 앞에서 살펴본 브릭하우스, 드 워터와 메리의 논의는 인식론적 차원에서 진리에 대해 진지하고도 열린 탐구 태도를 지향하며 반성적 성찰을 도모하는 유형의 종교교육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거가 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본 논문은 우리나라 공교육에서 종교를 가르친다고 할 때, 어떤 유형이 더 적합한지를 결정할 때 통찰을 줄 수 있다는 점에 그 의의

가 있다.

오늘날 다원화된 자유 민주주의 사회에서 공동체 역량은 학생들이 웰빙을 영위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량 중 하나이다. 종교교과의 중요한 교육목적은 학생들로 하여금 종교적 다원성을 이해하고 타자를 이해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공동체 역량을 키워주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신앙에 의 확신이 공존하는 다원주의 상황에서 진리에 관한 질문을 던지는 학생들의 동행이 되어 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며, 타자와의 차이를 무시하거나 피하지 않고 직시하도록 하는 교육의 책무이기도 하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

## 참 고 문 헌

- 교육부 (2022a). **초·중등 교육과정 총론**. 교육부 고시 제 2022-33호. [별책 1].
- 교육부 (2022b). **고등학교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 2022-33호. [별책 4].
- 기독교윤리연구소 엮음(2023). **정의로운 기독교인**. 서울: 도서출판 기윤실.
- 김명희 역 (2017). **행동하는 기독교: 어떻게 공적 신앙을 실천할 것인가**. Volf, M. & McAnnally-Linz, R. (2016). *Public Faith in Action*. 서울: IVP.
- 김승환 (2020). **공공성과 공동체성**. 서울: CLC.
- 김재영 (2007). 종교교육의 태동과 시민교육으로서의 종교교육. **종교연구**, 46, 79-135.
- 김진영·이진옥 (2015). 영 교육과정에 대한 예비교사들의 인식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5(11), 349-371.
- 모경환·김해성·김재우 역 (2021). **시민교육의 이해**. Brighouse, H. (2006). *On Education*. 파주: 교육과학사.
- 문시영 역 (2010). 교회됨. Hauerwas, S. (1991). *A Community of Character*. 성남: 북코리아.
- 유재봉 (2013). 영국의 종교교육: 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의 가능성 탐색. **교육과정연구**, 31(2), 199-219.
- 이지현·김희봉 역 (2014). **잘살기의 탐색**. White, J. (2011). *Exploring well-being in schools: A guide to making children's lives more fulfilling*. 파주: 교육과학사.
- 정문선 (2023).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종교'교과 「삶과 종교」에 대한 비판적 검토: 종교교과의 목적을 중심으로. **신앙과 학문**, 28(1), 101-121.
- 정문선·유재봉 (2014).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종교교육: 한국에서의 종교교육 가능성 탐색. **신앙과 학문**, 19(3), 107-129.
- 진영은 (2003). **교육과정-이론과 실제**. 서울: 학지사.
- 최경환 (2019). **공공신학으로 가는 길: 공공신학과 현대 정치철학의 대화**. 고양: 도서출판 100.
- Brighouse, H. (2006). *On Education*. London; New York: Routledge.
- De Ruyter, D. J. (2007). Ideals, education and happy flourishing. *Educational Theory*, 57(1), 23-35.
- De Ruyter, D. J. & Merry, M. (2009). Why Education in Public Schools Should Include Religious Ideals. *Studies in Philosophy & Education*, 28(4), 295-311.
- Eisner, E. W. (1979). *The Educational Imagination: On the Design and Evaluation of School Programs*. Macmillan Publishing Co.
- Eisner, E. W. (1986). The role of the Arts in cognition and curriculum. *Journal of Art & Design Education*, 5(1-2), 57-67.

- Frederike van Oorschot (2013). Public theology facing globalization. in Bedford-Strohm, H. Höhne, F. & Reitmeier T. (Ed.). *Contextuality and Intercontextuality in Public Theology*. Münster: Lit Verlag.
- Gutmann, A. & Thomson, D. (1994). *Democracy and Deliberatio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Gutmann, A. (1995). Civic education and social diversity. *Ethics*, 105, 557-579.
- Hauerwas, S. (1983). *The Peaceable Kingdom*. Notre Dame: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 Levinson, M. & Levinson, S. (2007). "Getting religion": religion, diversity, and community in public and private schools. in Curren R. (Ed.). *Philosophy of education: An anthology*. London: Blackwell.
- Noddings, N. (1993). *Educating for intelligent belief or unbelief*. New York: Teachers College Press.
- UNESCO (2016). *Education 2030: Incheon Declaration and Framework for Action*. UNESCO.
- Salili, F. & Hoosain, R. (Ed.). (2006). *Religion and multicultural education, vol. 4 in series research in multicultural education and international perspectives*. Greenwich: Information Age Publishing.
- Simpson, P. (2009). Global religious education. in Preyer, G. & Raley, Y. (Ed.). *Philosophy of Education in the Era of Globalization*. Routledge.
- Smit, D. (2007). Notions of the public and doing theology.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Theology*, 1(3), 431-454.
- Spinner-Halev, J. (2000). *Surviving diversity. Religion and democratic citizenship*. Baltimore: The John Hopkins University Press.
- Stackhouse, M. (2004). Public theology and political economy in globalizing Era. in Storrar, W. & Morton, A. (Ed.) (2004). *Public Theology for the 21st Century: Essays in Honour of Duncan B. Forrester*. London and New York: T&T Clark.
- Tracy, D. (1981). *The Analogical Imagination*. London: SCM Press.
- White, J. (2007). Well-being and education: Issues of culture and authority. *Journal of Philosophy of Education*, 41(1), 17-28.
- White, J. (2014). The secular and the religious: Is there nothing between them? A reply to Yong-Seok Seo. *Journal of Philosophy of Education*, 48(4), 553-538.

# 다원적 자유 민주주의 사회에 적합한 종교교육 유형 탐구\*

Exploring types of religious education suitable for  
a liberal, plural democratic society

정문선 (성균관대학교)

논문초록

다원적 자유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종교교육은 그 유형과 방식이 매우 다양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종교교육을 논의한다는 것은 그것이 어떤 형태가 되었든, 어떤 형식의 종교교육을 떠올리든 종교가 공적영역(공론장)에 참여하는 것에 관한 논의이다. 본 논문에서는 다원적 자유 민주주의 사회에서 종교를 가르쳐야 하는 이유와 적합한 유형을 탐구하기 위해 그 배경이 되는 다원주의, 공공신학, 종교교육의 제 유형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존 화이트, 브릭하우스, 드 워터와 메리의 종교교육에 관한 논의를 바탕으로 타당한 종교교육 유형을 탐구하였다. 오늘날 다원화된 자유 민주주의 사회에서 공동선 추구, 공동체 의식 내지 역량은 학생들이 웰빙을 영위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량 중 하나이다. 다원적 자유 민주주의 사회에서 종교는 하나의 지식으로 다루어져야 하며, 이때 종교교육은 종교 내지 세계관들 사이의 표층적인 차이와 문화의 다양성을 단순히 이해하는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된다. 종교교육은 타자와의 만남과 상호존중을 전제로 한 열린 대화를 통해 진정한 자기 이해와 공공적 삶을 위한 포용성을 갖추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 여러 가지 신앙에의 확신이 공존하는 다원주의 상황에서 진리에 관한 질문을 던지는 학생들의 동행이 되어 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며, 타자와의 차이를 무시하거나 피하지 않고 직시하도록 하는 교육의 책무이기도 하다.

주제어: 공공적 삶, 다원주의, 종교교육, 공동체적 역량, 대화



## 실시간 화상회의 기반 유아 제자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머니의 경험 탐색: 사회정서인성 성경이야기 활용\*

### Exploring the Experiences of Mothers Attending a Zoom-based Discipleship Program for Young Children: Using the Bible story about Social-emotional Character

마은희 (Eunhee Ma)\*\*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experiences and meanings of mothers who participated in Zoom-based discipleship program for young children. The subjects were three mothers who attended a discipleship program at a church in Gyeonggi-do. The discipleship program for children used 9 Bible stories about social-emotional character. The program took place over 28 weeks. The data were collected and analyzed through Zoom recordings and in-depth interviews. The mothers in the study described their experiences. There were “doubts about the possibility of discipleship training”, “positive relationships built on words of blessing and skinship”, “disappointment from incomplete worship”. And described the child's experience. There were ‘time for children to have fun’, ‘Christian education in natural daily life’, ‘increased emotional expression and emotional regulation’, and ‘activities that cannot be done with friends’. This discussion focused on the educational function of the family and the Christian social-emotional character discipleship program.

**Key words:** Christian social-emotional character, discipleship program for young children, picture books of Bible stories, Zoom-based, post corona

\* 2024년 2월 6일 접수, 3월 2일 최종수정, 3월 4일 게재확정

본 논문은 제38회 기독교학문연구회 연차학술대회 발표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임

\*\* 충신대학교(Chongshin University) 평생교육원 조교수, 서울 동작구 사당로 143, maeh@csu.ac.kr

## 1. 서론

유아기는 신앙발달의 기초를 형성하는 시기로 성장한 이후 신앙과 삶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에서 영적 발달과 전인 발달을 위한 기독교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정희정·김남임, 2013 ; 정희영·진명선, 2017). 우리나라의 기독교 유아교육은 기관중심 접근이 주를 이루었으며, 유아교육기관과 교회라는 두 개의 큰 축이 중심이 되어 왔다(강용원, 2013 ; 권미량·하연희·계영희 2018). 교회 중심의 기독교 유아교육은 발달 특성에 근거하여 부서를 더욱 세분화하였으며, 교회의 부흥과 더불어 전문성을 더해가며 발전해왔다.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큰 변화를 겪으며 교회 교육은 다음 세대의 신앙교육이라는 역할에 있어 위기를 맞이하였다.

2020년 3월 정부가 코로나19의 확산을 막는 대응으로 종교 시설 등에 운영 제한을 권고한 행정 명령을 시작으로 교회의 대면 예배는 많은 제약을 받았다. 특히 부모들이 감염에 취약한 어린 아이들의 교회출석을 꺼렸기 때문에 영·유아부의 예배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조혜정, 2020). 젊은 세대의 교회 이탈 현상도 더욱 두드러져, 청년들의 80% 이상이 10년 뒤에 신앙은 유지하더라도 교회는 나가지 않을 것 같다는 응답을 하였다(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21세기교회연구소·한국교회목회데이터 연구소, 2020). 조사에 의하면 영유아기 자녀를 둔 30-40대의 대면 예배 참여율은 다른 연령에 비해 가장 낮게 나타나([http://www.mhdata.or.kr/bbs/board.php?bo\\_table=gugnae&wr\\_id=58](http://www.mhdata.or.kr/bbs/board.php?bo_table=gugnae&wr_id=58)) 부모와 아이 모두 교회로부터 멀어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가속화된 교회학교의 쇠퇴는 아직 회복되지 않고 있다. 성인 예배는 70% 이상 회복되었다고 하지만 교회학교의 예배회복은 이에 못 미치고 있어([http://www.mhdata.or.kr/bbs/board.php?bo\\_table=koreadata&wr\\_id=280](http://www.mhdata.or.kr/bbs/board.php?bo_table=koreadata&wr_id=280)), 코로나 이후에도 교회 교육이 이전과 같이 회복되는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는 동안 사람들은 감염병 확산에 민감해졌으며, 언젠든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된다면 대면 예배를 기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출생률의 감소라는 사회적 상황과 맞물리면서 다음 세대의 신앙교육 단절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와 더불어 일각에서는 2030년 이후 교회 교육부서의 90%가 사라질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까지도 나오고 있다(<http://gdknews.kr/news/view.php?no=11870>).

이러한 시대적 배경하에 가족 중심 예배와 가정의 신앙교육 기능 회복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 기독교교육의 허브로서 교회는 가정이 신앙교육의 기능(신명기 6:4-9)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김정준, 2021 ; 박은호, 2023 ; 정희정, 2020 ; 이광수·함영주, 2018: 206-207). 일부 교회는 부서 중심 예배에서 세대를 통합하는 가족 중심 예배를 시도하기도 하였다(<https://www.kidok.com/news/articleView.html?idxno=300246>). 이는 예배의 교육적 기능과

더불어 가정의 교육적 역할 증진을 위한 하나의 노력으로 볼 수 있다. 유아를 위한 기독교교육의 과제는 유아의 가정 내에서 예배와 기도, 교육과 교제를 통해 기독교 신앙을 다음 세대로 계승하는 것이다(박은호, 2023 ; 마은희 외, 2020). 그러므로 유아를 위한 기독교교육의 패러다임은 교회가 가정의 역할과 부모의 신앙교육 역량을 강화하여 다음 세대의 신앙교육을 위해 협력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교회에 출석하여 공동체를 중심으로 가족과 함께하는 예배와 교육, 교제가 가장 바람직하지만 교회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을 꺼리는 유아와 부모들은 어떻게 지원해야 할까? 자발적으로 예배에 참석하기를 기다릴 수만은 없기에 교회는 다음세대의 신앙교육을 위한 다양한 돌파구를 모색해야 한다. 이는 기독교 유아교육이 해결해야 하는 또 다른 과제로 예배 참여율이 낮은 젊은 부모 세대와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성도들은 이미 예배와 교육, 교제에서 대면이 아닌 소통 방식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교회는 이미 익숙해진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독교 청년들은 교제와 성경공부, 예배 등에 있어 화상회의 플랫폼을 이용하는데 높은 만족도(77%)를 보였다(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21세기교회연구소·한국교회목회데이터 연구소, 2020). 코로나 이후 현재에도 구역예배 등의 소그룹 모임, 심지어 심방까지도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교회들이 등장하며, 교회의 교육과 예배 회복을 위한 제안으로 ‘하이브리드(hybrid)’ 예배, ‘올라인(all-line)’ 예배, ‘블렌디드 러닝(blended learning)’ 등의 사례가 제시되기도 한다(박노선, 함영주, 2023 ; <https://www.worldview.or.kr/newsletter/fnl/issue/4805/4813>). 물론 이러한 대안적 사례들이 같은 장소에 모여 함께 예배하는 감격과 직접적 접촉을 통한 교제의 질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교회가 다음 세대의 교육에 손을 놓고만 있을 수는 없기에 ‘온택트(On-tact)’가 익숙해진 현재의 시점에서 예배와 교육, 교제가 가능한 모든 수단을 열어 놓자는 의미이다.

유아와 가정과 소통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 실시간 화상회의 플랫폼의 활용을 제안한다. 화상회의 플랫폼은 컴퓨터 없이도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접근할 수 있고 인터넷만 연결된다면 장소에도 구애받지 않는다. 물리적인 이동 없이 가상의 공간에서 만남이 가능하고, 참여자의 일상적 공간에서 가상공간에 쉽게 드나들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한 소통 외에 즉시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이동후, 2021 ; Ebner and Press, 2020). 그러므로 화상회의 플랫폼을 유아를 위한 기독교교육의 한 수단으로 활용한다면 부모지원과 더불어 실행에 대한 모니터링이 가능할 것이다(강성국 외, 2020 ; Takeuchi, 2011). 유아에게 영상이나 놀잇감만을 제공하는 것보다 부모의 적극적인 참여가 동반될 때 교육의 효과가 더욱 컸다는 유아교육 분야의 연구결과(이미정·신지연, 2020)를 통해 유아의 신앙교육에도 부모의 참여와 지원이 필수적임을 알 수 있다. 즉 화상회의 플랫폼은 유아의 가정들이 모이는 시공간을 초월한 장소인 동시에 예배와 교제가 이루어지고, 가상공간 뒤에

개인이 속한 가정과 가족이 있다는 점에서 유아와 가정을 함께 지원하는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유아와 젊은 세대 부모의 교회 이탈 현상이 두드러지는 가운데 유아와 가정의 신앙생활을 지원하고 소통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고려할 만하다.

유아를 위한 기독교교육의 강조점에도 변화가 요구된다. 예측이 가능하지 않고 급변하는 미래사회를 살아야 할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교육해야 할까? 유아를 위한 기독교교육의 내용은 기독교 사회정서 인성을 함양한 미래사회의 리더십을 갖춘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성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교회 교육이 유아의 사회정서인성에 관심을 두어야 하는 이유는 4차 산업혁명 이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바른 인성에 대한 요구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인성은 인간이 사회관계 속에서 타인과 더불어 살기 위해 갖추어야 할 품성이나 능력을 의미한다(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2013 ; 인성교육진흥법, 2014). 유아기의 인성은 타인의 감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공감 및 배려, 공동체의 규범을 준수하고 도덕적 가치를 내면화하는 과정인 사회정서 능력을 포함한다. 유아기는 사회적 관계에서 친사회적으로 행동하는 능력과 타인의 감정을 공감하는 사회정서 발달을 기반으로 바른 인성의 토대를 다지는 시기이다(김남임, 허계형, 2015). 기독교 유아 사회정서인성의 발달은 하나님과의 관계, 기독교적 정서조절,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한 이웃사랑의 실천, 예수님의 품성을 본받은 문제해결 역량 개발을 통해 가능하다. 즉, 기독교 유아 사회정서인성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스도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회정서 역량을 개발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허계형, 2020). 그러므로 교회와 가정은 교육에서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한 기독교 사회정서인성 발달이라는 목표를 위해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유아와 가정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기독교교육의 근거로 삼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딤후 3:15-17)은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기독교적 인성을 겸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갈 것을 명령한다(정희영 외, 2014). 제자가 되는 가장 효과적인 훈련은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도록 하는 것이다(Rushdoony, 2007: 55). 유아의 발달에 적합한 언어와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 준다면 어린 유아라 하더라도 성경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가능하다(정희영, 2010: 204).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와 예수그리스도의 구속사건, 성령의 인도하심을 드러내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담고 있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자료이다. 앞선 연구들은 성경이야기를 유아가 선호하는 오감놀이(이지영·이유나, 2016)와 극놀이(오영희·정미, 2009) 등으로 제시한다면 기독교적 개념의 형성과 신앙발달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입증하였다. 성경이야기에 토대를 둔 다양한 프로그램은 유아의 사회정서 발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권정해·신인숙, 2011 ; 박수진·김미경, 2013 ; 송영란·오영희, 2006 ; 오영희·정미, 2009), 유아의 인성발달의 적절한 도구가 된다(김

성원·신현정, 2018). 선행연구의 결과들은 유아가 성경이야기를 발달에 적합한 형태로 다양하게 경험한다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기초를 형성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제자를 삼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지막 명령이다(마태복음 28:19-20). 유아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기르는 것은 유아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즉 하나님과 그 아들을 믿는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바른 인성을 함양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서로 사랑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교회 교육의 위기와 더불어 다음 세대로의 신앙 계승이 염려되는 상황에서 유아를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상을 갖춘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성하기 위한 노력은 필수적이다. 또한 교회가 기독교 교육의 허브가 되어 유아와 가정을 지원하고 신앙교육을 위해 협력하는 패러다임으로 전환을 위한 다양한 전략을 모색하여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가정과 소통하고 신앙교육을 지원하는 대안 중 하나로 실시간 화상회의 플랫폼에 기반을 둔 방법을 제시하고, 제자 훈련의 내용으로는 성경이야기 그림책을 활용한 기독교 사회정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사회정서인성 성경이야기 그림책을 활용한 실시간 화상회의 기반 유아 제자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머니의 경험과 그 의미를 탐색하여 실현 가능성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유아의 기독교 사회정서발달을 위한 가정 연계 온라인 지원체계 마련의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목적에 따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실시간 화상회의 기반 유아 제자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머니의 경험과 의미는 어떠한가?*

*둘째, 어머니가 인지한 유아의 경험과 의미는 어떠한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 환경 및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사회정서인성 성경이야기 그림책을 활용한 유아 제자훈련 프로그램을 실행한 곳은 경기도 소재 중소도시의 소형교회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유아부 모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다. 화상회의 기반 유아 제자훈련의 실행자는 담임목사 사모로 유아교육, 기독교교육, 유아특수교육을 전공하였으며, 유치부 교육전도사, 유치원 교사, 어린이집 원장의 현장 실무 경력이 있다. 제

자훈련에 참여한 유아는 만 2세 여아 2명, 만 3세 여아 1명, 만 4세 남아 1명, 만 5세 남아 1명, 만 6세 여아 1명으로 총 6명이다. 유아의 부모는 실행교회에서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여 신앙경력 3년 미만으로 교회 내 직분은 없는 부모 5명, 또한 20년 이상 신앙경력의 부모 4명,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어머니 1명이다. 본 연구의 대상은 28주 제자훈련 프로그램 중 23주 이상 출석하였으며, 본 연구의 목적과 취지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에 동의한 3명의 어머니이다. 유아 3명의 이름은 ‘믿음이’, ‘소망이’, ‘사랑이’로 가명을 사용하였다.

<표 1> 제자훈련 프로그램 참여자의 일반적 배경

유아(가명)	연령	성별	어머니			아버지		
			연령	신앙경력	직분	연령	신앙경력	직분
화평이	4세	남	30대	3년 미만	성도	30대	10년 이상	성도
총만이	5세	남						
기쁨이	2세	여	20대	없음		30대	모태신앙	성도
사랑이*	2세	여	40대	3년 미만	성도	40대	3년 미만	성도
믿음이*	3세	여	30대	20년이상	성도	30대	20년이상	성도
소망이*	6세	여	30대	20년이상	집사	30대	20년이상	집사

\* 유아의 어머니는 연구 대상

## 2. 유아 제자훈련 프로그램

본 연구에서 활용한 사회정서인성 성경이야기 그림책(허계형 외 글, 정양권 그림, 2021)은 기독교 유아 사회정서 인성교육 모형에 기초한 9편의 성경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기독교 유아 사회정서 인성발달 모형은 기독교 사회정서 인성을 겸비한 미래사회 인재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에 의한 정서 발달, 예수님의 성품 함양,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리더십 역량을 목표로 한다(허계형, 2020: 28).

1-2과의 핵심요소는 ‘하나님과 관계 회복’으로 창조, 타락, 구속, 하나님 나라 이해를 핵심역량으로 한다. 1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창 1:26-31)’은 하나님의 천지창조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 인간의 타락, 구원자이신 예수그리스도를 소개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기독교 신앙의 기본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지원한다. 2과 ‘우리와 함께하시는 예수님(마 8:23-27; 막 4:35-41; 요 14:15-18,26)’은 바다를 잠잠하게 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분이심을 알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친밀함을 유지하는 삶을 살도록 지원한다.

3-6과의 핵심요소는 ‘기독교 정서발달’로 기독교적 정서이해, 정서표현, 정서조절을 핵심역량으

로 한다. 3과 ‘예수님과 함께한 베드로의 감정이야기(눅 5:4-11; 마 14:22-33; 눅 22:54-62; 요 21:15-17)’는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있었던 사건들을 통해 베드로가 느꼈던 실망, 기쁨, 두려움, 놀람, 믿음, 부끄러움, 후회, 슬픔, 사랑 등 다양한 감정을 소개한다. 다양한 감정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것임을 알고 자신의 감정과 타인의 감정을 인식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4과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는 목자의 마음(눅 15:1-7; 마 18:12-14)’은 한 마리 양을 찾으시는 선한 목자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모든 상황과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우리를 찾으시는 예수님의 마음 공감하도록 지원한다. 5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 이야기(삼상 17:57-18:5)’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골리앗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는 다윗의 용기와 다윗을 질투하는 사울을 헤치지 않는 다윗을 소개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서를 바르게 표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정서를 조절하도록 지원한다. 6과 ‘거북이 터커의 사랑연습(엡 4:26-27)’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는 말씀에 근거하여 분노조절을 연습할 수 있도록 거북이 터커의 4단계 기술을 소개하는 창작이야기이다. 거북이 터커의 4단계 기술은 1단계: 화가 났음을 인식하기, 2단계: 생각과 행동을 멈추기, 3단계: 등껍질에 들어가 마음을 가라앉히기, 4단계: 진정이 되면 나오기로 이루어진다.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화를 인식하고 조절하는 방법을 연습하여 타인에게 해가 되지 않고 사회적으로 용납되는 방법으로 분노를 조절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7-9과의 핵심요소는 ‘기독교 사회성 발달’과 ‘기독교 미래사회 리더십’으로 기독교 이웃사랑의 실천, 친사회성, 의사소통, 예수님 성품기반 창의적 문제해결력, 협업을 핵심역량으로 한다. 7과 ‘친구가 된 요나단과 다윗(삼상 17:57-18:5)’은 친구의 개념을 알고, 친구와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친사회적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8과 ‘삭개오의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님(눅 19:1-10)’은 소외된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 친구가 되어 주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 친구가 되자고 먼저 다가가고 친구가 되기를 청할 수 있는 사회적 기술을 사용하도록 지원한다. 9과 ‘예수님을 닮은 사람(요 13:34-35; 마 28:18-20)’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과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소개하여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의 실천하고 친사회적 행동을 하는 ‘슈퍼친구’가 되도록 지원한다.

유아 제자훈련 프로그램은 유아가 각 과가 시작되는 첫 주에 성경이야기를 듣고 3주 동안의 성경이야기 관련 활동을 통해 성경이야기를 이해하고, 내면화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28주로 구성하였으며, 보다 많은 활동 자료는 서적을 참고할 수 있다(허계형 외, 2021). 전체 프로그램의 개요는 <표 2>과 같으며, [그림1]은 유아 제자훈련 프로그램의 실행 예시이다. 제자훈련에 불참한 유아도 가정에서 부모와 함께 해 볼 수 있도록 편집한 영상은 QR코드로 제시하였다.


<표2> 사회정서인성 성경이야기를 활용한 유아 제자훈련 프로그램

요소	기독교 사회정서인성 핵심역량	성경이야기	활동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창조, 타락, 구속, 하나님의 나라 이해	1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창 1:26-31)	오리엔테이션, 1과 성경이야기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꾸미기(1-3일)
		2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마 8:23-27; 막 4:35-41; 요 14:15-18,26)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꾸미기(4-7일)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가기
기독교 정서발달	기독교적 정서이해, 정서표현, 정서조절	3과 예수님과 함께한 베드로의 감정이야기 (눅 5:4-11; 마14:22-33; 눅 22:54-62; 요 21:15-17)	스크래치 종이에 파도치는 바다 그리기
			베드로의 감정 책 만들기
			베드로의 물고기 낚시놀이
		4과 잃은 양을 한 마리를 찾는 목자의 마음 (눅 15:1-7; 마 18:12-14)	이불 뱃놀이
			푸른 풀밭 꾸미기
			양 모양 책갈피 만들기
		5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 이야기 (삼상 17:57-18:5)	팝콘으로 양 만들기
			다윗과 골리앗 머리띠 만들기, 역할놀이
			기도 손 만들기
		6과 거북이 터커의 사랑 연습 (엡 4:26-27)	감정온도계 만들기
			거북이 터커의 감정조절 카드 만들기
			거북이 장갑 인형놀이
기독교 사회성 발달, 미래사회 리더십	기독교 이웃사랑의 실천, 친사회성, 의사소통, 예수님의 성품기반 창의적 문제해결력, 협업	7과 친구가 된 요나단과 다윗 (삼상 17:57-18:5)	감정을 조절하는 나만의 공간 만들기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 만들기
			짜꿍 목걸이 만들기
		8과 삭개오의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님 (눅 19:1-10)	예수님은 나의 최고의 친구
			삭개오의 얼굴 표정 만들기
			예수님과 삭개오의 식탁 꾸미기
		9과 예수님을 닮은 사람 (요 13:34-35; 마28:18-20)	나랑 같이 놀자 역할놀이
			슈퍼친구 막대인형 놀이
			슈퍼친구 팔찌 만들기
			슈퍼친구 망토 만들기, 수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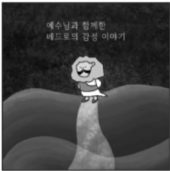
사회정서인성 요소

기독교 정서발달



사회정서인성 역량


기독교적 정서이해




**3과 예수님과 함께 한 베드로 감정 이야기**

- 우리에게 다양한 감정을 주신 하나님
- 하나님이 주신 다양한 감정 인식하기

활동 1. 베드로의 감정 책 만들기  
활동 2. 베드로의 물고기 낚시놀이  
활동 3. 식빵 얼굴표정 꾸미기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기쁨, 슬픔, 놀라움, 두려움 같은 모든 감정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의 땅을 행하러 오시는 하나님을 통해 모든 감정에 사랑을 담을 수 있도록 꼭 지켜주세요.



**4과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는 목자의 마음**

- 우리의 모든 상황과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의 사랑
- 예수님의 마음 공감하기

활동 1. 푸른 풀밭 꾸미기  
활동 2. 양 모양 책갈피 만들기  
활동 3. 팝콘으로 양 만들기



출처: <https://m.blog.naver.com/osanzip/222339389335>

[그림 1] 유아 제자훈련 프로그램의 실행 예시

### 3. 연구절차

화상회의 플랫폼 기반 유아 제자훈련은 2021년 3월 20일부터 9월 25일까지 28주 동안 실시되었다. 화상회의 기반 유아 제자훈련의 실행절차는 모집 및 준비, 제자훈련 실행, 실행내용 공유의 크게 3단계로 이루어진다. 모집 및 준비 단계에서는 광고를 통한 홍보와 성경이야기 그림책 보내기, 실행의 단계에서는 화상회의 플랫폼 활용 연습과 제자훈련 실행, 실행 공유 단계는 활동 자료의 편집과 SNS를 통한 공유로 이루어진다. 실행절차는 [그림 2]와 같다.

1단계: 모집 및 준비 실행 전 1개월	2단계: 제자훈련 실행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30-40분)	3단계: 실행 공유 실행 후 일주일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배시간 광고</li> <li>· 교회 블로그, 카카오톡 홍보</li> <li>· 교회의 관심 유도</li> <li>· 개별 연락</li> <li>· 성경이야기 그림책 배송</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상회의 플랫폼 활용 연습</li> <li>· 활동 자료 배송 및 안부 전하기</li> <li>· 성경이야기 동영상</li> <li>· 관련 활동 및 놀이</li> <li>· 기도</li> <li>· 자녀 축복하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별 피드백</li> <li>· 유아의 활동사진 및 결과물 게시</li> <li>· 활동 내용 편집</li> <li>· 카카오톡 게시</li> <li>· 교회 블로그 업로드</li> <li>· 교인들과 공유</li> </ul>



[그림 2] 실시간 화상회의 기반 유아제자 훈련의 실행절차

모집 및 준비는 예배시간 광고, 교회 블로그와 교인 카카오톡에 홍보, 개별 연락, 성경이야기 그림책 전달로 이루어졌다. 사회정서인성 성경이야기 그림책을 활용한 유아 제자훈련을 앞두고 교회 전체 성도를 대상으로 광고를 하였다. 교회 주부와 공적 예배시간, 교회의 블로그, 교인들 단독방에 목회계획으로 유아 제자훈련을 실행할 예정임을 1개월 이상 광고하여 교인들의 관심과 기도를 유도하였다. 또한 유아의 부모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을 하여 제자훈련의 필요성과 성경이야기 그림책을 중심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안내를 하고 참여를 독려했다. 부모가 대부분 직장을 다니는 점을 감안하여 모임이 가능한 시간을 대략적으로 정하였다. 제자훈련 시작 1주일 전에 단독방을 만들 것이라고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단독방을 개설하였으며, 단독방에서는 서로 인사나누기, 모임시간 조율, 필요한 사항 전달이 이루어졌다. 모임 시간은 조율과정을 거쳐 매주 토요일 오후 4시로 결정하였다. 성경이야기는 택배, 직접 방문, 문고리 전달의 방식으로 배송하였다.

성경이야기를 활용한 유아 제자훈련의 실행은 매주 토요일 오후 4시에 약 30-40분간 이루어졌다. 제자훈련이 시작되기 3일 전 실시간 화상회의 프로그램에 익숙하지 않은 부모를 위해 개별적으로 화상회의 시스템에 접속하는 연습을 하였다. 연습을 통해 유아와 인사를 나누고 마이크와 영상 등의 작동 여부를 점검하였다. 2일 전 성경이야기를 동영상으로 제작하였다. 출판사에서 제공한 PPT에 성경이야기를 읽어주는 방식으로 목소리를 입히고, 찬양을 배경 음악으로 넣어 재생이 가능한 영상을 준비하였다. 유아가 친숙한 목소리로 성경이야기를 듣도록 진행자가 제작하였다. 각과별 활동 자료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각 가정으로 택배, 직접 방문, 문고리 전달 방식으로 배송하고, 단독방과 개인톡에 안부와 환영의 메시지를 보냈다. 1일전 실시간 화상회의의 링크를 제공하였다.

제자훈련은 동영상으로 제작된 성경이야기 듣기, 성경이야기 관련 활동 및 놀이, 기도, 자녀 축복 하기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유아는 동영상으로 제작된 성경이야기를 들으며 성경이야기 그림책을 함께 읽고, 진행자는 동영상을 재생한 이후 성경이야기의 내용의 핵심 주제를 다시 한번 부연 설명을 하였다. 성경이야기 관련 활동은 유아의 발달 특성에 적합한 놀이로 접근하여 가정에서 부모와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1주에 한 가지씩 3개의 활동을 3주 동안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참여한 유아의 연령이 다양하여 연령이 낮은 유아의 경우 미리 오리거나 스티커 작업을 해서 보냈으며, 연령이 높은 유아는 경우 스스로 오리거나 그리기, 글씨로 적어보기 등을 추가하였다.

유아의 제자훈련이 진행되는 동안 부모는 접속부터 마무리까지 유아를 지원하는 역할로 참여한다. 부모는 유아에게 필요한 자료를 준비해 주고, 함께 경청하고 반응하며 유아와 상호작용을 한다. 가상공간에 있는 진행자를 대신하여 부모는 유아의 직접적인 놀이의 대상자가 되고 신체적 접촉과 모델링, 언어적 촉진자의 역할을 한다. 진행자는 제자훈련 중 부모에게 ‘이렇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상호작용 해 주세요.’, ‘격려해 주세요.’ 라고 제안하여 부모로 하여금 유아와 함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느끼고, 공감하며 유아를 지원하도록 하였다. 연령이 높은 유아는 스스로 글을 써보거나 시범 보이기, 느낌 말하기 등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연령이 어린 유아를 위해서는 부모의 역할을 강조하여 안내하였다. 제자훈련은 기도와 자녀를 축복하는 시간으로 마무리 된다. 부모와 유아가 함께 기도를 따라하는 기도를 마친 후 유아가 온라인 공간에 함께 있는 친구에게 하트, 엄지척 등을 날리며, 서로를 칭찬하는 시간을 갖는다. 다음으로 부모는 ‘OO아 너는 하나님의 자녀란다’, ‘예수님은 너를 사랑하신단다.’, ‘OO아 사랑해!’, ‘하나님은 언제나 너와 함께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의 마음을 모두 알고 계신단다.’라고 말하며, 머리를 쓰다듬고 등을 토닥이거나 안아 준다. 유아가 부모와의 관계, 함께하는 시간, 그리고 놀이와 활동을 통해 말씀을 기억하도록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지원하고 신앙성장과 부모의 신앙적 양육기능을 회복하도록 온라인 지원 교수-학습 지원체계를 활용하였다.

유아 제자훈련 실행 이후 지속적인 관리와 모니터링, 교회공동체의 교제를 위하여 제자훈련의 내용을 교인들과 공유하였다. 제자훈련 실행 후에는 단체톡과 개별톡을 활용하여 격려 메시지 등의 긍정적인 피드백을 보낸 후 활동사진 및 결과물을 업로드하도록 독려했다. 실행 다음 날은 실시간 화상회의 녹화 영상에 성경이야기와 활동의 방법을 안내하는 자막을 추가하여 제자 훈련에 불참한 유아도 가정에서 부모와 함께 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제자 훈련 편집 동영상은 실행 후 일주일 이내에 교인의 단톡방과 교회 블로그에 업로드 하여 교회 공동체의 관심을 유도하고 유아와 부모를 격려하고 축복하도록 하였다.

#### 4.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연구의 자료는 Creswell(2012)과 김영천(2012)이 제시한 질적 연구의 자료수집 방법에 따라 참여한 부모들의 동의를 얻어 실시간 화상회의 녹화와 면담을 통해 수집하였다. 실시간 화상회의 녹화 내용 중 부모님의 질문이나 반응 등은 별도로 기록하였으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중간 어머니들의 반응과 질문 등에 대해서는 기독교 사회정서 인성 제자훈련 프로그램의 저자들과 협의하여 연구자의 방향에 대해 검토하는 과정을 거쳤다. 각 어머니에 대한 심층면담은 프로그램을 종료한 후 총 28주 중 23주 이상 출석한 어머니를 대상으로 9월 25일부터 10월 2일까지 이루어졌다. 사랑이 어머니는 총 76분, 믿음이는 어머니 총 83분, 소망이는 어머니 52분 전화 통화를 통해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A4용지 40장의 분량으로 전사하였으며, 자료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와 의미를 찾아 주제를 분류하고 분석하였다. 전사 자료와 분석 자료는 면담에 참여 어머니 3명에게 재차 확인하도록 하여 의도의 명확성을 검토하였으며, 원하지 않는 내용은 삭제하였다. 연구의 타당도를 위하여 면담자료의 분석과정에서 기독교 유아교육을 전공한 교육전도사 1인과 성경이야기 그림책의 저자 중 1인이 연구자와 교차 검토하는 과정을 거쳤다.

### III. 연구결과

#### 1. 실시간 화상회의 기반 유아 제자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머니의 경험과 그 의미

유아 제자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머니는 부담감과 의구심을 함께 가지고 참여하게 되었다. 제자훈련 과정에서 축복의 언어와 스킨십을 통해 자녀와 긍정적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다. 그러나 온전한 예배는 아닌 것 같은 아쉬움이 남음을 표현하였다.

##### (1) 유아부 예배의 대안이지만 ‘가능할까?’라는 의구심 속에 시작한 유아 제자훈련

유아 제자훈련에 참여한 어머니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대면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염려와 부담에서 제자훈련 프로그램에 참여를 신청하였으나, 참여 초기에는 아직은 익숙하지 않은 방법과 유아에게 화상회의 플랫폼 기반 제자훈련이 가능할까 반신반의하며 의구심을 가졌다.

믿음이에게 죄책감이 덜해졌어요. 제가 5-6살 때 교회에 정말 열심히 다녔거든요. 근데 코로나 때 문에 저나 남편도 직장에 가야하고 아이도 어린이집에 가야해서 교회도 못가고 있는데... 초등학교

교 때 듣는 거랑 아주 어릴 때 듣는 거랑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참여를 했는데 처음에는 줌으로 (제자훈련)을 하는 것은 잘 안될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도 회사에서 회의를 해 보았지만 아이들에게는 전달이 잘 안될 것 같았어요. 아무래도 아이들이다 보니까 어린이집에서 잠깐 줌으로 수업을 했는데 잘 안되더라고요. (9. 27. 믿음의 어머니 심층면담)

처음에는 코로나가 금방 끝나겠지 생각했어요. 근데 벌써 2년째잖아요. 예배를 못 드리는 것이 불안해 지기 시작했는데 교회에서 인터넷으로 제자훈련을 한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다 생각하면서 신청했어요. 그래도 예배가 될까하고 생각했어요. (10. 2. 소망의 어머니 심층면담)

사실 아이가 태블릿 PC도 많이 접하고 TV도 많이 노출되어서 염려했었는데... 학습지를 태블릿으로 하는 것은 아이가 싫어했거든요. 아무래도 아이가 어리다 보니까 잠깐 있다가 돌아다니고... 우리 사랑이만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지금은 앉아 있는 시간도 길어지고 많이 컸어요. 처음에는 줌이 (접속도) 잘 안 되고... 이거 못하는 거 아냐 하고 걱정했거든요. (10. 1. 사랑의 어머니 심층면담)

## (2) 축복의 언어와 스킨십을 통한 자녀와 긍정적 관계 형성

유아 제자훈련에 참여한 어머니는 매번 프로그램을 마칠 때 서로를 축복해 주고, 부모가 자녀를 축복해 주는 시간이 통해 자녀와 긍정적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되었음에 의미를 두었다. 또한 자녀를 바라보는 관점과 어머니의 상호작용 방식의 변화가 아이와의 관계 개선에 긍정적인 작용을 하게 되는 경험하였다.

제가 아이를 못하게 하거나 떼를 쓰면 혼내는 경우라 많았어요. 나도 모르게 '안돼'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평소에 아이에게 표현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마지막에 아이를 안아주고 칭찬하고 축복해 주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에 '사랑해'라고 말하면서 안아주니까 처음에는 쑥스러워 하고 도망가더니 좋아하는 거예요. (10. 1. 사랑의 어머니 심층면담)

어제도 사랑이하고 싸웠거든요. 아이가 한 번 떼쓰기 시작하면 저도 같이 화를 내게 되고.... 아이 양육에 대해 고민이 많았었는데 사모님하고 대화하니 마음이 훨씬 편해졌어요. 소리 지르는 것이 덜해졌어요. 제가 변하니깐 아이가 확실히 밝아졌어요. 사촌도 사랑이가 더 밝아지고 표현하는 것도 더 풍부해 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의 어머니 제자훈련 녹화자료)

우리 ○○이는 축복하는 시간에 제 손을 끌어다가 머리를 쓰다듬어요. 원래도 우리 아이가 엄마 껌딱지였는데 ‘너는 하나님의 자녀란다’라고 말하면서 쓰다듬어주고 하트를 날려주니까 너무 좋아하면서 저에게 안기는 거예요. …중략… 저도 원래 아이를 칭찬하거나 감정을 잘 표현하는 편이 아닌데… (10. 2. 소망이 어머니 심층면담)

### (3) 성경공부나 공과 활동은 좋으나 온전한 예배는 아닌 것 같아 여전한 아쉬움

유아 제자훈련에 참여하는 동안 어머니는 교회에서 권해서 참여하면서 예배 시간에 설교만 들을 때와는 다르게 부모도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되는 것이 있음을 고백하였다. 그러나 유아 제자훈련이 주일예배에 대신 이것이라도 해야지 하는 느낌이 있음을 표현하였다. 아이도 즐거워하고, 아이와의 관계도 나아졌지만, 웬지 제자훈련이 예배는 아닌 것 같은 기분에 대해 말하였다.

성경이야기 듣고 활동이나 놀이가 많았잖아요. 근데 저도 새롭게 알게 된 게 많더라고요.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녔거든요. 그 뭐 예를 들면 천지창조… 환경을 만드시고 사람을 나중에 만드신 거요. 잘 몰랐거든요. 순서도 정확히는 모르고, 또 베드로가 그냥 성격 급한 사람인 줄은 알았는데, 감정… 예수님을 배반한 감정도 좋았어요. 다르게 생각하게 됐어요. 성경공부, 어렸을 때 공과 활동하는 기분이었어요. (9. 27. 믿음의 어머니 심층면담)

남편이 교회에 같이 안 가면 아이가 어리고 해서 저 혼자 교회에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이거라도 있어서 좋았어요. 우리 사랑이도 여기에서 언니들 만나는 것도 좋아하고. 교회에 못 가도 그래도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니 이거라도 했구나라고 생각은 하는데. 교회에 가서 예배드릴 때 잘 앉아 있지 않으면 힘들고 집에서는 편하게 있어도 돼서 좋은데 예배를 이렇게 드려도 되나 싶기도 하구요. (10. 1. 사랑이 어머니 심층면담)

사모님이 하자고 하시니까, 전문가니까, 우리 아이는 차분한 편이라서 열심히 했어요. 아이도 즐거워 하고, 저랑도 관계가 좋아져서 표현도 잘하고... 그래도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거랑은 조금 달라요. 좀 덜 거룩한 거 같아요. 저도 동생이 울면 왔다갔다 하게 되고, 아이들이 내복 입고 예배드리는 게 어떤지 제가 교회다닐 때 그렇게 배우지 않은 것 같은데요. 잘 모르겠어요. (10. 2. 소망이 어머니 심층면담)

## 2. 어머니가 인지한 유아의 경험과 그 의미

유아 제자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머니는 유아가 친구들과의 만남, 활동과 놀이 때문에 제자훈련 시간을 즐거워한다고 하였다. 유아가 제자 훈련에 참여하면서 기도습관이 형성되고 일상에서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언급하는 변화가 나타났다고 하였다.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감정을 조금씩 표현하기 시작한 점과 잠깐이지만 기다리는 것이 가능해졌음이 나타났다. 그러나 유아의 친사회성 증진과 기독교 이웃사랑의 실천은 교회 친구들을 만날 기회가 없어 한계가 있음을 언급하였다.

### (1) 아이가 기다리고 즐거워하는 제자훈련

어머니는 유아가 제자훈련 시간을 즐거워하며 기다리고 있다고 인지하고 있었다. 유아가 제자훈련 시간을 기다리고 즐거워하는 이유로 화상회의 플랫폼을 통해 친구들과의 만남과 교제, 그림책을 활용한 활동과 놀이를 들었다.

우리 믿음이 이 시간을 기다려요. 너무 아프거나 몸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요일 이 시간이 되면 친구들 만나서 얘기하고 놀이하는 것을 너무 좋아해요. ○○가 안 온 날은 ○○는 어디 갔냐고 저에게 묻더라고요. 우리 믿음이는 제자훈련에서 화면으로 친구들을 보면서 만들기하고 얘기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9. 27. 믿음이 어머니 심층면담)

성경이야기 그림책을 제가 읽어 주려고 했는데 내용이 어렵더라고요. 근데 만들기 자료나 놀이감 주시잖아요. 성경동화 듣고, 활동 같은 것을 하고 나면 아이가 '이거 물감그림 그린 거잖아'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알고 다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직도 만든 거 가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리거나 만들기 같은 게 있으니까 재미있고 더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아요. (10. 2. 소망이 어머니 심층면담)

근데 오늘은 믿음이랑 친구들이 보이지 않네요. 소망이 혼자인가요? 아휴 소망이 아쉽겠네! 사랑이하고 아이들 귀엽다고 좋아하는데... (중략) 동생이 있어도 여기서 아이들 만나는 것 좋아해요. 오늘 동생이랑 엄마랑 같이하자. (유아가 '○○하고 ○○이는 오늘 왜 안와요?' 라고 물어 진행자가 어머니께 전달받은 결석이유에 대해 설명해 줌) (소망이 어머니 제자훈련 녹화자료)

우리 사랑이는 아직 어려서 공부하는 것은 잘 따라가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그래도 제

자훈련을 하면서 화면으로 언니들을 만나는 것 보는 것을 좋아해요. (10. 1. 사랑이 어머니 심층면담)

### (2)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어느 새 일상이 된 신앙 교육

어머니는 유아가 제자훈련 시간을 자연스러운 일상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으며 기도습관과 하나님을 인정하는 언어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고 인지하였다. 유아가 과거에는 기도를 장난치듯이 했다면 제자훈련에 참여하면서 기도의 흐름을 알고 보다 진지한 자세로 기도하게 되었으며,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에 대해 언급을 하게 된 점을 예로 들었다.

가장 좋은 점은 '기도'예요. 옛날에는 장난으로 '아멘'했다면 기도나 예배흐름을 알고 진지하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잖아!' 이런 말로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9. 27. 믿음이 어머니 심층면담)

별거는 아닌데.. 자기 전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노래를 불러줘요. 그러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중략) 기도도 옛날에는 (아이가) 딴 짓을 했는데, 저도 기도가 숙스러웠는데 지금은 많이 바뀌고 너무 잘하는 거예요. (사랑이 어머니 제자훈련 녹화자료)

아이가 시간을 아는 거예요. 토요일 4시로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 시간 되면 TV를 끄고 제자훈련에 참여하더라구요. (10. 1. 사랑이 어머니 심층면담)

### (3) 조금씩 늘어난 감정표현과 잠깐은 할 수 있는 기다림

어머니는 유아가 제자훈련 중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 시작한 점과 잠깐 동안이지만 기다리는 것이 가능해졌음을 전하였다. 그 이유는 베드로, 잃은 양, 거북이 터커 이야기를 통해 다양한 감정 단어와 감정 조절의 방법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우리 소망이는 원래 숙스러움이 많아서 자신의 감정을 잘 얘기 안 하거든요. 동생한테도 말도 잘 안 하고 저를 봐요. 나중에 학교에 가서도 그럴까 걱정도 돼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병풍 처럼 생긴 베드로 책을 늘렸다 폼다 하면서 좋아하더라구요. 그리고 그 예수님 그림이요. 동생이 물건을 뺏으니까 거기로 가서 팔로 자기 머리 쓰다듬더라구요. 저는 좀 웃겼어요. (소망이 어머니 제자훈련 녹화자료)



조금 전에 시리얼하고 사탕 먹겠다고 막 떼쓰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떼쓰느라 오늘 예배 참석 못했을 텐데요. 제가 두 개만 먹고 세 개는 식탁 위에 두었다가 나중에 먹자고 하니까 사탕 봉지를 닫더라고요. (이야기 도중 유아가 식탁에 있는 사탕 세 개를 가지고 와서 먹음) 잃은 양 찾기 하면서 '니가 울면 엄마도 슬퍼'라고 했거든요. 제가 거북이 터커 얘기 잘 써먹어요. 그러면 잠깐은 기다리는 것 같아요. (사랑이 어머니 제자훈련 녹화자료)

#### (4) 만남의 기회가 없어 실천이 어려운 친구 관련 활동들

유아의 친사회성 증진과 기독교 이웃사랑의 실천을 다루고 있는 활동들은 실제로 교회 친구들을 만날 기회가 없어 친구에게 실천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음을 설명하였다. 가정 내에서 실천 가능한 활동들도 있었지만 부모가 친구가 되어 주어야만 하는 한계가 있었음에 대해 언급하였다.

친구를 만나지 못하잖아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좋아하는 친구가 한 명 있는데 만든 것 선물로 주니까 그냥 시큰둥 하더라고요. 우리 믿음이는 별 상관 안했는데 교회 친구를 만날 수 있으면 좋았을 텐데요. 저번에 교회에 갔을 때, 방울(머리끈) 사랑이한테 준다고 했는데 사랑이가 안 와서 그냥 다시 가지고 왔어요. 못 만나니까 그 점이 아쉬워요. (9. 27. 믿음이 어머니 심층면담)

슈퍼친구 망토 그거 너무 좋아했어요. 불빛 나오는 거 아직도 좋아해요. 동생 것도 챙겨 주셔서 감사해요. 집안에서 있었던 일 칭찬해 주기는 했는데, 이웃사랑 실천은 너무 어려워요. 그래도 가정에서 자기가 할 일은 더 잘 한 것 같아요. 제가 친구 대신 고맙다고 말했는데 좋아하더라고요. (10. 2. 소망이 어머니 심층면담)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기독교 사회정서인성 성경이야기 그림책을 활용한 화상회의 기반 유아 제자훈련 프로그램의 실행 사례를 소개하고 어머니의 참여 경험과 그 의미를 탐색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 유아의 기독교 사회정서발달을 위한 가정 연계 온라인 지원체계 마련의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실행 사례는 방법적 측면에서 가정이 교육의 장(context)으로서의 고유한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유아와 가정을 지원하는 전략 중 하나로 활용할 만하다. 또한 내용 측면에서 기독교 사회정서인성을 겸비한 미래사회의 인재 양성을 위한 유아 제자훈련 프로그램을 제안한다.

어머니의 경험과 그 의미, 어머니가 인지한 유아의 경험과 그 의미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실시간 화상회의 기반 유아 제자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머니의 경험과 의미는 ‘의구심 속에 시작한 유아 제자훈련’, ‘축복의 언어와 스킨십을 통한 자녀와 긍정적 관계 형성’, ‘온전한 예배는 아닌 것 같은 여전한 아쉬움’으로 요약된다. 어머니는 대면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부담감과 화상회의 기반의 제자훈련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참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제자훈련을 실행 전 화상회의 플랫폼 접속을 위한 사전 연습의 시간을 가졌었으나, 이제는 사용법에 익숙해졌고 활용도 더욱 다양해졌다. 별도의 비용 없이 누구나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화상회의 플랫폼 기반 제자훈련은 본 연구를 실행한 교회와 같은 소규모의 교회에서도 활용하기에 별 무리가 없다. 이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이 분명하고, 틀린 길이 아니라면 해답을 찾기 위해 어디라도 가야 한다는 것이다(권순웅 외, 2020: 152). 교회가 신앙의 계승을 위해 하이브리드 예배, 온라인 예배, 브렌디드 러닝 등 다양한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는 시점에서 본 연구의 화상회의 플랫폼 기반 제자훈련 방법은 또 다른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유아의 어머니는 온전한 예배는 아닌 것 같은 아쉬움이 남음을 표현하고 있음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어머니의 반응을 미루어 볼 때 온라인상의 만남은 대면 예배를 대체할 만큼의 만남과 질적 교체, 그리고 공동체성을 가지기는 어려운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예배와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는 이를 보완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반드시 요구된다.

제자훈련 과정에서 부모는 축복의 언어와 스킨십을 통해 자녀와 긍정적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다. 교회는 가정이 기독교 교육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부모에게 적절한 신앙교육 관련 활동을 제공해 주고, 부모의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박은호, 2023 ; 임상훈, 2020 ; 정희정, 2020). 제자훈련의 참여한 어머니는 훈련의 전 과정에서 유아와 함께 활동과 놀이를 하였다. 또한 진행자는 자녀를 격려하기, 축복하기 등 바람직한 기독교적 상호작용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자녀와 긍정적 상호작용을 통한 관계를 형성하도록 지원하였다. 기독교 유아 사회정서인성 제자훈련 프로그램은 하나님과의 관계, 즉 믿음을 가장 근본적이며 중요한 요소로 제시한다. 유아기 부모와의 긍정적인 관계형성은 유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기초가 된다(허계형, 2020). 그러므로 유아를 위한 기독교 교육은 가정 내에서 부모님의 사랑을 경험하도록 하여 유아의 수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기독교교육의 패러다임이 교회의 부서 중심에서 가정 중심, 가족 중심으로의 변환이 필요한 이 시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는 가정의 신앙교육 회복과 부모의 기독교 양육역량 강화를 위한 하나의 사례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단순한 동영상과 활동 자료만을 제공할 경우, 부모의 신앙 정도와 실행

력에 따른 차이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일반 유아교육에서도 원격수업의 질을 좌우하는 전제조건으로 부모의 적극적인 참여가 강조되고 있어(이미정·신지연, 2020), 교회는 가정을 지원하는 사명이 있음을 받아들이고 기독교교육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박은호, 2023 ; 함영주, 2021). 또한 유아를 위한 기독교교육에서는 부모의 실행과 유아의 반응에 대한 점검과 피드백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마은희 외, 2020 ; 임상훈, 2020 ; 허계형, 2020). 본 연구는 교회와 가정의 상호작용 방안을 제시한 선행연구(임상훈, 2020)에서 더 나아가 유아의 가정에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부모가 자녀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실시간 지원 및 모니터링을 한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또한 교인들의 단독방과 블로그를 통한 격려와 피드백은 교회 공동체의 관심을 유도하는 역할을 하였다. 화상회의 기반 유아 제자훈련이 예배를 대체하는 것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부모가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하여 신앙적 양육기능을 담당하도록 교회 공동체의 지속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화상회의 기반 유아 제자훈련은 유아를 둔 가정에 대한 비대면 심방과 상담을 병행한 목회적 기능을 일부 감당하였다. 코로나 펜데믹은 목회 방법에 다양한 전환을 가져왔다(최동규, 2020). 예를 들면 비대면 심방이다. 실시간 화상회의 플랫폼은 물리적인 이동 없이 참여자의 일상 공간에 가상 공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비대면 심방의 도구로도 유용하다(이동후, 2021 ; Ebner and Press, 2020). 제자훈련의 시작과 마무리에 근황과 안부를 묻는 과정에서 가정의 이야기, 자녀양육과 관련한 이야기 등 소소한 일상에 관한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왔으며, 유아와 가정의 필요를 알게 되고 기도제목을 나눌 수 있었다. 이는 제자훈련에 참여한 부모가 고민을 나누고 마음이 편해졌으며, 자신의 변화가 아이의 변화를 초래했다고 고백한 부모의 반응에서 확인된다.

둘째, 어머니가 인지한 유아의 경험과 그 의미는 ‘아이가 기다리고 즐거워하는 시간’,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어느새 일상이 된 신앙교육’, ‘조금씩 늘어난 감정표현과 잠깐은 할 수 있는 기다림’, ‘만남의 기회가 없어 실천이 어려운 친구 관련 활동들’로 정리된다. 유아는 비록 화상회의에서지만 친구와의 만남과 교제, 성경이야기를 활용한 활동과 놀이로 인해 즐거워하고 기다린다고 하였다. 그러나 유아의 친사회성 증진을 위한 활동과 이웃사랑의 실천은 교회 친구들을 만날 기회가 없어 어려움과 한계가 있음이 드러났다. 어머니의 경험 이야기를 통하여 감정표현이 적은 편이었던 유아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 시작하게 되었고 마음을 진정하기 위한 전략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가정 내에서 떼쓰기가 심하여 양육에 어려움이 있던 유아는 짧은 시간이지만 기다리는 것이 가능해졌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어머니는 유아가 제자훈련을 통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언급하고 기도 습관을 형성하게 되었음을 중요한 변화로 인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실행한 기독교 사회정서인성 제자훈련 프로그램의 내용과 관련이 있

다. 본 연구에서 소개한 기독교 유아 사회정서인성 제자훈련 프로그램은 유아기의 발달적 특징과 시대적 요구에 근거한다(교육부·보건복지부, 2019 ; 장명립, 2017). 교회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이해하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자라도록 기독교 사회정서인성을 겸비한 미래사회의 인재 양성에 힘써야 한다(허계형 2020: 105). 성경이야기가 유아의 신앙과 사회정서인성 발달을 촉진하는 유용한 자료라는 선행연구의 결과(송영란·오영희, 2006 ; 이지영·이유나, 2016 ; 권정해·신인숙, 2011 ; 박수진·김미경, 2013 ; 김성원·신현정, 2018)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기독교 사회정서인성의 핵심요소를 담고 있는 성경이야기 9편으로 구성된 그림책을 활용하였다. 제자훈련 프로그램은 성경이야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활동을 통해 익숙해지고, 이를 내면화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1-2과를 중심으로 다루는 내용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기독교 세계관의 관점에서 창조, 타락, 구속,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를 포함하고 있다. 어머니는 온전한 예배라고 하기에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하였지만, 유아는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해 언급하고 있었다. 또한 유아가 제자훈련 시간을 기다리는 모습을 통해 놀이처럼 즐기는 예배도 어린 유아가 성경의 진리를 이해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신앙 습관의 기초를 마련하는 전략으로 활용할 만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3-6과에서는 기독교 정서발달을 위해 정서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 정서표현 및 조절을 다루었다. 감정표현에 익숙하지 않았던 유아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거나 진정하기 위한 전략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떼쓰기 행동이 심했던 유아는 잠시나마 기다릴 수 있게 된 점은 기독교 정서발달을 지원한 효과라고 할 수 있다. 유아의 정서발달이 행동으로 표출되기까지는 어머니의 긍정적인 상호작용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앞선 연구들이 기독교 유아교육에서 가정과 부모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어(마은희 외, 2020 ; 박은호, 2023 ; 임상훈, 2020 ; 정희정, 2020 ; 함영주, 2021), 어머니의 부정적 언어 사용의 감소와 축복의 언어 및 스킨십의 증가가 유아의 기독교 정서발달에도 영향을 미쳤으리라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7-9과에서 제시된 기독교 사회성 발달, 미래사회 리더십의 요소는 실천을 통해 익숙해지고 내면화하는 데 이르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회 친구들과 이웃과의 만남이 제한된 단기간의 제자훈련이 삶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비록 화상회의 플랫폼을 통해 실시간으로 지원과 모니터링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공동체 안에서의 질적인 교제가 미흡할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유아와 가정을 위한 지원은 양방향에서 다양하게 소통하고 교제할 수 있는 부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삶의 변화까지 이끌 수 있도록 지속성이 있어야 한다.

본 연구가 사회정서인성 성경이야기 그림책을 활용한 화상회의 기반 유아 제자훈련에 참여한 어머니의 경험과 의미를 탐색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유아를 위한 기독교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대한 한 가지 전략과 사례를 제시했다는 의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음을 밝히며 후

속 연구를 제안한다.

첫째, 경기도 소재의 한 소형교회의 사례와 연구 대상이 극소수라는 점으로 인해 일반화에는 한계가 있다. 둘째,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된 시기에 진행된 연구로 비대면 프로그램과 전화 인터뷰 등을 활용한 자료수집이라는 방법적 제한점이 있다. 셋째, 연구자와 제자훈련의 실행자가 동일인으로 주관적 해석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이후에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여러 교회와 배경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유아와 가정을 지원하는 기독교 사회정서인성 제자훈련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유아의 기독교 사회정서인성의 함양과 부모의 기독교적 양육역량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는 연구들이 수행되기를 기대한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

## 참 고 문 헌

- 강성국·김은영·장혜승·황준성 (2020).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원격교육 전략과 과제. **한국교육공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297-310.
- 강용원 (2013). 주일학교운동의 역사적 발전과 과제. **고신신학**, 193-227.
- 교육부·보건복지부 (2019). **개정누리과정 해설서**. 세종: 교육부, 보건복지부.
- 권미량·하연희·계영희 (2018). 미국과 한국의 기독교 유아교육의 의미와 방향. **신앙과 학문**, 23(2), 5-27.
- 권순웅·김수환·라영환·방성일·유은희·함영주·허계형 (2020). **코로나 이후 교회교육을 디자인하다**. 경기 부천: 들음과 봄
- 권정해·신인숙 (2011). 성경동화 활동이 유아의 자아개념과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과학논집**, 37, 111-130.
- 김성원·신현정 (2018). 성경 이야기를 통한 가정 연계 유아 성품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기독교교육정보**, 58, 165-198.
- 김영천 (2012). **질적연구방법론**. 서울: 아카데미프레스.
- 김정준 (2021). 다음 세대와 한국교회 주일학교의 새 전망. **기독교교육 논총**, 67, 11-44,
- 마은희·김남임·김소희·허계형 (2020). 코로나 시대 웹 (web) 기반 유아-부모 세대통합 예배 전략과 실제: 기독교 유아사회정서인성 개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기독교교육정보**, 66, 197-220.
- 박노선·함영주 (2023).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블렌디드 러닝을 활용한 교회학교 신앙교육프로그램 설계. **기독교교육정보**, 76, 233-266.
- 박수진·김미경 (2013). 성경동화를 활용한 극놀이 활동이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영유아보육학**, 78, 165-188.
- 송영란·오영희 (2006). 성경동화 활동이 유아의 신앙 발달과 친사회적 행동발달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연구**, 26(6), 175-199.
-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21세기교회연구소·한국교회목회데이터 연구소 (2020). 코로나 시대 기독 청년들의 신앙 생활 탐구. **코로나 시대, 기독 청년들의 신앙 생활 탐구 자료집**, 22-24.
- 오영희·정미 (2009). 성경 이야기 극화활동이 유아의 신앙발달과 사회·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 **인문논총**, 26, 123-149
- 오현주·홍경화 (2021). 코로나 19 시대의 온라인 어린이 예배에 대한 연구: 실시간 쌍방향 화상 예배를 중심으로. **기독교교육정보**, 70, 137-169.
- 이광수·함영주 (2018). 세대통합예배의 활성화를 위한 가정예배의 회복. **신학과 선교**, 53, 205-242.
- 이동후 (2021). 코로나 19시대의 디지털 교실에 관한 미디어 생태학적 탐구 : 줌이 매개한 비대면 교실 환경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35(2), 98-130.

- 이미정·신지연 (2020). 유치원 원격수업 가능성 탐색을 위한 실행연구. **유아교육학논집**, 24(5), 277-302.
- 이수인·최솔 (2022).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교회교육 현황 연구 : 교회학교 교사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신학과 실천**, 78, 443-468.
- 이지영·이유나 (2016). 성경동화를 활용한 오감성경놀이 활동이 유아의 기독교 개념과 종교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연구**, 36(1), 343-366.
- 임상훈 (2020). 비대면 예배 상황에서 동영상 콘텐츠 및 SNS를 활용한 영유아 상호작용 활동 연구: 유튜브 브와 카카오톡채널을 중심으로. **기독교교육정보**, 67, 299-333.
- 장명립 (2017). 4차 산업혁명시대 유아교육과정의 방향과 과제. **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 춘계학술대회자료집**, 61-79.
- 정선희 역 (2007). **기독교 교육 무엇이 다른가?**. Rushdoony, M. R. (2001). *The philosophy of the Christian Curriculum*. 서울: 꿈을 이루는 사람들.
- 정희영 (2010). **기독교 유아교육론**. 파주: 교육과학사.
- 정희영·이정규·한민자 (2014). 기독교 유아 인성교육을 위한 덕목 추출. **기독교교육논총**, 26, 195-217.
- 정희영·진명선 (2017).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신앙교육교재 활용이 유아의 인성에 미치는 영향. **기독교교육정보**, 55, 183-212.
- 정희정 (2020).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기독교 유아교육 방향 모색. **성경과 신학**, 95, 147-172.
- 정희정·김남임 (2013). 기독교 유아교육 관련 연구동향 분석. **유아교육학논집**, 17(4), 113-138.
- 조혜정 (2020). 코로나19 시대에 기독교 학부모의 신앙성숙이 사회 회피 및 불안(SAD)에 미치는 영향과 기독교 교육적 함의. **기독교교육정보**, 65, 57-85.
- 조흥식·정선옥·김진숙·권지성 역 (2015). **질적 연구방법론**. Creswell, J. W. (2012). *Qualitative Inquiry & Research Design*. 서울: 학지사.
- 최동규 (2020).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뉴노멀 시대의 목회. **선교와 신학**, 52, 171-200.
- 함영주 (2021). 코로나 19 이후 통계로 보는 교회교육의 미래. **한국교회교육·복지실천학회 2021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pp.36-48.
- 허계형 (2020). **기독교 유아 사회정서 인성교육**.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 허계형·손병덕·김소희·마은희·김남임 (2021). **우리가족 신앙습관을 만드는 67일 프로젝트 빛을 담은 부모 빛이 되는 아이**. 서울: 라이트교육.
- 허계형·손병덕·김남임·마은희·김소희·정양권 (2021). **사회정서인성 성경이야기 그림책 빛이 되어라**. 서울: 라이트교육.
- Ebner, N. & Press, S. (2020). *Pandemic pedagogy II: Conducting Simulations and Role Plays in Online, Video-Based, Synchronous Courses*. [https://papers.ssrn.com/sol3/papers.cfm?abstract\\_id=3557303](https://papers.ssrn.com/sol3/papers.cfm?abstract_id=3557303) (검색일 2021.10.5)

- Takeuchi, L. M. (2011). *Families Matter: Designing Media for a Digital Age*. New York, NY: The Joan Ganz Cooney Center at Sesame Workshop. <https://joanganzcooneycenter.org/publication/families-matter-designing-media-for-a-digital-age> (검색일 2021.5.20.)
- 기독교신문 2022. 1. 26일자 “교회학교 교육패러다임 전환 절실, 존재 위기에 내몰린 교회가 늘고 있다” <http://gdknews.kr/news/view.php?no=11870> (검색일 2024.1.30.)
- 기독신문 2020. 12. 1일자. “위기의 다음세대 교육, 부모교육 병행하며 적극 투자로 극복하라”. <https://www.kidok.com/news/articleView.html?idxno=209089>. (검색일 2021.9.8.)
- 카스펠 투데이. 2020. 5. 28일자. “코로나19로 드러난 교육격차, 작은 교회 교회학교 위협” <http://www.gospel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729> (검색일 2021.9.8.)
- 국민일보 2021. 2. 23일자. “교회 10곳 중 2곳 주일학교 운영 못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79582&code=23111111&sid1=hon/feed>(검색일 2021.10.1.)
- 뉴스앤조이 2020. 4. 21 일자. “코로나 19, 예배에서 소외된 사람들 ① 아이들 교회 규모 따라 대응 천지 차이...아예 손 놓은 교회도”. <http://www.news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0574>.(검색일 2021.9.8.)
- 넘버즈 2022. 5. 31일자. “기독교 통계(143호)-포스트 코로나시대 교회학교 전략 방향”, [http://www.mhdata.or.kr/bbs/board.php?bo\\_table=gugnae&wr\\_id=57](http://www.mhdata.or.kr/bbs/board.php?bo_table=gugnae&wr_id=57) (검색일 2024.1.30.)
- 넘버즈 2022. 5. 31일자. “기독교 통계(146호)-한국교회 코로나 추적조사(4차) 결과” [http://www.mhdata.or.kr/bbs/board.php?bo\\_table=gugnae&wr\\_id=58](http://www.mhdata.or.kr/bbs/board.php?bo_table=gugnae&wr_id=58) (검색일 2024.1.30.)
- 넘버즈 2024. 2. 20일자. “한국교회 추적조사 2024- 주일 현장 예배 참석률, 72%까지 늘어!” [http://www.mhdata.or.kr/bbs/board.php?bo\\_table=koreadata&wr\\_id=280](http://www.mhdata.or.kr/bbs/board.php?bo_table=koreadata&wr_id=280) (검색일 2024.2.29.)
- 신미영 (2022). ‘위드코로나’ 시대의 다음 세대, ‘하이브리드’ 교회 교육으로 살린다. 신앙과 삶, 2022년 5-6월호. <https://www.worldview.or.kr/newsletter/fnl/issue/4805/4813> (검색일 2024.1.30.)
- 기독신문 2023. 5. 11일자. “온 가족 예배와 동역화” <https://www.kidok.com/news/articleView.html?idxno=300246> (검색일 2024.1.30.)



# 실시간 화상회의 기반 유아 제자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머니의 경험 탐색: 사회정서인성 성경이야기 활용

## Exploring the Experiences of Mothers Attending a Zoom-based Discipleship Program for Young Children: Using the Bible story about Social-emotional Character

마은희 (총신대학교)

### 논문초록

본 연구는 실시간 화상회의 기반 유아 제자훈련에 참여한 어머니의 경험과 의미를 탐색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 대상은 경기도 소재 A교회의 유아 제자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유아의 어머니 3명이다. 유아 제자훈련 프로그램은 기독교 유아 사회정서 인성교육 모형에 기초한 9편의 성경이야기 그림책을 활용하였다. 유아가 성경이야기를 이해하고, 익숙해지고, 내면화하도록 놀이와 활동으로 구성하여 28주 동안 실행하였다. 자료는 실시간 화상회의 녹화, 심층면담을 통해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어머니는 '예배의 대안이지만 가능할까? 라는 의구심 속에 시작한 유아 제자훈련', '축복의 언어와 스킨십을 통한 자녀와 긍정적 관계 형성', '온전한 예배는 아닌 것 같은 아쉬움'을 경험하였다. 어머니가 바라본 유아의 경험은 '아이가 기다리고 즐거워하는 시간',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어느새 일상이 된 신앙교육', '조금씩 늘어난 감정표현과 잠깐은 할 수 있는 기다림', '만남의 기회가 없어 실천이 어려운 친구 관련 활동들'이다. 이를 바탕으로 가정의 교육적 기능 회복의 지원 가능성, 기독교 사회정서인성 제자훈련 프로그램의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제어: 기독교 사회정서인성, 유아 제자훈련, 성경이야기, 실시간 화상회의, 포스트 코로나



## 지역교회에서의 다문화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외국어예배부 봉사자들의 경험을 중심으로-\*

**A Phenomenological Study of Multicultural Experiences in Local Church:  
Focusing on the Volunteers' Experiences of Foreign Language Worship Services**

강신아 (Shin A Kang)\*\*

최은정 (Eun Joung Choi)(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ABSTRACT

This study utilizes a qualitative approach to delve into the essence and structure of multicultural experiences among volunteers in foreign language worship services. Six participants, each with over two years of volunteering experience in the foreign language worship department of a local church, were selected for in-depth interviews. The analysis employed Colaizzi's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

The findings revealed five categories: 'trapped within the walls of multiculturalism,' 'a feeling of despair that comes from indifference,' 'need for prior understanding and acceptance,' 'a valuable path to serve the one soul that God is looking for,' and 'a mission that takes us to the end.'

The study's results offer a profound comprehension of the multicultural experiences of foreign language worship service volunteers, laying the groundwork for the development of strategies for volunteer education, practical care and support, and missionary efforts for immigrants.

**Key words:** local church, foreign language worship service volunteers, multicultural experience, Colaizzi's phenomenological study, migrant mission

\* 2024년 2월 7일 접수, 3월 17일 최종수정, 3월 18일 게재확정

\*\* 고신대학교(Kosin University) 간호대학 박사수료, 부산 서구 감천로 262, kangshina@gmail.com

\*\*\* 고신대학교(Kosin University) 간호대학 교수, 부산 서구 감천로 262, jacob7410@kosin.ac.kr

## I. 서론

2022년 한국 내 외국인주민은 2,258,248명으로, 2022년 총 인구 대비 외국인주민 비율은 4.4%를 차지하며, 외국인주민 비율은 2006년 1.1% (주민등록인구 대비)에서 2022년 4.4%(총인구 대비)로 지금까지 통계 수치로는 최대 규모이다(행정안전부, 2022). 2022년 국내 거주 외국인의 유형별 비율은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1,752,346명(77.6%), 한국 국적 취득자 223,825명(9.9%), 외국인주민 자녀(출생) 282,077명(12.5%)으로,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를 유형별로 보면 외국인 근로자(23.0%), 외국국적동포(22.7%), 유학생(10.8%), 결혼이민자(10.0%) 순으로 많다(행정안전부, 2022). 이와 같은 통계들은 이미 우리나라가 다문화 국가임을 나타내고 있다.

다문화 사회현상의 변화로 인해 한국 기독교는 현재 '가는' 선교 패러다임에서 확장된 의미로 이주민 유입이 증가하는 시대적 변화에 맞추어 이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선교가 국내 타문화권 선교 패러다임으로 부상하고 있다(신성임, 2023: 393). 이러한 변화에서 '이주'와 '이주민'은 선교적인 측면에서도 주목해야 할 주제가 되었다. 2022년 로잔대회 케이프타운 서약(The Cape Town Commitment, 2022)에서 이주민 선교는 미전도종족 선교의 긍정적, 효과적 전략의 한 분야로 간주되고 있고, 세계교회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역으로 부상했다. 한국 문화와 교회를 경험한 이주민들이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 본격적으로 그 민족을 위한 선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현지에 있는 선교사,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네트워킹을 이루고 이들의 사역은 현지의 복음화를 넘어 또 다른 타문화권으로의 선교사 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김성훈·문창선, 2016: 135). 이러한 점에서 이주민 선교사역은 의의가 있다.

한편, 선교는 다양한 언어와 문화 가운데 이루어지는 사역으로 선교사의 문화적 이해와 문화를 뛰어넘는 소통능력은 또 하나의 자격요건이 된다. 그러나 많은 선교사는 자문화 중심적인 틀을 갖고 다른 문화로 들어가서 자문화적인 기독교를 전파하는 실수들을 범한다(송재홍, 2016: 40). 같은 맥락에서 국내 이주민 선교와 관련하여 가장 커다란 문제는 상황화된 사역 내용의 미흡성이다. 이주민의 눈높이와 문화·언어적인 상황이 고려되지 않은 예배로는 이주민 신앙의 지속적 유지가 어렵다(이미정, 2022: 4). 따라서 외국어예배부를 섬기는 봉사자들이 다문화 경험을 통해 이주민의 문화적 이해와 소통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료해 볼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문화경험 정도가 많을수록 문화적 역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소영, 2016: 349). 또한, 다문화 인식이 높을수록 다문화 사회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고 수용성 정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홍서연 외, 2018: 317). 높은 다문화 수용성은 사회의 주류인 선주민과 이주민 모두에게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박명숙, 2020: 118) 해외자원봉사

활동자가 봉사활동 참여 후 다문화수용성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다(강혜라·홍영준, 2015: 24). 다문화 멘토링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에서는 봉사활동이 다문화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가져왔고 상호 문화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가져왔다고 하였다(김영순·박미순, 2016: 22).

이처럼 다양한 분야의 일반인 봉사자와 학생, 교사들을 대상으로 다문화 경험에 관한 연구는 찾아볼 수 있었으나 지역사회 공동체로서 선교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에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봉사하는 봉사자에 관한 연구는 미흡하였고 특별히 이들에 관한 질적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현상학적 연구는 외국어예배부 봉사자가 경험하고 있는 다문화 경험의 현상에 대하여 그들의 생생한 경험을 통해, 그들의 관점으로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서 그들의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 적합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외국어예배부 봉사자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분석하여 이를 근거로 국내 외국어예배부에 참여하는 이주민을 돕기 위한 전략을 제언하고자 한다. 끝으로 본 연구는 “외국어예배부 봉사자로서의 다문화 경험의 의미와 본질 구조는 어떠한가?” 라는 연구 질문을 통해 현상학적 방법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국내 외국어 예배부

한국의 다양한 이주민의 유입과 함께 일어난 다문화현상은 한국 교회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1990년대 초반에는 주로 이주노동자들이 유입되어 공단 또는 건설현장 주변의 교회에서 이주민 사역이 시작되었다. 이후, 2000년대 들어서면서 결혼이주여성의 급격한 증가와 들어오는 이주민의 신분의 다변화(외국인 근로자, 결혼이민자, 외국인 유학생, 난민)는 교회가 이들을 새로운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데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다(문창선, 2016; 52, 53).

국내 이주민 선교사역 기관은 그 형태에 따라 ‘교회부설’, ‘이주민기관’, ‘이주민 선교 기관’, ‘이주민교회’, ‘복합형태’, ‘자조 모임/독립이주민 교회’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황홍렬 외, 2013: 41). 그 중 교회 부설의 형태는 한국 교회가 모체가 되고 교회의 외국어 예배부 부서로 이주민 사역이 진행되는 것을 말한다. 한국 교회에서 운영되고 있는 다문화교회의 예배유형은 ‘단일국가(언어) 중심 예배’, ‘다국적(언어) 예배’, 그리고 한국인과 이주민이 같이 예배하는 ‘연합예배’ 등으로 분류할 수 있

다(이미정, 2022: 96). 일부의 교회에서는 이주민 언어별로 예배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독립된 장소를 제공하고 있고 이것이 외국어 예배부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단일국가 예배는 언어와 문화가 동일하기 때문에 공동체 구성원들의 친밀한 교제와 단합이 쉽고 효율적인 양육이 진행될 수 있다. 모범적인 다문화교회의 사례를 살펴보면 이주민들이 편한 언어로 예배하게 하고 그들의 다양한 정체성과 문화 안에서 복음을 듣도록 목회적인 도움을 제공한다고 하였다(하도균, 2016: 697). 이는 다문화교회로써 가져야 할 태도는 이민자 안에 많은 다양성이 있음을 존중하여 그들의 교회를 이루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단일국가 예배를 살펴보면, 예배공동체의 사역자들이 외국인으로 구성되고 있다. 외국인 사역자를 중심으로 예배를 진행하는 것은 이주민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김경주, 2011: 23).

공동체 구성원이 동일한 언어·문화를 공유하는 단일국가(언어) 중심 예배는 ‘동질집단(homogeneous unit) 원리’가 적용된다(McGavran, 1980: 242). 동질집단 원리는 사람들이 사회·문화적으로 자신이 속한 동질집단을 떠나지 않으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인다는 원리이다. 국내 대부분의 이주민도 다국적 중심의 예배보다 동일 문화권의 사람들이 모인 곳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한 국가 출신에 초점을 맞추어 나라별·언어별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은 고립되기 쉬워 한국인이나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배타적일 수 있는 여지도 있다(이미정, 2022: 98). 따라서 한국인 성도와 이주민 성도 간의 진정한 교제의 환경이 조성되고 같은 교회 안에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하여 건강한 이주민 예배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

## 2. 다문화 경험

다문화 경험은 다양한 문화와 인종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의 교류를 말한다(김미중, 2019). 다문화 경험에는 다문화 가족의 유무, 외국인 친구와의 만남, 외국인과의 접촉, 다문화 봉사경험, 외국 방문과 다문화 교육과정의 참여와 같은 공식적, 비공식적 다문화적 경험이 모두 포함된다(정선아, 2019: 53). 다문화 경험은 다문화 태도에 직접적인 영향요인으로, 다문화에 관한 수용성과 동일한 사회구성원으로 인식하는 공동체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미중, 2019: 169).

간호학자 Leininger는 우리 사회는 “다양한 문화를 가진 하나의 세상”이라고 하였는데, 특히 다문화인을 대상으로 ‘돌봄’(caring)을 수행해야 하는 간호학에서도 ‘횡문화적 간호’(transcultural nursing)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관한 연구가 계속 필요하다고 하였다(Leininger, 2001: 798).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따라 다문화인들이 그들의 고유한 문화적 돌봄 양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점을

인식함으로써 문화와 돌봄이 상호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존립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의존적으로 연결된 유기적인 전체라고 주장했다(남미순, 2018: 259). 이와 같은 관점에서 다문화 사회로 진입한 시대적 흐름 속에 간호사는 지역사회, 학교, 산업현장, 병원 그리고 교회에서 다문화 대상자를 만날 전문 인력으로, 대상자에게 문화적으로 적합하고 의미 있는 돌봄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적합한 문화와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긍정적인 다문화 태도와 경험이 필요하다. 특히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간호사는 유입되고 있는 이주민들의 전인적 건강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올바른 다문화 태도를 정립해나갈 필요가 있다.

‘다원적 사회에서의 상호 문화 간 관계’의 연구에서 다른 문화 집단 간의 접촉은 그들 사이의 편견을 줄이고 문화 간 접촉과 공유가 상호 수용을 촉진한다고 하였다. 특히 문화간 접촉이 많을수록 다문화 이데올로기가 높아지고 통합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진다고 하였다(Berry & Grigoryev, 2022: 85). 다른 문화 집단에서 온 사람들을 사귀고 그들과 자주 교류하는 것은 사회통합을 추구하고 사회 전체의 문화 다양성의 가치에 대해 긍정적일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이 된다고 하였다(Berry, J el al. 2022: 1021). 실제, 여성가족부의 국민 다문화 수용성과 관련된 조사에서 이주민을 목격하는 빈도가 높을수록 국민 다문화 수용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여성가족부, 2018). 또한 ‘이주민과의 직접 접촉 경험과 다문화 수용성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결과, 이주민과의 피상적인 접촉과 친밀한 접촉 모두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중 친밀한 접촉은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남보영·홍이준, 2021: 16). 접촉을 통한 다문화 경험은 집단 간 긴장 완화, 관계 개선, 편견 감소 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Allport, 1979).

한국 교회 안에도 많은 이주민이 유입되고 외국어예배부가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타문화권 사람들을 접촉할 수 있게 되었다. 이주민과 한국인의 접촉은 선교 인식을 제고 하고 선교 역량도 함양할 기회가 된다(이미정, 2022: 90). 이주민 선교사역을 통해 교회 안에서 먼저 선주민과 이주민이 서로 영적 공동체로 인정하고 존중할 때, 사회적으로 심각해지고 있는 한국인과 이주민 계층과의 갈등을 줄여 사회통합의 차원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외국어예배부 봉사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다문화에 관한 경험의 의미와 본질을 그들의 관점에서 파악하고 밝혀내고자 심층 면담을 하여 자료를 얻어 질적 연구 중 Colaizzi(1978)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이용한 연구이다. Husserl의 개념인 판단중지(epoche) 또는 괄호 치기에 초점을 두어 연구자의 경험을 가능한 한 많이 가두고 연구 참여자들이 경험한 현상에서 보편적인 의미를 발굴해 내도록 하였다. Husserl의 선험적 현상학에서 영향을 받은 Colaizzi의 연구방법으로 현상학적 환원의 방법을 통해 외국어예배부 봉사자들의 개인 경험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을 핵심으로 하였다.

#### 2. 연구 참여자

연구 참여자는 마일스와 휴버만(Miles & Huberman, 1994)이 제시한 질적 연구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접근 방식인 최대 변량 표집으로 선정하였다. 이 접근법은 사전에 참여자나 현장을 구분하는 몇몇 기준을 정하고 기준과 상당히 차이가 많은 현장이나 사람들을 고르는 방식으로 다양한 관점을 연구결과에 반영할 수 있다(Creswell & Poth, 2016).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구체적 선정 기준에 따라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였다. 첫째, 부산 예수교 장로회에 속한 교회의 외국어 예배부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봉사하는 봉사자로 하였고, 둘째, 세례교인 이상인 자로서 풍부한 다문화 경험을 수집하기 위해 외국어 예배부 봉사 기간이 최소 2년 이상인 자를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면담은 연구의 주제와 목적 및 자료수집 방법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연구 참여자가 이해하였음을 확인한 후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것에 동의한 자들로 선정하였다. 질적 연구에서 표본 수에 관한 규정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기준은 없지만, 특성상 유사점을 가진 연구 참여자들에 대해 심층적인 자료 수집을 시행할 때는 6~8명이 적당하므로(Kuzel, 1992: 31-44), 본 연구에서는 6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Table 1).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연구 참여자 (Research participant)	나이 (Age)	직분 (Duty of church)	예배부서 (Worship department)	봉사기간 (Period of service in the foreign language worship)
연구 참여자 1	44세	집사	네팔	3년
연구 참여자 2	48세	집사	미얀마	15년
연구 참여자 3	69세	권사	네팔	3년
연구 참여자 4	67세	권사	우즈베키스탄	4년
연구 참여자 5	66세	은퇴전도사	몽골	3년
연구 참여자 6	64세	안수집사	태국	20년

### 3. 자료 수집

자료수집 기간은 2023년 11월 10일부터 2024년 1월 10일까지였으며 자료의 수집과 분석은 자료가 포화될 때까지 면담을 진행하였다. 면담할 장소는 연구 참여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선정하였고, 자신의 경험을 편안한 상태에서 충분히 표현할 수 있도록 주의를 흐트러뜨리지 않는 장소이면서 사생활이 포함될 수 있는 대화를 녹음할 수 있는 조용한 장소로 하였다. 면담 시작 전 면담하는 내용이 녹음될 것임을 알리고 녹음된 파일은 연구의 목적에만 사용될 것이라고 설명한 후 연구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 면담은 “외국어예배부 봉사자의 다문화 경험은 무엇입니까?”라는 개방형 질문으로 진행하여 연구 참여자의 생생한 경험을 있는 그대로 끌어내려고 하였고, 필요시 진술 내용에 따라 필요한 형식적 진술문으로반구조화 된 면담을 이어갔다. 부가적 질문은 “외국어예배부 봉사자로서 외국인을 만날 때 좋았던 경험은 무엇입니까?”, “외국어예배부 봉사자로서 외국인을 만날 때 힘들었던 경험은 무엇입니까?”, “외국어예배부에서 봉사하면서 외국인들로부터 배운 경험은 무엇입니까?”, “외국어예배부에서 봉사하면서 생긴 마음의 변화는 어떻습니까?”였다(Table 2).

Table 2. Formal Statements

번호 (Number)	질문 내용(Question Contents)
1	외국어예배부 봉사자의 다문화 경험
2	연구 참여자들의 인구사회학적 정보
3	처음 외국인을 만나게 된 경험
4	외국어예배부를 봉사하게 된 동기

5	외국인을 만날 때 좋았던 경험
6	외국인을 만난 후 경험한 영적 유익
7	외국인을 경험한 후 인지한 타문화에 대한 태도
8	외국인을 만날 때 힘들었던 경험과 극복 내용
9	기존의 한국 교회와 이주민 공동체의 다른 점
10	외국인들로부터 배운 경험
11	봉사하면서 생긴 마음의 변화, 변화된 관점
12	한국 교회가 외국인들을 섬기는 데 필요한 자세

연구자는 질문들 사이에 여백을 두어 연구 참여자가 충분히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였고 연구 참여자의 경험한 내용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도록 하였다. 자료 수집은 더 이상 새로운 내용을 발견할 수 없는 포화 시점까지 진행하였고 연구 참여자 별 면담 횟수는 1~2회까지였으며 면담에 소요된 시간은 60~120분이었다.

####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대상자와 심층 면접 내용에서 명확한 의미를 찾아내고 각각 다른 연구 참여자의 체험 자료를 수집하여 그 현상의 의미와 본질을 밝히려는 Colaizzi(1978)가 제안한 현상학적 연구 방법에 따라 자료를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Colaizzi(1978)의 7단계를 살펴보면, 1단계에서는 자료 전체를 검토하고 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연구 참여자들과 개별적 인터뷰를 전사한 녹취록을 5회 이상 정독했다. 2단계는 연구 참여자들의 인터뷰 자료에서 유의미한 진술을 추출했다. 3단계는 의미 발견 단계로써 유의미한 진술에서 연구 참여자들의 암묵적 의미를 탐구했다. 4단계는 주제 결집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연구자는 의미를 주제로 결집했다. 5단계는 포괄적인 기술단계이다.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들의 체험을 기술했다.

6단계는 명증한 진술로의 전환단계로서 5단계에서 기술한 내용을 명료한 기술로 전환했다. 이 명료한 기술로 전환한 과정에서는 현상학적 연구방법에서 중요시하는 현상학적 괄호 치기와 자유 변경 절차를 따랐다. 7단계는 연구 참여자를 통한 타당성 검증단계이다. 연구자는 자료의 분석과 기술이 끝난 후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 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그들로부터 연구자가 구성한 주제, 의미, 기술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받았다.

## 5. 연구의 결과의 질과 타당성 확보

연구자 준비로서 본 연구의 연구책임자는 간호대학 박사과정생으로서 학업 중 질적 연구방법론과 분석론을 공부하면서 질적 연구에 대한 이해가 있다. 그리고 대학생 시절부터 해외 선교를 통한 다문화에 대한 경험과 해외 거주경험이 있다. 또한, 해외 선교사역에 이어 국내에 있는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2년째 사역 활동을 하고 있어 외국인에 대한 경험이 있다.

본 연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Lincoln과 Guba(1985: 294-331)가 제시한 엄밀성 평가 기준인 신뢰성, 전이 가능성, 의존 가능성, 확증성을 따랐다.

### (1) 신뢰성(credibility)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국어예배부 봉사자의 다문화 경험을 가장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2년 이상의 봉사경험이 있는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였으며,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 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그들의 경험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검증하였다.

### (2) 전이 가능성(transferability)

전이 가능성이란 연구결과가 다른 맥락이나 집단, 장소에 적용될 수 있는지를 보는 것으로 다른 독자들이 연구결과를 읽고 자신들의 경험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의미 있고 적용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면 전이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의 진술이 반복적으로 나타나서 더 이상의 새로운 자료가 나오지 않는 포화 상태까지 자료 수집을 계속하였다. 또한, 연구와는 무관하지만, 다른 외국어예배부에서 다문화 경험이 많은 봉사자 2인에게 연구결과를 보여주었고 자기 경험에 비추어 의미 있는 기술이라는 평가를 통해 연구의 적합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 (3) 의존 가능성(dependability)

의존 가능성은 연구자의 일관적이고 추적 가능한 방식과 세심하게 기록된 연구 과정을 통해 다른 연구자가 그대로 따라갈 수 있을 때 의존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연구자는 연구 과정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노트에 작성하였고 면접 및 필사의 모든 과정을 연구자가 직접 수행하여 사용된 자료를 제공하였다. 그리고 자료분석 과정에서 Colaizzi(1978)의 현상학적 연구방법 절차를 준수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 (4) **확증성(confirmability)**

확증성은 신뢰성, 전이 가능성, 의존 가능성 세 가지의 기준을 충족시킬 때 입증될 수 있는 것으로 모든 편견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한다. 연구주제에 대해 연구자가 가지고 있는 다문화 경험에 대한 선 이해나 편견 등을 면담 전 연구 노트에 기술하여 검토하였으며, 연구자는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판단중지를 통해 자료를 신선한 눈으로 바라보고 자료로부터 이해를 얻으려는 노력을 통해 연구의 확증성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 **6.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 소재 K 대학교 기관 생명윤리위원회로부터 연구심의 승인(KUIRB 2023-0018)을 받은 후 진행하였다.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연구방법을 설명하였고, 신분 에 대한 익명성과 비밀보장에 관해 설명하였다. 이에 동의하고 자발적 참여를 원하는 연구 참여자에게 동의를 받고 자필로 서명하도록 하였다. 연구 참여자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면담을 진행하였고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 참여 도중 어떠한 불이익이나 위험이 따르지 않으며, 언제라도 본인의 의사에 따라 연구 참여를 거부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녹음한 파일과 수집된 모든 자료는 비밀 번호를 설정한 하드디스크에 보관하고 보관된 자료는 연구가 끝나는 시점으로부터 3년 뒤 복원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폐기될 것을 연구 참여자에게 설명하였다. 면담에 응한 연구 참여자들에게 소정의 답례품을 지급하였다.

## **IV. 연구결과**

본 연구 참여자들의 구술 자료를 분석한 결과 5개의 범주, 15개의 주제 결집, 51개의 주제가 도출되었다(Table 3).

Table 3. List of topics, collection of topics, and categories

범주 (Category)	주제 결집 (Collection of topics)	주제 (List of topics)
다문화의 벽 속에 갇힘	문화 차이로 인해 혼돈스러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배를 드리는 모습의 차이로 당혹스러움</li> <li>- 그들의 다름을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마음은 속상함</li> <li>- 문화와 생각의 차이가 갈등을 조장하기도 함</li> <li>- 문화 차이로 인해 예의를 경시 여기는 것으로 여겨짐</li> <li>- 민족의 특성으로 시간과 약속에 대한 개념이 달라 어려움</li> </ul>
	외국인 사역자와의 언어적 소통이 힘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담당 외국인 목사님이 한국말을 잘 못해 소통이 힘들</li> <li>- 봉사자 중에 외국어를 하는 이가 없어 소통에 어려움이 됨</li> <li>- 마음만이 아닌 언어를 통해 소통됨을 경험함</li> <li>- 다른 언어로 인한 의사소통과 관계 형성에 한계를 느낌</li> </ul>
	다른 음식문화로 인한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 음식에 들어간 향신료가 복통을 일으켜 어려움을 겪음</li> <li>- 정성껏 한국 음식을 대접해도 먹지 않을 때 찾아오는 서운함</li> <li>- 외국식자재를 구해서 그들의 방식으로 조리하기가 쉽지 않음</li> </ul>
	표현의 부재로 인한 고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속마음을 이야기하지 않아 소외감을 느낌</li> <li>- 싫든지 좋든지 표현하지 않는 문화 차이로 인해 겪는 서운함</li> <li>- 한국의 정서와 달라서 정이 없고 자신을 도움만 주는 사람이라 여기는 것 같아 마음이 상함</li> </ul>
무관심에서 오는 허탈감	교회의 무관심 속에 쓸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믿는 성도들도 이주민을 섬기는 일에 무관심한 것 같아 쓸쓸함</li> <li>- 헌신적으로 섬기는 삶 앞에 무관심뿐인 현실에서 찾아오는 쓸쓸함</li> <li>- 빛도 없이 섬기는 마음이 섭섭함으로 여겨지기도 함</li> <li>- 혼자 꾸역꾸역해움</li> </ul>
	열매가 보이지 않아 회의감이 듦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간이 지나도 변화되지 않는 모습에 마음에 회의감이 들어 힘들</li> <li>-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볼 때 고통이 찾아옴</li> <li>- 성장에 대한 조급한 마음이 있을 때 실망을 많이 하게 됨</li> <li>- 한국정착을 위한 목적임을 알 때 실망함</li> </ul>

선이해와 수용이 필요함	그들을 낮게 여기는 시선	- 그들이 나보다 더 낮고 똑똑한 사람임을 늘 생각함 - 고자세를 취하면 관계가 열리지 않음 -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그네임을 기억하며 그들을 섬기는 마음이 필요함
	이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태도	- 다른 나라와 민족을 알고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통하게 됨 - 자기중심적인 사랑을 베푸는 것이 도리어 저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나 조심하게 됨 - 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생각하고 찾아줌
	언어 공부의 필요를 느낌	- 그들을 이해하기 위해 언어를 배우는 것이 필요함 - 외국어를 공부하면 그들의 설교와 기도를 공유할 수 있는 유익이 있음 - 외국인이 조금 하는 나의 외국어를 매우 반가워함
	그들에게 맞는 전략을 통한 복음 제시	- 나라와 민족마다 다른 성향을 알고 복음을 전해야 함 - 이주민 사역에는 더욱 전문적인 훈련과 자세가 필요함 - 복음 전하는 욕심보다 먼저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 필요함 - 선교사가 선교지에 가듯이 이주민의 곁에 가까이 와서 생활해야 함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을 섬기는 값진 통로	외국인을 만날 수 있는 통로	- 선교지에서만 만났던 사람들을 이곳에서도 만날 수 있는 값진 통로 -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먼 나라의 외국인을 한국에서 만남 - 외국인들과 영적인 교제를 통해 깊이 만나게 됨 - 우리가 베푸는 사랑과 도움보다 더 많은 것을 받음
	한 사람에서 그 민족을 섬기게 됨	- 여기가 끝이 아닌 선교지까지 섬기게 되는 계기가 됨 - 한 사람뿐 아닌 가정과 마을까지 전도하는 기회가 됨 - 한 사람에게 잘했더니 본국에서 가족들을 데리고 옴 - 단일 부서가 아닌 그 민족의 교회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함
	기회가 없던 사람이 교회의 문턱을 넘음	- 한국에 와서 신앙이 생긴 외국인이 대부분임 - 한 번도 교회 가보지 않았던 사람이 교회를 오게 됨 - 힌두, 불교의 신앙적 배경 때문에 본국에서는 교회에 갈 생각을 못함
끝까지 나아가게 하는 사명	사랑은 어려움을 이겨내는 힘	- 사랑으로 멀리 바라보고 넉넉히 기다리는 마음이 필요함 - 사랑이 동기가 되어 타문화를 배움
	가시밭길이라도 기도하며 나아가	- 하나님의 부르심과 이끄심이 원동력이 됨 - 이주민을 만나면 일단 기도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섬김에 최대의 역량을 쏟음

## 1. 다문화의 벽 속에 갇힘

### (1) 문화 차이로 인해 혼돈스러움

연구 참여자들은 이주민과 다른 문화의 이질감 속에서 혼란을 경험했다고 한다. 시간과 약속에 대한 개념도 달라 당혹감을 경험하고 문화와 생각의 차이가 갈등을 조장한다고 하였다. 예의범절을 중요시하는 우리 문화에 비해 어른을 존중하지 못하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었다. 예배에 있어서도 흥이 많은 문화에서 드리는 예배 형식의 차이로 인해 놀라기도 하였다. 이주민과의 민족·성향의 차이로 그들의 다름을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마음은 속상하다고 표현하였다. 문화와 언어의 제약으로 서로에게 정확히 표현하지 않아 서운함을 느끼기도 하였다.

“그걸 입고 세상에 우리 강대상에 우리는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그냥 일반 성도들이 크리스마스 성탄이나 추수 감사절에 올라가서 막 춤추고 막 이런 거 못 하잖아. 강대상에는 안 올라가잖아. 강대상에서 펄쩍펄쩍 뛰고 막 뒹구르고 난리가 났어… 나 기절할 뻔했다… 아주 혼돈스러울 때가 있다.” (연구 참여자, 3)

“몽골은 좀 낯설잖아. 우리가 와서 보니까 몽골 사람 성향이 너무 우리하고 사실 안 맞아서 힘들어서…” (연구 참여자, 5)

### (2) 외국인 사역자와의 언어적 소통이 힘들

연구 참여자들은 외국어 예배부의 외국인 사역자와 소통의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한국인 봉사자 중에 외국어 소통에 능숙한 이가 없고 외국인 사역자가 한국어가 서툴 때 의사전달의 어려움으로 갈등이 빚어지기도 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이주민과의 소통에서 마음이 통하면 되겠지 라는 생각으로 봉사를 시작하였지만 실제적인 언어의 장벽에서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관계 형성의 한계를 경험하였다.

“목사님이 한국말을 잘 못하시죠. 그런데 들으면 ‘네, 네’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이제 얘기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아닌 게 너무 많고 그 나라 사람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라 그제 1년 동안 조금 힘들었습니다.” (연구 참여자, 5)

### (3) 다른 음식문화로 인한 어려움

연구 참여자들은 이주민들을 대접하기 위해 정성스럽게 차린 한국 음식을 그들이 먹지 않을 때

속상함을 느꼈다. 그리고 외국인들의 음식문화를 따라 음식을 조리하려고 하면 외국식자재를 구하는 것에서부터 그들의 조리방법을 따라 음식을 만드는 것이 서툴고 어색하여 힘들었다. 때때로 그들이 사용하는 향신료를 같이 먹고 복통이 와서 적응하기 어려웠다고 하였다.

“우리 예배부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 같이 모이니까 자기들 음식 먹는 거를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 음식을 해주려고 했지. 처음에는 외국 식자재, 향신료 찾으러 사상이고 어디고 사러 다니고… 음식도 할 줄 모르는데 찾아서 한다고 안 익숙해서 어려웠어요” (연구 참여자, 3)

#### (4) 표현의 부재로 인한 고충

연구 참여자들은 이주민들이 속마음을 얘기하지 않아 소통에 어려움을 느꼈다고 하였다. 좋은지 싫은지 의사 표현을 하지 않아서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난감함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때론 도움을 주고 나서도 표현이 없어 연구 참여자 자신이 저들에게 도움만 주는 존재로 여겨지는 것에 대한 소외감과 섭섭함을 느끼기도 하였다.

“네팔 사람은 싫든지 좋든지 사실은 표현을 잘 안 해요. 그래도 좋은 건 표현을 하는데 싫은 거는 정말 표현 안 하거든요. 그냥 괜찮아요. 왜냐하면 체면 문화도 있고 제3자가 항상 이렇게 둘러서 하는 대화 방식이라서 그런 면들이 있을 때는 그게 서운한 거야. 왜냐하면 내가 말 막 이렇게 하고 친근하게 다가갔는데 애는 항상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아.” (연구참여자, 1)

## 2. 무관심에서 오는 허탈감

### (1) 교회의 무관심 속에 쓸쓸함

연구 참여자들은 이주민 사역에 무관심한 교회와 성도들에게 때로는 외로움을 느꼈다. 같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선교에 관심이 없어 놀라기도 하고, 혼자서라도 묵묵히 해나가는 허탈하고 아쉬운 심정을 경험하였다. 헌신적으로 섬기는 삶 앞에 무관심뿐인 현실을 마주할 때 쓸쓸하기도 하였고 빛도 없이 섬기는 삶이 마땅하나 무관심 속에 때로 섭섭함이 찾아오기도 하였다.

“거기에 대해서 마인드도 없고 아무리 제자 훈련해도… 놀랐어요. 전혀 관심 없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왜 우리가 그걸 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믿는다면 믿는 자 같으면은 당연히 선교는 자연스럽게 열려 있어야 되는데 그게 왜 안 열려 있지? 목사님이 맨 강당에서 이야기하



던데 구분해서 듣고 있는지 오늘도 아침에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 했어요”(연구 참여자, 4)

“힘들었던 게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초창기에 교회에서 너무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아무도 간섭도 하지 않고 간섭 안 하니깐 좋았다는 생각보다도 왜 이렇게 관심이 없을까 의문을 가지면서 혼자 좀 꾸역꾸역 좀 해왔던…” (연구 참여자, 6)

## (2) 열매가 보이지 않아 회의감이 생김

연구 참여자들은 이주민을 만나고 오랫동안 열매가 보이지 않아 회의감이 들기도 하였다. 같이 예배하는 한 공동체가 되었다고 느꼈지만 때로는 그들의 생계와 필요를 따라 움직이는 이중적인 모습에 낙심되는 마음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그들이 뿌리 깊은 다원주의적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마음에 고통이 찾아오기도 하였다.

“저도 이제 고민이었던 게 처음에는 여기 센터에서 시간이 됐을 때 회의감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마음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열매가 안 보여가지고 막 너무 힘들어서 막 기도하고 했는데 너무 해결은 안 되고…”(연구 참여자, 2)

“실컷 같이 1년 2년 예배드리고 앞에서 찬양하고 했는데 나중에 보면은 그게 주님을 바로 믿어서 그런 게 아니고 자기가 우리나라에서 정착해서 잘 살아가는 어떻게 하면 취업이나 생업이나 그런 걸 목적으로 하는 그런 거를 이렇게 뒤늦게 알 때 있잖아. 너무 실망하고”(연구 참여자, 3)

## 3. 선이해와 수용이 필요함

### (1) 그들을 낮게 여기는 시선

연구 참여자는 이주민을 만날 때에 그들을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자국민으로서의 고자세로 그들을 대할 때에 관계가 단절된다는 것을 경험하였다. 연구 참여자들 역시도 하나님 앞에 나그네임을 기억하며 나그네와 같은 이주민을 겸손히 섬기는 마음이 필요함을 절실히 느꼈다.

“일단 이주민들은 다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요. 일단 저는 그렇게 딱 생각하고 들어가요. 이분이 내보다 더 낮고 더 똑똑한 사람이다. 내가 어떻게 하면 똑똑한 그 속에서 저들의 언어로 저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넣어줄까 이걸 고민해야지” (연구 참여자, 4)

## (2) 외국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태도

연구 참여자는 다른 나라와 민족을 알고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이주민과 깊은 소통이 이루어짐을 알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들에게 사랑을 주되 자기중심적이고 자문화적인 사랑을 베푸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될 수 있음을 늘 경계하여야 함을 구술하였다.

“그런 뭔가 우리가 정해놓은 우리 기준에서의 사랑이나 도움을 주도록 사랑을 주더라도 그게 아니 저들의 입장에서 근데 그런 것도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연구 참여자, 2)

“우리나라 음식을 너무 못 먹더라고요. 들어오는 식당 가면 거의 밥을 못 먹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식성을 좀 알아보니까 치킨이나 밥하고 이런 걸 잘 먹는다고 해서 가는 곳마다 치킨집을 막 찾으러 돌아다녔어요.”(연구 참여자, 6)

## (3) 언어 공부의 필요를 느낌

연구 참여자는 이주민을 더욱 깊이 이해하기 위해 그들의 언어를 배우고 소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언어를 배우는 것이 즉 선교의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표현할 만큼 이주민과의 관계에서 언어는 중요한 매개체로 여겼다. 외국어 공부를 하게 되면 그들의 설교와 기도를 공유할 수 있는 유익이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조금의 외국어를 하는 모습에 이주민들이 마음을 열고 반가워함을 보면서 언어 학습의 필요를 더욱 느꼈다고 하였다.

“선교는 언어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들이 한국말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말 한다고 생각하는 건 안되고 같이 어느 정도 언어도 알고 번역기도 쓸 줄 알고 그래야지 서로서로 소통이 잘 되죠...”(연구 참여자, 4)

## (4) 그들에게 맞는 전략을 통한 복음 제시

연구 참여자는 이주민을 만날 때에 전문적인 자세와 전략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주민에 관한 연구를 하고 그들의 언어를 습득하는 준비된 태도가 있어야 함을 구술하였다. 나라와 민족마다 다른 성향을 파악하고 복음을 제시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복음을 전하는 욕심이 앞서는 것을 주의하고 먼저 이주민과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선교사가 선교지에 가듯이 이주민들의 곁에 가까이 다가가 그들과 더불어 교제하고 생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냥 와서 공부 가르치고 또 만나서 그냥 무작정 와가지고는 어려워요. 더 프로페셔널한 그게 이제 요구되는게 저는 이주민 사역이라고 생각해요. 준비된 자들이 많이 오고 이주민 사역을 위해서 훈련도 많이 해서 보내야 된다고 그걸 생각해요. 한국말 외국말 몰라도 됩니다. 그냥 오세요. 이런 건 안돼요. 애들한테 언어도 배우려고 마음먹고 있고 만약에 우즈벡이면 우즈벡어라도 조금 알고 생각하는 사람이 와야 돼.”(연구 참여자, 4)

#### 4.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을 섬기는 값진 통로

##### (1) 외국인을 만날 수 있는 통로

연구 참여자는 먼 외국의 선교지에서 만났던 외국인을 이곳에서 이주민으로 만날 수 있는 것이 귀한 경험이라고 하였다. 선교지에서 경험하고 품었던 영혼을 향한 마음을 이곳에서 유지할 수 있어 감격하였다. 물리적 거리로 인한 제약과 삶의 여러 이유로 갈 수 없는 땅의 사람들을 이곳 대한민국에서 만나는 것을 특권이라 여겼다. 특히 예배를 통하여서 이주민들과 영적인 교제를 통해 깊은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무엇보다 소중한다고 하였다. 우리가 이주민에게 나누고 베푸는 사랑보다 도리어 많은 것을 얻는 귀한 영적 통로라고 하였다.

“제가 한국에 온 뒤로 외국어 예배부가 없었고 이렇게 만날 기회가 있지 않았다면 제 마음이 계속 그 영혼들을 향해서 유지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공동체가 있다는 거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영혼들을 계속 만날 수 있는 통로 저는 그게 가장 값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연구 참여자, 1)

##### (2) 한 사람에서 그 민족을 섬기게 됨

연구 참여자는 자신에게 온 한 사람을 보고 섬겼을 뿐인데 그 사람을 통해 본국에 있는 가족들, 마을,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열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이주민 한 사람에게 베푼 사랑에 감동되어 그 가족과 친척을 이곳으로 부르는 일들을 경험하며 이주민 사역의 선교적 가치를 발견하였다. 이에 외국어 예배부를 하나의 부서가 아닌 그 민족의 교회 공동체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나는 이 한 사람을 봤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뭐냐면 이 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 한 사람을 통한 가정과 그 마을... 어떤 친구들은 제가 미안마 오면 오세요. 우리 마을 사람 다 모아줄게 여기로 다

말하세요. 복음 마음대로 전해주세요. 다 모아준데. 그 마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관계를 쌓기 위해서 얼마나 힘든 과정을 거치는데... 근데 이거는 뭐냐면 그냥 한순간에 그냥 싹 프리패스예요.”  
(연구 참여자, 2)

“이 한 사람이 나이 많은 이 사람한테 내가 잘했더니 짝 다 들어왔고 애들도 이제 여기서 또 공부할 수 있고 그런 이점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하나가 아니에요. 그 나라 본국에서만 아니라 이 나라에서도 자꾸 부르잖아요.”(연구 참여자, 4)

### (3) 기회가 없던 사람이 교회의 문턱을 넘음

연구 참여자는 이주민들은 자신의 나라에서 경험할 수 없는 교회를 이주를 통해 경험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당연히 자신의 나라에서는 힌두와 불교의 신앙적 배경 속에 살면서 교회에 올 생각도 기회도 접하지 못했지만 한국에 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사람들을 볼 때마다 굉장히 뜻깊은 일인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하였다. 한 명의 연구 참여자는 자신이 봉사하는 외국어 예배부서 구성원의 대부분은 한국에 와서 신앙이 생긴 이주민들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저는 더 한국에 지금 이주민 사역들이 일어나야 되고 또 봐야 되는 것들이 그들이 네팔 안에 있었을 때는 당연히 힌두 신앙을 가지고 있거든요. 교회에 갈 생각을 안 하죠... 네팔에서 전혀 기회가 없던 사람이 여기 와서 교회 다니는 문턱을 넘었고 교회 공동체에 와서 그 시간에 와서 같이 말씀 듣고 있고 그런 걸 봤을 때는 저는 그게 지금 한국에서 할 수 있는 굉장히 뜻깊은 일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연구 참여자, 1)

“여기 예배부 사람들은 한국 와서 신앙이 거의 와서 생겼고 이 예배부에서 한 분만 몽골에서 교회를 다녔던 것 같아요. 보통 저희도 유학생들 오는데 친구들이 몽골에서 다니러 오잖아요. 그러면 교회 데리고 오지만 이 친구가 또 자기 나라로 돌아가니까...”(연구 참여자, 5)

## 5. 끝까지 나아가게 하는 사명

### (1) 사랑은 어려움을 이겨내는 힘

연구 참여자는 사랑하는 마음이 모든 것을 이겨낸다고 하였다. 실질적으로 이주민을 위해 봉사하면서 다른 음식과 문화, 언어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공유하기 위해 많은 준비가 필요하였다. 이 모든

것이 낯설기도 하고 힘에 부치게 여겨질 만큼 고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사랑이 원동력이 되어 고된 일과 그들과의 다름에서 오는 불편함을 이겨나가게 된다는 것을 경험하였다. 오랜 시간을 기다려도 열매 맺지 못하는 좌절을 경험하면서 멀리 바라보고 넉넉히 기다리는 마음이 필요하고 그것이 결국 사랑임을 깨닫게 되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귀찮고 힘들어져 너무 힘들어지고 내가 왜 이 나이에 왜 이 고생을 하고 있노 막 이런 생각 들고 그래도 애들 오면은 오늘 일주일에 한 번 맛있게 먹는데 아침부터 닭 굽고 오잖아.”(연구 참여자, 3)

“그 나라 음식 나 못하지. 내가 뭐가 뭔지 그 저기 식사 요리 이름도 모르는데 이제 지금은 거의 다 이제 구해갖고 뭐 전에는 메뉴판 보고 이렇게 했지만 요새는 그냥 뭐 사고 뭐 사면 또 응용해서 뭘 넣어도 되고 또 그게 다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연구 참여자, 2)

## (2) 가시밭길이라도 기도하며 나아감

연구 참여자는 사랑으로 이주민을 섬기는 일을 시작하였지만 이 길이 마치 가시밭길과 같은 좁은 길이였음을 알게 되었다고 하였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이주민을 만나면 일단 기도로 시작하고 섬김에 최대의 역량을 쏟아부으면 새 일이 시작되는 것을 경험하였다.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이끄심이 원동력이 되어 나아갈 때 가시밭길이라도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경험하였다.

“가시밭길인지도 모르고 나오니까 진짜 막 갈 데도 없고 정말 허전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생각나는 게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의 부르심 운명 그러니까 이제 뒤를 돌아보면 처음부터 그런 이끄심이 있었기 때문에 힘들어도 기도하며 또 제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이 또 그거고 해서 그 길을 쫓가는 것 같아요. 하는 게 더 즐겁고...”(연구 참여자, 6)

“기도하다가 딱 봤는데 제 마음이 갑자기 슬프고 아픈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다른 나라 국가들이 교회에 걸려 있는데 미얀마 국기가 없는 거예요. 그때 그냥 거기서부터 이제 기도를 한 거야. 하나님한테 왜 미얀마 국기 없고 우리 미얀마 성도님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한국 분들도 미얀마를 위해서 복음 안에서 기도하고 그런 예배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때 이렇게 기도를 했었어요.”(연구 참여자, 2)

##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외국어예배부 봉사자들의 다문화 경험에 대한 본질을 탐색하려는 목적으로 Colaizzi (1978)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연구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외국어예배부 봉사자의 다문화 경험은 ‘다문화의 벽 속에 갇힘’, ‘무관심에서 오는 허탈감’, ‘선 이해와 수용이 필요함’,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의 값진 통로’, ‘끝까지 나아가게 하는 사명’이라는 범주로 나눌 수 있다.

연구 참여자들은 선교지에서 장·단기간의 다문화 경험을 가진 이들이었다. 그럼에도 이주민들의 삶의 터전에 깊이 개입하게 될 때 마주하는 갈등과 어려움에 당혹감을 경험하였다. 이는 타 문화권 관계접촉에서 문화적 차이로 고립감과 소외된 느낌을 경험한다는 연구와 맥락을 같이한다(홍석희, 2018: 213).

Rosaldo(1993)는 선주민과 이주민이 만나는 공간을 ‘문화 접경지대’라고 하였다. 이는 인종, 젠더, 국적, 생활양식 등이 다른 사람들 간의 문화적 교류가 일어나는 장소로서 자신의 문화 정체성을 본질적이고 본원적인 것으로 간주해온 사람들에게는 신경증적인 감정 즉 ‘접경지대 히스테리’를 불러일으킨다고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인보다 이주민의 비중이 높고 그들과의 교류가 많은 외국어 예배부서에서 경험할 수 있는 현상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외국어 예배부 봉사자에게 지속적인 타문화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교육을 통해 봉사자들을 지원하고 그들의 다문화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연구 참여자는 외국인 사역자와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외국어 예배부에서 외국인 사역자는 이주민의 문화적 공복감과 목마름을 채울 수 있으며, 이주민의 삶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다양성을 향유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임희모, 2015: 275). 하지만 본 연구와 같이 외국인 사역자와 한국인 봉사자 사이에서 문화 및 언어의 차이로 갈등이 유발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인 사역자와 외국인 사역자가 함께 다문화 선교사역자 양성프로그램을 통하여 문화적 배경이 다른 이들이 양국의 문화와 언어를 배우고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한국의 급증하고 있는 이주민 유입과 함께 국내 이주민 선교가 하나의 선교적 과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낯선 문화와 환경의 공간으로 이동한 선교사는 새로운 문화권 안에서 문화충격을 경험하고 언어, 관계, 일상생활, 감정과 가치관, 이해력의 상실 등으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안홍철, 2021: 163). 또한 선교사는 자신이 심리적으로 소진되었다는 사실이나 상황들을 인정하지 않고 더 내면화하게 되면서 심각한 신체적, 심리적, 정서적, 사회적, 영적 위기를 맞게 되고 정신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박선희·오윤선, 2023: 6). 이는 사역의 현장은 국내이지만 다른 문화를

경험하는 외국어예배부 봉사자 또한 경험할 수 있는 어려움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 교회는 이주민 선교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봉사자들을 지지하며 현장에서 뛰고 있는 봉사자들의 전인적 필요와 돌봄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선행연구에서 문화적 공감과 다문화 수용성은 강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류은진, 2022: 130). 다문화 수용성이 높다는 것은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기반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으며, 공동체의 다양성과 통합성을 이룰 수 있음을 의미한다(백정미·권정미, 2019: 119). 따라서 외국인들을 더욱 낮게 여기는 시선을 통한 존중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연구 참여자는 외국인을 이해하는 데에 있어 언어 학습의 필요를 인식하였다. Lapresta et al.(2019: 217)는 언어는 문화적응에서 핵심적 요소이며 이는 문화적응의 지표로도 사용된다고 하였다. 또한 집단에 대한 소속감에 증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에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섬김을 위해 외국인들과 한국인 봉사자 간의 서로의 언어를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연구 참여자는 이주민에게 맞는 전략을 통한 복음 제시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나라와 종족별로 다른 가치관을 파악하고 그들에게 맞는 전략을 통한 선교와 돌봄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외국인 섬김에 참여하는 봉사자들에게 언어 교육 및 다문화 이해 교육을 제공하고, 이주민 그룹별로 선교전략을 구상하는 등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이를 통해 섬김의 질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이들에게 효과적인 선교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 참여자는 선교지에 나가야 만났던 영혼들을 국내에서 만나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였다. 선교사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와 선교를 금지하는 개종 금지법을 시행하는 국가가 늘면서 해외의 선교지에는 많은 변화가 있다. 이처럼 외부의 선교 환경은 선교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는 반면, 국내에서는 이주민 선교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신성임, 2023: 402). 국내의 이주민 선교는 우리가 갈 수 없는 비공개지역과 선교전략 지역인 10/40창<sup>1</sup> 지역에서 이주하여 온 미전도 이주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값진 통로인 것이다. ‘내 집 앞에서의 선교’가 이루어지는 귀한 섬김의 기회로 여겨진다. 연구 참여자는 외국어 예배부에서 만난 한 명의 이주민을 섬길 뿐이었으나 이것이 곧 가족과 친구 그들의 나라에까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경험하였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Wan & Tira의 연구에서 이주민 선교는 이주민이 복음을 받아들인 후, 국내의 친구, 친족, 이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넘어서서 본국의 친구, 친족, 이주민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단계에 이를 수 있다고 하였다(Wan & Tira, 2010: 47). 이주민도 본국의 친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도구가 될 수 있다. 연구 참여자는 이주민들을 만나면서 그들이 한국으로의 이주를 통하여 복음을

1) 루이스 부쉬(Luis Bush)가 처음 소개한 용어로, 세계 지도상 북위 10도에서 40도 사이의 지역을 가리키며 대다수의 미전도 종족이 이곳에 거주하고 있음.

들게 되고 변화되는 경험을 하였다. 이는 이주민 사역의 장점으로 이주민 본국에 비해 교회에 대한 거부감이 낮고, 복음에 대한 수용성이 높은 편이라는 것과 유사하다(Terry & Payne, 2015: 304). 따라서 이곳에서 만나는 한 명의 이주민을 섬길 뿐만 아니라 이들이 본국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데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구 참여자는 이주민들을 섬기면서 그들의 실질적인 삶의 문제에 깊이 있게 관여하였다. 그들의 임금 체불의 문제, 건강상의 문제, 구직의 문제를 돕고 그들의 정서적 필요를 채우기 위해 이주민 나라의 전통음식을 만들어 나누기도 하였다. 이러한 섬김에는 많은 수고로움이 따랐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순간도 경험하였다. 하지만 이 모든 일에 먼저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원동력이 되어 모든 것을 이기고 나아가게 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자는 많은 이가 가지 않는 좁은 길, 척박한 가시밭길과 같은 이 여정 속에서 기도가 자양분이 되어 계속적으로 걸어갈 수 있었다고 하였다. 간호선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믿음은 선교지에서 경험하는 수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사역을 지속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며, 영성은 연구 참여자를 짓누르는 현장의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이겨내는 중요한 힘의 원천이 되었다고 하였다(한미영·손수경, 2017: 280). 따라서 외국어 예배부 봉사자들이 주님의 가르침 속에서 소명의식을 재확인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아가는 훈련과 양육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이상과 같이 논의해 보았을 때, 외국어 예배부 봉사자에게 지속적인 타문화 이해에 대한 교육과 언어 교육이 필요하다. 그리고 다문화의 감수성과 민감성을 가지고 서로의 원만한 의사소통을 위해 외국인 사역자들도 함께 훈련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서로의 문화와 언어를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서로의 다름으로 인하여 두려움과 공존 사이에서 방황하는 이주민과 선주민이 정서적·심리적 귀속감뿐만 아닌 하나님 나라의 영적 귀속감을 가지고 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겠다. 이에 한국 교회는 이주민 사역을 하고 있는 봉사자들에게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들의 심리적 정서적 소진을 예방하도록 지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이주민 선교에서 이 땅에서 만나는 한 명의 이주민을 품는 것이 한 민족과 세계를 품는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다. 이를 위해 이주민의 유형에 맞는 선교적 전략을 가지고 복음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본향을 향해 가고 있는 순례자요 나그네인 것을 기억하며 우리 곁에 온 나그네인 이주민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지역교회의 외국어예배부 봉사자들을 대상으로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다문화 경험의 본질과 의미의 구조를 이해하고 더 나아가 그들을 위한 지지체계 방안을 모색하고자 시도되었다. 이 연구를 통해 다문화를 경험하고 있는 외국어예배부 봉사자의 겪는 고충을 살펴보고



다문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가져야 할 다문화 태도를 발견하였다. 무엇보다 이들의 섬김 속에 이주민 선교의 선교적 가치를 발견한 것에 의의가 있다. 또한 이주민의 유입이 더욱 증가하고 있는 상황 속에 지역교회와 지역사회의 중재적 관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규명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부산, 경남지역에서 지역교회 외국어예배부 봉사자를 대상으로 최대변량 표집을 하였기 때문에 이의 연구결과를 일반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다문화 관련 요소는 연구 대상자의 거주 지역사회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으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지역의 편중을 고려하여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연구 참여자의 수를 확대하거나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하는 양적 연구 등의 후속연구를 제언한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 참고문헌

- 강혜라·홍영준 (2015). 해외자원봉사활동이 대학생의 세계시민의식과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시민청소년학연구**, 6(2), 1-36.
- 김경주 (2011). **한국사회에서 이주민에 대한 교회의 대응**. 석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 김미중 (2019). 임상간호사의 다문화태도, 문화적역량과 영향요인. **인문사회** 21, 10(1), 159-174.
- 김성훈·문창선 (2016). 로잔 디아스포라 운동과 이주민 선교. **미션인사이트**, 7, 132-139.
- 김영순·박미숙 (2016). 진지한 여가로서 다문화멘토링 봉사활동 경험에 관한 연구. **여가학연구**, 14(2), 87-111.
- 남미순 (2018). 라이닝거의 문화 돌봄이론에 대한 자연주의적 해석. **범한철학**, 91, 257-284.
- 남보영·홍이준 (2021). 외국인주민과의 직접 접촉 경험과 다문화 수용성-간접 접촉 유형에 따른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37(3), 181-208.
- 류은진 (2022). 간호대학생의 다문화 감수성과 문화적 공감의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대한통합의학회지**, 10(2), 125-134.
- 문창선 (2016). 국내 이주민 선교의 흐름과 사역 진행. **미션인사이트**, 7, 51-74.
- 박명숙 (2020). 대학생들의 다문화 수용성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사회복지학**, 74, 115-146.
- 박선희·오윤선 (2023). 선교사의 생활사건 스트레스, 심리적 소진, 침습적 반추와 정신건강 문제의 구조적 관계연구. **복음과 상담**, 31(2), 5-39.
- 박소영 (2016). 간호대학생의 자아성찰, 비판적 사고성향 및 다문화 경험과 문화적 역량과의 관계. **디지털융복합연구**, 14(12), 345-355.
- 백정미·권정미 (2019).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수원시를 중심으로. **다문화와 평화**, 13(3), 117-147.
- 송재홍 (2016). 선교사 훈련의 중요성과 방향. **활천**, 752(7), 38-41.
- 신성임 (2023). 새로운 선교 패러다임으로 부상하는 국내 이주민 선교: 패러다임 특징 분석과 이주민 선교 현황을 중심으로. **선교와 신학**, 59, 389-417.
- 안홍철 (2021). 아시아 선교사의 소진과 회복탄력성에 대한 근거이론적 접근. **선교신학**, (63), 155-188.
- 엄주연 역 (2015). **교회와 선교사를 위한 선교전략 총론**. Terry J. M. & Payne J. D. (2013). *Developing a strategy for missions (encountering mission): A biblical, historical, and cultural introduction*. 서울: CLC.
- 여성가족부 (2018). **2018년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 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
- 이미정 (2022). **한국교회 이주민선교의 효과성 증대를 위한 예배와 양육의 상황화 방안 연구**. 박사학위논문, 백석대학교.

- 임희모 (2015). 한국의 다문화적 상황과 다중다문화선교 리더십. *신학논단*, 18, 267-299.
- 정선아 (2019). **다문화 경험과 다문화 태도의 관계에서 다문화 지식과 다문화 인식의 매개효과 및 문화적 공감의 조절 효과**.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하도균 (2016). 다문화 사회 속에서 효율적인 다문화 교회 정착과 복음전도를 위한 연구. *신학과 실천*, (52), 681-710.
- 한미영·손수경 (2017). 한국 간호선교사의 해외선교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신앙과 학문*, 22(3), 265-288.
- 행정안전부 (2022). **2022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 홍서연·손병덕·손주희 (2018). 국민의 다문화 인식이 사회통합 정책 수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수도권거주 국민을 중심으로. *다문화 평화*, 12(3), 300-324.
- 홍석희 (2018). 타 문화권 선교사들의 정서적 탈진과 대응과정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선교신학*, 0(61), 202-241.
- 황홍렬·노일경·정노화·박홍순·황진상 (2013). **이주민 기초조사 보고서**. 서울: 꿈꾸는 터.
- Allport, G. W. (1979). *The nature of prejudice*. Reading, MA: Addison-Wesley.
- Berry, J. W. & Dmitry, G. (2022). An adaptationist framework to examine intergroup contact. *Psychology in Russia: State of the art*, 15(4), 83-100.
- Berry, J. W., Lepshokova, Z., MIRIPS Collaboration, Grigoryev, D., Annis, R. C., Au, A. K. & Ziaian, T. (2022). How shall we all live together? : Meta-analytical review of the mutual intercultural relations in plural societies project. *Applied Psychology*, 71(3), 1014-1041.
- Colaizzi, P. F. (1978). *Psychological research as the phenomenological Alternatives for Psycholog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Creswell, J. W. & Poth, C. N. (2016).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 Sage publications.
- McGavran, D. A. (1990). *Understanding church growth*. Grand Rapids, Mich: Wm. B. Eerdmans Publishing.
- Kuzel, A. J. (1992). *Sampling in qualitative inquiry* (2nd ed.). Newbury Park, CA.: Sage Publications.
- Lapresta-Rey, C., Caballe, E., Huguet, A. & Janes, J. (2019). Linguistic Usesand Formation in Language and Culture of Origin. A Tool for Socio-educational Integration?. *Círculo de Lingüística Aplicada a laComunicación*. 77, 217-232
- Leininger, M. M. (2001). Current issues in using anthropology in nursing education and services. *Western Journal of nursing research*, 23(8), 795-806.

Lincoln, Y. S. & Guba, E. G. (1985). *Naturalistic inquiry*. Beverly Hills, Calif: Sage Publications.

Miles, M. B. & Huberman, A. M. (1994). *Qualitative data analysis: A sourcebook of new methods* (2nd ed.). Thousand Oaks, CA: Sage.

Rosaldo, R. (1993). *Culture & truth: The remaking of social analysis*. Boton, Mass: Beacon Press.

Wan, E. & Tira, S. J. (2010). Diaspora missiology and missions in the context of the twenty-first century. *Torch Trinity Journal*, 13(1), 46-60.

“The Cape Town Commitment”, Lausanne occasional paper(LOP). Retrieved from [http://https://lausanne.org/statement/ctcommitment\(2024.2.6\)](http://https://lausanne.org/statement/ctcommitment(2024.2.6)).

## 지역교회에서의 다문화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외국어예배부 봉사자들의 경험을 중심으로-

**A Phenomenological Study of Multicultural Experiences in Local Church:  
Focusing on the Volunteers' Experiences of Foreign Language Worship Services**

강신아 (고신대학교 박사수료)

최은정 (고신대학교/교신저자)

### 논문초록

본 연구는 지역교회의 외국어예배부 봉사자를 중심으로 그들의 다문화 경험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탐색하여 그들의 경험에 대한 의미와 구조를 밝혀내기 위해 실시한 질적연구이다. 연구의 방법은 지역교회의 외국어예배부에서 봉사자의 경험을 2년 이상 경과한 6명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여 이들의 경험을 심층면담을 통해 제시하고, 분석하였으며 분석방법은 Colaizz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다문화의 벽 속에 갇힘', '무관심에서 오는 허탈감', '선이해와 수용이 필요함',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을 섬기는 값진 통로', '끝까지 나아가게 하는 사명'의 총 5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외국어예배부 봉사자들의 다문화 경험에 관한 보다 깊은 이해를 제공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한 봉사자들의 교육과 실제적 돌봄과 지지방안, 그리고 이주민 선교를 위한 전략개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지역교회, 외국어예배부 봉사자, 다문화 경험, 콜라지 현상학적 연구, 이주민 선교



## 편집위원회 규정

2001년	1월 28일	제정
2004년	1월 1일	개정
2007년	1월 1일	개정
2010년	2월 1일	개정
2011년	8월 19일	개정
2012년	4월 6일	개정
2014년	1월 16일	개정
2020년	3월 1일	개정
2020년	6월 1일	개정
2022년	3월 15일	개정
2023년	7월 1일	개정

### 제 1 장 총칙

제1조 본 위원회는 기독교학문연구회 편집위원회(이하 “편집위원회”)라 칭한다.

제2조 편집위원회는 기독교학문연구회 회칙 제6장에 의거하여 설치된다.

제3조 편집위원회가 관장하는 학회지 『신앙과 학문』은 다음과 같은 지침 하에 발행된다.

- (1) 매년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년 4회 발행한다.
- (2) 원고마감은 발행 약 60일 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발간호	발간일	원고투고 마감일
1호	3월 31일	1월 31일
2호	6월 30일	4월 30일
3호	9월 30일	7월 31일
4호	12월 31일	10월 31일

- (3) 『신앙과 학문』의 투고, 심사, 발행 등 편집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하며, 별도의 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

### 제 2 장 편집위원 구성

제4조 편집위원회는 전공과 지역을 고려하여 10인 내외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위원을 둔다.

제5조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들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단, 질병이나 장기 해외출타 등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중에도 교체할 수 있다.

제6조 편집위원장은 전공과 기독교 학문에 식견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중에서 회장이 선임한다.

- (1) 4년제 대학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2) 기독교학문연구회에 5년 이상 가입한 경력이 있는 자
- (3)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후보)학술지의 편집위원 경험이 있는 자
- (4) 최근 10년 동안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후보) 학술지에 20편(SCI급 논문은 3편으로 환산) 이상 논문을 발표한 실적이 있는 자

제7조 편집위원장은 학회지 발간과 관련된 모든 업무, 즉 편집위원의 위촉, 학회지 논문의 심사, 편집 및 출판에 대한 행정 실무를 담당한다.

제8조 편집위원은 회원 중에서 편집위원장의 추천으로 학회장이 임명하며, 다음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1) 4년제 대학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혹은 해당분야에 있어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하고,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2) 최근 5년 동안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후보) 학술지에 5편(SCI급 논문은 3편으로 환산) 이상의 논문을 발표한 실적이 있는 자

### 제 3 장 기 능

제9조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신앙과 학문』의 체제, 발간 부수, 분량 및 투고규정 등 학회지 발행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결정한다.

제10조 편집위원회는 접수된 논문의 심사위원을 선정·의뢰하고, 심사결과를 토대로 논문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제11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이나 투고자와 관련된 연구윤리규정을 지켜야 하며, 투고 논문심사와 관련하여 투고자의 정당한 이익제기가 있을 때는 편집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제12조 위 제9조에 제시된 사항 이외에 편집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은 이사회의 인준을 거친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 제 4 장 편집회의

제13조 편집회의는 학회지 발간시기와 필요시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4조 편집회의는 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 편집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독교학문연구회의 예산으로 지원한다.



## 제 5 장 논문심사 기준 및 절차

제16조 투고된 모든 논문은 편집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게재가 결정된다.

제17조 논문의 심사는 개별항목 평가와 종합 평가로 이루어진다.

제18조 논문심사에 적용되는 개별 항목은 다음과 같다.

- |                                |                      |
|--------------------------------|----------------------|
| (1) 주제의 명확성과 참신성,              | (2) 목적과 내용의 합치도·적절성, |
| (3) 연구방법의 적절성 및 논리의 정합성,       | (4) 결과의 학문적·사회적 기여도, |
| (5) 연구결론 및 제언의 합리성,            | (6) 문장기술·용어 사용의 명료성, |
| (7) 각주·인용·참고문헌·국문 및 영문 초록의 정확성 |                      |

제19조 종합 평가는 개별항목 평가를 근거로 심사자가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심사>, <게재 불가> 4등급으로 평가한다.

제20조 논문심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진다.

- (1) 접수: 논문게재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원칙상 기독교학문연구회의 정회원이어야 한다. 원고의 게재순서는 논문게재 확정 순서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 심사의뢰: 편집위원장은 투고된 논문을 세부전공별로 분류한 후 각각의 논문에 대해 3명 이상의 심사자를 위촉하여 심사의뢰서와 함께 심사를 요청한다. 이때 투고자의 이름과 소속은 심사위원이 알 수 없도록 삭제하여 보낸다.
- (3) 심사: 각 심사위원은 심사의뢰서에 의거하여 논문을 심사하고 그 판정의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하며, 소정의 심사결과 보고서에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4등급으로 종합판정을 내린다. 특히, 수정을 요하는 논문은 수정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장으로부터 논문심사를 의뢰 받은 심사위원은 의뢰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심사를 종료하고 논문심사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이 심사의뢰를 받은 후 기한 내에 논문심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 가. 게재가: 수정 사항이 없거나 아주 사소한 수정 후에 게재할 수 있는 논문.
  - 나. 수정 후 게재가: 표현, 어휘의 선택, 제시순서 등의 핵심내용과는 무관하거나 부분적인 수정을 하면 게재할 수 있는 논문.
  - 다. 수정 후 재심사: 논문의 핵심내용에서 문제가 있어 반드시 수정이 요구되고, 그것의 수정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논문.
  - 라. 게재불가: 논문의 핵심내용에서 중대한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논문.
- (4) 1차 편집회의: 심사결과 보고서가 수합된 후 심사위원장은 1차 편집회의를 소집하고 심사내용을

검토한다. 2명 이상의 심사자로부터 <게재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논문 투고자에게 최종 교정을 의뢰한다. <수정 후 게재>와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은 심사위원의 논평을 첨부하여 논문 투고자에게 수정을 요구한다. 2명 이상의 심사자로부터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게재를 불허한다.

- (5) 2차 편집회의: 편집위원장은 수정을 마친 논문들을 수합하여 2차 편집회의를 소집한다.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의 판정을 받은 논문에 대해 해당 심사자에게 수정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편집위원장은 수정된 논문의 최종 심사결과를 투고자에게 <게재가>와 <게재불가>로 나누어 통보해준다. 이 시점부터 투고자가 원할 시 논문게재 예정증명서를 발급해 줄 수 있다.

- (6) 심사에 관한 기타 세부사항은 부록#1<「신앙과 학문」 논문 심사규정>에 따른다.

## 제 6 장 부칙

본 규정의 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신앙과 학문』 논문 심사규정

## 제 1 조 (목적)

이 세칙은 학회지 발간규정 제3조 및 제 19조에 의거하여 『신앙과 학문』 학술지 투고논문 심사 규정세칙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심사판정 기준 및 결과의 처리)

(1) 3인 심사위원의 판정에 기초하여 최종 게재여부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제 1 심사자	제 2 심사자	제 3 심사자	종합 판정
1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능
2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가능 (수정요구)
3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4	게재가	게재가	게재불가	수정 후 게재가능 (수정 후 편집위원회 게재결정)
5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6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7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8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9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불가	수정 후 재심사 (재심사 후 편집위원회 게재결정)
10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불가	
11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12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13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14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15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게재불가
16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17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18	수정 후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19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게재불가	
20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2) “게재가능” 판정을 받은 논문도 심사자의 수정보완 요구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3) “수정 후 게재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심사자의 수정보완 요구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편집위원회의 확인을 거쳐서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 (4)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은 수정을 지시하는 재심사를 거쳐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 (5) “수정 후 게재가” 혹은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후 수정 논문을 최종 마감일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게재불가” 처리한다. 단 투고자의 요청과 편집위원회의 승인이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수정논문 제출을 다음 호로 연기할 수 있다.
- (6) 투고자는 심사 과정 및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편집위원회에 이메일(faithscholar@naver.com)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이를 편집위원회에서 처리한다.
- (7) 편집위원회의 결정은 인터넷 전자메일을 이용한 투표로 할 수 있다.

### 제 3 조 (심사위원단)

- (1) 편집위원회는 논문심사위원의 책임성과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각 분야 학자로 심사위원단을 구성할 수 있다.
- (2) 편집위원이 투고할 경우 편집위원장은 투고자를 제외하고 논문 심사자를 선정한다.

### 제 4 조 (개인정보보호)

논문의 심사과정에서 논문제출자와 심사자의 개인정보는 보호된다.

### 제 5 조 (저작권 및 판권)

- (1) 「신앙과 학문」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 판권은 기독교학문연구회가 보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 투고시 “저작권양도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 제 6 조 (심사를 위한 서식)

- (1) 「신앙과 학문」 제( )권( )호 논문심사서 : 서식 가
- (2) 「신앙과 학문」 제( )권( )호 논문심사료 신청서 : 서식 나

### 제7조(개정된 논문심사규정)

이 개정된 규정은 2022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신앙과 학문』 논문심사의견서

- 논문번호:
- 논문제목:
- 부문별 평가: 다음 칸에 각 항목 배점에 기준으로 심사 점수를 기재해 주세요.
- 최종평가: 총점에 따라 논문 평가 등급 칸에 표기(√ 또는 O)해 주세요.

평가항목		배점	심사 점수	
1) 주제의 명확성과 참신성		20		
2) 목적과 내용의 합치도·적절성		20		
3) 연구방법의 적절성 및 논리의 정합성		20		
4) 결과의 학문적·사회적 기여도		10		
5) 연구결론 및 제언의 합리성		10		
6) 문장기술·용어 사용의 명료성		10		
7) 각주·인용·참고문헌·논문초록의 정확성		10		
총점		100		
최종평가 (심사위원 논문 평가 등급)	게재가 (90점 이상)	수정후 게재가 (80점~89점)	수정후 재심사 (70점~79점)	게재불가 (69점 이하)

※ 심사의견서 (수정보완 요구서 또는 게재불가 사유서)는 다음의 별도 페이지를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앙과 학문』 편집위원장 귀하

### 심사의견서:

\* 저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의견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심사의견을 서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지시사항의 경우 논문내 구체적인 페이지와 함께 이유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게재불가의 경우는 왜 게재가 불가한지를 상세하게 서술하여 주시고, 저자로 하여금 건설적인 수정이 가능하도록 관련 참고문헌을 제시하여 주세요.

### ❖ 논문주요내용:

### ❖ 수정지시사항 (게재불가 이유 포함):

## 논문심사료 신청서

- 논문번호:

- 논문제목:

『신앙과 학문』에 투고된 상기 논문심사에 대한 심사료를 아래와 같이 신청합니다.

심사위원	성명	(인)	소속	
	Email		휴대전화	
	심사일			
은행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20   년   월   일

『신앙과 학문』 편집위원장 귀하

## 「신앙과 학문」 투고 규정

2003년 1월 1일	제정
2008년 1월 1일	개정
2010년 2월 1일	개정
2012년 4월 6일	개정
2014년 1월 16일	개정
2017년 7월 1일	개정
2019년 4월 1일	개정
2020년 3월 1일	개정
2020년 6월 1일	개정
2021년 7월 1일	개정
2022년 7월 1일	개정
2023년 7월 1일	개정

1. 논문의 투고는 원칙적으로 본 학회의 정회원에 한한다.
2. 저자는 다음의 사항을 유념하여 원고를 작성하여야 한다.
  - 1) 투고논문은 타 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투고일 현재 타 학술지에 게재 신청 중인 논문은 투고할 수 없다.
  - 2) 논문은 본 학술지 심사규정을 고려하여 작성하되, 기독교 세계관에 바탕을 둔 학술적 가치와 학문적 깊이가 있는 창의성 있는 논문이어야 한다.
  - 3) 타인의 저작물 표절 혹은 자기표절에 해당하는 것, 즉 타인의 아이디어, 논리, 고유한 용어, 데이터, 분석체계 등을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임의로 도용하는 행위, 출처는 밝히지만 인용부호 없이 타인의 연구내용을 원문 그대로 옮기는 행위, 그리고 자신이 발표한 저술의 내용을 인용 혹은 각주 등 명백한 표시 없이 그대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한다. 학위논문의 축약본이나 일부를 투고할 경우에도 그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 4) 위조 혹은 변조에 해당하는 것, 즉 존재하지 않은 데이터나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어 내거나 데이터나 연구결과를 의도적으로 변경하거나 누락시키는 등 연구결과를 조작하는 행위를 금한다.
  - 5) 참고문헌과 각주에 대한 본 투고규정을 필히 준수하여야 한다.  
[예 : 본문 인용 시 APA방식 사용 - 투고규정 7~9 참조, 각주는 최소한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단순히 자료출처를 밝히는 것은 금한다.]



3. 논문 저자의 표기 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투고논문의 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반드시 제1저자(또는 교신저자)를 명기하여야 한다. 특별한 표기가 없으면 앞에 기재된 저자를 제1저자, 뒤에 기재된 저자는 공저자로 간주한다. 단, 교신 저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교신저자를 표기한다.
- 2)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는 연구책임자, 연구의 핵심 아이디어를 제공한 자, 연구를 실질적으로 수행한 자여야 하며, 공저자는 연구에 전체 혹은 부분적으로 직접 기여한 자여야 한다. 연구에 직접 기여하지 않은 자가 주저자 혹은 공저자가 되는 것을 금한다.
- 3) 논문 제출자는 JAMS에 주저자 및 공저자의 정보를 모두 입력하여야 하며, 표기 방법은 아래의 <표>와 같다. 단 논문의 저자명과 저자정보는 삭제하여야 하며, “게재기” 판정을 받은 최종논문에만 기재하여 제출한다.

<소속 및 직위별 표시방법>

대상		표시할 사항
대학 소속	대학 소속 교수 (전임/비전임)	성명(O O대학, 교수)
	대학 소속 강사	성명(O O대학, 강사)
	대학 소속 학생	성명(O O대학, ★★과정, ★★수료, 박사, 석사 등)
	대학 소속 박사후연구원	성명(O O 대학, 박사후 연구원)
초중등 학교 소속	초중등학교 소속 학생	성명(O O학교, 학생)
	초중등학교 소속 교사	성명(O O학교, 교사)
기타	소속/직위가 없는 경우	성명 * 소속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최종 소속, 직위, 재학년도 별도제출

4. 편집위원회는 필요에 따라서 투고자에게 원고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5. 논문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의미 혼동의 가능성이 있거나 인명, 지명의 경우 처음 표기는 ( )안에 한자 또는 원어를 명기하며, 그 이후에는 한글로 표기한다. 외국어로 작성된 논문도 투고할 수 있다.

6. 논문 제출 시 원칙상 영문으로 된 'ABSTRACT'와 국문으로 된 '논문초록'을 포함해야 하며, 'ABSTRACT'를 논문의 맨 앞에, '국문초록'은 참고문헌 다음에 제시한다.

① 'ABSTRACT'는 논문제목과 저자명(영문) 밑에 200단어 내외로 작성한다.

'ABSTRACT'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제목, 투고자의 이름과 소속, 연구내용, Key Words 를 포함해야 한다. 제목의 첫 단어와 첫 글자는 대문자로 표기하고(예, The Educational Meaning of Love), 'Key Words'는 고유명사 외에는 소문자로 표기한다(alternative education, Christian worldview). 투고자의 이름은 유재봉(Jae-Bong Yoo)으로, 소속은 각주 내 성균관대학교 교수 (Sungkyunkwan University)로 표시한다. 각주에는 소속 기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를 첨부한다.

② '국문초록'은 참고문헌 다음에 500자 내외로 작성하며, 5단어 내외의 '주제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외국어로 작성된 논문도 국문으로 된 논문초록과 ABSTRACT를 제출하여야 한다. 불가피한 경우는 편집위원회가 저자의 위임을 받아 ABSTRACT를 국문으로 번역할 수 있다.

7. 제출 원고는 다음과 같은 규격에 따라 작성한다.

- 1) 용지종류 및 여백설정: 용지설정 A4, 여백은 왼쪽 33, 오른쪽 33, 위쪽 33, 아래쪽 33, 머리말 12, 꼬리말 12
- 2) 논문제목: 휴먼고딕, 글자크기 15, 진하게 가운데 정렬
- 3) 연구자 및 소속: 신명조, 글자크기 11, 가운데 정렬
- 4) 요약: 제목은 휴먼고딕, 글자크기 9, 줄 간격 150, 가운데정렬  
요약본문: 신명조, 크기 9, 줄간격 150, 들여쓰기 10
- 5) 본문 글꼴 설정: 신명조 10, 들여쓰기 10, 줄 간격 160, 장평 95%, 자간 -10%
- 6) 각주: 신명조, 글자크기 9, 장평 95%, 자간-4%, 왼쪽여백 4, 내어쓰기 3, 줄 간격 150
- 7) 긴 인용: 신명조, 글자크기 9, 장평 95%, 자간-4%, 줄 간격 150, 들여쓰기 10,  
여백주기 오른쪽 5, 왼쪽 5
- 8) 참고문헌: 휴먼고딕, 글자크기 12, 진하게, 가운데 정렬  
목록내용: 신명조, 글자크기 10, 장평 95%, 자간-4%, 여백주기: 왼쪽 8, 내어쓰기 7,  
줄 간격 130

8. 제출 원고는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작성한다.

1) 본문 소제목: 본문의 구분은 장(章), 절(節), 항(項) 순으로 배열한다.

장은 ‘I, II, III, …’의 순으로, 절은 ‘1, 2, 3, …’의 순으로, 항은 ‘(1), (2), (3), …’의 순으로 번호를 매긴 후, 제목을 표기한다. 세분화를 지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세분화된 제목은 ‘①, ②, ③, …’, ‘i, ii, iii), …’을 따른다.

2) 논문 작성 시 참고한 내용이나 아이디어는 반드시 출처를 표시하여야 한다.

① 본문 내 직접인용일 경우 큰따옴표(“ ”)를 사용하며, 본문의 출처는 APA 방식으로 한다.

예) 화이트헤드(Whitehead, 1932: 23)에 의하면, “현대철학은 플라톤 철학의 주석에 불과하다.” 혹은 “현대철학은 플라톤 철학의 주석에 불과하다(Whitehead, 1932: 23).”

② 간접인용이나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참조하였을 경우에는 큰따옴표 없이 출처를 밝힌다.  
…(Parshall, 2003: 23)

③ 3줄이 넘는 긴 인용 시 인용문 앞뒤에 한 줄씩 띄워 큰따옴표 없이 왼쪽 들여쓰기로 별도의 문단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④ 두 자료 이상을 참고 하였을 때는 쌍반점(; )으로 구분한다. (김철수, 2007: 12 ; 박명순, 2009: 217)

⑤ 강조문은 따옴표( ‘ ’)를 사용한다.

⑥ 성경 인용의 경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창세기 1: 1).”, 혹은 (창 1:1)

⑦ 2인의 공동저술 인용의 경우: (김희계·이희계, 2009: 217-218 ; Kim & Lee, 2008: 20)

⑧ 3인 이상 공동저술 인용의 경우: (김철학 외, 2010: 12), (Smith et al., 2005: 50)

⑨ 동일 저자의 동일 연도 저술 인용의 경우: (이윤리, 2007a: 18),(이윤리, 2007b: 27)

⑩ 한글 번역서 인용의 경우: (Jackson, 전광철 역, 2013: 77)

3) 각주는 설명하거나 보충하는 내용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단순한 자료의 출처나 참고문헌은 각주에 표기하지 않고 본문에 넣는다.

4) 그림과 표 제시: 모든 그림(사진)과 표의 제목과 내용은 한글 혹은 영문으로 한다.

(1) 그림(사진) 제시 방법

① 그림을 일련번호를 붙이되, 그림 1(Figure 1), 그림 2(Figure 2), 그림 (Figure 3)…로 일련번호를 붙이고, 번호를 그림 1.1(Figure 1.1), 그림 1.2(Figure 1.2) 등으로 세분하지 않도록 한

다. 그림 제목은 하단 중간에 제시한다. 그림은 원본 그대로를 인쇄할 수 있도록 저자가 완벽하게 만들어 제출하며, 본문을 참조하지 않아도 내용을 알 수 있을 정도로 간결, 명확하게 표기한다.

② 제시한 그림의 출처가 있는 경우 그림 아래에 그 출처를 표시한다.

③ 그림(사진)을 본문에 인용할 때는 그림 1(Figure 1), 그림 2(Figure 2), 그림 3(Figure 3)···로 표시한다.

(2) 표 제시방법

① 표의 제목과 설명은 한글 혹은 영문으로 한다. 표의 번호는 표 1(Table 1), 표 2(Table 2) 등의 일련번호를 붙이고, 번호를 표 1.1(Table 1.1), 표 1.2 (Table 1.2) 등으로 세분하지 않도록 한다. 표 제목은 상단 왼쪽에 제시한다. 표는 원본 그대로를 인쇄할 수 있도록 저자가 완벽하게 만들어 제출하며, 본문을 참조하지 않아도 내용을 알 수 있을 정도로 간결, 명확하게 표기한다.

② 표를 본문에 인용할 때는 표 1(Table 1)으로 표시한다.

③ 표(Table)의 크기가 한 면보다 클 경우 각각 별도의 쪽에 작성하며, 가급적 인쇄 후 한 쪽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표(Table)이 다른 쪽이나 다른 표(Table)로 이어지는 경우는 끝에 “continued”를 표기한다.

④ Table 밑에 각주(footnote)를 달 때는 Table 내용 중 설명하려는 단어 또는 문장 끝에 아라비아 숫자 1), 2), 3)으로 나타낸다. \*, \*\*, \*\*\* 표시는 통계분석의 유의확률이  $p < 0.05$ 나  $p < 0.01$ ,  $p < 0.001$ 을 나타낼 때만 사용하며,  $p$ 는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다중범위 검정에서는 a, b, c, d 등을 사용하고 표 하단에 그 내용을 표시한다.

9. 참고문헌의 출처는 반드시 본문의 출처와 일치해야 하며, 참고문헌 작성은 원전, 한국문헌, 중국문헌, 일본문헌, 서양문헌, 인터넷 등 기타문헌 순으로 하며, 가나다/ABC순으로 정렬한다. 단행본, 번역서, 학술지, 학위논문, 정기간행물, 연구보고서, 잡지의 영어 제목은 이탤릭체로 하고, 한글 제목은 진하게 표기한다. 일반 논문의 경우, 논문이 실린 논문집의 해당 페이지를 끝부분에 표시한다. 인터넷 자료와 신문기사의 제목은 큰따옴표(“ ”) 안에 넣는다. 저자가 2인일 경우 한글 저자는 두 저자 가운데 중점(·)을 붙이고, 영어 저자일 경우 두 저자 사이에 & 를 넣는다. 저자가 3인 이상일 경우 한글 저자는 저자들 가운데 중점(·)을 붙이고, 영어 저자일 경우 마지막 저자 앞에 &를 넣는다.

1) 영문 참고문헌의 경우

① 단행본:

Marsden, G. E. (1997). *The Outrageous Idea of Christian Scholarship*.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② 번역서:

Meargham, P. (1984). *Wit: Its Meaning*. Trans. George Playe. Boston: Smith.

③ 정기간행물:

Todd, S. & G. Haydon (2001). Guilt, suffering and responsibility. *Journal of Philosophy of Education*, 35(4), 597-614.

④ 편저:

Bloom, B. S. (Ed.) (1956). *Taxonomy of Educational Objectives*. New York: David McKay.

Oakeshott, M. (1989). A place of learning. in Fuller, T. (Ed.) (1989). *The Voice of Liberal Learning*.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⑤ 2판 이상의 문헌:

Weimer, D. & Vining A. (1992). *Policy Analysis: Concepts and Practice*. (2nd ed.). Englewood Cliffs: Prentice Hall.

⑥ 석·박사 학위논문:

Gill, D. W. (1979). *The word of God in the Ethics of Jacques Ellul*. Doctoral Dissertation or Masters Dissertation.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Los Angeles, USA.

⑦ 연구보고서:

Lee, H. Y., Kang, Y. H., Park, J. Y., Nah, B. H. & Kim, M. J. (2008). *Search for a Future School Model*.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⑧ 인터넷 자료 및 신문기사:

“Title”, OOI-Bo (2010.3.3.). Retrieved from <http://...> (2005.11.11.)

⑨ 판례:

[Supreme Court Decision 2013Da101425 Decided April 7, 2017.]

⑩ 같은 연도에 발행한 동일 저자의 문헌을 2개 이상 참고한 경우:

Sohn, B. D. (2012a). *Social Welfare Policy*. Seoul: Hakjisa.

Sohn, B. D. (2012b). The Current Situation of Children's Rights Infringements. *Korean Crime*, 10(1), 231-256.

2) 국문 참고문헌의 경우

① 단행본:

손봉호 (1994). **고통받는 인간**.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② 정기간행물:

유재봉 (2016). 학교 인성교육의 문제점과 방향. **교육철학연구**, 38(3), 99-119.

③ 편저:

박준언 (2005). 이중 언어이론과 영어 교육. 황적륜 (편저). **현대 영어 교육의 이해와 전망** (pp. 270-295).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④ 석·박사 학위논문:

이광희 (2008). **대학생의 애착, 정서지능,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간의 구조적 관계**. 박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⑤ 연구보고서:

이혜영·김진숙·권지성 (2008). **미래학교 모형 탐색연구**. 한국교육개발원.

⑥ 인터넷 자료 및 신문기사:

00일보 2010. 3. 3일자 5면. "기사제목"

<http://www.dfes.gov.uk/achievingSUCCESS>. (검색일 2005.11.11)

⑦ 판례: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3다101425 판결

⑧ 같은 연도에 발행한 동일 저자의 문헌을 2개 이상 참고한 경우:

손병덕 (2012a). **사회복지정책론**. 서울: 학지사.

손병덕 (2012b). 아동의 권리침해현황. **한국범죄학**, 6(2), 157-184.

⑨ 번역서:

---

조흥식·정선욱·김진숙·권지성 역 (2005). **질적연구방법론**, Creswell, J. W. (1994).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서울 : 학지사.

10. 게재료 납부 : ‘게재가능’으로 통보받은 투고자는 게재료 40만원(연구비 지원의 경우는 50만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 제1저자가 전일제 대학원생이고, 연구비를 지원받지 않은 경우에는 기본 게재료를 25만원으로 한다.  
<계좌번호 : 국민은행 38720101-145158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기학연)>
11. 원고량은 편집 규격에 따른 편집된 매수로 원칙상 20쪽 이내로 하되, 최종 편집된 논문의 페이지를 기준으로 20쪽 이상의 초과한 경우에는 추가 조판비(한쪽당 1만원)를 부담해야 한다.
12. 원고 제출처 : 온라인투고심사시스템 홈페이지 <http://fs.jams.or.kr>  
문의전화: 02-3272-4967 (사무실)  
기독교학문연구회 편집위원장 이메일: [faithscholar@naver.com](mailto:faithscholar@naver.com)
13. 학회지는 매년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4차례 발간하며, 투고자는 발간 약 60일 전, 각호 투고 마감일(1월 31일, 4월 30일, 7월 31일, 10월 31일)까지 한글이나 MS 워드로 작성하여 직접 온라인투고심사시스템 홈페이지(<http://fs.jams.or.kr>)를 통해 신청접수 한다.
14. 논문의 본문 끝에는 두 줄을 띄워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이라고 표기한다.
15. 논문 투고 시 “논문투고 신청서”와 “저작권 양도 동의서”를 작성하고 “논문유사도 검사 결과”와 함께 첨부파일 난에 첨부한다.
16. 이 개정 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 기독교학문연구회 연구윤리 규정

2007년 7월 1일 제정

2016년 4월 1일 개정

2017년 7월 1일 개정

2022년 3월 15일 개정

###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항. 이 규정은 기독교학문연구회(이하 학회)의 모든 회원이 학술과 연구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마땅히 기독교인으로서 그리고 학자로서 준수해야 할 윤리적 원칙을 제시함으로써 학회와 기독교학자의 윤리의식을 고양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항. 이 규정은 학회 회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조사를 위한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학회 모든 회원에게 적용한다.

### 제2장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항들을 수행한다.

제1항. 연구윤리 확립에 관한 사항

제2항. 연구부정행위 조사에 관한 사항

제3항. 제보자와 피조사자 보호 및 위원회 활동에 대한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제4항. 조사결과처리와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제5항.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4조(구성)

제1항. 위원회는 편집위원을 포함하여 5-10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2항. 당연직인 위원장은 연구부회장이, 부위원장은 학술부회장과 편집위원장이 맡는다. 위원은 편집위원과 해당 연구윤리 심사에 적합한 학회 내외 인사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구성 및 활동이 필요한 경우 부위원장과 상의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

제3항. 위원장은 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편집위원을 포함한 학회 임원들 중에서 지명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제4항.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별도의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5항. 조사대상 연구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람은 위원으로 구성 또는 위촉될 수 없다.

#### 제5조(조사 및 회의)

제1항. 조사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된다. 단, 위원장은 조사 성립에 있어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제2항. 위원회에서 필요한 경우에 조사와 관련한 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항.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조사 외, 별도의 회의를 열 수 있고 그 의장이 된다.

제4항. 조사와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제6조(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제1항.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항. 피조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혐의 사실을 인정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제3항. 위원회는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멸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에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항. 위원회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해야 한다.

### 제3장 연구윤리 위반 조사

#### 제7조(부정행위 제보, 접수, 조사)

제1항. 제보자는 학회 사무국에 방문, 전화, 서면, 이메일 등으로 부정행위 의심자와 그 관련 내용과 증거를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해야 한다. 단, 익명으로 제보한 경우라도 구체적인 부정행위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서면과 이메일로 제보할 수 있다.

제2항. 논문과 함께 제출한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논문유사도검사(<https://check.kci.go.kr/>)에서 10% 이상 유사한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포괄적인 유사도 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제3항. 학회 사무국에 부정행위 제보가 들어오거나 포괄적인 유사도검증 결과 부정행위가 의심 될 경우, 사무국은 편집위원장과 연구윤리위원장에게 그 관련 사항을 <부정행위 제보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보고하고,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들에게 부정행위와 관련한 내용과 증거 자료를 원본 또는 사본으로 제출한다.

제4항. 해당 부정행위 조사를 위한 연구윤리위원회 구성 여부는 사무국의 보고가 있는 지 15일 이내 편집위원장이 주관하는 편집위원회를 개최하여 편집위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반에 따라 결정한다. 편집위원 과반 이상이 찬성하면 편집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장에게 연구윤리위원회 구성을 요청하며, 연구윤리위원장은 회장에게 보고한 후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에 착수한다. 편집위원 과반 미만이 찬성하면 제보는 반려되고 반려 이유를 서면으로 상세하게 작성하여 제보자에게 전달한다.

제5항.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특정인 및 연구 집단을 연구부정행위 대상으로 제보한 경우, 학회는 제보자에게 회원자격 박탈, 정지, 제한 또는 명예훼손죄를 비롯한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 제8조(용어)

제1항. “연구부정행위”란 연구를 제안, 수행, 발표하는 과정에서 연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행한 것을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8조 2항부터 8항까지를 말한다.

제2항. “위조”란 존재하지 않는 연구 자료나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항. “변조”란 연구자료, 연구과정, 연구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변경하거나 누락시켜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항. “표절”이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과정, 연구결과 등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연구에 사용한 것을 말한다. 또한 자신이 이미 게재한 연구를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게재하는 행위를 말한다(자기표절). 그리고 자신이 이전에 게재한 연구를 다른 학술지에 다시 게재한 경우를 말한다(이중게재).

제5항. “부당한 저자 표시”란 논문에 학술적 참여 또는 공헌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또한 논문에 학술적 참여 또는 공헌을 한 사람에게 그에 상응하는 저자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제6항. “저자 표시 누락”이란 논문에 논문저자 자격이 있음에도 누락시킨 행위를 말한다.

제7항. “이중 투고”란 동일한 연구를 우리 학회를 포함한 두 개 이상의 학회지에 투고하여 두 학회지 이상에서 게재 판정을 받고 우리 학회지에 게재를 포기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8항. “기타 연구부정행위”란 제8조 제2항부터 제7항 외 연구진실성을 심각하게 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9항. 학회 연구부정행위 규정 외에 더욱 세부적인 규정은 교육부 훈령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개정(2015. 11. 3)” 및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윤리 평가규정 및 사례(2015. 5월)”를 참조하고 따를 수 있다.

#### 제9조(출석 및 자료 제출 요구)

제1항. 위원회는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에게 위원회에서 진술하기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해야 한다.

제2항. 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 보전을 위하여 학회장의 승인을 얻어 해당 연구 자료를 압수, 보관할 수 있다.

#### 제10조(제보자 및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와 비밀엄수)

제1항. 위원회는 제보자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밝히거나 노출해서는 안 된다.

제2항.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어 공표하기 전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제3항. 위원회가 진행하는 조사의 일체 사항은 비밀이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모든 자들은 조사와 관련한 어떠한 정보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11조(기피, 제척)

제1항. 제보자 및 피조사자는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에게 검증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그 이유를 밝히고 해당 위원에 대한 검증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회 인원의 과반수 이상이 기피신청을 인정할 경우 해당 위원은 검증 과정에서 배제된다.

제2항. 위원장이 조사 과정 중에 위원 중 해당 조사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그 위원의 위원 자격이 정지할 수 있다.

**제12조(이의 제기 및 소명기회 보장)**

제1항. 위원회는 검증 과정에서 피조사자에게 이의 제기 및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제13조(판정)**

제1항. 위원회는 조사 내용과 피조사자의 이의 제기 또는 소명 내용을 종합하여 판정을 내린다.

제2항. 판정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4장 후속 조치****제14조(제재)**

제1항.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제재를 가하거나 이를 병과 할 수 있다.

- ① 해당 논문에 대해서 게재를 불허한다.
- ② 기 게재 논문의 경우 게재를 취소하고 관련 사실을 학회 홈페이지와 학술지에 공지한다.
- ③ 학회 회원 및 본 학회와 관련한 학술기관에 공지한다.
- ④ 경중에 따라 회원 자격을 1년에서 5년까지 정지, 영구적 박탈, 민형사상 법적 조치한다.
- ⑤ 기타 일정기간 투고금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단, 경미하거나 고의적이지 않은 실수 또는 기타 부적절한 행위는 주의, 경고, 공개사과 조치를 취한다.

**제15조(결과 통지)**

제1항.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제보자와 피조사자 등 관련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6조(재조사)**

제1항.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위원회에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명예회복)**

제1항. 조사결과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아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이 필요하다면 위원회는 이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8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제1항. 검증과 관련한 기록은 조사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5년 간 보관해야 한다.

제2항. 판정 결과는 학회 상임이사회에 보고 해야 하며, 제보자, 조사위원,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위원회의 결의로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부칙]**

제19조(시행일)

본 규정은 2022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기독교학문연구회

학 회 장	김태황 (명지대학교)	편 집 위 원 장	박해일 (경희대학교)
연구부학회장	고세일 (충남대학교)	편 집 위 원	권오병 (경희대학교)
학술부학회장	김지원 (백석대학교)		김동혁 (연세대학교)
기획부학회장	김철수 (조선대학교)		김성원 (서울신학대학교)
감 사	류현모 (서울대학교)		김철수 (조선대학교)
	이명헌 (인천대학교)		박원근 (이화여자대학교)
총 무	오민용 (서울대 법학연구소)		손화철 (한동대학교)
학 회 이 사	강영안 (Calvin College, 미국)		송재일 (명지대학교)
	김홍섭 (인천대학교)		신응철 (송실대학교)
	문석윤 (경희대학교)		안소영 (경상대학교)
	박신현 (고신대학교)		염동한 (부산대학교)
	박영주 (미드웨스턴신학교)		이은실 (한동대학교)
	서성록 (안동대학교)		임춘택 (제주대학교)
	손병덕 (총신대학교)		조은주 (고신대학교)
	양성만 (우석대학교)		허계형 (총신대학교)
	유재봉 (성규관대학교)		황혜원 (청주대학교)
	윤완철 (카이스트대학교)		
	이경직 (백석대학교)		
	장수영 (포항공과대학교)		
	조무성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조성표 (경북대학교)		
	최태연 (백석대학교)		
연구윤리위원장	고세일 (충남대학교)		
부연구윤리위원장	김지원 (백석대학교)		
	김철수 (조선대학교)		

# 신앙과 학문

제28권 제4호 (통권 98호), 2024년 3월호

발행일 2024년 3월 31일

발행처 기독교학문연구회

발행인 김태황 (명지대학교)

편집인 박해일 (경희대학교)

디자인 이지은

인쇄 (주) 에스제이퍼앤비

등록 141-81-36939

주소 06367 서울시 강남구 광평로56길 8-13, 910호

기독교학문연구회

전화 02-3272-4967

팩스 0303-0272-4967

전자우편 gihakyeon@gmail.com

홈페이지 <http://www.worldview.or.kr>

<http://fs.jams.or.kr>

ISSN 1226-9425

정가 15,000원